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 현대중국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구조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김 혜 진

# 현대중국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구조 연구

指導敎授 朴 正 九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年 5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金 諫 眞

金諫眞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年 7月

委 員 長 이강재 (印)

副委員長 이옥주 (印)

委 員 전기정 (印)

委 員 강병규 (印)

委 員 박정구 (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출현하는 다양한 문맥의 분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정성(definiteness)이라는 개념과 언어 표지의 불일치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를 통해 현대중국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적 영역을 구분하였다. 의미·화용적 기능과 특징을 토대로 지시 의미영역, 비지시 의미영역, 수량 의미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세 가지 의미영역은 부정관사의 문법화 측면에서 점진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의미·화용적 기능과 특징에 의해 세 가지 의미영역이 뚜렷하게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각 의미영역이 구분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분석하였다. 언어 환경이 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각 의미영역의 중의적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의적 해석을 통해 지시, 비지시, 수량의 세 의미 영역은 의미·화용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점진적인 문법화 과정에서 분화(divergence)되고 있는 의미 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세 의미영역 중 화용적 제약이 가장 많은 지시 의미영역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제약을 고찰하였다.

셋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을 고찰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차등적인 한정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고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 의미영역은 문맥적 해석에 의해 다양한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또한 비지시적 의미영역과 수량 의미영역도 담화 층위에서

정보적 지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나아가 화용적 주제성과 함께 통사적 주제 구조의 관찰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문적 관점에서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담화에 나타나는 정보적 지위를 통해 담화지시체의 층위를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두 구문의 호환 관계를 관측하였다. 둘째, 정보구조적 측면에서 각 구문에서 실현되는 초점 구조를 통해 두 구문의 변이문(allosentence) 관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정성 효과(DEs)가 두 구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담화지시체의 한정성 정도에 따른 화자의 선택경향성을 관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출현하는 다양한 문맥의 분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다. 비한정성에 대한 정의, 정보적 한정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중국어에 사용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정보적 지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닌 한정성의 정도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비한정명사구가 한정성과 문두성의 특징을 지닌 주제의 화용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주요어: 문두 비한정명사구, 비한정, 한정, 지시, 비지시, 부정관사, 문법화, 주제, 초점구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有-구문, 존현구문

학 번: 2014-30936

#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2 기존 연구 검토 ····· 7
1.2.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제약에 관한 연구 ····· 8
1.2.2 다른 구문과의 비교 연구 ····· 12
1.2.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에 관한 연구 ····· 16
1.2.4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에 관한 연구 ····· 19
1.3 연구 관점 및 방법 ····· 23
1.4 논의의 구성 ····· 24

제2장 비한정명사구의 개념 설정과 정보적 접근 ····· 26

2.1 비한정(indefinite) ····· 26
2.1.1 비한정의 정의 ····· 26
2.1.2 중국어의 비한정명사구 ····· 33
2.1.2.1 중국어의 비한정 표지 ····· 33
2.1.2.2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 ····· 36
2.2 비한정과 지시성(referentiality) ····· 43
2.3 한정성(definiteness)과 정보적 지위 ····· 51

2.3.1 형식적 한정성과 정보적 한정성 ····· 51
2.3.2 정보적 한정성의 기본틀 정립 ····· 55

제3장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 ····· 64

3.1 지시 의미영역 ····· 65
3.1.1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 ····· 68
3.1.1.1 주제도입성 ····· 69
3.1.1.2 단발성 ····· 71
3.1.2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유형 ····· 74
3.1.2.1 조응성 ····· 74
3.1.2.2 제외성 ····· 76
3.2 비지시 의미영역 ····· 78
3.3 수량 의미영역 ····· 90
3.4 소결 ····· 97

제4장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형성 기제와 제약 ····· 100

4.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형성 기제 ····· 101
4.1.1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술어 ····· 101
4.1.2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양태 ····· 111
4.1.3 의미영역 간의 중의성(ambiguity) ····· 122
4.1.4 가정적 문맥과 중의성 ····· 129
4.2 문두 비한정명사구 지시 영역의 화용적 층차와 제약 ····· 133
4.2.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성과 수용가능성 ····· 133
4.2.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과 문장 수용성 ····· 139
4.2.2.1 자동사와 타동사 ····· 140

4.2.2.2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referentiality) ····· 146
4.2.2.3. 시공간위치(spatio-temporal location) 요소 ····· 151
4.2.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과 문맥 경향성 ····· 153
4.2.3.1 동사에 따른 경향성 ····· 156
4.2.3.2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경향성 ····· 161
4.2.3.3 시공간위치 요소에 따른 경향성 ····· 163
4.3 소결 ····· 165

제5장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 ····· 169

5.1 주제성과 주어짐성(givenness) ····· 169
5.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 ····· 176
5.2.1 추론가능성과 정보적 지위의 분석틀 정립 ····· 176
5.2.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 ····· 182
5.2.2.1 담화-구정보 영역 ····· 182
5.2.2.1.1 청자-구정보 ····· 182
5.2.2.1.2 청자-신정보 ····· 187
5.2.2.1.3 추론가능성 ····· 189
5.2.2.2 담화-신정보 영역 ····· 195
5.2.2.2.1 청자-구정보 ····· 195
5.2.2.2.2 청자-신정보 ····· 198
5.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성과 통사적 주제 구조 ····· 199
5.3.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성 ····· 199
5.3.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통사적 주제 구조 ····· 209
5.3.2.1 좌분리(left dislocation) 구조 ····· 210
5.3.2.2 걸린 주제(hanging topic) 구조 ····· 214
5.3.2.3 주제화(topicalization) 구조 ····· 217

5.3.2.4 담화 층위에서의 주제 구조 출현 경향성 ····· 220
5.4 소결 ····· 224

제6장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 226

6.1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의미・통사적 관계 및 범위 설정 ····· 227
6.2 정보적 지위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 231
6.2.1 청자(hearer) 지위에 따른 호환가능성 ····· 232
6.2.2 동일한 정보 지위에서의 화용적 기능에 따른 변별성 ····· 236
6.3 초점 구조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 242
6.3.1. 초점 구조의 유형과 특징 ····· 242
6.3.2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초점 구조 ····· 247
6.3.2.1 논항초점 구조 ····· 247
6.3.2.2 서술어초점 구조 ····· 253
6.3.2.3 문장초점 구조 ····· 259
6.4 한정성 효과(DEs)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 263
6.5 소결 ····· 274

제7장 결론 ····· 277

【參考文獻】 ····· 283

【中文摘要】 ····· 294

# 〈표 차례〉


<표2-1> 한정과 비한정의 의미 자질 비교 ····· 32
<표2-2> 지시성의 중의성에 따른 용어 정리 ····· 48
<표2-3> 중국어의 문법적 범주와 지시성 관계 ····· 50
<표2-4> Prince(1992)의 정보적 지위 체계 ····· 59
<표3-1> 각 의미영역의 특징과 빈도 ····· 65
<표3-2> 지시 의미영역에서 문맥적 한정성 유무에 따른 빈도 ····· 67
<표3-3> 각 의미영역과 범주 별 출현 빈도 ····· 98
<표4-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 비지시 영역과 술어 공기양상 ····· 110
<표4-2> 지시성과 양태 ····· 112
<표4-3> 실현(realis)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술어의 표지양상 ····· 114
<표4-4>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각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장 내의 언어 환경 ····· 127
<표4-5> 지시 영역의 화용적 층차 구분 ····· 155
<표4-6>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의 출현 빈도 ····· 156
<표4-7>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 빈도 ····· 157
<표4-8> 언어 환경에 따른 지시적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수용도 ·· 167
<표4-9> 문맥적 위치성과 언어 환경에 따른 시공간위치 요소 공기 양상 ····· 168
<표5-1> Birner(2006)의 세 가지 추론가능 영역 분석 ····· 180
<표5-2> Birner(2006)에서 제시한 Prince(1992)의 수정된 정보적 지위 분석틀 ····· 181

<표5-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 구분 ····· 182
<표5-4> 담화-구정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추론방식과 특징 ····· 195
<표5-5>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 경향 ····· 223
<표5-6>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과 정보적 지위 분석 ····· 224
<표5-7> 각 의미영역에서 주제성 자질 판단 ····· 225
<표6-1> Huang(1987)의 有-존재문 유형 분류 ····· 229
<표6-2> Lambrecht(1994)의 초점 구조 ····· 243
<표6-3>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초점 구조 비교 ····· 275

# 〈그림 차례〉

<그림4-1> 가정 문맥에서 지시체의 지시성과 형태적 구분 ····· 133
<그림4-2>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의 비율 경향 ····· 157
<그림4-3> 각 의미범주에서 자동사의 빈도 경향 ····· 159
<그림4-4> 각 의미범주에서 타동사의 빈도 경향 ····· 159
<그림4-5> 각 의미범주에 따른 제시동사(이동・자세)의 비율 경향 ····· 161
<그림4-6> 각 의미범주에 따른 지시적 목적어 비율 경향 ····· 162
<그림4-7> 자동사에서 시공간위치 요소 출현 경향 ····· 163
<그림4-8>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에서 시공간위치 요소 출현 경향 ····· 164
<그림4-9> 각 의미영역이 교차하는 언어 환경 ····· 166
<그림5-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 출현 경향 ····· 220
<그림5-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 의미영역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 출현 경향 ····· 221
<그림6-1>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한 정보적 지위 ····· 236
<그림6-2>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수식어 글자 수 경향성 비교 ····· 269
<그림6-3>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수식어 문장성분 수 경향성 비교 ····· 271

# 제1장 서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정성(definiteness)이라는 개념과 한정성을 나타내는 언어의 형식적 장치와의 불일치를 밝히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어에서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1]의 의미적 범주와 체계를 세우고, 담화 상태에서 드러나는 비한정의 위계를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의 관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는 종종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하면 부자연스럽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학계에서도 비문법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2]

(1) a. * 一个人来了。
b. * 一位客人來了。

---

1) 본고의 연구대상인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분포적으로 술어에 전치하고 대부분 주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비한정명사구 주어'나 동사전치(preverbal) 명사구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가 주어는 물론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본고의 기본적인 가정과 견해에 의해 주어라는 용어를 피하고자 한다. 또한 동사에 전치하지만 의미 주어에 선행하여 통사적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동사전치 명사구라는 용어 또한 피하고자 한다. 대신 주제와 주어가 공유하는 자질인 문두성을 포괄할 수 있는 '문두(sentence initial)'라는 용어를 택하고자 한다. 이는 '문두'라는 개념을 비단 분포적 개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 문장, 담화 층위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2) 朱德熙(1981/2007:97)에서 인용.

(1a)는 비한정명사구 주어의 비문법성에 관한 전형적인 예이다. (1a)에서 '一个人'은 수량을 초점화하는 강세가 존재하지 않고, '一个人'의 '人'은 명사의 범주 체계에서 상위어(hyperonym)로 분류된다. 따라서 (1a)에서 '一个人'은 어휘화 과정을 통한 고정적인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의 명사를 하위어(hyponyme)로 바꾼 (1b) 역시 의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문법적인 예시로 분류되곤 한다.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은 크게 두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문장 내에서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을 높여줄 정보량에 관한 것이다. 명사구 자체의 정보량 증가, 혹은 술어부의 정보량 증가, 기타 부사어를 통한 문맥적 정보량 증가 등을 통해 비한정명사구 주어가 용인된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관점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문법적 측면에서 존재동사 '有'의 첨가이다. 구체적으로 '有'의 첨가는 통사적으로 문두에 위치하는 비한정명사구의 비전형성을 상쇄시킨다.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더한다는 의미적 해석에 의해서 문법 표지로 인식된다. 이러한 해석은 주어의 정보량 증가라는 언어 보편적 관점과 '有'표지의 용인가능성을 진단하는 원어민 화자의 직관을 통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연언어의 무수한 문맥 속에서 이러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2) a. "咳！这也是不得已而为之！" 一位客人说。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야!" 한 손님이 말했다.

b. 还没喊完，忽闻前面人声鼎沸，不久轰然巨响，一个女人跳楼了。
고함을 다 지르기도 전에 갑자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있어 굉음이 울려 퍼졌다. 한 여인이 투신했다.

c. 美帝国主义这种灭绝人性的罪行，必将激起越南人民更大的仇恨，他们一定要遭到越南人民更沉重的打击和惩罚。(附图片)一个美国人正在研究毒物的感染程度。
미제국주의의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는 반드시 베트남 인민들의 원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베트남 인민에게 더 심한 타격과 징

벌을 받을 것이다. (사진첨부) 한 미국인이 독극물의 감염 정도를 연구하고 있다.

d. 一天晚上，全家人学了≪纪念白求恩≫以后，我妈说："一个外国人到中国来治病，这个人的心眼可真好！"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纪念白求恩≫을 공부하고 나서 엄마가 말씀하셨다. "한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선량하다!"

(2a-d)는 모두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2a)와 (2b)에서 비한정명사구는 명사구와 술어부에서 비교적 낮은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두에 위치하고 있다. (2c)와 (2d)는 명사구와 술어부의 정보량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에 부합하지만 존재동사 '有'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낮은 정보량과 존재동사 '有'의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일까. 다음의 예를 보자.[3)]

(3) 叙述者只记住了影片中的一个镜头：一匹黑马吃苹果。
서술자는 영화 속 한 장면만을 기억했다. (장면 속) 검은 말 한 마리(는/가) 사과를 먹고 있다.

(3)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지닌 문장은 명사구와 술어부에 수식어, 부사어, 개사구, 보어 등의 수식성분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정보량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서 비한정명사구 '一匹黑馬'에 존재동사 '有'의 첨가 여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이 담고 있는 발화 상황과 해석에 의해 다양한 의미영역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현대중국어에서 비한정명사구가 문맥적 해석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세 가지 의미영역이다.

3) 왕하(2020:61)에서 인용.

(4) a. 一个女人赶着两头牛拉的车子，上面放着两桶汽油，远远地走向前来和他打招呼。
한 여자가 소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몰았다. 그 위에 휘발유 두 통을 놓아두고, 멀찌감치 다가와 그에게 인사를 하였다.

b. 一个女人应当有自卫的本领。
여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c. 一个女人带三个孩子怎么能拿走这些东西呢？
여자 한 명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어떻게 이런 물건들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4a-c)에서 비한정명사구 '一个女人'이 문두에 나타나고 있지만 문맥 속에서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내재적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4a)에서 '一个女人'은 문맥 속에서 지시체를 상정해낼 수 있고, 개체로 해석되고 있다. 비록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청자(독자)에게 미지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만, '어떤 여인'은 문맥 속에서 구체적인 지시체로 형상화되며 특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지시적(referential)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4b)에서 '一个女人'은 개체화된 지시체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속성적(attributive)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속성적 해석에서 '一个女人'은 비록 一CL(一量)[4]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단수와 복수를 모두 상정해낼 수 있다. 따라서 속성적 해석에서는 궁극적으로 수량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c)에서 '一个女人'은 수량 '하나'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고, 수량이 언제나 초점영역 내에 있다. 따라서 (4c)에서 '一个'는 문맥에 따라 강세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4a, b)와는 달리 강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의미영역으로

4) 분류사(classsifiers: CL)는 유형론적 관점의 용어로 중국학계에서 사용하는 개체양사에 해당한다. Allan(1977), Aikhenvald(2000)는 분류사의 특성에 따라 언어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중국어는 수분류사(numeral classifiers)를 갖는 언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유형론적 측면의 분석을 위해 '분류사(classsifiers: CL)'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CL'로 표기하고자 한다. 중국학계의 관용적인 용어인 양사(量词)는 병기하였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중국어 분류사에 대한 통시적 분석과 특징에 관해서는 박정구(2012)를 참고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4c)의 ‘一个女人’에서는 一CL(一量)의 원형적인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분화는 지금까지 각각 독립된 의미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부정관사의 문법화라는 유형론적 관점에 의해 비한정명사구를 고찰한다면 더 넓은 관점으로 세 영역이 지닌 의미의 연속성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명사구를 만드는 부정관사는 대부분 수사 ‘하나’에서 문법화되었다. ‘하나’는 존재를 전제하는 제일 기본적인 수량이므로 실체를 지칭하는데 적합하고, 문법화가 심화될수록 덜 지시적인 지시체를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어의 부정관사 역할을 담당하는 一CL(一量) 역시 이러한 문법화 과정을 겪어왔고, 문법화의 결과는 공시적인 언어자료의 다양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언어현상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찾을 수 있는 중의성(ambiguity)이다. 이러한 의미 영역 간의 중의성은 부정관사의 연속적인 문법화 과정을 추론 가능하게 한다.

(5) a. 一本书好几个人轮流看。
책 한 권/책을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읽는다.

b. 在 4 月 12 日的≪北京晚报≫上，有一条报道乒乓球运动员生活的消息，其中有个小标题是“≪红岩≫热”，说≪红岩≫最受欢迎，一本书好几个人轮流看。
4 월 12 일자 ≪北京晚报≫에는 탁구선수 생활 소식을 전했는데, 그중 한 소제목이 ≪红岩≫이었다. ≪红岩≫이 가장 인기가 있어, (이)책 한 권을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읽었다.

(5a)의 일차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에서 ‘一本书’는 ‘一本’이 초점 영역 내에 존재하며 수량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5a)의 ‘一本书’는 실체를 개별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속성적 해석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문장 속의 ‘一本书’는 (5b)의 문맥 속에서 의미 영역이 변경될 수 있다. (5b)의 문맥에서 ‘一本书’는 ‘하나’라는 수량적 해석이 가능함과 동시에 ‘一本

书'의 실체인 ≪红岩≫에 의해 조응적으로 해석되어 실체를 지시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문장에서 비한정명사구의 해석적 층차는 의미의 함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는 문맥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문맥 속에서 발견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분석 범위를 문장 단위에서 담화 문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상기의 언어 현상들을 통해 공시적으로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측면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목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영역의 구분이다. 부정관사 문법화에 따른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영역을 구분하고, 의미·화용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한정명사구에서 발현되는 의미 영역이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 과정에 따른 점진적 측면과 공시적으로 의미·화용적 특징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분절적 측면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항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영역이 구분되는 언어 환경과 언어 제약이다. 언어는 인간의 인지를 투영한다는 점에서 범언어성을 띠고 있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영역을 결정하는 언어 환경을 언어 보편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대중국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 제약을 통해 개별언어가 지닌 특수성을 함께 고찰하도록 한다.

세 번째 사항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이다.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서 의미의 가변성과 중의성을 통해 상이한 정보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통사적 주제 구조와 문맥 속에서 발현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낮은 정보량 혹은 신정보로 규정되기 때문에 주제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有-구문과의 비교이다. 有-구문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용되는 구문과 명제적 의미가 동일하다. 그러나 두 구문이 발현될 수 있는 문맥은

동일하지 않다. 언어 사용 측면에서 화자가 두 구문을 상황에 따라 변별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문간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특징을 구분해내고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기존 연구 검토

지금까지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는 비한정명사주어문(无定名词主语句), 비한정주어문(无定主语句) 등으로 불려왔다. 주어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의미적 기능으로 인해 비전형적인 범주로 분류된다.[5] 주어의 비전형성에서 비한정명사구는 한정명사구보다 유표적이며 많은 제약을 지닌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전형성은 비한정명사주어문(无定名词主语句), 비한정주어문(无定主语句)이 특수한 구문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기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통사, 의미, 화용의 다양한 측면과 공시・통시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다룬 논저들을 구분해볼 수 있다.[6] 여기서는 주요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관점 중 우리의 논의에 가장 중심이 되는 연구와 논의

---

5) Chen(2004:1168)은 기존연구(Chao1968, Li & Thompson 1975,1981, Sun & Givon 1985, Chen1986, Li 1986, Huang 1987, LaPolla 1995, Shen 1999)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 definiteness-inclined positions in Chinese: | indefiniteness-inclined positions in Chinese: |
|---|---|
| -subject | -object of the presentative verb ‘you’ |
| -‘ba’ object | -postverbal NP in presentative sentences |
| -preverbal object | -postverbal NP in existential sentences |
| -first object of ditransitive sentence | -second object of ditransitive sentences |

6)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통사・화용적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은 왕하(2020)를 참고할 수 있다.

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이 되는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논의에 따른 주요 연구들을 분석하며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1.2.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첫 번째 논의는,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에 관한 연구이며 지금까지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관한 연구 중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한 논지는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출현하여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비한정성을 상쇄할만한 정보적 요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초기연구는 范继淹(1985)으로, 그는 비한정명사구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견해를 재고하여 동사 앞에서 다양한 분포로 출현할 수 있는 비한정명사구를 고찰하였다.[7] 그의 연구에서는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분포를 용인가능하게 하는 언어 환경을 고찰하였다.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 의성어 등의 기타 성분이 비한정명사구에 선행할 수 있고, 자동사가 오는 경우 술어에 보충적인 성분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출현하는 현상을 묘사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출현하는 현상이 다양한 제약을 지닐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관한 范继淹(1985)의 효시적인 연구는 비한정명사구의 정보량과 제약 조건과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주요하게 内田 庆市(1993), 讃井 唯允(1993), Xu(1997), 王灿龙(2003), 曹秀玲(2005), 魏红・储泽祥(2007), 雷桂林(2008), 陆炼・藩海华(2009), 刘安春(2003), 周思佳・陈振宇(2013)등의 연구가 있다.

内田 庆市(1993)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언어 환경에서 시간사, 감탄사, 의성사 등이 함께 오거나 다른 동작, 행위가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술어는 구조가 비교적 복잡해야 하는데, 비교적 결과보어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

7) 范继淹(1985)은 명사 앞에 수량사만 있는 경우,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부가된 경우, 수량사 앞에 수식어가 부가된 경우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식어 형태를 분류하였다.

은 맥락에서 讚井 唯允(1993)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용 가능해지기 위해서 화용적 구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화용적 구체성은 명사의 범주에서 상위어보다 하위어로 갈수록, 수식어가 많아질수록 강해진다고 하였다. 예컨대 '一个人'보다 '一个姑娘'이, '一个姑娘'보다 '一个很漂亮的姑娘'이 구체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구체성이 강할수록 문장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은 존재확립 효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존재확립 효과는 지시체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존재확립 효과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언어 환경은 결과보어 등을 통한 장소 명시, 혹은 문맥에서 발현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표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타 보어나 개사구 등을 통해 술어의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존재확립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Xu(1997)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존재동사 '有'의 첨가 없이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一个人来了。'는 어색한 문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늘어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 조건 | 예시 |
|---|---|
| 1. 명사를 하의어(hyponyms) 로 교체 | ？？ 一个学生来了。 |
| 2. 한정어(modifiers)를 더하거나 늘리기. | ？一个三年级学生来了。<br>？一个高高的，瘦瘦的学生来了。 |
| 3. 술어 VP 를 늘리기 | ？一个学生来看你。 |
| 4. 주어의 앞에 시간사, 장소사 등을 첨가하여 주어를 제한하기 | 昨天下午三点钟一个学生来看你。 |
| 5. 그 문장이 발화되는 문맥 부여하기 | 你昨天下午哪里去了？一个学生来看你。 |

Xu(1997)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위의 조건을 따라 비교적 연속적인 수용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이러한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하였다. Xu(1997)에서 제시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제약 조건의 층차는 비록 평면적이고 직관적인 분석일 수 있으나

정보량에 대한 연속적인 수용도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 조건을 화용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王灿龙(2003)은 Xu(1997)의 분석에서 나아가 정보량에 관여하는 제약 조건을 입체화시켜 교차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王灿龙(2003)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을 한정성 제약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개체화되기 위해 한정성에 근접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의 길이에 따라 담화지시체의 접근가능성(可及度, accessibility)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요소의 정보량에 따라 '단순'과 '복잡'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8] 그러나 분석에 상응하는 합당한 언어 예시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론적 해석에서 기인한 결과의 도출이라고 여겨진다. 요컨대 정보량에 따른 한정성의 극대화라는 일반적 해석에서 단순 수식어와 단순 술어의 결합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극명한 제약이라고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 단순 수식어와 단순 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자연언어의 수많은 예외적인 상황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王灿龙(2003)의 분석은 언어 요소들의 상호 긴밀성을 인정하여 교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에 많은 연구들에서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의 정보량을 교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와 시각이 나타났다. 특히 언어 자료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경향성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周思佳·陈振宇(2013)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 조건을 수식어와 술어의 성분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수용도를 수치화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

8) 王灿龙(2003)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 조건을 간단 술어와 복잡 술어, 간단 명사구, 복잡 명사구로 나누어 교차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었다.

| | 简单谓语结构 | 复杂谓语结构 |
|---|---|---|
| 简单无定短语 | - | + |
| 复杂无定短语 | (+) | + |

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실제 담화에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정보량과 극단적으로 높은 정보량은 피하고 적정량의 정보량을 유지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에 따른 수치화 과정에서 문맥을 삭제한 독립된 문장을 통해 수용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언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령 '一位绅士走了进来。'는 명사구에 수식어도 없고, 동사의 종류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周思佳・陈振宇(2013)의 분석에서 낮은 정보량으로 수치화될 수 있지만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된다.

이 밖에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에 대한 분석은 刘琪(2014)에서 이어지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유생이고, 수식어가 많을수록 식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술어에 나타나는 시간, 공간 등의 배경 정보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박다래(2014)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의 정도를 강(强), 중(中), 약(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수식어와 술어의 정보량에 의한 판단을 통해 기존견해와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연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지기 위한 정보량에서는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 성분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량을 높이는 두 요소 중에서 술어의 정보량에 중점을 두거나 술어의 정보량이 더 큰 제약을 발휘한다는 의견도 있다. 刘安春(2003)은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시간 참조점에 관련된 서술을 통해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간과 관련된 '正在……的时候, 这时, 恰好, 突然, 就在, 刚要' 등의 부사어가 자주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관점은 张伯江(2009)에서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曹秀玲(2005)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되는 조건에서 특히 술어의 정보량 증가에 주목하였다. 그는 부사어, 보어, 기타 표지를 통한 복잡한 술어는 술어의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술어의 구체화를 통해 문장의 정보량이 높아질 수 있고, 지시체의 확인가능성이 높아져 지시적 기능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魏红・储泽祥(2007)도 실현에 나타

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술어성분이 늘어날수록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雷桂林(2008)은 술어의 묘사적 성격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태문에 사용될 수 있는데, 사태문에서 묘사성 부사어와 묘사성 보어를 통해 비한정명사구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특히 묘사성 보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孔凡莲(2017)은 자연언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수식어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수식어의 역할보다 술어가 문두 비한정명사구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술어는 특히 자동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자동사와 타동사에 관계없이 맨동사(bare verb)로는 수용도가 낮고, '了, 着, 过'와 같은 상표지만으로도 수용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의 성분이 상호 보완적이거나 술어의 성분이 정보량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언어의 수많은 문맥에서는 여전히 명사구의 수식어가 없거나 혹은 짧은 술어, 특히 맨동사에 의해 실현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존재한다. 이로써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장 독립적 측면이 아닌 담화 층위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1.2.2 다른 구문과의 비교 연구

두 번째 주요한 논의는, 구문적 관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다른 구문과의 비교연구이다. 비교 구문은 주로 有-구문과 존현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정보량에 관계없이 동사 앞에 출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有'의 첨가를 들고 있다. Teng(1975)에서는 존재연산자를 사용하면 비한정명사구를 동사 앞에 놓을 수 있는데, 중국어의 존재연산자는 바로 '有'라고 하였다. 朱德熙(1981/2007) 역시 비한정명사구가 주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有'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那位客人来了。'는 가능하지만 '一位客人来了。'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원어민 화자의 직관과 주어의 한정성이라는 의미론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有一位客人来了。'와 같이 문두에 '有'가 오면 '一位客人'이 주어에서 '有'의 목적어(宾语)로 바뀌게 되고, 주어는 이미 알고 있는 확정적인 사물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一位客人'은 의미상으로 실질적인 (논리)주어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의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有-구문과의 비교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중심으로 비교되는 有-구문과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화용적 층위의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范继淹(1985)에서는 한 문맥에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사용이 혼용되는 언어 자료를 토대로 두 구문의 선택은 단순히 문체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사용자의 선택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에 대한 화자(작가)의 선택은 특정한 화용적 의미로 분석되기도 한다. 讚井 唯允(1993)은 '有'자가 없으면 화자가 청자를 담화 속으로 불러오는 작용을 한다고 묘사하였다. 따라서 讚井 唯允(1993)의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존재확립 효과에 관여하는 언어 환경에 의해 진술자인 화자가 사건을 목도하는 목격자 신분으로 진술을 이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이야기의 현장성을 부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有-구문은 현장 목격성과 같은 화용적 기능이 사라지고 독자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화용적 해석에 관한 관점에서 Wu(1998)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돌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장면을 묘사할 경우에 사용되지만 有-구문에는 이러한 화용적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백은희(2006)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NP+V구조로, 有-구문을 V+NP구조로 분석하였다. 주어의 위치에 있는 비한정명사구는 행위자의 의식적이거나 의지에 의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NP+V구조에 해당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반면 V+NP구조에 해당하는 有-구문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지시하는 새로운 대상의 존재를 언급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명제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9] 어순에 따른 통사적 차등은 화용적 의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하였다. 요컨대,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을

제시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돌발성을 나타내며 묘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有-구문에서는 이러한 화용적 의미가 사라진다. 백은희(2006)의 분석에서는 어순에 따른 고유한 화용적 의미를 통해 각 형식의 독립된 구문적 지위를 추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두 구문의 비교는 문체나 담화 기능과 같은 담화 맥락 층위의 분석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曹秀玲(2005)은 담화 기능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담화주제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제 전환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담화를 시작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와 상반되는 의견도 존재한다. 方梅(2019)에서는 현장성, 목격성이라는 화용적 해석에서 나아가 담화 층위의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有-구문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제지속성이라고 하였다. 담화 내에서 주제지속성이 있을 경우 有-구문이 선호되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약주제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두 구문이 담화 층위에서 문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刘琪(2014)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보다 구성 성분이 간결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신문 보도문에 자주 등장한다고 하였다. 王红旗(2014)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현장 목격성과 관련하여 정론어체, 기사체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비교 연구는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 정도에 의해 분석되기도 한다. Huang(1987)에서는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s)의 한 종류로 有-구문을 설명하였는데, 有-구문을 통해 비한정명사구가 한정성 효과(DEs)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Shi(1989:248)는 분포에 따른 한정성 위계를 설명하며 주어에 비한정명사구가 오는 것은 경향성 위계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약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가 문

9) 백은희(2006)에서는 이를 [V 有] [O NP] ‖ [S ∅ ] [VP] 로 분석하였다.

두에 오게 되면 '有(dummy verb)'의 수식을 받아 동사에 후치하는 분포로 변하게 되어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10]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张新华(2007)는 '有'가 동사에서 약한정표지(弱有定标记)로 문법화하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有'는 비한정명사구 앞에서 일정한 한정성을 제공해주고 주제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의 분석에서는 비교의 관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없다. 다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한정성을 높여주는 연산자 '有'가 없기 때문에 한정성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관점에서 有-구문과 함께 존현문도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된다. 内田 庆市(1993)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존현문의 한 부류로 분석하였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존현문이 지닌 화용적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존현문은 주관적인 색체와 직접 목도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상황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보도문, 소설, 희곡 등의 시작부분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하였다. 刘安春(2003)은 内田 庆市(1993)의 분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다. 두 구문의 관계는 청자의 시각이 아닌 담화에 도입되는 기능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존현문은 새로 출현한 배역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역은 공간에 안착되어 있는 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 지시체의 위치가 파악된다는 것이다.

张伯江(2009)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특징을 有-구문과 존현문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단순성, 단발적 신정보(偶现新信息, incidental new information)를 나타내어 주제지속성이 없지만, 有-구문의 비한정명사구는 '有'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사건참여자의 기능이 문두 비한정명사구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有-구문은 문맥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든 나타날 수 있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문맥 앞에

10) Li(1996)는 원어민의 직관적 분석에 의거하여 '有'는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위치하기 위한 절대적인 표지는 아닐 수 있음을 기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나 분석은 없다.

위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존현문도 공간 관계를 통하여 개체(entity)의 존재와 출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간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개념이 더 강하므로 줄거리의 전환 기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李劲荣(2016)에서는 분포상의 관점에서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출현하는 현상과 문미에 출현하는 현상을 고찰하였는데,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출현하는 것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 해당하고, 문미에 출현하는 것은 존현문에 해당한다. 그에 따르면 존현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의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이례적인 현상에 사용되고, 의도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석과 달리 비의도성을 지닌 '身上盖着一个毯子。'와 같은 문장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인 '一个毯子改在身上。'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분류를 위한 일상적(惯常), 이례적 현상(异常)이라는 의미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분석에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구문간의 비교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화용적 의미는 현장성, 목격성, 의외성 등이다. 화용적 기능은 담화 문맥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 연구의 결론이 자연언어의 수많은 문맥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귀납할 수 없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비교 구문들의 명제적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화용적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로써 다양한 관점을 통해 구문 간의 교차되는 화용적 기능과 영역을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구문간의 비교는 물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독립적인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1.2.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관한 연구는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이고 특정적인 의미에서 논의된다. 이는 지시적인 의미 영역의 빈도가 월등히 높기도 하고, 지시적인 의미 영역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 조건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인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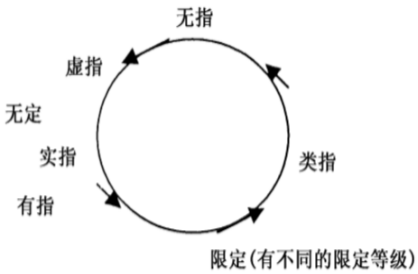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영역을 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曹秀玲(2005)은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지시적 의미와 비지시적 의미로 나누어 각각 사건형과 사태형으로 구분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사건형에서 지시적 의미로 해석되며 술어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된다고 하였고, 사태형에서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며 주로 양태사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지칭의 영역에서 수량적 의미가 중의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수량적 의미가 발현될 수 있음을 관측한 바 있다.

张新华(2007)에서는 명사구의 기본적인 의미 영역에서부터 출발한다. 한정과 비한정의 구분에서 한정은 이미 식별 가능한 개체이고, 비한정은 식별 가능하지 않은 개체이지만 한정성 등급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어진 개념임을 강조하였다.[11] 예컨대 강(强)한정은 인칭대명사(예: 我, 你, 他), 지시대명사(예: 这, 那), 고유명사, 맨명사로 분류하였고, 중(中)한정은 수식어가 있는 명사구(예: 闻讯赶来的考古学家们, 杀害史密斯的凶手)로 분류하였다. 약(弱)한정은 '어떤 NP'를 나타내는 것으로 '我中学的一个同学', '一个我中学的同学', '有一个人'과 같이 주로 수량구에 의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약(弱)한정에 가까운 비한정명사구는 다시 개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지(实指)와 모호한 허지(虚指)로 이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

11) 张新华(2007)에서는 명사구의 연속적인 의미체계를 원형적 선형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张新华(2007)의 지칭체계에 관한 원형모형을 참고하면 실지(实指)와 한정(有定)이 원의 한 부분에서 연속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비한정(无定)과 한정(有定)의 접점을 통해 의미적 연속성과 한정성의 정도성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张新华(2007)는 의미체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개념을 통해 구분하였다. 현실성에서는 개체가 현실세계에 들어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我在看书。'와 같은 표현이 현실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비현실성에서는 현실세계와 관련 없기 때문에 시공간이 설정될 필요가 없고 '我会认真看书。'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魏红・储泽祥(2007)의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현실성에서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비현실성에서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도 비실현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경험적 자료에 의해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一个人一把椅子'와 같이 수량적 의미가 뚜렷한 해석을 비지시적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陆烁・潘海华(2009)에서는 의미 영역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간단판단문(简单判断句), 총칭문(通指句), 분배문(分配句)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간단판단문(简单判断句)은 간단한 판단을 나타내는 명제로 명사구가 핵심 영역으로 들어가 존재연산자의 제약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今天上午, 一个警察来找过你。'라는 문장은 '在今天上午这个情况里'라는 존재연산자의 설정을 통해 '一个警察来找过你'라는 사건의 존재를 결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단판단문(简单判断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표현되는 지시체는 지시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해석이다. 총칭문(通指句)에서는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된 지시체가 속성적으로 해석되어 구문을 이루는 명제가 총칭적으로 해석되므로 총칭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분배문(分配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수량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一个人搬两捆。'과 같은 문장에서는 명제의 분배적인 의미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수량적 의미가 나타내며, 수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수량을 생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분배문(分配句)을 총칭문(通指句)과 구분하였다. 이는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영역에서 수량의 의미를 분리해낸다는 점은 문법화의 관점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陆烁・潘海华

(2009)의 분류에서 수량의 의미에 초점이 있어 수량적 의미가 뚜렷하게 발현되는 예시들도 총칭문(通指句)으로 분류한다는 점[12]을 통해 화용적 기능과 의미를 통한 뚜렷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수량 의미가 모두 분배문(分配句)에 의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왕하(2020)는 비한정명사구의 의미를 크게 특정과 불특정으로 나누었다. 단상화(grounding)이론을 통해 특정과 불특정으로 해석되는 비한정명사구의 언어환경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불특정에서는 총칭적 의미와 단일 의미의 불특정으로 세분하였다. 왕하(2020)에서는 수량적 의미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一CL(一量)을 생략할 수 있는 총칭적 의미에서 一CL(一量)을 생략할 수 없는 사례들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나타나는 의미 영역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분화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단순한 현상에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형론적 측면에서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를 통한 각 의미 영역의 점진적인 변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 각 의미를 분화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고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1.2.4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요 논의는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에 관한 것이다.

---

12) 陆烁・潘海华(2009)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총칭문(通指句)으로 보고 있지만, '一个步兵', '三个步兵'는 모두 수량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수량구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총칭문(通指句)과 의미적, 통사적 층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前线是最危险的地方。只派一个步兵去侦查敌情是很危险的。(一般来说,)三个步兵就可以去前线侦察敌情。
전선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한 명의 보병/보병 한 명만 파견하여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통) 세 명의 보병이 전선으로 파견되어 적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Tsao(1977/1995:86-87)는 一CLN(一量名)은 일반적으로 비한정 성분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비슷한 관점은 徐烈炯・刘丹青(2007), 张新华(2007), 陆烁・潘海华(2009), 刘丹青(2016) 등에서도 보이고 있다. 또한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관한 논의는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주어와 달리 주제는 대하여성(aboutness)과 관련된 화용적 층위의 개념이다. 낮은 정보량으로 인해 담화 속에서 신정보로 규정되는 비한정명사구는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언어 보편적 해석이다. 백은희(2006)에서는 비한정명사구를 논리관계에서 일반판단(thetic judgment)으로 분석하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문장초점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张新华(2007), 熊仲儒(2008), 付义琴(2013), 周士宏・申莉(2016), 孔凡莲(2017)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에서 문장층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가 지닌 화용적인 역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정성이라는 의미적 기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는 비록 '문두성'이라는 점에서 주제와 동일한 분포를 갖지만 의미적 요건을 충당할 수 없기에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은 담화 층위에서도 논의된다.

王灿龙(2003)에서는 시발문(始发句)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주제표현이 독립된 개체가 아닌 사건에 더 가깝지만 후행 담화에서는 모두 시발문(始发句)에서 묘사한 사건을 중심으로 담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지시체가 정보적으로 신정보로 해석된다는 관점에서 담화 층위의 분석을 통한 또 다른 분석과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王灿龙(2003)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한정명사구는 단발적 정보(trivial information)로 해석되기 때문에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전경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초점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张新华(2007)는 명사구의 종류에 의해 주제문과 비주제문 사이의 층차를 설정하였는데,[13]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비주제문에 가깝기 때문에 오직 문장 전체가 정보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怎么了？', '发生了什么？'라는 물음

에 대한 대답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결국 그의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비한정명사구는 주제가 될 수 없고,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劲荣(2016)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미에 위치하는 비한정명사구와 달리 술어초점이 불가하고 오직 문장초점에 의해 정보구조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지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반면 담화적 층위에서 지시체의 정보적 지위를 통해 주제성을 관측한 연구도 있다. 方梅(2019)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기능은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이지만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는 문맥에서 연상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개념적 특징은 주제에 속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曹秀玲(2005)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새로 도입된 담화 지시체에 대한 후행담화의 설명이 이어진다고 하였는데, 같은 맥락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새로운 주제의 도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비한정명사구가 담화 층위에서 특정성을 얻게 되는 것을 비한정에서 한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기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담화적 환경에서 비한정명사구는 비록 주제가 아니더라도 주어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주제로 들어가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맥이 새

---

13) 张新华(2007)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통해 주제문(主题句)과 비주제문(非主题句)의 층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맥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정보구조와 형식관의 불일치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문(主题句)**

a. 纽约去北京了。
b. 问讯赶来的科学家立即展开了考察活动。
c. 村里来了几个陌生人。
d. 我的两个同学来了。
e. 有一个人很聪明。
f. 有人来了。
g. 一辆黑色小轿车飞驰而来。
h. 阳光灿烂。

**비주제문(非主题句)**

로 시작되는 상황이나 이야기가 환기되는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은 주어짐성(givenness)에 의한 주제의 정의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화자의 의도에 의해 담화 속의 주제로 머문다는 점에서 주제로 승격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은 일반적으로 정보적 지위와 주어짐성에 대한 측면에서 지시적 의미에서 논의되어 왔고, 주된 의견에 의하면 지시적 의미의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지시적 의미의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로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徐烈炯・刘丹青(1998/2007)은 Tsao(1977)와 Li & Thompson(1981/2013)에서 주제는 비한정성분이 안 된다는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상해 방언에서는 비한정성분이 주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때 지시적 의미와 비지시적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다.[14] 반면 표준중국어에서는 비지시적 의미가 총칭적 해석에 의해서만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刘丹青(2016)에서는 주제와 주어의 개념을 분리하였는데, 지시적 의미의 비한정명사구는 비록 주어이지만 주제가 될 수 없고, 비지시성의 총칭적 해석일 때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제표지 첨가 등의 형식적 근거를 통해 측정하였다. 张新华(2007)도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주제로 인식되는 것은 총칭적 해석으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陆烁・潘海华(2009)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단순판단문(简单判断句)에서는 주어가 주제가 아니지만, 총칭구문(通指句)에서는 총칭성(通

14) 徐烈炯・刘丹青(1998:146)에서는 상해어의 수량구(NNP), 양명구(CNP), 지시사구(DNP)는 모두 주어의 분포에서 주제로 기능할 수 있고 특히 수사가 '하나' 일 때 이러한 현상이 부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서는 문맥을 배제하고 현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짐성과 같은 정보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고 표준중국어와는 구조에 따른 분포의 차등밖에 구분해낼 수 없었다. 다음은 徐烈炯・刘丹青(1998:146)에서 제시한 문장이다.
a. 一封信我已经看过勒。
b. 辩封信我已经看过勒。
c. 封信我已经看过勒。

常性), 일반적 속성(一般性属性)이라는 해석에 의해 주어가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王羽熙(2017)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총칭적 의미로 해석될 때 주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주제표지, 휴지와 같은 형식적 측면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일견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은 술어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대한 관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 해석에서는 주제로 기능하지 않지만 비지시적 해석에서는 주제로 인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주목했듯이, 주제의 기본적인 자질이 문맥적 환경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제가 갖는 한정성을 정보적 측면에서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 1.3 연구 관점 및 방법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과 관점을 제시한다.

(6) 본고의 주요 연구 방법과 관점
가. 공시적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나. 말뭉치에 기반하여 언어 현상을 묘사하고 귀납한다.
다. 담화구성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라. 언어 변화에 있어 유형론적 관점을 통해 언어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
마.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화용론적 분석 방식을 택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인 화용론은 인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언어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언어 사용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화참여자가 구성한 특정한 담화 체계 내에서 변별적인 의미를 발현한다는 점에서 인간 인

지의 발현과 언어의 능동성을 강조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화용론적 연구의 근원을 이루는 착상은 원어민 화자조차도 설명해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모국어 화자는 직관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된 범위의 교육문법, 혹은 표준문법이 제시하는 정형화된 문법 체계는 수많은 언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용론적 측면에서 언어 연구는 외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학습자에게 해설적 교학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원어민에 근접한 언어적 직관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근원적인 관점이자 방법론인 화용론적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분석대상은 자연언어에 맞춰져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언어 자료는 기본적으로 코퍼스 BCC(http://bcc.blcu.edu.cn/)에서 추출하였고, 기타 선행연구, 저서 등에서 발췌한 예문의 출처는 본문에 명시하여 기술하였으나 필요시 각주를 통해 표기하였다. 또한 관측을 위해 설정된 문장은 원어민 화자에 의해 실제 담화에서 포착되는 '자연언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공언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가공언어에 대한 관측 방식은 1차로 한중 번역이 가능한 중국어 원어민 화자를 통해 제시된 한국어 문장을 가장 적합한 중국어 문장으로 변환하고, 2차로 다른 원어민 화자에게 수용도를 검증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목적을 밝히고, 주요 논의별로 개략적인 연구사와 관점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본고의 연구 방법과 관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큰 틀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도입하고 설명한다. 주로 한정과의 비교를 통해 비한정의 개념적 정의를 설정하고, 유형론적 측면에서 현대중국어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의 비한정명사구에서 발현될 수 있는 의미적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한

정성과 지시성의 상관성을 통해 비한정에 나타날 수 있는 지시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한정성과 정보적 한정성의 구분을 통해 담화지시체의 분석관점을 설정한다. 나아가 담화지시체를 평가하는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구분에 적합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를 통한 의미 분화를 토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요한 의미 영역을 수량적 의미, 지시적 의미, 비지시적 의미로 구분한다. 나아가 각 영역이 분절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분화가 나타나는 언어 환경을 관측하여 언어보편적 특성과 개별 언어에서 발현될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을 관측하고자 한다. 또한 공시적 자료에 의해 발견되는 각 의미 영역의 중의적인 현상을 살펴보고 각 언어현상이 교차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 의미 영역 중에서 비교적 제약이 뚜렷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의 언어 환경과 제약을 살펴보고, 담화 층위에서의 경향성을 관측한다.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의미범주를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고찰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발현하는 담화지시체의 정보적 지위를 고찰하기 위해 선행이론을 토대로 분석틀을 정립하고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각 의미영역을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또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위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적 지위를 통해 화용적 주제성을 가늠해보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통사적 주제 구조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통사적 주제성을 평가한다.

제6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구분한다. 이를 위해 각 구문이 발현될 수 있는 정보적 지위와 초점 구조, 한정성 효과와 같은 화용적 측면의 분석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7장은 본고의 핵심적인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제2장 비한정명사구의 개념 설정과 정보적 접근

## 2.1 비한정(indefinite)

### 2.1.1 비한정의 정의

한정성(definiteness)에 대한 논의는 논리철학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과 정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정성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대신 한정성을 정의하는 두 가지 시각을 통해 한정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하나는 한정과 비한정의 이분법적 구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도성을 전제한 척도를 통한 해석이다. 한정성을 구분하는 두 가지 관점과 정의는 모두 한정성의 개념적 의미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분법적 시각에서 한정과 대립적 관계로 인식되는 비한정은 형식 외에 어떠한 의미적 자질에서 구분될 수 있을까. 한정과 비한정이 구분되는 의미적 자질은 분명하게 특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대로 두 영역을 구분하는 개별적인 자질 외에 서로 공유하는 자질이 있다는 점에서 두 영역의 관계는 교차적이다. 따라서 비한정의 의미적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정과 비한정의 개념 정의와 자질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한정은 한정의 반대 개념으로 규정되어 간략하게 정의되어 왔다. 반면 Hawkins는 한정과 비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각 영역의 자질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는 Hawkins(1978, 1991)의 한정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한정과 구분되는 비한정의 개념과 자질을 정의내리고자 한다.

Hawkins(1978:157)에서 한정은 청자와 공유된 집합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특정한 것으로 무수한 수의 다른 대상과 구별된다. 반면 비한정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지시를 통해 잠재적으로 무한한 수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지시의 잠재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Hawkins(1978)에서는 한정은 포괄성(inclusiveness), 비한정은 제외성(exclusiveness)이라는 대조적인 개념[15]을 설정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16]

(1) a. I decided not to buy it because a window was loose.
창문 하나가 헐거워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 ?I decided not to buy it because a roof was leaking.
지붕 하나가 누수 되고 있어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awkins(1978:161)에 따르면 우리의 상식(common knowledge)에서 하나의 집에는 여러 개의 창문이 존재하지만 지붕은 하나이기 때문에 ‘a window’는 자연스럽게 용인되지만 ‘a roof’는 어색하다. 다시 말해 (1a)에서 창문은 부정관사 ‘a’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지만 (1b)에서 지붕과 부정관사 ‘a’는 형식과 인식의 간극에서 부적합하게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인식적 해석에 따라 언어형식이 결정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인지적 흐름에 따른 언어 사용의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Hawkins(1978:161)는 ‘the house’에서 ‘a window’로의 순서와 ‘a house’에서 ‘the roof’로의 순서가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a house’에서 ‘a roof’가 발화된다면 ‘a roof’는 앞선 발화 ‘a house’의 지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붕’과 ‘창문’에 관한 인지적 해석과 형식의 선택을 통해 포괄성에

15) Hawkins(1978)에서는 우리가 ‘책의 페이지 한 장’, ‘집의 창문 한 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한 명’, ‘몇몇 학생들에서 학생 한명’을 나타내는 언어형식으로 부정관사 ‘a’의 사용을 들었는데, 이때 우리의 공유된 집합에 있는 개체의 하위집합만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지시에서 제외된다는 인지적 추론을 통해 비한정의 제외성 가설(exclusiveness hypothesis)을 설정하였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한정의 포괄성 가설(inclusiveness hypothesis)을 설정하였다.

16) Hawkins(1978:161)에서 인용.

의해 정의되는 한정 기술에서 유일성(uniqueness)은 보편적이며 엄격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17] 반면 비한정 기술에서는 해석의 가변성을 통해 유일성이 중립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Hawkins(1978, 1991)에서는 유일성을 포괄성과 제외성을 구분하는 자질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한정과 달리 비한정에서는 상위집합과 하위집합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함축적 개념이 취소될 수 있다는 Hawkins의 논지에서 추론할 수 있다. Hawkins(1991:418)에서는 다음의 예시를 통해 비한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석적 중의성을 설명하였다.

(2) a. I didn't buy the house, because a window was broken.
나는 그 집을 사지 않았다, 왜냐하면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기 때문이다.
(not one in the house in question, but in an identical model on the estate, which raised questions in my mind about the quality of workmanship. 그 집의 창문이 아닌 그 부동산의 유사한 모델의 집 창문이 깨져 있어서, 품질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b. Fred lost a leg in the war.
Fred 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다.
(not his own, he was the camp doctor! 그의 다리가 아니다. 그는 그곳의 의사였다)

Hawkins(1991:418)에 따르면 (2a, b)의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의적 해석

17) Hawkins(1991:421)에서는 한정 서술은 '내재적 유일(inherently unique)'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일성이 내재된 문장에서는 한정 표지의 사용만 가능하다.
a. The/*A wisest king of France was Louis XIV.
프랑스에서 가장 현명한 왕은 루이 14 세였다.
b. The/*An only student in the room was Mary.
방 안에 유일한 학생은 Mary 였다.
c. I peered into the/*a centre of the flower.
나는 꽃의 한가운데를 유심히 보았다.
d. I climbed to the/*a top of the tree.
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은 ‘그 집의 창문’이거나 ‘그 집의 창문이 아닌 다른 집의 창문’, ‘그의 다리’이거나 혹은 ‘그의 다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다리’로 해석되어 상위집합을 상정하는 비유일적 해석과 상위집합이 설정되지 않은 유일적 해석으로 나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8] 이러한 해석은 Lyons(1999:12-13)의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3) a. Janet ran well and won a prize (the only prize in fact).
Janet 은 잘 달렸고 어떤 상 하나를 받았다. (단 하나만 존재하는 상)
b. ?Janet ran well and won the prize (one of several in fact).
?Janet 은 잘 달렸고 그 상을 받았다. (여러 개 중 하나의 상)

Lyons(1999:12-13)에서는 (3a)와 같이 비한정명사구 ‘a prize’는 유일한 지시체로 해석될 수 있지만, (3b)와 같이 한정명사구인 ‘the prize’는 제외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정명사구의 필수 자질인 유일성과 비한정명사구의 유일성에 대한 가변성과 중립성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한정과 비한정의 영역을 가르는 개념인 유일성은 위치성(locatability)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Hawkins(1978:167)는 ‘위치(location)’라는 용어를 유일한 지시체를 찾는 행위라고 하였지만, 한정성(definiteness)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정 지시체는 설정된 집합[19]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

18) Hawkins(1991:422)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인식에 의한 비한정의 가변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A movie that Mary was watching last night was really interesting.
어젯밤 Mary 가 본 한/어떤 영화는 정말 흥미로웠다.
Hawkins(1991:422)에 따르면 Mary 가 어젯밤에 본 영화가 유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Mary 가 본 여러 영화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지식에 의한 사전적인 예상이 없으므로 중의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19) Hawkins(1978:106-130)에서는 상정할 수 있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a. 조응집합(anaphoric set)
b. 직접 장면 집합(immediate situation set)

위치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비한정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비한정 서술의 지시체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집합에서 적어도 잠재적인 구성원일 때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한정지시체도 담화 맥락에 의해 위치될 수 있는 것이다. Hawkins(1991:418)에서는 다음 문장을 통해 비한정의 담화 맥락적 위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4) I met some students before class. A student came to see me after class as well.
나는 수업 전에 몇몇 학생들을 만났다. 수업 후에 한/어떤 학생이 나를 보러 왔다.

(4)에서 비한정명사구 'A student'는 선행담화의 집합 'some students'에 존재하는 것으로 함축될 수 있다. 이는 비한정명사구가 화청자간의 공유 집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성(locatability)과 관련이 있다.

Hawkins(1978:183)에서는 한정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화용적 담요 즉 은폐물로 묘사하는데, 즉 한정 표지는 담요 아래에 있는 모든 관련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한함을 유한한 것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공유된 지식과 공유된 상황을 이용하도록 청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지시 표현의 잠재적으로 무한한 참조 수에 대해 제한한다고 하였다. 반면 비한정은 이러한 화용적 전제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Hawkins(1978, 1991)에서는 비한정 기술이 한정 기술과 의미·화용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거나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정과 비한정의 정의가 의미 자질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층위의 화용적 기능과도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awkins(1978:176-177)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화 기능에 따라 두 형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

c. 더 큰 상황 집합(larger situation set)
d. 연상적 조응 집합(associative anaphoric set)

(5) a. So you were at Eton, were you? Then you are certain to know a chap called Bill Snoop.
당신은 Eton 출신이시군요? 그럼 Bill Snoop 이라는 어떤 친구를 확실히 알겠군요.
b. ?So you were at Eton, were you? Then you are certain to know the chap called Bill Snoop.

(5)의 문맥에서는 초기 발화가 없고 지시체는 담화 선행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한정명사구 'a chap'을 사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화자가 'a chap'에 대해 청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되더라도 비한정 표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청자에 대한 가정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지시체에 대한 설명은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는 다음 문맥에서도 알 수 있다. Hawkins(1978:175)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혼한 부부가 황혼 무렵 그들이 철도를 지나려는 순간 빨간 불이 켜졌을 때 차가 고장 난 끔찍한 사고를 떠올리며 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다음을 보자.

(6) Oh yes, I remember. There we were, completely helpless, when a nice friendly policeman came rushing to the scene and instructed the signalman to stop the oncoming train.
네, 기억해요.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한/어떤 착하고 친절한 경찰관이 급히 와서 신호수에게 다가오는 기차를 멈추도록 지시했어요.

(6)의 문맥은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겪었던 일로 'a nice friendly policeman'으로 표현되는 지시체는 화자와 청자의 공유 집합 속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 표지인 'the'를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화자가 청자가 경찰관에 대해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여 새로운 지시체로 설정하거나, 혹은 그가 의식적으로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나서 이전의 담론을 무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 대상을 청자에게 다시 소개하고 싶다면, 비한정 표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담화 맥락에서 한정과 비한정의 화용적 구분은 언어표지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정과 비한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언어에서조차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Hawkins(1978, 1991)에서도 한정과 비한정을 포괄성(inclusiveness)과 제외성(exclusiveness)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이루는 다양한 의미적 자질이 완전히 대립적인 것이 아닌 교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Hawkins(1978, 1991)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발현할 수 있는 의미의 가변성에 의해 한정과 비한정을 이루는 자질들이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닌 상호 교차적일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두 영역을 구분 짓고 있다.[20)]

이상으로 Hawkins(1978, 1991)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한정과 비한정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고, 비한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할 수 있었다.

표 2-1: 한정과 비한정의 의미 자질 비교

| | 한정 | 비한정 |
|---|---|---|
| 포괄성(inclusiveness) | + | - |
| 제외성(exclusiveness) | - | + |
| 유일성(uniqueness) | + | ± |
| 위치성(locatability) | + | ± |

위의 표를 통해 한정과 비한정은 포괄성과 제외성이라는 변별적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지만 유일성과 위치성은 공유될 수 있는 자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한 문맥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유일성과 위치성의 의미자질을 한정명사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21)]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한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대중국어의 문두 비한

20) 후에 Heim(1982)은 정보적 관점에서 한정과 비한정을 친숙성(familiarity), 생소성(novelty)으로 구분하고 있다.

21) Abbott(2005)에서도 형식에 의거하는 한정과 비한정의 경계 구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두 의미 영역의 구분이 유일성(uniqueness), 친숙성(familiarity) 등과 같은 개념적 자질을 통해 구분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정명사구가 문맥 층위에서 다양한 화용적 의미와 층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 2.1.2 중국어의 비한정명사구

### 2.1.2.1 중국어의 비한정 표지

영어와 같이 관사 체계가 뚜렷한 언어가 아닐지라도 한정성의 의미·화용적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중국어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어순과 형태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陈平(1987)에서는 명사구의 유형에 따라 한정과 비한정을 구분한 바 있다.[22] 그에 따르면 고유명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일반적으로 한정성을 나타낸다. 맨명사는 한정과 비한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어순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23]

(7) a. 客人从前门来了。(그) 손님이 앞문으로 왔어요.
b. 前门来了客人。(한/어떤) 손님이 앞문으로 왔어요.

Li & Thompson(1981/2013:42-43)에서는 맨명사의 한정성은 주제, 주어, 그리고 동사의 앞에 위치한 목적어와 같이 그 위치에 의해 부분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24]

---

22) 陈平(1987)에서 한정과 비한정은 각각 '定指'와 '不定指'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음은 陈平(1987)에서 한정과 비한정에 따른 명사구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 구분 | 명사구 유형 | 한정 | 비한정 |
|---|---|---|---|
| A 组 | 인칭대명사(人称代词) | + | |
| B 组 | 고유명사(专有名词) | + | |
| C 组 | 지시사 구조(这/那+(量词)+名词) | + | |
| D 组 | 맨명사(光杆普通名词) | (+) | (+) |
| E 组 | 수량명 구조(数词+(量词)+名词) | (+) | (+) |
| F 组 | 일량명 구조(一+(量词)+名词) | - | + |
| G 组 | 양명 구조(量词+名词) | - | + |

23) 陈平(1987)에서 인용.

(8) a. 人来了。
b. 来了人了。
(9) a. 我在买书呢。
b. 我把书买了。
(10) a. 书我买了。
b. 我书买了。

(8)의 제시문과 같이 주어가 동사에 전치하거나 후치할 수 있는 경우 '人'의 한정성은 어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9)에서는 한정성 경향이 있는 '把'의 목적어에서 의미상 목적어인 '书'는 한정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고, (10)과 같이 주제의 위치인 문두에서 '书'는 한정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반면 '一CLN(一量)'과 같은 표지의 사용에서는 어순의 영향 없이 비한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陈平(1987)은 다음과 같이 '一CLN(一量名)'은 동사에 전치하거나 후치하여도 비한정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25)]

(11) a. 屋门"吱呀"一声被推开了，从外面走进一位陌生女子。
문이 '찌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밖에서 한/어떤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b. 屋门"吱呀"一声被推开了，一位陌生女子从外面走了进来。
문이 '찌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어떤 여자아이가 밖에서 걸어 들어왔다.

陈平(1987)은 (11)에서 '一CLN(一量名)'으로 표현되는 '一位陌生女子'는 어순에 관계 없이 모두 비한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heng & Sybesma(1999)에서도 'Num(一)+CL+N'과 동사에 후치하는 CL+N(量名)은 모두 비한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6)]

---

24) Li & Thompson(1981/2013:42-43)에서 인용.
25) 陈平(1987)에서 인용.

이처럼 어순에 관계없이 '一CLN(一量名)'구조의 비한정성에 관한 해석은 유형론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s)는 수사 '하나'와 관련이 있다. Heine(1997:67)는 "범언어적으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언어에서 부정관사는 대부분 수사 '하나(one)'에서 문법화 되어 왔다"고 하였다.[27] 수사 '하나'가 다른 수량과 달리 부정관사로 문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하나'가 지닌 고유한 의미적 기능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Givón(1981:52)은 수사 '하나'는 지시체의 존재 의미를 전제하므로 부정관사와 같은 담화적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인지적 해석에서 '하나'가 갖는 어휘적 의미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정관사로 문법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학계 내에서도 부정관사에 대응되는 문법표지에 관한 고찰이 있었다. ≪王力语言学词典≫(1995:248)에서는 중국어에서 일반적인 쓰임을 지닌 분류사 '个(CL)'는 '一个(一CL)'를 이루어 5·4운동 이후에 점점 부정관사의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一个(一CL)'는 구체적인 수량을 가리키는

---

26) Cheng & Sybesma(1999:528)에서는 표준중국어(Mandarin)와 광동어(Cantonese)에서 한정과 비한정을 나타내는 명사구 형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다음은 명사구 형식에 따른 의미적 해석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기타 방언에서 나타나는 의미 분류는 Cheng & Sybesma(2005)를 참고할 수 있다.

| | 표준중국어(Mandarin) | | 광동어(Cantonese) | |
|---|---|---|---|---|
| | 비한정(Indef) | 한정(Def) | 비한정(Indef) | 한정(Def) |
| Bare N | + | + | + | - |
| CL+N | + | - | + | + |
| Num+CL+N | + | - | + | - |

27) 한국어에서도 수량 '하나'는 다양한 의미로 분화되고 있는 현상을 살필 수 있다. 이성하(1998:180)에서는 '한'은 수사 어원인 'ᄒᆞ나', 'ᄒᆞ낳'에서 분화(divergence)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들이 의미 기능상 나누어지는 현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관형사의 의미에서부터 문법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a 에서 '한'은 수관형사로 '하나'의 의미이고, b 에서는 '어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a. 이 의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b.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게 아니라고 하다.[28] Li & Thompson(1981/2013:131-2)에서도 중국어에는 영어의 a(n)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지만 점차 강세를 받지 않으면서 수사 '하나'가 a(n)의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 2.1.2.2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29]

Heine(1997:71-73)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였다.

1단계: 수량(numeral)
2단계: 제시적 표지(presentative marker)
3단계: 특정적 표지(specific marker)
4단계: 불특정적 표지(nonspecific marker)
5단계: 일반화된 관사(generalized article)

먼저, 1단계는 수량(numeral)을 나타내며 부정관사로의 문법화가 시작되는 초기의 단계이거나, 부정관사가 없다고 분류되는 언어들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전적으로 수량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하나(one)'라는 의미항목을 지니고 있는데, Swahili어에서는 'moja(one)'라는 단어가 전적으로 수사로서만 사용되고 만일 비한정적인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수사나 기타 어떤 표지도 사용

---

28) Aikhenvald(2000:98)에서는 대부분의 수분류사를 지닌 언어는 일반적으로 개별분류사(specific classifier: SC)를 통합할 수 있는 일반분류사(general classifiers: GC)를 갖는다고 하였다. 중국어에도 개별분류사를 대체하는 일반분류사 '个'가 존재하는데, 일반분류사 '个'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개별분류사를 갖는 명사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된다(Aikhenvald 2000:98, Chao 1968:588, Li & Thompson 1981:112, 朱德熙 2007:91 등).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사를 일반분류사(general classifier)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사를 개별분류사(specific classifier 혹은 special classifiers)로 사용하고 있다(Li & Thompson 1981, Erbaugh 1986, Zubin & Shimojo 1993).

29) 2.1.2.2 은 김혜진(2020)의 내용 일부를 토대로 수정, 보충한 것이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단계는 제시적 표지(presentative marker)이다. Heine(1996:82)는 많은 언어에서 '하나(one)'가 수량적 의미가 아닌 다른 기능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문법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상황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라는 어휘가 갖는 의미가 담화 층위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 특정한 담화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상황적 틀, 즉 담화 층위의 특정한 문맥에서 부정관사의 문법적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이러한 변화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Heine(1997:72)는 Uto-Aztecan어족에 속하는 서부 Tarahumara어에서 담화의 시작에 등장하는 지시체에 bilé(one, a)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담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첫 문장에만 나올 수 있고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개 특정적인 지시대상으로 표지 없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3단계는 특정적 표지(specific marker)로 2단계와 3단계는 특정한 지시체를 담화에 새로이 소개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모호하지만 2단계의 문법화에 머무는 언어는 부정관사의 쓰임이 이야기체 담화의 시작에만 국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3단계까지 발전한 언어에서 부정관사는 화자가 특정한 지시체를 담화 속에 새롭게 끌어들일 때 사용된다. 이때 화자는 대상물에 대한 청자의 인식을 가정함으로써 비한정적 담화대상의 장치인 부정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자의 이러한 의도 아래 해당 명사 지시체와 관련된 후속발화가 자연스러워진다. Heine(1997:73)에 의하면 3단계로 발전한 부정관사는 화자가 담화대상에 대해 청자가 모를 것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2단계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후속 담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관사의 의미적 기능이 3단계까지 문법화 된 언어에서는 부정관사가 지시대상을 담화 속에 새롭게 소개하고, 후속 담화를 통해 담화 대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특정적 지시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것이다. 4단계는 불특정적 표지(nonspecific marker)로 Heine(1997:74)는 4단계에서 부정관사는 불특정적인 지시대상의 표지로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담화지시체가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는 대상이므로 지시체를 상정할 필요가 없이 담화에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4단계에서 지시체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일반화된 관사(generalized article)로 부정관사가 심화된 단계로 원형적인 의미인 '하나'라는 수량적 의미가 거의 탈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Heine는 부정관사는 수사 '하나'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단수명사를 수식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수사가 부정관사로 문법화 되는 과정에도 남아 있지만 문법화가 심화된 언어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제약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부정관사의 문법화 현상을 토대로 현대중국어에서 부정관사로 인식되는 '一CL(一量)'의 문법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① 1단계: 수사(numeral)

수량의 의미가 강조되거나 정보적 관점에서 수량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종종 강세와 같은 운율적 돋들림을 갖기도 한다. 이때 수사 '一'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1단계는 수사의 기본적인 의미로 문법화가 시작되기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2)에서 '一CL'은 모두 '하나'라는 수량적 의미를 나타낸다.

(12) a. 他在这儿没有一个认识的人。
그는 여기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b. 我买了一本杂志和五只铅笔。
나는 한 권의 책과 다섯 자루의 연필을 샀다.
c. 全世界只有一个词语, 那就是和平。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이다.
d. 我都吃了一个苹果。
나는 사과 하나를 모두 먹었다.

② 2단계 제시적 표지(presentative marker)

2단계는 수사 '하나'가 부정관사로 문법화 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담화적 기능을 갖기 시작한다. 즉 '하나'라는 수량적 의미를 여전히 보유하고는 있지만 화용적 맥락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적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30] (15)에서 비한정 명사 '学生(학생)'은 담화에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데, 후속담

화에서 ‘学生(학생)’은 대명사 ‘他(그)’로 조응되면서 회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31]을 갖는다. 이러한 문맥에서는 ‘一CL(一量)’을 생략할 수 없는데,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제시한 담화대상이 후속담화에서 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기 위한 화용적 책략으로 ‘一CL(一量)’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제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3) 一个学生高中毕业 5 年了，但仍和我时常联系。有一次，我们聊天说到‘心宽体胖’这个词，他把‘pán’读成了‘pàng’。记得教他语文课的时候，我曾反复强调过最后一个字应该念‘pán’。我提醒他正确的读音以后，他有点惭愧，说刚刚看的电视剧≪武林外传≫里就把这个词说错了。

한/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자주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한 번은 대화 중에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살이 찐다(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는 ‘pán’을 ‘pàng’이라고 읽었습니다. 그에게 국어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글자는 ‘pán’으로 읽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정확한 발음을 일깨워주자 그는 방금 본 드라마 ‘무림외전’에서도 이 단어를 잘못 말했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③ 특정적 표지(specific marker)**

3단계는 특정한 지시체를 담화에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2단계의 제시적 표지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Heine(1997:73)는 “3단계의 특정적 표지는 담화대상이 후속담화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청

30) 부정관사와 수사 ‘하나(one)’의 형태가 분리된 언어에서는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오로지 수사를 사용하여야 하고(吕叔湘 2002：160), 수사 ‘하나(one)’가 아직 문법화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언어는 비한정적 명사구를 나타낼 때 아무런 표지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Heine 1997:72). 이는 수사 ‘하나(one)’가 지닌 어휘적 의미와 부정관사가 지닌 문법적 의미가 서로 유관하지만 기능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31)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은 담화 속에 새롭게 도입된 담화대상이 후속담화에서 얼마나 주제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부정관사의 화용적 기능을 짐작하게 한다(Wright & Givón 1987, Sun 1988).

자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2단계에서는 주제지속성을 위한 후속담화가 필수적 요소라면 3단계에서는 후속담화와 관계없이 문장층위에서도 비한정 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4)의 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특정성을 부여받고 지시성(referentiality)[32]을 지니게 된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33]

(14) a. 我碰到了一个外国人会说中国话。
나는 한/어떤 외국인을 만났는데, 중국어를 할 수 있었다.
b. 我打破了一个茶杯很值钱。
나는 (어떤) 컵 하나를 깼는데, 매우 비싼 것이었다.

(14)에서는 문장 단위에서 후속성분에 의해 특정적 담화 대상에 확고한 지시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도 후속담화와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는데, Heine(1997:73) 역시 "2단계보다는 아니지만 3단계도 후속담화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 후속담화는 담화 속에 새롭게 도입된 담화대상에 특정성을 부여하여 지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을 보자.

(15) a. 妈妈还给妹妹买了(一)个洋娃娃，妹妹非常喜欢，连晚上都抱着她一起睡觉。
엄마가 여동생에게 (어떤) 인형 하나를 사주었는데, 여동생이 너무 좋아해서, 잠잘 때도 인형을 안고 잤다.

---

32) 백은희(2005a)는 지시성이란 '지시대상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청자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라는 개념의 인지 상태(cognitive status)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시성의 담화 층위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성이 담화적 층위에서 대화참여자들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한정 표지의 담화기능을 추론해볼 수 있다.

33) Li & Thompson(1981/2013:611-612)에서 인용. Li & Thompson(1981:611-612)은 (14)와 같은 예시를 실현서술절(realis descriptive clause)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장구조의 특징은 동사의 직접목적어는 항상 비한정적이고, 후속절은 앞선 비한정 명사구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 我这也就睡上一觉，中午要见(一)个人，有事商谈。
나는 이제 바로 한숨 자고 나서, 오후에 한/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상의할 일이 있거든요.

(15)와 같이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비한정 명사구의 특정적 해석은 담화 대상의 지시체를 상정하게 하므로 수량 '一'이 생략되어 발화되더라도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도 '하나'라는 수량적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④ 4단계 불특정적 표지(nonspecific marker)

Heine(1997:73)는 4단계에서 담화 대상의 지시성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알 필요가 없으며, "Buy me a newspaper, please!(신문을 사다주세요)"와 "Draw a dog!(개를 그려라)"의 '신문(newspaper)', '개(dog)'와 같이 불특정적인 개체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정관사의 문법화가 4단계까지 진행된 언어에서는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비지시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Heine의 분류에서 중국어의 부정관사는 4단계에 속한다. 실제로 자연발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대화참여자 사이에서 (16)의 명사구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Givón(1981)은 비지시적 담화대상은 유형(type)임으로 속성적(attributive) 해석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16)에서 명사구의 수량적 의미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6) a. 你快写个信问问吧。빨리 편지를 써서 물어봐라.
b. 画个娃娃吧！ 인형을 그려라!
c. 坐吧，吃块饼干。앉으세요, 과자 좀 드세요.

⑤ 5단계 일반화된 관사(generalized article)

Heine(1997:76)는 "부정관사는 수사 '하나'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수명사를 수식하는데, 문법화가 심화되면 이러한 제약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정관사가 가산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개체성'과

‘단수’라는 수량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부정관사의 더 심화된 문법적 기능은 명사의 단수성과 개체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관사의 문법화에 따른 명사범주의 확장을 추론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정관사가 일반화된 관사로 문법화 된 언어에서는 개체명사가 복수명사, 물질명사 등으로 확장되기도 한다(Heine 1997:76). 앞서 Heine는 중국어의 부정관사를 4단계로 분류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현대중국어의 자연발화를 근간으로 하는 코퍼스 자료에서 일반화된 관사(generalized article)의 기능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의 일반화된 관사 역할은 일반분류사 ‘个’에 한정된다.[34)]

(17) a. 农村个体商业网点星罗棋布， 农民要买个糖、烟、酒、茶、针头线脑等等十分方便。
농촌 개인 상업시스템 ‘싱뤄치부’에서는 농민들이 설탕, 담배, 술, 차, 재봉용구 등등을 사는 게 매우 쉽다.
b. 一起喝个茶吧！ 함께 차 마시자!

(17a)에서 ‘糖、烟、酒、茶、针头线脑(설탕, 담배, 술, 차, 재봉용구)’는 어휘가 주는 의미에서 ‘복수’로 해석될 수 있다. (17b)에서 ‘茶(차)’는 물질명사에 속하는데, 중국어에서 물질명사는 ‘一瓶酒(술 한 병)’, ‘一杯茶(차 한 잔)’와 같이 도량형 단위사(measure word)로 계량화할 수 있다(吕叔湘(2002), Chao(1968) 등).

Heine(1997:77)에서는 중국어의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를 4단계까지로 보고 있는데, 본고의 관측에 의하면 중국어는 일반분류사 ‘个’에서 5단계까지의 심화된 문법화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한정명사구 ‘一CLN(一量名)’은 일반분류사와 개별분류사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

34) Zubin & Shimojo(1993:490)는 일반분류사는 의미 중립적인 특성에 의해 특정한 개별분류사를 갖지 않는 개체명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보충 기능(complement function)과 개별분류사를 대체하는 기본 기능(default function)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별분류사에 비해 일반분류사의 높은 문법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분류사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문법화가 진행 중이고 수량 ‘一’와 결합하여 비한정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적인 의미영역을 수량, 지시, 비지시로 나눌 수 있다. 의미 영역을 분절하는 화용적 분석은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 2.2 비한정과 지시성(referentiality)

지시성(referentiality)에 대한 논의 역시 한정성과 마찬가지로 논리 철학적 접근법과 다양한 언어학적 해석이 존재한다. 지시성에 대한 연구는 지시성의 전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에서 시작된다.

먼저 지시성을 언어로 표현되는 명사구와 실세계(real world)에 존재하는 실체사이의 사상(mapping)관계임을 주장하는 입장이다(Russell(1905), Carnap(1959): Givon(2012:354)에서 재인용). 실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지시체를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지시체와 이를 표현한 명제는 존재에 대한 전제가 없으므로 진리값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시성을 명사구와 발화된 명제 사이에서 해석하는 관점은 발화된 명제 속에서 지시체의 존재에 대한 전제는 기본적인 값이 된다는 것이다(Strawson(1950), Donnellan(1966) 등). 이러한 관점은 지시성에 대한 해석을 언어 표현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화되는 것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지시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자.[35)]

(18) a. Yesterday I saw a deer in the wood.
어제 나는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를 보았다.
b. Yesterday I saw a unicorn in the wood.
어제 나는 숲속에서 유니콘 한 마리를 보았다.

논리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18a)에서 ‘a deer’의 지시체는 현실세계(real

35) Givón (2012:307)에서 인용.

world)에 존재하여 명시적 의미(denotation)를 나타내므로 지시성을 갖는 반면 (18b)에서의 ‘a unicorn’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실세계에 부합되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리철학의 존재적 지시체에 관한 관점은 언어로 표현되는 명사구와 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체사이의 사상(mapping)관계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화용적 관점에서는 발화된 명제 속에 존재하는 지시체이므로 (18a, b)는 모두 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Wright & Givón(1987)은 전통철학에서 지시성이 갖는 의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법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존재의 유무에 따른 지시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법적 장치가 사용되는 언어사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36]

(19) a. The Queen of England is bald.[37]
잉글랜드의 여왕은 대머리다.
b. The king of France is bald.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

지시에 관한 논리·철학적 관점에서는 (19a)의 지시체 ‘The Queen of England’는 실재하여 실체에 사상되고 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지만 (19b)의 ‘The king of France’는 이와 반대된다. 그러나 (19a, b)에서 모두 동일하게 한정 표지를 통해 지시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한정 표지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18a, b)에서도 동일하게 비한정 표지를 사용하여 지시체를 표현하고 있지만 (18a)는 실재하는 실체의 사상이며 (18b)는 그렇지 않다.

---

36) Wright & Givón(1987)에서 인용.

37) (19a)의 예문이 제시된 1987 년에는 잉글랜드의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명제의 진리 값에 관계없이 명사구는 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를 2023 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자면, 지시체는 실세계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Givón(1995:438)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지시체가 실세계와의 사상에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간에 두 명사구를 동일한 문법표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언어에서는 지시체와 실제세계 혹은 명제적 진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지시성에 관한 Givón의 해석과 관점은 인간의 언어 사용 측면에서 논리철학의 실세계는 보편적 담화로 한정되며, 담화 맥락 층위에서 설정된 실체는 언어표현에 사상된다. 이는 지시성을 화용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인데, Chen(2015:405)은 언어사용자, 문맥에서 분리된 비문맥적인 (user-independent, decontextualized meaning) 지시성[38]과 달리 화용적 지시성은 주어진 문맥에서 언어 표현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Chen(2015:405)은 화용적 지시성의 세 가지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i 보편적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세워진 예상되는 존재의 지시물
> ii 화자에게 특정적인 지시물
> iii 질문에서 특정한 지시체를 지시하기 위해 지시성 표현을 사용하려는 화자의 의도 Chen(2015:405)

Chen(2015)의 지시성에 대한 해석에서는 화청자와 문맥을 포함한 대화참여자가 설정되어 있고, 담화지시체에 대해 화자의 의도적인 언어 사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정성과의 관련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39] Givón(2012:350)은 담

38) 지시성을 논리・철학적(logico-philosophical) 지시성, 의미적(semantic) 지시성, 화용적(pragmatic) 지시성, 담화 주제적(discourse thematic) 지시성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논리・철학적 측면에서 지시성(referentiality)에 대한 해석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지시체의 유무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철학자들의 지시성에 대한 해석은 현실세계(real world)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키는 것, 즉 명시적 의미(denotation)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문맥독립적인 지시성을 의미적 지시성으로 구분하였다. 의미적 지시성은 언어적 표현으로 부호화된다는 것에 관한 해석이며, 예컨대 한정적인 표지와 비한정적인 표지가 의미적 지시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의미적 지시성이 담화맥락에서 논의될 때 이는 화용적 지시성(Pragmatic Referential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용적 지시성(Pragmatic Referentiality)에서는 언어형식과 언어 사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 속에서 형성된 지시성은 대화참여자에 의해 한정과 비한정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이를 한정적 지시성(Ref-Def)과 비한정적 지시성(Ref-Indef)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경험적으로 한정과 비한정을 구분하는 표지 대신 지시와 비지시를 구분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 문맥에서는 한정과 비한정의 의미적 대립보다 지시와 비지시의 의미적 대립이 더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고, 언어표지를 통해 지시와 비지시의 의미를 간명하게 구분해내고 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40)]

(20) a. unu-ana a-ka-soma ichi-tabo
child 3s-FUT-read VCV-book
'The child will read a/the book'(I have one in mind)
아이는 (어떤)책 한 권을 읽을 것이다.

b. umuana a-ka-soma chi-tabo
child 3s-FUT-read CV-book
'The child will read some book'(I don't have one in mind)
아이는 책을 좀 읽니?

(20)은 Bemba어로 이 언어에서는 한정과 비한정에 대한 구분이 아닌 지시와 비지시를 구분하기 위한 표지가 존재한다. (20a)에서는 'ichi'를 통해 'book'이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20b)에서는 'chi'에 의해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시체가 지시적 해석을 갖느냐 비지시적 해석을 갖느냐가 일차적인 해석이 되며, 한정적이냐 비한정적이냐의 문제는 후차적 요인에 따라, 예컨대 문맥결정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39) Chen(2015)에서는 논리 철학적 지시성은 고유명사(proper noun), 'this', 'that'와 같은 지시사(demonstratives), 'I'와 같은 직시어(indexicals)로 제한하였고 비한정적 서술의 언어적인 어휘와 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시성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어휘에 내재하는 지시성 외에 언어표현의 담화 층위에서 발현될 수 있는 화용적 역할이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0) Wright & Givón(1987)에서 인용.

뿐만 아니라, 한정적 지시성(Ref-Def)과 비한정적 지시성(Ref-Indef)에 대한 구분은 한정 기술과 비한정 기술 모두에서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의 중의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Donnellan(1966)에 의하면 한정 기술의 기능은 어떤 개체에게 그 개체의 속성을 부여해 주는 의미론적 기능인 속성적 기능(attributive function)과 그 지시 대상을 화용론적으로 찾아주는 지시적 기능(referential function)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각각 실체에 대한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41]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42]

(21) Smith's murderer is insane.
Smith 의 살인자는 정신병자이다.

(21)에서 'Smith's murderer'은 수식구조로 형식적으로 한정명사구에 속하는데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화자는 Smith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Smith를 죽인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상황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Smith를 죽인 사람(Smith's murderer)'이라는 한정기술을 통해 지시적인(referential) 해석과 속성적인 해석(attributive)을 통해 지시성과 비지시성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중의성은 비한정명사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2) a. John want to see a salesman.[43]

---

41) 이성범(1999:159)에서도 'The richest man in the world'라는 한정기술은 중의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is not always happy.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는/가 늘 행복하지 않다.
'The richest man'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인 Bill Gates 를 지시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그가 누군지 잘 몰라도 누군가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일반적인 전제에 의해)한 명을 지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42) Donnellan(1966)에서 인용.

43) Partee(1973:72)에서 인용. Partee(1973:78)는 비한정명사구의 중의성은 언어 사용

John 은 어떤/한 판매원을 만나려고 한다.
John 은 판매원을 만나려고 한다.

b. John seeks a unicorn.[44)]
John 은 어떤/한 유니콘을 찾는다.
John 은 유니콘을 찾는다.

Partee(1973:72)는 (22a)에서 ‘a salesman’이 ‘마음속에 지정된 어떤 판매원’을 지칭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판매원’이라는 속성을 가진 실체’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성범(1999:148)은 ‘John’이 특정하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unicorn’이 있어서 그 ‘unicorn’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unicorn’을 지정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막연히 찾는 ‘unicorn’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한정명사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의 중의성이다.

이성범(1999:150)에서는 지시성에 대한 중의적 해석에 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지시성의 중의성에 따른 용어 정리

| 학자/영역 | 지시 | 비지시 |
|---|---|---|
| Aristoteles | compositio | divisio |
| Russell(1905) | primary occurrence | secondary occurrence |
| Quine(1980) | transparent | opaque |
| 중세문법 | de re | de dicto |
| Fillmore(1967) | specific | non-specific |
| Montague(1973) | referential | non-referential |
| Hellan(1981) | once-and-for-all | situation-wise |

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화자의 의도에 의해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체를 지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한정대명사를 통해 조응하고, 비지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one’과 같은 비한정대명사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44) 이성범(1999:148)에서 인용. 이성범(1999:148)은 ‘a unicorn’이 내포적 동사의 영향권에 속하면 비지시적으로 해석되지만 ‘a unicorn’의 영향권이 넓으면 지시적으로 해석되어 어떤 특정한 ‘unicorn’을 지정한다고 하였다.

담화지시체의 지시성에 대한 고찰은 중국학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张伯江(1997)에서 한정명사구와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한정명사구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45] Li & Thompson(1981/2013:129)은 중국어에서 한정적, 비한정적 명사구는 모두 지시적일 수 있는데 이때 한정적 명사구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가정하는 실체를 가리키지만, 비한정적 명사구는 화자는 알지만 청자는 모르는 실체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한정적 명사구와 비한정적 명사구가 구분되는 것은 대화참여자들이 지시적인 명사구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정보적 관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i & Thompson(1981/ 2013:129)은 지시적인 명사구는 어떤 실체를 상정해내는 것인데 이러한 실체는 물질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 사실적인 것 혹은 가정적인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문장 중에서 밑줄 친 명사구는 모두 지시적인데 이는 어떤 실체를 상정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살펴보자.[46]

(23) a. 这条香蕉我吃不下。
이 바나나, 나는 배가 불러 먹을 수가 없다.
b. 门口坐着一个女孩子。
문 입구에 어떤 소녀가 앉아 있다.

---

45) 张伯江(1997)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화지시체의 표상을 도식화하였다. 实指에서 不定指的와 定指的의 층위는 담화표상의 층위에서의 해석이지만 각각 한정과 비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시(referential)의 용어에 관한 개념과 체계는 본고가 따르는 지시(referential)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체를 상정하는 지시적 해석에서 담화 층위의 한정적 기술과 비한정적 기술이 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시성을 한정과 비한정의 상위범주로 두는 본고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无指的(nonreferential)
有指的(referential) { 虚指的(nonspecific) / 实指的(specific) { 不定指的(nonidentifiable) / 定指的(identifiable) }

46) Li & Thompson(1981/2013:126)에서 인용.

(23a)와 (23b)의 명사구 '이 바나나(这条香蕉)'와 '어떤 소녀(一个女孩子)'는 담화 속에서 지시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선택한 담화표지 '이(这)', '어떤(一CL)'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이(这)'는 중국어의 지시사로 한정적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어떤(一个)'은 '一+CL' 구조로 비한정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Li & Thompson(1981/2013:126)은 한정명사구와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에서 지시적 해석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표지의 선택은 단지 지시체에 대한 화자의 해석, 즉 청자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화자의 화용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Chen(2015:406)은 중국어에서 한정과 비한정을 나타내는 표지와 지시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47]

표 2-3: 중국어의 문법적 범주와 지시성 관계

| 의미 | 형식 | 의미적 지시 (semantic referential) | 의미적 비지시 (semantic nonreferential) |
|---|---|---|---|
| 한정(definite) | 고유명사, 대명사, 지시사 | + | - |
| 비한정(indefinite) | 一+CL+N, CL+N | + | + |

Chen(2015)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한정을 나타내는 고정적인 표지가 없지만, 고유명사, 대명사, 지시사로 나타나는 명사구는 한정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한정성을 지닌 명사구는 반드시 지시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비한정 표지로

47) 陈平(1987)에서는 명사구 유형에 따라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을 구분하였는데 一CLN(一量名)은 지시와 비지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 구분 | 명사구 유형 | 지시 | 비지시 |
|---|---|---|---|
| A组 | 인칭대명사(人称代词) | + | |
| B组 | 고유명사(专有名词) | + | |
| C组 | 지시사 구조(这/那+(量词)+名词) | + | |
| D组 | 맨명사(光杆普通名词) | + | + |
| E组 | 수량 구조(数词+(量词)+名词) | + | + |
| F组 | 일량명 구조(一+(量词)+名词) | + | + |
| G组 | 양명 구조(量词+名词) | + | + |

는 '一+CL+N', 'CL+N'의 두 형식이 있는데 모두 지시성과 비지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Chen(2015)의 지시성에 대한 담화맥락에서의 해석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한 정보, 화자의 가정 등에 의한 것으로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여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에 따라 다른 수량과 달리 수량 '하나'가 갖는 고유한 의미적 화용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담화 층위에서 一CLN(一量名)형식의 비한정명사구는 다양한 화용적 층차와 함께 화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을 一CLN(一量名)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48]

## 2.3 한정성(definiteness)과 정보적 지위

### 2.3.1 형식적 한정성과 정보적 한정성

한정성이라는 술어는 정도성을 함의하고 있지만 종종 개념적 측면에서 형식을 통해 한정과 비한정으로 나누어진다. Prince(1992)는 한정성(definiteness)의 정의가 갖는 이러한 혼돈을 형식적, 개념적 속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형식적인 한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재료로는 정관사(definite article), 지시사(demonstrative articles), 소유 형용사(possessive adjectives),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s), 고유명사(proper nouns), 특정한 양화사(quantifiers) 등이라고 하였다. 반면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언어재료는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s), 맨명사(bare noun), 수량사를 포함한 양화사(quantifiers)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교차-언어적으로 혹은 다른 화용 목적에 의해 동일한 정보적 지위가 다른 형식으로

48) 본고에서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성에 관한 중의적 해석의 대립적인 용어는 표 2-2를 참고하여 지시(referential reading)와 비지시(non-referential reading)로 설정하기로 한다.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통해 Prince(1992)는 형식적 한정성과 함께 정보적 한정성을 분리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형식적 한정성과 정보적 한정성에 대한 설정은 형식적 코딩과 의미의 불일치 현상에서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Chen(2004:1131)은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을 통해 화용적 개념의 정보적 층위의 한정성(definiteness)을 설명하였는데, 언어형식과 의미의 불일치는 분포상의 제약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49)]

(24) Ta ba (yi) ge pibao diu le
he Ba one CL bag lose CRS
He lost his/the bag
그는 그의 가방/가방을 잃어버렸다.

Chen(2004:1174)에서는 '把'의 목적어는 한정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비한정 표지 '一CLN(一量)'의 사용은 형식과 의미의 불일치에 의한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50)] Chen(2004:1170)은 담화의 정보적 지위에 의한 식별 가능(identifiable)한 실체와, 식별 불가(nonidentifiable)한 실체의 구분을 통해 담화 속에서 발현되는 특정한 기능을 연관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한정표지와 비한정 표지의 대립적 사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25) a. George finally bought a house. George 는 마침내 집 한 채를 샀다.
b. George finally bought the house. George 는 마침내 그 집을 샀다.

---

49) Chen(2004:1131)에서 인용.

50) 반대의 경우로 Chen(2004:1169)에서는 한정표현이 제시문, 존재문에서 간혹 동사에 후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비한정 표지가 고유명사, 한정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를 통해 형식과 의미의 불일치 현상을 관측하였다. 비한정 형식으로 코딩되는 한정에 관한 연구는 Chen(2003)을 참고할 수 있다.

Chen(2004:1131)은 (25a)에서는 George가 산 집이 무엇인지 청자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25b)는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특정한 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각각 식별 불가능한 지시체와 식별 가능한 지시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25)에서 식별 가능한 지시체는 한정 형식에 의해, 식별 불가능한 지시체는 비한정 형식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문맥에서는 한정과 비한정과 같은 형식의 대립이 식별 가능한 지시체와 식별 불가능한 지시체 간의 대립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는 다음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George visited the 10 houses on sale in turn. George finally bought a house.
乔治依次参观了 10 所待售房屋，最终购买了一所房子。
George 는 판매 중인 10 채의 집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채의/어떤) 집을 샀습니다.

(26)에서는 선행담화의 집합인 ‘10 houses’에 의해 후행담화의 비한정명사구 ‘a house’가 추론되며 식별 불가능한 지시체에서 식별 가능한 지시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어표지가 지닌 이분법적 대립은 담화문맥 속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의미적 층차를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문법적 형식과 의미간의 불일치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지시체가 지닌 한정성의 정도가 한정과 비한정의 양분보다 더 다양한 층차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범언어적으로 비교적 세분화된 관사체계를 지닌 언어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Lambrecht(1994:84)는 영어와 독일어에서 정관사, 부정관사, 무형의 관사의 세 가지 구별과 함께, 또 다른 예로 프랑스어 l’un(e) ‘one (of them)’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관사(definite article)인 ‘le, la’가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인 ‘un(e)’에 수식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27) La chambre avail trois fenetres; 1'une d'elles etait ouverte.
The room had three windows; one of them (the one of them) was open.
그 방에는 세 개의 창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열려 있다.

(27)에서 '창문'은 세 개의 창문 중에서 어느 것이 열려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인 가능한 집합인 '그 방의 창문들' 중 하나로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공존하는 관사를 사용하여 확인 가능한 집합의 확인 불가능한 구성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Lambrecht(1994:80)는 확인가능성이라는 인지적 범주와 한정성의 문법 범주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지시체의 확인가능성이나 확인 불가능성과 명사구의 문법적 한정성이나 비한정성 사이의 관계는 일대일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관사의 사용이 언어마다 개별적이고 때로 아주 세분화된 방식[51]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개별언어에서 나타나는 관사체계와 상관없이 지시체의 담화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과 능력은 모든 언어 사용자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담화지시체에 대한 대화참여자의 가정과 믿음이 갖는 정도는 담화지시체의 다양한 언어형식은 물론 다양한 문형 및 문맥적 내용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한정성의 척도로 작용하기도 하며 한정성이 갖는 정도성으로 인식되기

51) Lambrecht(1994:85)에서는 확인(불)가능성의 정도 기호화하는 문법적 대조가 특히 풍부한 터키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터키어에서는 담화지시체의 층위에 따른 형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a. Ahmet okiiz -ii aldi
Ahmet ox - ACC bought (Ahmet bought the ox.)
b. Ahmet bir okiiz - u aldi
Ahmet one ox - ACC bought (Ahmet bought this(one) ox.)
c. Ahmet bir okiiz aldi
Ahmet one ox bought (Ahmet bought an ox)
d. Ahmet okuz aldi
Ahmet ox bought (Ahmet bought an ox)

도 한다. 이처럼 한정성을 담화지시체의 해석에 대한 정도성의 문제로 보는 측면은 한정과 비한정을 언어형식으로 나누는 문법적인 구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았다.[52] Prince(1992)는 어떤 한정은 '진정한' 비한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어 형식에 기초하는 개념이 아닌 정보 지위(information-status)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담화 층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적 한정성으로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과 관점을 통해 비한정명사구라도 한정성을 나타내는 분포에 위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현상과 비한정이라도 한정성을 지닐 수 있다는 해석이 설명 가능해진다. 따라서 형식에 따른 한정성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한정성의 정도성에 관한 시각과 분석틀은 타당하다. 계속해서 정보적 한정성의 다양한 체계와 틀을 살펴보고, 현대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 2.3.2 정보적 한정성의 기본틀 정립

정보적 한정성의 관점에서 담화지시체의 정보지위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체계는 Prince(1981, 1992), Chafe(1987), Ariel(1988), Gundel et al.(1993), Lambrecht(1994) 등이 있다.[53] 이는 모두 명사구의 실체를 이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정적인 위치인

---

52) Lyons(1977/2011:297)는 한정이 아닌 것은 '비한정(indefinite)'이 아니라 '한정이 아닌(non-definite)'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정이 아닌(non-definite)'것은 '비한정(indefinite)'을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견해 역시 담화지시체의 한정과 비한정의 양분적 사고를 경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3) 최윤지(2016:21)에서는 한정성의 등급과 체계에 관한 여러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모두 한정성의 정도성을 전제로 한 정보적 한정성의 개념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a. Prince(1981b)
환기됨 > 미사용 > 추론가능 > 추론가능을 포함 > 고정된 최신 > 최신

구정보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비한정정적인 위치인 신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도성을 지닌다는 가설을 통해 다양한 지위를 설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 Prince(1981)에서는 대화참여자가 만들어내는 담화 내에서 추론되는 가정을 통해 지위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Christophersen(1939)의 친숙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어짐성(givenness)을 가정된 친숙성(assumed familiarity)으로 정의내리고 공유된 지식에 따라 다양한 하위 부류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가정된 친숙성은 크게 새로움(New), 추론가능함(Inferrable), 환기됨(Evoked)으로 분류되고, 세부적인 항목을 통해 정교화 되고 있다.[54] Prince(1981:237)에서는 담화 속에 설정된 친숙성에 대한 추론적 가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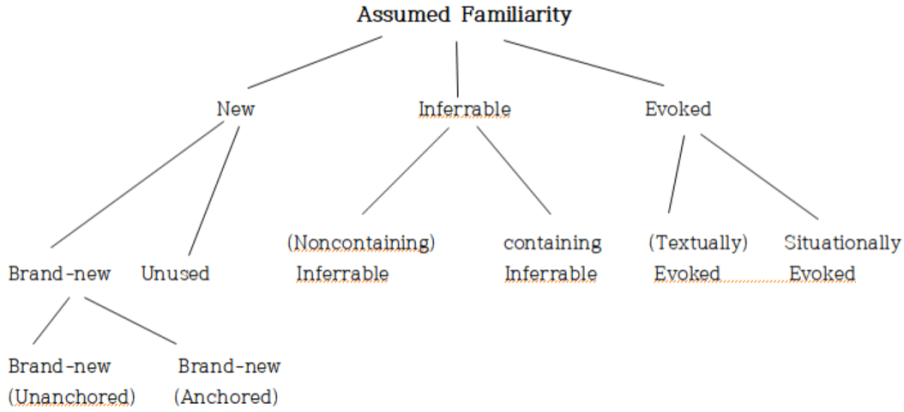
a′ Prince(1992)
담화구-청자구 > 담화신-청자구 > 담화신-청자신

b. Chafe(1987)
활성적 > 준(semi)-활성적 > 비활성적

c. Ariel(1988)
∅> herself > she > SHE > This > That > This hat > That hat > That/this hat we bought last year > Joan > Smith > The president > Joan Smith > Joan Smith, the president

d. Gundel et al.(1993)
초점에 있음(it) > 활성화(that, this, this N) > 친숙(that N) > 유일 확인 가능(the N) > 지시적(비한정적 this N) > 유형 확인 가능(a N)

54) 다음은 Prince(1981:237)의 가정된 친숙성(assumed familiarity)에 관한 수용도이다.



[새로움(New)]

(28) a. I bought a beautiful dress. (Brand-new 새로움)
나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샀다.
b. A rich guy I know bought a Cadillac. (Brand-new Anchored 고정된 새로움)
내가 아는 어떤 부자가 캐딜락을 샀다.
c. Rotten Rizzo can't have a third term. (Unused 미언급)
Rotten Rizzo 는 세 번째 학기를 다닐 수 없다.

[추론가능함(Inferrable)]

(29) a. I went to the post office and the stupid clerk couldn't find a stamp. (Inferrable 추론가능함)
나는 우체국에 갔는데, 멍청한 직원이 우표를 찾지 못했다.
b. Have you heard the incredible claim that the devil speaks English backwards?
악마가 영어를 거꾸로 말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들어보셨나요? (Containing Inferrable 포함된 추론가능함)

[환기됨(Evoked)]

(30) a. Susie went to visit the grandmother and the sweet lady was making Peking Duck. (Evoked 환기됨)
Susie 는 그녀의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그 친절한 여인은 북경오리를 만들고 있었다.
b. Lucky me just stepped in something. (Situationally Evoked 상황적으로 환기됨)
운이 좋게도 방금 뭔가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네요.

(28)은 새로움(New)의 영역으로 지시체는 비한정명사구와 수식어를 지닌 비한정명사구, 고유명사의 한정명사구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의 추론가능함(Inferrable) 영역에서도 한정명사구의 형식이 분화되어 있다. 또한 (30)의 환기됨(Evoked) 영역에서도 지시체는 수식어에 의한 한정명사구와 지시적 명사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Prince(1981)의 체계에서는 가정된 친숙성에 대한 체계가 설정되어 있을 뿐 그에 따른 명사구 형식에 대한 고정적 분류가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Prince(1981:245)에서는 가정된 친숙성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척도를 통해 설정하였다.

[친숙성 척도(Familiarity Scale)]

환기됨(E) /상황적으로 환기됨($E^S$) > 미언급(U) > 추론가능함(I) > 포함된 추론가능함($I^c$) > 고정된 새로움($BN^A$) > 새로움($B^N$)

위의 친숙성의 척도에서 환기됨(E)으로 갈수록 구정보에 가깝고 새로움($B^N$)으로 갈수록 신정보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맥적 환경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지시체와 특정 명사구 형식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정된 친숙성의 체계는 다양한 명사구 형식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Prince(1981:245)에서는 친숙성 척도(Familiarity Scale)에 따른 한정성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표현되는 실체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1) a. I bought a Toyota. (상황적으로 환기됨)
나는 도요타를 샀다.
b. Ellen bought a Toyota. (미언급됨)
Ellen 은 도요타를 샀다.
c. One of the people that work at Penn bought a Toyota. (포함된 추론가능함)
펜실베니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도요타를 샀다.

d. A person that works at Penn bought a Toyota. (고정된 새로움)
한 펜실베니아에서 일하는 사람이 도요타를 샀다.
e. A person bought a Toyota. (새로움)
한 사람이 도요타를 샀다.

앞서 언급했듯이 Prince(1981)에서 지시체의 평가체계는 가정된 친숙성을 통해 설명되는데, 주요 관점은 한정성의 정도성에 관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담화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화지시체의 한정성과 형식적 한정성의 불일치 현상을 통해 독립된 한정성의 지위를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Prince(1981)에서 설정된 가정된 친숙성은 담화지시체의 정보적 위치에 관한 해석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정된 친숙성에서 보여준 여러 체계는 정보적 지위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한정성의 정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체계는 오히려 다양한 문맥에서 발현되는 지시체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다시 말해 담화지시체의 정보적 지위는 지시체의 위치에 대한 묘사적 분류를 위해 정보적 위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분석을 통해 정보적 지위의 각 영역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rince(1992)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담화 구성 요소인 담화 상태와 수신자 상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완성하였다.

표 2-4: Prince(1992)의 정보적 지위 체계

| | 청자-구정보(hearer-old) | 청자-신정보(hearer-new) |
|---|---|---|
| 담화-구정보(discourse-old) | 환기됨(Evoked) | - |
| 담화-신정보(discourse-new) | 미언급됨(Unused) | 새로움(Brand-new) |

위의 표에서 보면 Prince(1981)의 가정된 친숙성 체계를 설정하는 데 구체적인 요소인 담화와 수신자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요소의 상호 교차적인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Prince(1992)의 담화 지위 틀에서는 네 가지 영역을 상정할 수 있는데,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의 영역은 자연언어의

담화 체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표2-4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ⅰ.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
ⅱ. 담화-신정보, 청자-구정보
ⅲ.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구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담화에 나타난 지시체의 정보적 지위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55]

(32) a. I'm waiting for it to be noon so I can call someone in California.
난 캘리포니아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정오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b. I figure she'll be up by 9, her time.
그녀는 자신의 시간 기준으로 9 시까지는 일어날 거 같아요.
c. I'm waiting for it to be noon so I can call Sandy Thompson.
난 Sandy Thompson 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정오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d. I figure Sandy/she'll be up by 9, her time.
Sandy/그녀는 자신의 시간 기준으로 9 시까지는 일어날 거 같아요.

Prince(1992:309)는 (32a)에서 'someone'은 새로 등장한 지시체로 담화 영역에서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32b)에서 'she'와 (32d)의 'Sandy, she'는 고정된 개체로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 영역에 속한다. (32c)에서 Sandy Thompson는 미사용된 개체이지만 대화참여자에게 알려져 있다는 가정 아래 담화-신정보, 청자-구정보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Prince(1992)에 따르면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담화의 지위가 결정될 수 있는데, 청자-구정보이면

55) Prince(1992:309)에서 인용.

담화-구정보와 담화-신정보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반면 청자-신정보이면 담화-구정보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담화-구정보에서는 수신자가 이전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에 의해 담화-구정보에서 청자-구정보가 추론 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정성에 대한 담화 맥락적 해석과 정도성의 개념을 받아들여, 정보적 한정성의 기본적인 틀을 Prince(1992)의 체계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Prince(1992)에서는 Prince(1981)의 틀을 수정 보완하여 재정립하였는데, 담화를 구성하는 담화 지위와 수신자 지위를 통해 담화지시체가 발현될 수 있는 정보적 영역을 설정하였다. Prince(1992)의 체계는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인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담화적 지위에서 화자의 지식이 아닌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가정을 통한 수신자의 지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화자의 비한정명사구의 선택은 청자에 대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Prince(1992)의 체계에서는 담화 맥락과 연관된 청자에 대한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Lambrecht(1994:80)에서는 비한정명사구에서 화자와 청자사이에서 확인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시적인 해석에서는 화자에게 확인 가능하지만 청자에게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비지시적 해석에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확인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56]

(33) I am looking for a book.
나는 어떤 책 한권을 찾고 있어요.

Lambrecht(1994:80)에 의하면 (33)에서 ‘a book’과 같은 비한정명사구의 선택은 화자에게는 확인 가능하지만 청자에게는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가 화자에게 확인 가능하다는 전제는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지시체의 정보적 지위는 화자가 특정할 수 있는 지시체를 비한정명사구로 표현하는 데

56) Lambrecht(1994:80)에서 인용.

있어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33)의 문맥을 변경하여 ‘She is looking for a book.’이라고 발화한다면 화자에게 ‘a book’의 특정성 정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a book’의 확인가능성은 담화 맥락적 측면을 생략하고는 정확하게 분석되기 어렵다. 만약 담화 지위와 청자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포함한 청자의 지위를 상호 교차적으로 활용한 Prince(1992)의 체계를 따른다면 이러한 비한정명사구가 발현하는 지시체의 다양한 층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담화지위의 설정을 통해 담화 층위에서 추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 층차를 정교화 할 수 있다. 담화 상태는 담화지시체의 정보에 대한 해석이다. Prince(1992)는 청자를 담화지시체에 대한 담화상태를 결정하는 대화참여자로 보는 동시에 담화 층위도 대화참여자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신자에게는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게 되는 담화지시체일지라도 담화상태에 따라 담화-신정보, 담화-구정보의 지위로 나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4) a. I’m waiting for it to be noon so I can call Sandy Thompson.
b. Why are you trying to get in touch with Sandy Thompson?
왜 Sandy Thompson 과 연락을 하려고 합니까?

Prince(1992:303)에 의하면 ‘Sandy Thompson’는 (34a)에서는 담화-신정보, 청자-구정보로 분류되고, (34b)에서는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에 해당한다. 이처럼 (34a, b)에서 ‘Sandy Thompson’은 모두 청자-구정보로 해석되고 있지만 담화 층위에 따라 담화-신정보와 담화-구정보의 지위로 구분되는 점을 통해 담화상태에 따른 지시체의 정보적 지위가 정교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한정명사구는 확인 불가능한 영역이나 식별 불가능한 담화지위로 분류되지만 Prince(1992)의 체계에서는 담화상태의 설정을 통해 청자의 상태에 따른 추론 가능한 영역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57]

57) Prince(1992)에서는 추론의 과정을 ‘추론가능성’이라는 분석틀 밖의 특별한 층위

마지막으로,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 교차적 관계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담화’와 ‘청자’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주어짐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세부적이고 복잡한 층위의 다른 논의들에 비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담화 층위에서 발현되는 지시체의 정보적 한정성은 비록 더 많은 층위를 내포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비록 다양한 층위를 설정하더라도 담화 속에서 지시체의 층위를 구분해내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담화 상태와 청자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 되는 청자 상태를 통해 지시체의 정보적 지위를 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Prince(1992)의 분석틀은 유용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정성의 개념에 있어, 정보적 한정성에 대한 분석과 체계는 다양한 화용적 층차를 포착하고 설명해낸다는 점에서 형식적 구분에 의한 분절적인 분석보다 다소 유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점진적인 화용적 층차와 언어 현상도 분절적인 언어재료로 표현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제나 두 영역의 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식을 통한 구분에서 화용적 층차를 구분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담화맥락에서 발현될 수 있는 화용적 층차에서 다양한 언어형식을 구분해낸다면 형식과 의미간의 불일치 현상이나 예외적인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 설정된 분석틀은 제5장에서 더욱 정교화 될 것이다. 제5장에서 재정립된 분석틀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에서 논의하고 있다. Birner(2006)에서는 담화-구정보의 영역에서 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론을 세분화하였다.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에서는 조응적 추론과 정교한 추론을 설정하였고,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에서는 가교적 추론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 5 장에서 하고자 한다.

# 제3장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

본장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발현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구분하고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유형론적 측면에서 현대중국어의 '一CL(一量)구조'는 비한정 표지로 문법화 되었다. 범언어적으로 부정관사의 문법화는 수사 '하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비한정 표지는 수량 의미를 원형적 의미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담화 층위에서 지칭성의 문법적 기능을 함의하게 되는데, 지시적 해석에서 문법화가 심화되어 비지시적 해석까지 함의하게 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보편적인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이 현대중국어의 一CL(一量)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발견된다는 점을 관측하였다. 따라서 중국어의 비한정명사구는 의미 함축과 탈색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의미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문법화의 연속적인 과정에 의해 특정 구간에서 각 의미영역의 분절적인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능과 특징을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의미·화용적 특성을 토대로 수량, 지시, 비지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연언어에서 세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출현하는 빈도 경향성은 지시(83.8%) > 비지시(10.5%) > 수량(5.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58] 각 의미영역의 특징과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8) 제 1 장에서 언급했듯이, 관측을 위한 코퍼스는 BCC(http://bcc.blcu.edu.cn/)를 이용하였다. 선후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문학, 신문에서 정량적으로 수집하였고, 문맥의 전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중의적 해석의 간섭을 받는 예문을 제외하여 총 1,238 개의 선행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표 3-1: 각 의미영역의 특징과 빈도

| 영역 | 의미 특징 | 빈도(비율) |
|---|---|---|
| 지시 (Ref) | 특정한 지시체를 가리키거나 상정하는 것으로 문맥에서 지시적(referential)으로 해석된다. | 1037(83.8%) |
| 비지시 (Non-Ref) | 특정한 지시체를 지시하지 않고 속성적(attributive)으로 해석된다. | 130(10.5%) |
| 수량 (Numeral) | '하나'라는 수량적 의미를 뚜렷하게 나타내거나 보유한다. | 71(5.7%) |

계속해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이 자연언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지시, 비지시, 수량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 3.1 지시 의미영역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는 특정한 지시체를 상정하거나 가리킨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해석된다. 전술했듯이, 부정관사의 문법화 측면에서 지시적 의미는 지시체를 담화 속에 새롭게 등장시키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전형적인 화용적 기능은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이다.

정보적 관점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확인 불가능하거나 접근가능성이 낮은 의미적 속성에 의해 제시적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Lambrecht(1994:191)에 의하면 비한정명사구는 확인 불가능한 지시체이므로 단정적 명제를 표현하는 구문에 사용되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시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기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단언적 성격을 지닌 구문으로 인식되고,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기능은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으로 보는 견해(内田 庆市 1993, 曹秀玲 2005, 魏红・储泽祥 2007, 方梅 2019 등)와 함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새롭게 등장하는 지시체에 의해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을 묘사

한다는 점에서 일반판단(thetic)의 논리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Li(1996), 백은희 2006, 陆烁·潘海华 2009, 孔凡莲 2017 등)는 언어학적 근거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전형적인 화용적 해석 외에 수많은 문맥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한정명사구의 예외적인 현상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관측되기도 하였다. 讚井 唯允(1993)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설명하였다.

(1) 从前有四个瞎子，他们都认为自己很聪明。有一天，他们坐在树下谈话。一个人赶着象　走过来，大声喊着："象来了，象来了！"一个瞎子说："象是怎么样的？我们来摸一摸 吧。"
옛날에 네 명의 장님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사람이 코끼리를 몰고 와서 큰소리로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왔어요!"라고 외쳤다. 한 장님은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讚井 唯允(1993)는 (1)에서 '一个人'은 'a man'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동일한 비한정명사구 형식인 '一个瞎子'는 'a blindman'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a blindman'로 번역한다면 선행어의 '四个瞎子' 중의 '하나'가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또 다른 '瞎子'가 된다는 것이다. 讚井 唯允(1993)는 이를 통해 영어의 부정관사를 사용한 비한정명사구와 중국어의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대칭적인 용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현대중국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화용적 층위를 추론할 수 있었다. 비슷한 관측은 王灿龙(2003)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59]

59) 王灿龙(2003)에서 인용.

(2) a. 我请了两个朋友帮我打理，一个女的负责稿接待，一个男的负责稿联络。
나는 두 명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한 여자친구는 응대 담당이고, 한 남자친구는 연락을 책임지는 것이다.

b. 他一下招聘了俩女孩，一个女孩是舞蹈学院毕业的，一个女孩是音乐学院毕业的。
그는 한 번에 두 명의 여자아이를 채용하였다. 한 여자아이는 무용을 전공했고, 한 여자아이는 음악을 전공했다.

王灿龙(2003)는 (2a, b)에서 선행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발현하는 담화지시체의 접근가능성과 개체화 정도가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측들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서 항상 새롭게 등장하는 지시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담화 층위로 범위를 확장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화용적 층차는 담화 맥락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관측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서 다양한 층위의 한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맥 속에서 한정성은 일반적으로 추론 가능한 선행어의 유무(有無)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맥적 한정성을 기준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화용적 영역과 특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총 1,037개의 지시 영역에서 문맥적 한정성의 유무에 따른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2: 지시 의미영역에서 문맥적 한정성 유무에 따른 빈도

| 유형 | 빈도 |
|---|---|
| 문맥적 한정성 없음 | 692개(67%) |
| 문맥적 한정성 있음 | 345개(33%) |

표3-2에서 살펴보면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이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유형보다 두 배 가량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은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유형보다 두 배 가량 높은 빈도로 검출된다는 점에

서 비한정명사구의 비교적 무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유형의 빈도가 상대적으로는 소략하나 그간에 형성된 일견과 달리 자연언어에서 유의미한 수치로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3.1.1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

문맥적 한정성은 선행담화에서 추론 가능한 선행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문맥에서는 선행어가 없다. 따라서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담화에 처음 도입되어 새로운 지시체로 인식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담화 속에서 새로운 지시체를 소개하는 것은 비한정성이라는 의미적 속성과 그에 따른 정보적 해석에 의해 제일 전형적인 화용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60] 内田 庆市(1993:356)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보도문, 소설, 희곡 등의 시작부분에서 주로 사용되어 상황을 묘사한다고 하였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이 새로 시작되는 상황이나 이야기가 환기되는 상황에서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측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기본적인 화용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환경에 출현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상이한 화용적 기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주제승격에 의한 담화주제의 실현 가능성이다.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담화에서 지시체는 문맥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후행담화에서 계속 회자되어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을 갖고 담화주제로 남을 수 있는 경우와 1회성의 단발적인 등장에 의해 담화주제와 무관한 경우이다. 이처럼 동일한 유형에서 화용적 기능에 의해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지만 담화 속에서 주제지속성을 갖는 지시체와 1회성 등장에 그치는 지시체를 각각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으로 설정한다.

---

60)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의 빈도가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유형의 빈도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본고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주된 화용적 기능은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이라는 일견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추론해볼 수 있다.

#### 3.1.1.1 주제도입성

주제도입성은 새로운 지시체가 담화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담화주제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도입 기능은 담화 속에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하여 담화주제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다. Lambrecht(1994:113)는 수분류사(Numeral classifiers)를 가진 언어에서는 분류사가 있는 명사구가 이어지는 담화의 주제어로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수분류사 언어를 넘어 수사 '하나'의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61] 새롭게 등장한 담화지시체가 후속담화에서 회자되며 담화주제로 작용하는 것을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이라고 하는데(Wright & Givón 1987, Sun 1988), 이러한 기능은 부정관사의 전형적인 화용적 기능이다.[62][63]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새로운 지시체의 제시와 주제지속성을 통해 담화주제가 되는 주제도입성은 범언어적인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기본적인 화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닌 담화적 기능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曹秀玲(2005)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담화적 기능을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으로 보았다. 또한 담화주제가 전환될 때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여 새로운 담화주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魏红・储泽祥(2007)은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비록 한정성이 없어 주제가 될 수는

---

61) Lambrecht(1994:83)에서는 수분류사(numeral classifiers)를 가진 언어에서 분류사가 있는 명사구는 지시체의 도입과 같은 담화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분류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수사 '하나'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 Givón(1981)에서는 히브리어의 수사(one)인 'exad'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62) 수분류사(Numeral classifiers)언어에서 'One+CL'의 화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Downing(1984), Hopper(1986)를 참고할 수 있고, 중국어에서는 Sun(1988), Li(2000)를 참고할 수 있다.

63) Sun(1988)에서는 담화분석을 통해 명사구가 새롭게 담화에 소개되어 중점적인 주제로 인식될 때 다양한 형식의 명사구가 사용될 수 있지만, '수사+분류사(NCL)'가 제일 높은 주제지속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의 분석에서 '수사+분류사(Num+CL)'구조의 수사는 대부분 '一'로 관측된다.

없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담화의 주제로 들어가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화용적 기능을 위해 魏红・储泽祥(2007)은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에 있어 후행 문맥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3) a. ?一位男子走进宠物店。
b. 一位男子走进宠物店, 要买一只鹦鹉。
한 남자가 동물 가게에 들어가서, 앵무새를 사려고 하였다.

(4) a. ? 一位旅游者从外地回到家里。
b. 一位旅游者从外地回到家里, 对妻子说 : "……"
한 여행자가 외지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

(3a)와 (4a)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새로 도입되는 지시체이지만 후행담화가 없을 경우 어색하다. 반면 (3b)와 (4b)에서는 후행담화로 인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며 문맥 속에서 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魏红・储泽祥(2007)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비록 접근 불가능한 실체이지만 (3b), (4b)와 같이 후속담화에 의해 특정성이 올라가고 접근가능성이 높아져 담화주제로 남게 된다고 하였다. 方梅(2019)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후속 발화에서 회자될 수 있는 이유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담화 속에 지시체를 새롭게 제시하는 화용적 기능에 의해 지시체가 새롭게 도입되지만, 문맥에서 연상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가능성이 높아져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제도입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지시체이지만 담화주제로 남아 문맥 속에서 특정성이 높아진다. 다음을 보자.

(5) 我回头看到了一副令我气恼的景象：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 i，从柱子后冲出来，φ i 在那盛着钱币的铁碗前一弯腰，φ i 伸手将那张百元大票抓在手里，φ i 然后斜刺里蹿了。他 i 的行动快疾，等我反应过来，人 i 已在十几米外，φ i 沿着庙侧的小巷，φ i 向中美合资家宝妇婴医院的方向狂奔。那小男孩 i 生着两只斗鸡眼，好面熟，我一定在什么地方见过他 i 。想起来了，的确见过他 i 。他 i 就是我们初回来那年，在中美合资家宝妇婴医院开业那天，把一个用纸包裹着的黑瘦青蛙递给姑姑、将姑姑吓昏的小孩

ⅰ。 (莫言≪蛙≫)

나는 고개를 돌려 나를 화나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 한 10 대 후반의 검고 뚱뚱한 남자아이가 기둥 뒤에서 돌진해 나와, 동전이 담긴 쇠그릇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어 그 백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후, 비스듬히 뛰어올랐다. 그의 행동은 굉장히 재빨랐는데, 내가 반응했을 때 그는 이미 병원 방향으로 질주했다. 그 남자아이는 티눈이 두 개 나있었는데, 정말 낯이 익었다. 나는 분명 어디선가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생각이 난다. 확실히 그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돌아온 해에 중・미 합작 자바오 산부인과가 문을 열던 날, 종이로 싼 검은 개구리를 고모에게 건네주어, 고모를 놀라게 한 아이였다.

(5)에서 ‘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는 처음 시작되는 한 광경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시체이다. 따라서 ‘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를 추론할만한 선행어가 없으므로 문맥적 한정성이 없다. 그러나 ‘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는 비록 새로운 정보로 접근가능성이 낮은 지시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후행담화에서 회자되며 특정성을 부여받고 담화 속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제도입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담화지시체는 담화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상으로 ‘확인 불가능한’ 지시체로 담화 속에 등장하지만 담화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시체의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주제도입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적 한정성이 없지만 담화를 통해 특정성이 높아진다는 화용적 특징이 있다.

#### 3.1.1.2 단발성

단발성은 새로운 지시체가 담화에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단발적인 등장에 그치는 경우이다. 단발성은 담화 속에서 새로운 지시체의 등장을 묘사하기 때문에 주제도입성과 마찬가지로 선행담화에 추론 가능한 선행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시체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제도입성과 비슷한 화용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주제지속성이 없이 단순 출현에 그치기 때문에 담화 내에서 지시체에 대한 특정성이나 접근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단발적 해석에 관한 관측이 있었다. 王灿龙(2003)에 의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시간사, 처소사 등과 같은 부사어나 기타 문맥을 배경 정보로 처리하는 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전경으로 묘사하였다. 전경은 비교적 중요한 정보이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돌발적인 사건을 다루며 청자가 선행담화에서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단발적 정보(trivial information)라고 분석하였다. 张伯江(2009)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단순성을 지닌 단발적 신정보(偶现新信息, incidental new information)이기 때문에 후행지속성(启后性)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단발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새로운 지시체의 단순한 출현이라는 화용적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묘사적인 장면에 많이 나타나며 나열, 반복과 같은 생동적인 문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6) a. 油画≪某年某月的某一天≫，貌似平静的草原早晨，一个男人抱柴往房子走，另外几个男女或低声耳语，或仰首望天，似有变故，所有人物都小小的，很有童话意味。 (人民日报海外版 2005 年 01 月 19 日)
유화 ≪어느 해 어느 달의 어느 날≫은 평온한 초원의 아침, 한 남자가 나무를 안고 집으로 향하는데, 또 다른 몇 명의 남녀는 속삭이거나 하늘을 우러러보는 등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모든 인물이 작고 동화적이다.

b. 去年我们在莫斯科看到了立体电影，一辆汽车从银幕上开出来，真叫人吓一跳。电影是进行群众宣传与教育最强有力的工具。
(人民日报 1950 年 02 月 10 日)
작년에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입체 영화를 보았다. 자동차 한 대가 은막에서 나오자 정말 깜짝 놀랐다. 영화는 대중 선전과 교육을 진행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c. 什么地方是大人们玩的地方，偶尔也用来睡觉？答案是“床”。画面上，一个女人半裸着上身，在按遥控器，一个男人偎在她身旁呼呼大睡，露出了两只光脚。 (人民日报 1995 年 10 月 05 日)
어른들이 가끔 잠을 자기도 하는 놀이공간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침대’이다. 화면에는 한 여자가 상반신을 반쯤 벗고 리모컨을 누르고, 한

남자가 옆에 기대어 맨발을 드러내며 쿨쿨 자고 있다.

d. 大约 1 小时后，一架美军直升机把萨达姆运送到提克里特以南一个安全的地方。奥迪厄诺还说，美军在萨达姆藏身的地洞中没有找到电话、电台以及其他通讯设备。他还透露，参加行动的美军士兵预先都不知道这次行动的目的是逮捕萨达姆。 (人民日报 2003 年 12 月 15 日)
약 1 시간 후 미군 헬기 한 대가 사담후세인을 티크리트 남쪽의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다. 미군은 사담후세인이 은신해 있던 동굴에서 전화와 라디오, 기타 통신장비를 찾지 못했다고 오디에르노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작전에 참가한 미군 병사들은 이번 작전이 사담후세인을 체포할 목적이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전했다.

(6a-d)에서는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지시되는 담화지시체가 담화 내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담화에서 지시체에 대한 주제지속성이 없고, 따라서 담화주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6a)에서는 어떤 그림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一个男人'가 새롭게 등장한다. '一个男人'는 장면 속에서 단발적으로 나타나고 묘사된다. (6b)에서는 영화장면을 소개하는데 '一辆汽车' 역시 장면 속에 단발적으로 등장한다. (6c)에서는 장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一个女人'과 '一个男人'의 나열을 통해 생동감 있게 상황을 묘사한다. (6d)에서도 지시체의 단순 출현을 묘사하고 있다. (6a-d)는 모두 새로운 장면과 전환된 장면이라는 점에서 선행담화에서 추론 가능한 선행어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문맥적 한정성 없이 담화 내에 처음으로 등장하거나 묘사되어 낮은 접근가능성을 갖지만 단발적 출현으로 인해 담화 내에서도 특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처럼 단발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담화지시체는 담화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상으로 '확인 불가능한' 지시체로 담화 속에 등장하고, 또한 단발적인 등장으로 인해 담화 내에서 계속해서 '확인 불가능한' 지시체로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단발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적 한정성이 없고 담화를 통해 특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화용적 특징이 있다.

### 3.1.2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유형

다음으로는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담화에서 지시체를 보여주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새로운 지시체로 인식되며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도입성, 단발성과 달리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담화 내에서 추론 가능한 선행어가 존재한다. 선행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되는 지시체의 접근가능성이 직간접적으로 높아진다. 담화 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에 관한 분석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왔지만 전술했듯이 讃井 唯允(1993), 王灿龙(2003), 曹秀玲(2005), 方梅(2019)에 의해 관찰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뚜렷한 기준을 통한 분석이나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맥적 한정성를 지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선행어와의 추론방식을 통해 조응성과 제외성으로 나누고자 한다.[64)]

#### 3.1.2.1 조응성

조응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어와 공지시적(coreferential)인 관계를 갖는다. 이성범(2001:272)은 “자연언어에서 조응 현상이란 광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이 그 해석을 위해 의미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존 언어학에서 대용어에 의한 조응관계를 넘은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통상적으로 선행담화의 명사구를 후행담화에서 공지시하는 대용어는 대명사, 지시사와 같은 한정명사구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비한정명사구는 한정성에 의한 조응적 기능과 상충하는 것이 일반

64) 추론 방식은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언어와 심리적 연결에 의한 용어라고 한다면 언어 사용 측면에서는 조응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본고의 지시적 의미영역의 분류에서 ‘조응성’에 의한 용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추론이라는 용어를 택하기로 한다. 추론 방식에 의한 조응성과 제외성의 구분은 제 5 장의 정보적 지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이러한 조응적 기능을 통해 실체를 지시하기도 한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7) a. 长年累月忘我地工作，使早就积劳成疾的郑世堂终于倒下了。今年 4 月 3 日，郑世堂被确诊为肝癌晚期。就在他生命之火即将熄灭之时，他仍然念叨着：我还想工作。临终前 3 天，他还强忍巨痛，屈身侧卧病床，艰难地翻阅案卷，颤抖的手想在案卷上签下自己的名字，钢笔却掉下来了，案卷上留下了一片墨汁，一个平凡的人走了，一座共产党人的丰碑却矗立在政和县 20 万人民的心中。(劳伦斯・奥利弗≪雾都孤儿≫)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정스탕이 쓰러졌다. 올해 4 월 3 일 정스탕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생명의 불이 꺼지기 직전의 와중에도 그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임종 3 일 전에도 큰 고통을 참으며 병상에 몸을 구부린 채로 옆으로 누워 힘겹게 문서를 뒤적거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려다가 만년필이 떨어져 문서에 먹물 자국이 남겨졌다. (그렇게)한 평범한 사람은 가버렸으나 한 공산당원의 위대한 공적은 정화현 20 만 인민들의 마음속에 우뚝 서 있다.

b. 记得 1989 年到省委党校学习，在党校图书馆竟借到了往日在省图书馆不曾借到的蒋学森的≪红楼梦论稿≫。这时，离学习结束只有五六天了。一本三百多页的书，我两个晚上读完后，真有点恋恋不舍。

1989 년 성위원회당교에서 공부할 때,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빌리지 못했던 장쉐썬의 ≪红楼梦论稿≫를 빌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 공부가 끝나기까지는 5, 6 일밖에 남지 않았었다. 300 여 쪽 되는 책 한 권을 이틀 밤에 다 읽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c. “长工犁田不捡岩，晓得明年哪个来。” 一句古话流行到今天。

(人民日报 1995 年 12 月 16 日)

“머슴이 밭을 가는데, 바위를 줍지 않으면 내년엔 어떤 일이 생길지 안다.” 옛말 한마디가 오늘날까지 유행하고 있다.

(7a-c)에서는 선행담화의 실체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시하는 실체가 공지시적 관계를 갖는다. (7a)에서는 ‘郑世堂’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는데, ‘郑世堂’

은 이미 문맥적 한정성을 부여받은 담화지시체로 후행담화에서 대명사, 혹은 지시사 등의 한정명사구의 대용어로 조응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인 '一个平凡的人'으로 재지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b)에서 '一本三百多页的书'도 선행담화에 등장한 '≪红楼梦论稿≫'를 공지시하고 있다. (7c)에서는 비한정명사구 '一句古话'가 해당 내용을 재지시하고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조응적 기능은 문맥적 한정성과 조응되는 실체와의 일대일 관계에 의해 접근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7a-c)에 출현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앞에 조응을 나타내는 '这'와 같은 한정어의 첨가가 가능해진다.

#### 3.1.2.2 제외성

제외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어로부터 추론 가능하다. 선행담화에 설정된 집합 속에서 많은 개체들이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제외되고,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행담화에서 일정한 집합으로 한정되어진 개체들은 후행담화에서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선택된 지시체 외에는 제외된다. Hawkins(1978)는 한정성과 구분되는 비한정성의 특성으로 제외성(exclusiveness)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상정된 집합에 등장하는 개체들 중 나머지 개체들을 제외시키고 하나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한정성의 특성은 포괄성(inclusiveness)에 의해 유일하게 지시되는 한정성과 구별된다(Hawkins 1978:130). 본 분류에서 제외성은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담화 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선행담화에 상정된 집합의 선행어를 통해 나머지 개체들을 제외시키고 유일하게 하나가 선택된다는 점에서 비한정성의 전형적인 기제로 인식될 수 있다. 다만 문맥에 의해 가시적인 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맥 지향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을 살펴보자.

(8) a. 战斗进行得很顺利，当我朝最后一只羊的树上走去时，我遇见了三只狼，它们早已爬到树上，而且快要把那只羊吃完了。我因为患感冒而变得半瞎半聋，并没有先发觉它们，差一点儿踩到狼脸上。而那些狼，看见我这另一只羊站立着从树上走过来，就朝我扑过来，龇裂着还沾有鲜血的嘴。我的枪膛是空的，因为在多次射击之后弹药打光了，而我又不

能拿到那支在这棵树上预先准备好的枪，因为那几只狼在上面。我那时站在一根侧枝上，这枝条还很嫩，但是在我头上伸手够得着的地方有一根很粗壮的枝。我开始在侧枝上倒退着走，慢慢地离开主干。一只狼也慢慢地追跟着我。但是我用手勾住了上面的那根枝。

(让・德・拉封丹≪拉・封丹寓言≫)

전투가 잘 진행돼 마지막 양이 있는 나무로 향하던 중 늑대 세 마리를 만났다. 그것들은 이미 나무 위에 올랐고, 곧 그 양을 다 먹어 치울 것이다. 나는 감기에 걸려 반쯤 멍해져서 그들을 먼저 알아채지 못하고 하마터면 늑대 얼굴을 밟을 뻔했다. 그런데 그 늑대들은 내가 다른 양 한 마리가 서있는 나무에서 다가오자 나를 향해 달려들어 피 묻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 총은 텅 비어 있었다. 여러 번 사격한 후에 탄약이 다 떨어졌고, 나는 또 이 나무에 미리 준비해 놓은 총을 가져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늑대들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곁가지 위에 서 있었는데, 이 가지는 매우 약하지만, 내 머리 위에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에 아주 굵디굵은 가지가 있었다. 나는 곁가지에서 뒷걸음질 치며 천천히 나무줄기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늑대 한 마리는 천천히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그 가지를 잡아 챘다.

b. 幸而别的人已经赶到，日本人不能再扔石头。一个日本人带着一把斧子，对准为首的人就劈下来，为首的人迅速一拳打中日本人的肚子，斧子落在车上。赶骡子的中国人跑掉，车停住了。 (林语堂≪京华烟云≫)

다행히 다른 사람이 이미 도착해서, 일본인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질 수 없었다. 한 일본인은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수장을 향해 내리쳤다. 수장은 재빠르게 그 일본인의 배를 가격했지만 도끼가 차 위로 떨어졌다. 노새를 몰던 중국인이 도망 가버리자 차가 멈추었다.

(8a)에서 ‘一只狼’은 선행담화에 나타난 집합 ‘三只狼’, ‘那些狼’이라는 집합에서 선택된 하나의 개체이다. (8b)에서도 맨명사구인 선행어 ‘日本人’은 복수로 집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행 담화에서 비한정명사구 ‘一个日本人’는 나머지 개체를 제외하고 선택된 하나의 개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8)에서는 제외성을 나타내며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담화에서 추론 가능한 집합을 통해 선택된 하나의 개체로 인식된다.

## 3.2 비지시 의미영역

의미론적 측면에서 비지시적 의미는 지시의 존재론적 해석과 달리 총칭적 해석으로 분류된다. 부정관사의 문법화 측면에서 비지시 의미영역은 부정관사 一CL(一量)의 문법화 과정에서 심화된 의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一CL(一量)에 나타나는 수량 '하나'의 의미는 문법화에 의해 탈색되어 문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부정관사의 문법화에 의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분화에 의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다른 수량의 NCLN(数量名) 구조와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刘丹青(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이 다른 수량과 구분된다는 점을 관측한 바 있다.

(9) a. 一位客人，怎么能对主人这样不礼貌?
손님이 어찌 주인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b. ？三位客人，怎么能对主人这样不礼貌？
c. *一些学生，就应该好好学习

(9)는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명제인데, (9a)와 같이 수량 '하나'는 가능하지만 (9b)와 (9c)처럼 다른 수량 혹은 복수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9)에서처럼 총칭적 명제에서 수량적 의미가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一CLN(一量名)은 문법화에 의해 '하나'라는 원형적 의미가 탈색되어 간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 의미영역에서 수량 '하나'의 의미가 소실되어간다는 추론은 비지시적 해석에서 一CL(一量)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가능하다. 方梅(2019)는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一CL(一量)이 생략되어도 문맥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10) (一个)人关键是要有理想，循序渐进并且持之以恒。
무릇 사람은 이상을 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方梅(2019)는 (10)에서 '一个人'은 '人'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一量名'이 개체명사로 해석되지 않고 속성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비지시적 해석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一CL(一量)이 생략 가능하다는 것은 맨명사구(bare NP)와 형식적으로 동일해짐과 동시에 총칭적 해석이라는 의미적 동일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와 맨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된다.

刘安春(2003:65-66)은 총칭명제를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일반적인 명제와 양상동사에 의해 실현되는 명제로 나누었다. 맨명사구는 두 부류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应该', '能', '可以' 등의 양상동사와 공기하여 총칭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묘사하였다. 이에 박다래(2012)에서도 '一个'가 문두에서 총칭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양상동사와 함께 출현해야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李劲荣(2013)은 맨명사구와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를 각각 보편성과 규범성이라는 명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맨명사구는 보편적 진리, 자연현상에 관한 명제에 사용되어 비교적 불변의 영속성을 나타내며, 주로 판단문이나 개체층위 술어[65]에 의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반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사회 보편적 가치 및 통념과 같은 규범적인 성격을 통해 나타나므로 주로 의무 양상동사와 함께 명제를 표현한다고 하였다.[66] 그러나 본고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의무, 당위적 명제 혹은 일반적인 명제 등에서 모두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5)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는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와 함께 술어의 속성을 정의내린 개념이다. 계사에 의한 판단문, 형용사 술어에 의한 영속적 속성의 기술 등이 개체층위 술어에 해당된다. 비한정명사구와 술어의 분류는 4.1.1 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66) 李劲荣(2013)에서는 一 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와 맨명사구(Bare NP)의 총칭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1) a. 一个革命战士可千万不能脱离劳动！
혁명전사는 절대 노동을 떠나서는 안 된다.
b. 一本书就是我的一位老师呀。
책은 바로 나의 선생님이다.
c. 一个女人生孩子按说是多么正常的事情!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인 일인가!
d. 一本书意味着精神意义上的远方，我们透过书本认识五星红旗、见到天安门、看见世界。
책은 정신적인 의미의 먼 곳을 의미한다. 우리는 책을 통해 오성홍기를 알고, 천안문을 만나고, 세계를 보았다.

(11a)에서는 의무를 나타내는 양상동사에 의해 당위성, 책임 등을 나타내는 규범적 명제를 통해 총칭적으로 해석된다. 반면 (11b-d)에서는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이 다양한 개체층위 술어에 의해 총칭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b)에서는 是-판단문에 의해 '一本书'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11c)에서는 내포문의 주어에 '一个女人'이 출현하여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11d)에서 '一本书'는 '意味'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에 의해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67]

그렇다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실현되는 비지시적 해석은 맨명사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内田 庆市(1993)는 맨명사구와 달리 一

| | 맨명사구(bare NP) | 一 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 |
|---|---|---|
| 화용의미 | 보편성 | 규범성 |
| 화용상황 | 공리, 자연 현상 | 가치관, 의무 |
| 문체 | 설명글 | 논설 |
| 부각 | 내포(connotation)부각 | 개체 부각 |

67)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에서 양상동사의 출현이 비교적 의무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고의 관측에서는 판단문을 포함한 개체층위 술어로 실현되는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양상동사의 공기보다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범주 | 비율(%) | 특성 |
|---|---|---|
| 양상동사 | 36% | 강령, 목표, 윤리 등을 나타내는 당위성에 관한 총칭적 명제 |
| 개체층위 술어 | 64% | 일반적인 진리,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보편성에 관한 총칭적 명제 |

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총칭적 명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총칭적 해석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다. 内田 庆市(1993)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12) a. *一部脚踏车很贵。[68]
b. 一部自行车很贵。[69]

内田 庆市(1993)에 의하면 (12a)와 (12b)는 동일한 명제이지만 각각 다른 두 연구자에 의해 다른 수용도를 보인다고 하였다.[70] 内田 庆市(1993)는 하나의 명제에 대한 두 원어민 연구자의 상이한 수용도는 방언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연구자 각각이 상정해낼 수 있는 문맥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内田 庆市(1993)는 아래 (13)과 같은 문맥을 상정해낸 연구자는 (12)의 명제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13) 在中国, 一部自行车很贵。
중국 내에서, 자전거 (한 대)는 비싸다.

(13)에서 内田 庆市(1993)는 '在中国(중국내에서)'와 같은 사회적 범위가 설정된다면 해당명제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한 대 가격은 비싸다'라는 명제보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전거 한 대 가격은 비싸다'라는 명제는 사회문화적 영역의 설정에 의해 훨씬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内田 庆市(1993)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 규범적 범위의 제한을 많이 받는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内田 庆市(1993)에서는 맨명사구와 달리 一

68) Teng(1975): 内田 庆市(1993)에서 재인용.
69) 大河内(1985): 内田 庆市(1993)에서 재인용.
70) (12a)에서 '脚踏车'는 지역 방언인 상해어에 해당하고, (12b)에서 '自行车는' 표준 중국어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는 총칭적 해석을 나타낼 수 없다고 결론 맺고 있다.[71]

그러나 총칭적 명제에 관여하는 보편적 현상, 가치와 사회문화를 반영한 축소된 영역에서의 가치와 규범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 Lyons(1977/2011:310)에 따르면 본질적 명제가 총칭명제 중 가장 쉽게 정의될 수 있지만 모든 총칭 명제가 본질적 명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총칭 명제는 '본질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특정적으로'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제들의 진리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종류의 총칭 명제들이 있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72] 杉村博文(2002)은 총칭적 해석에

---

71) 内田 庆市(1993)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칭적인 명제에서 비한정명사구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들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에서는 총칭적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a. *一只老虎是危险的动物。
b. 老虎是危险的动物。
호랑이는 위험한 동물이다.

72) Lyons(1977/2011:311)에서는 다음과 같은 총칭명제에서는 명사구의 형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문맥에서 총칭적 명제는 한정명사구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The lion is extinct.
사자는 멸종했다.
b. The lion is no longer to be seen roaming th hills of Scotland.
사자가 스코틀랜드의 언덕을 돌아다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c. *A lion is extinct.
d. *A lion is no longer to be seen roaming th hills of Scotland.

반면 Lyons(1977/2011:307)에서는 다음과 같은 총칭적 해석에서 다양한 명사구에 의해 총칭적 지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a. The lion is friendly beast.
b. A lion is friendly beast.
c. Lions are friendly beast.
사자는 친근한 동물이다.

이러한 언어현상을 통해 총칭적 지시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총칭적 명제의 층차에 의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관여하는 진리치(情理值)의 근원은 다방면이며 한마디로 개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상식, 화자의 주관적 의식 또는 언어가 구현되는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총칭적 명제의 구분은 그 층차를 가늠하기에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류 보편적 범위에서 사회 문화로 축소된 범위로 갈수록 명제의 총칭성에 대한 척도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총칭적 지시를 나타내는 명사구 형식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화자(작가)의 선택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作家'에 대한 총칭적 해석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맨명사인 '作家'와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인 '一个作家'가 한 명의 화자(작가)에 의해 각각 다르게 선택되고 있다. 또한 (14)의 문맥에서 두 형식의 선택에 대한 다른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14) a. (一个作家/作家)不应把社会工作当作"救生的盾牌"，以之掩盖长年无新作品问世的事实。
작가는 사회사업을 '생명을 구원하는 방패'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신작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b. (一个作家/作家)不能在出版一二本好书之后，就懒散起来，而由"一个劳动者变为一个半二流子"。
작가는 한두 권의 좋은 책을 출판한 후에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노동자에서 아류로 변하게 된다.

c. (一个作家/作家)应当过着充满劳动的生活，应当找时间学习、阅读、自修，简言之，应当成为……劳动者。
작가는 노동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해야 하며,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읽고, 독학해야 한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4)의 문맥에서 서로 다른 명사구 '作家'와 '一个作家'의 사용에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서 뚜렷한 선택경향성을 발견해낼 수 없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총칭성에 대한 모호성과 더불어 총칭지시를 나타낼 수 있는 두 형식의 공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술했듯이 비지시 의미영역의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부정관사 一CL(一量)의 생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 형식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영역은 물론 형태까지 동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형식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록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와 맨명사구의 두 형식이 비지시적 해석이라는 동일한 의미 영역에서 표면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가 맨명사구와 문맥적 특성에서 구분되는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刘丹青(2002)은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을 총칭 명사구로 분류하였지만 맨명사구가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는 제일 원형적이고 핵심적인 형태라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73]

(15) a. *一个保险推销员现在真多。
b. 这保险推销员现在真多。[74]
보험 판매원은 지금 정말 많다.

(15)의 문맥에서 술어인 '多'는 척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절대성 형용사에 해당한다. 이때 맨명사구인 (15b)와 달리 (15a)의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수용불가하다. 刘丹青(2002)은 술어가 복수를 의미하므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一CLN(一量名)이 여전히 개체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刘丹青(2002)은 이를 통해 맨명사구에 비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가 덜 원형적인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현상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인 해석은 개체가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의 과정으로 분석하였고, 따라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여전히 개체성을 지니고

73) 刘丹青(2002)에서 인용.
74) 刘丹青(2002)에서는 강세 없는 '这'는 주제를 나타내는 지시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있다는 점에서 맨명사구의 총칭성과 구분하였다.[75] Lyons(1977/2011:312)는 한정명사구와 비한정명사구 사이의 총칭적 해석에 관한 명백한 한 가지 차이는 한정명사구에서는 집단적 해석과 배분적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단수 비한정명사구에서는 집단적 해석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刘丹青(2002)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개체성에 대한 해석을 잘 설명해준다.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비록 수량의 의미가 탈색되었지만 맨명사구와 달리 부정관사에 의해 여전히 개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적 해석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은 맨명사구에 비해 집단적인 해석에 가까운 필연적 명제에서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적 해석이 맨명사구보다 더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刘安春(2003:65-66)에 따르면, '一个'가 주어 위치에서 총칭적 용법으로 쓰이는 문장에서는 화자의 주관 판단이나 주관 인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认为'와 같은 인식 동사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명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76]

(16) a. *我认为猫喜欢吃鱼。
b. 我认为一个学生就应该好好学习。
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동사 '认为'를 통해 '猫喜欢吃鱼'와 '一个学生就应该好好学习'의 수용여부를 판단하였다. (16a)에서와 같이 맨명사구에 의한 총칭명제는 수용 불가하지만 (16b)에서와 같이 一CLN(一量

75) 비지시 비한정명사구의 개체성은 문장단위에서는 술어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문맥단위에서는 개체성이 희미해지고, 단수와 복수를 투영할 수 있다. 이는 비한정명사구의 문법화에 따른 정도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76) 刘安春(2003:65-66)에서 인용.

名) 비한정명사구의 총칭명제는 가능하다. 이처럼 刘安春(2003)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인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은 맨명사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우리는 자연언어에서 비지시적 해석이 나타나는 是-판단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

(17) a. 猎豹是陆地上奔跑速度最快的动物，被称为“短跑冠军。[77]
치타는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단거리달리기 챔피언’으로 불린다.
b. 一本书就是一首歌谣。这不是面对灾难的哭泣，也不是在无奈中发出的哀叹，这是一首在消灭灾难于狂暴之时响彻云霄的战歌。
책은 가요이다. 재앙을 앞에 두고 우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뱉는 비탄도 아니다. 재앙이 공포에 울려 퍼질 때 울리는 군가다.
c. 一本书就是一个“纸上博物馆。在博物馆界深耕多年，周功鑫深知“真实”的感染力，也把它定位为丛书最大的特点。
책은 바로 ‘종이박물관’이다 박물관계에서 여러 해 동안 깊이 갈고 있는 周功鑫은 ‘진실’의 전파력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총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겼다.

(17)에서 술어는 모두 ‘是’에 의한 판단문인데, 두 명사구 형식이 변별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7a)에서는 맨명사구가 선호되고 (17b, c)에서는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가 선호된다. (17)의 명제는 모두 총칭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화자(작가)의 주관성 개입이라는 점에서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17a)에서는 일반적인 자연현상, 사실에 관한 명제로 화자(작가)의 주관성이 배제되어 있지만 (17b, c)는 은유와 같은 비유적 명제로 인해 화자(작가)의 주관성이 비교적 높게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7a)와 (17b, c)의 두 명제는 화자(작가)의 주관성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된다.

이처럼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가 더 선호되는 문맥에서는 화자(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주관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

77) 李劲荣(2013)에서 인용

명사구가 맨명사구보다 덜 필연적인 명제 혹은 덜 객관적인 명제에서 수용가능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가 비지시적 해석에서 맨명사구보다 화자의 주관성이 더 개입된다는 가정은 명제를 넘어 담화 층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刘安春(2003:65)은 다음과 같은 총칭 명제에서는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와 맨명사구가 모두 호환 가능하다고 했다.

(18) a. 医生, 关心病人是应该的。
b. 一个医生, 关心病人是应该的。
의사는(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8)의 두 문장의 수용도는 담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의사의 덕목을 설명하는 글이나 담화의 제목 혹은 시발문(始发句)으로는 (18a)의 수용도가 더 높아지지만, 만약 어떤 의사의 행위나 사건을 구성하는 담화에서는 (18b)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18a, b)에서 두 명사구의 변별적 사용이 비지시적인 '医生'을 상정할 수 있는 실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의사의 덕목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医生'을 상정할 수 있는 지시체가 없지만, 어떤 의사에 관한 글에서 '医生'은 실체를 상정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주관성 개입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a. 一个医生, 关心病人是应该的。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b. 一个医生, 你就应该关心病人。[78]
의사로서, 당신은 환자를 돌봐야 한다.

78) (19b)에서는 '一个医生'을 조응하는 대명사 '你'에 의해 지시 의미로 오인될 수 있으나, 문장 내에서 '의사'의 덕목, 가치를 포함한 일반적인 유형을 통해 속성적(attributive)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你是一个医生'의 '一个医生'이 비록 계사에 의해 '你'와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을지라도 속성적(attributive) 해석에 의해 비지시 의미를 지니는 것과 같다.

(19)의 문맥에서 ‘一个医生’은 모두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담화 속에서 해석의 층차가 존재한다. (19b)의 문맥에서는 (19a)와 달리 ‘一个医生’을 상정할 수 있는 지시체가 대명사 ‘你’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시적인 2인칭 대명사 ‘你’를 통해 상황적 맥락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만약 선후행의 담화 없이 단독으로 발화해야하는 상황이라면 (19a)보다 (19b)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원어민 화자의 직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담화 속에서 상정하거나 투영할 수 있는 실체를 통해 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박다래(2012:81)에서는 담화 문맥상의 해석에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은 문맥 속에서 동일 지시하는 명사구가 있어야 하며 이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투영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상정되는 실체와의 의미 영역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칭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20) ≪钱钟书集≫出版，不必召开新闻发布会，不必举行作品研讨会，更不需要炒作，一本书，应该由书自身的力量来吸引广大读者。

(人民日报海外版 2001 年 01 月 05 日)

≪钱钟书集≫가 출판되었으나 기자회견이나 출판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 노이즈마케팅은 더욱 필요 없다. 책은 본연의 힘으로 독자를 끌어당겨야 한다.

(20)에서 ‘一本书’는 실체가 없는 비지시적 해석이지만 담화 속에서 ‘一本书’를 상정해낼 수 있는 실체 ‘≪钱钟书集≫’가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며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钱钟书集≫’와는 달리 ‘一本书’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두 명사구의 의미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는 실체가 복수명사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칭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21) 实际上，做这行的人时时都处在斗争的状态之中，她们时时都处 在紧张的状态里，人就容易老，而她们呢，又最怕自己让人看出老来，化妆便往往过了头。一个女人可以靠化妆品美丽，可以靠服装不同凡响，但却很难做到清纯。 (王祥夫≪雨夜≫)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쟁 상태에 있다. 그녀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사람은 쉽게 늙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에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제일 걱정하여 화장을 과하게 한다. 여자는 화장품으로 예뻐지고, 옷으로 튀기 쉽지만, 오히려 청순하기는 어렵다.

(21)에서 '一个女人'은 비지적 해석이지만 담화 속에서 상정할 수 있는 실체가 '她们'으로 복수 개체이다. 따라서 '一个女人'과 '她们'은 지칭 방식의 차이에 의해 의미영역이 다르다. 刘丹青(2002)에서도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에서 지칭 관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79]

(22) 一个学生(么)，就应该好好学习。
학생은(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刘丹青(2002)에서는 (22)에서 비지시적 해석의 '一个学生'이 상정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 한명 혹은 여러 명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어민의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도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은 담화의 실체를 상정해낼 수 있지만 단수는 물론 복수적 개체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재지시적 지칭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의미,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은 넓은 의미에서 총칭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명사구에 비해 덜 필연적이고 덜 본질적인 명제에 출현하게 되고, 담화문맥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화용적 특징이 있다.

79) 刘丹青(2002)에서 인용.

## 3.3 수량 의미영역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 영역과 비지시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존재론적 해석과 총칭적 해석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의 관점에서 一CLN(一量名)는 원형적 의미인 '하나'의 수량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 공시적인 언어 현상에서도 지시적 의미와 구분되는 수량적 의미가 발현되는 현상을 통해 수량적 의미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경험적인 자료의 관측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Xu(1997)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존재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와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전칭양화(universal quantification)로 구분한 바 있지만 아무리 총칭적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여도 다음과 같이 총칭적 해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80)]

(23) a. Yi ge ren zhong bu ru liang ge ren qiang.
a CL person always not than two CL person strong
'One person is never as strong as two.'
b. Yi ge mianbao bu gou yi dun wufan.
a CL bun not enough a CL lunch.
'A bun is not enough for a lunch.'

(23a-b)에서 'Yi ge ren'과 'Yi ge mianbao'는 실체를 지시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전칭양화의 '모든', '대부분'의 총칭적 명제로도 해석되기 어렵다. 오히려 두 문장에서 'Yi ge ren'과 'Yi ge mianbao'는 모두 수량 '하나'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과 경험적 관측을 통해 현대중국어의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에서 수량적 의미영역을 설정

80) Xu(1997)에서 인용.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陆烁・潘海华(2009)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분배문(分配句)은 수량의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수량적 의미에 해당하는 분배문(分配句)을 총칭문(通指句)에서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邓思颖(2003)에서도 NClN(数量名) 주어의 문법적 기능 외에 수량적 의미가 부각되는 구문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빈동사(空动词)에 의한 분배문(分配句)이다. 분배문(分配句)은 수량의 배분적 명제를 지니기 때문에 문두의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는 수량 '하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4) a. 一个人搬两捆。[81]
사람 한 명이 두 단을 옮긴다.
b. 一个房间两个人。[82]
방 하나에 두 사람이다.

(24a, b)에서 '一个人'과 '一个房间'은 수량 '하나'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매', '각각'이라는 명제적 의미를 통해 배분적 해석을 갖는다. 또한 (24b)에서는 빈동사(空动词)에 의한 분배문(分配句)이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치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83] 陆烁・潘海华(2009)는 이러한 문장은 '모든' 혹은 '대부분'과 같은 전칭양화의 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문두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수학식 혹은 기타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명제에 의해서도 수량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Tang(1998)은 이를 특수문(characterizing sentence)으로 보고 있다. 다음의 예시

81) 陆烁・潘海华(2009)에서 인용
82) 邓思颖(2003)에서 인용.
83) Tang(1998)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flip-flop sentences, 乾坤挪移句)라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a. 一锅饭吃三个人。
b. 三个人吃一锅饭。

를 보자.[84)]

(25) a. 一杯咖啡要二十块。
커피 한 잔은 20 위안이다.
b. 一只松鼠加三只松鼠一共有四只松鼠。
다람쥐 한 마리에 다람쥐 세 마리를 더하면 모두 네 마리의 다람쥐이다.

(25a, b)에서는 모두 수량적 명제에 의해 수량 '하나'의 의미가 현저하게 표현된다. (25a)에서는 가격에 관한 명제로 '一杯咖啡'에서 '한 잔'이라는 수량적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25b)에서는 수식에 관한 명제로 '一只松鼠'에서 '한 마리'라는 수량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는 부정관사 문법화의 원형과 앞서 제시한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언어자료에 의해 독립적인 의미영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각 의미영역이 함축되고 탈색되는 과정을 통해 교차되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호함을 용인하더라도 각 의미영역이 지닌 고유하고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영역과 비지시적 의미영역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하게 된다.

문두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는 지칭관계에 있어 지시적 의미영역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Li(1998)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대명사나 재귀대명사와 조응하여 공지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Li(1998:700)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명사의 조응관계에 대한 차등적 해석을 통해 수량적 의미를 구분해내고자 하였다.

(26) a. *San ge ren$_i$ taibudong ni gei tamen$_i$ de gangqin.
three CL people lift not move you give them DE piano

84) Tang(1998)에서 인용.

'Three people cannot lift up a piano you gave to them.'

b. Zhangsan$_i$ zhidao san ge ren$_j$ yiding ban-de-dong zijii$_i$ /$_j$* de gangqin.
Zhangsan know three people certainly move-able-move self's DE piano
'Zhangsan knows that three people certainly can move self's piano.'
장싼은 세 사람이 (장싼)자신의 피아노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Li(1998:700)는 (26a)에서 'Sange ren'이 수량적으로 해석될 경우 대명사 'tamen'은 선행어인 'Sange ren'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26b)에서 재귀대명사인 'ziji'는 'Sange ren'을 조응할 수 없기 때문에 'Zhangsan'을 조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에 따라 수량적 의미영역은 지시적 의미영역과 지칭관계에서 상이한 층차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두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영역과 의미적, 문법적 기능에서 구별될 수 있지만, 실체를 지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지시적 의미영역과 구분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문두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와 수량적 의미를 구분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이 수량적 의미를 비지시적인 해석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왕하(2020:84)는 불특정 해석에서 비단일성은 대부분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며, 대부분 一CLN(一量)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27) a. 有时候，*(一个)决定就[会]改变你的生活。[85]
때때로, 하나의 결정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b. *(一批)货可以净赚千余两纯利。
화물 한 무더기는 2 천여 톤의 순익을 낼 수 있다.

(27a, b)에서 '决定'과 '货'는 모두 실체를 지시하거나 상정하지 않는 비지시

85) *(X)의 표식은 Li & Thompson(1981/2013)을 참고한 것으로 적합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X 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적인 해석이다. 왕하(2020)는 총칭 의미를 나타낼 때 一CL(一量)을 생략할 수 있지만 (27a, b)와 같이 생략할 수 없는 문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왕하(2020:84)에서는 (27a)에서는 비록 '决定'은 불특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총칭적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7a)에서 '决定'은 '단 하나(많은 결정이 아닌)'라는 화용적 의미를 통해 다른 수량과 구분되는 '하나'의 수량적 해석이 부각되고 있고 있으므로 一CL(一量)의 생략이 불가해지는 것이다. 또한 왕하(2020:48)는 (27b)의 문맥에서 '货'가 무계명사이기 때문에 一CL(一量)이 생략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계명사는 부정관사 一CL(一量)에 의해 윤곽을 부여받기 때문에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더라도 一CL(一量)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하(2020)의 분석과는 달리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는 유계명사에서도 실체를 지시하지는 않지만 一CLN(一量)이 생략될 수 없는 다양한 문맥을 찾아볼 수 있다.

(28) a. 三、日光灯使用期限长。一个电灯泡约可使用一千个小时，而日光灯管则能使用二 千五 百个小时以上。 (人民日报 1958 年 04 月 07 日)
형광등은 사용기간이 길다. 전구 한 개당 약 천 시간 사용할 수 있지만, 형광등 튜브는 이천오백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b. 一本书预订一万册才能起印，发行三万册才能保本。
(人民日报 1986 年 04 月 01 日)
책 한 권당 1 만 권이 예약 판매되어야 인쇄가 되고, 3 만 권을 발행해야 본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28a. b)에서 '电灯泡', '书'는 모두 윤곽을 지닌 유계명사[86]에 해당하며, 문

86) 沈家煊(1995)에서는 유계(有界)명사와 무계(无界)명사를 구분한 바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변별적 자질을 개체(个体)성으로 보았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윤곽(边界)이 부여되면 개체성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유계명사의 특징이다. 이와 반대로 무계명사는 개체성이 없다. 沈家煊(1995)의 유계명사와 무계명사의 구분은 일반적인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개체명사와 물질명사,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측면의 비슷한 관점은 Lyons(1977/201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체에 관하여 인간은 인지적으로 일차적 실체(first-order

맥 속에서 특정한 실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 一CL(一量)의 생략이 불가한데, 이는 수량적 명제를 통해 수량 '하나'의 의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에서 실체를 지시하지 않지만 수량 '하나'의 의미가 뚜렷하게 해석되는 범위를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이때 수량의 의미가 보존되고 있음에 따라 비지시적 해석과는 달리 一CLN(一量)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에서 수량적 의미가 보존되고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라는 수량 외의 다른 수량과 대등한 계열적 분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NCLN(数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은 존재론적 해석과 수량적 해석으로 나뉜다. Li(1998)는 NCLN(数量名)을 존재론적 해석과 수량적 해석으로 나누었고, 존재론적 해석에서 명사구를 한정어구로 보고, 수량적 해석에서 명사구를 수량구로 정의 내렸다.[87] Tsai(2001)도 NCLN(数量名)을 지시성에 대해 강한 자질[+strong]과 약한 자질[−strong]로 나누어 각각 양화사(quantifiers)와 수량적 해석(cardinal predicates)으로 분류하였다.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영역은 지칭에 관한 문법적 기능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량구(数量名)의 일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蔡维天(2002:308-309)은 수량 '一, 二, 三'의 구분에서 수량 '一'는 수량적 의미로 해석될 때는 모든 수량과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88]

---

entity), 이차적 실체(second-order entity), 삼차적 실체(third-order entity)로 범주화하는데, 일차적 실체(first-order entity)는 공간상에 위치하는 '사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라고 하였다.

87) 이에 대한 Li(1998)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a 는 수량적 해석이고, b 는 명사구를 한정어로 분석하여 존재론적 해석이다.

a. [NumP san ge xuesheng]

b. [DP D [NumP san ge xuesheng]]

88) 蔡维天(2002:308-309)에서 인용.

(29) a. 一个人吃得完一锅饭。
한 사람이 한 솥밥을 다 먹을 수 있다.
b. 三个人吃得完一锅饭。
세 사람이 한 솥밥을 다 먹을 수 있다.

(29a)에서 '一个人'은 수량 명제에 의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해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29b)에서 '三个人'과 같이 다른 수량으로 바꾸어도 문맥적으로 용인가능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수량적 의미가 비지시적 의미와 분리되어 고유한 의미영역을 지닌다는 점을 다음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0) a. 一个医生, 关心病人是应该的。[89]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b. 一个医生照顾不了几十名病人。
한 명의 의사가 몇 십 명의 환자를 돌볼 수 없다

(30a, b)에서 '一个医生'은 둘 다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미 해석에 의해 (30a)는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영역으로 구분되는 반면 (30b)는 '하나'의 의미가 부각되는 수량적 의미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앞서 고찰한 언어 환경을 통해서도 구분 할 수 있다. (30a)는 一CL(一量)의 생략이 가능한 반면 수량의미를 지닌 (30b)는 一CL(一量)의 생략이 불가하다. 또한 (30a)는 一CL(一量)을 다른 수량구로 교체할 수 없지만, (30b)는 수량적 해석에 의해 다른 수량을 통해서도 특정한 문맥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이상으로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에서 수량적 의미가 고유한 영역으로 분류되어야할 당위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수량 의미에서는 문

89) 刘安春(2003)에서 인용.

법화 측면에서 一CL(一量)의 원형적인 의미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一CL(一量)의 생략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一CL(一量)에서 수량 '一'는 다른 수량으로 교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량에 대한 의미 해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90]

## 3.4 소결

이상으로 화용적 특징을 통해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뚜렷한 의미적 분화를 살펴보았다. 각 의미영역과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0) 수량 의미영역에서는 '하나'라는 수량이 갖는 의미로부터 의미가 파생되는 은유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수량 '하나'가 지닌 유사한 의미적 속성에서 은유되어 특정한 어휘적 의미를 갖게 된 범주로 一CL(一量)을 생략할 수 없고, 다른 수량으로 교체할 수도 없다.

a. 一个作家怎么会成为"革命的一面镜子"呢？
일개 작가가 어떻게 '혁명의 거울'이 될 수 있었을까.

b. 一本书读来，不仅让人垂涎欲滴，更在不知不觉间，让孩子们了解了历史和文化。
책 한권을 온전히 다 읽으면 침이 고이게 할 뿐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a 는 모두 문맥적 추론에 의해 '고작, 기껏, 단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一CL(一量)이 수량적 의미에서 갖는 '소량'이라는 의미에서 은유된 것이다. b 에서는 수량 '하나'가 '합하여 온전한 것', '합하여 모두 다'의 의미로 '합(合)'의 의미가 파생할 수 있다.

표 3-3: 각 의미영역과 범주 별 출현 빈도

| 의미영역 | | | 빈도 |
|---|---|---|---|
| 지시(Ref) | 주제도입성 | 330(32%) | 1037(83.8%) |
| | 단발성 | 362(35%) | |
| | 제외성 | 212(20%) | |
| | 조응성 | 133(13%) | |
| 비지시(Non-ref) | | | 130(10.5%) |
| 수량(Numeral) | | | 71(5.7%) |
| 총합 | | | 1238(100%) |

표를 통해 자연발화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은 지시(83.8%) > 비지시(10.5%) > 수량(5.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의미영역은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통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본장의 분석을 통해 각 의미영역의 화용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첫째, 지시(Ref) 의미영역이다. 지시 의미는 개체가 실체로 지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지시 의미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용적 층차를 문맥적 한정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분류하였다. 문맥적 한정성은 담화를 중심으로 선행담화에 추론 가능한 선행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통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지시체는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여 확인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담화 내에서 주제로 머무는 주제도입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담화에 의해 특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단발성에서 담화지시체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은 주제도입성과 동일하지만 단순한 1회성 출현에 머무는 경우로 담화 내에서 지시체의 특정성은 높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장면이나 상황적 묘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지시체의 경우 담화 내에서 확인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행담화에서 지시체를 추론 가능한 선행어에 의해 문맥적 한정성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추론 방식에 의해 제외성과 조응성으로 나누었다. 조응성은 선행어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일치하여 공지시적 관계를 갖는 반면, 제외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어를 통해 연상적으로 추론되는 방식을 따른다.

둘째, 비지시(Non-ref) 의미영역이다. 비지시 의미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실체를 지니지 않고 속성적으로 해석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비지시적으로 해

석될 때 一CL(一量)의 생략이 가능하게 되어 맨명사의 속성적 해석과 의미적,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맨명사구와의 비교를 통해 一CLN(一量名) 비한정명사구의 고유한 의미·화용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나타나는 비지시적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총칭적 해석인데, 맨명사구에 비해 덜 필연적이고 덜 본질적인 명제에 출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 역시 담화 문맥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화용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수량(Numeral) 의미영역이다. 수량 의미에서는 수량 '하나'의 의미가 명제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一CL(一量)의 생략이 어렵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수량 의미가 부각될 때 一CL(一量)의 생략이 어렵다는 점은 비지시적 의미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이다. 또한 수량 의미로 해석될 때 지시적 의미영역과 상이한 지칭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통해 지시 의미영역과도 구분될 수 있다. 나아가 수량 의미에서는 수량의 의미가 초점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열적으로 다른 수량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수량 의미영역은 지시, 비지시 의미영역과 구분되는 뚜렷한 화용적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시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각 의미영역이 구분될 수 있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다.

# 제4장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형성 기제와 제약

전술했듯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부정관사의 문법화과정을 이해하면 중국어의 비한정명사구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서로 분절적이지 않고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의 점진적인 특성은 의미·화용적 기능을 통해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각 의미영역이 함축되고 탈색되는 과정을 통해 교차되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호함을 용인하더라도 각 의미영역이 지닌 고유하고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각 의미영역이 구분될 수 있는 언어 환경과 기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범언어적으로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은 술어의 종류와 양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유형론적으로 중국어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 실현양상의 보편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독립적인 의미영역을 객관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시적인 언어현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중의적 현상을 통해 각 언어 환경의 교차적 부분을 추론해낼 것이다. 이는 부정관사의 문법화에 따른 의미 함축과 탈색과정을 공시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 중에서 화용적 제약이 가장 뚜렷한 영역은 지시 의미영역이다. 따라서 지시적 해석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 가능성을 측정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을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문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약들이 담화 층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단일적인 해석에서 나아가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맥 속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4.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형성 기제

### 4.1.1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술어

기존연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술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었지만 비교적 일치된 경향을 보인다. 内田 庆市(1993:357)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어 앞에 시간사, 감탄사, 의성어를 통해 동작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한 술어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동작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되는 지시체는 개별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内田 庆市(1993)는 이러한 개별적인 표현에 의해 지시체가 총칭적 해석과 구분 되는 지시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술어를 통한 개체화 기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讃井 唯允(1993)는 화용적 구체성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화용적 구체성에 의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은 존재확립 효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지시체가 '특정한 시간'에 출현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존재확립 효과에 관여하는 언어 환경은 결과보어 등을 통한 장소 명시, 혹은 문맥에서 발현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표현이 있으며 기타 보어나 개사구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曹秀玲(2005)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술어의 특징에 의해 구분하였다. 曹秀玲(2005)에 따르면 술어가 주로 관계동사이거나 형용사에 의해 비한정명사구의 의미가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사태형(事态型)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비한정명사구가 '어떤 것(某一个)'을 지칭하는 의미로 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 술어는 지시체의 실체를 특정하는 복잡한 술어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

한 의미영역을 사태형(事态型)과 구분되는 사건형(事件型)으로 분류하였다. 曹秀玲(2005)의 사건형(事件型)과 사태형(事态型)은 본고에서 구분한 지시적 의미영역과 비지시적 의미영역으로 볼 수 있다.

술어의 유형에 따라 실체가 있는 지시적 의미영역과 실체가 없는 비지시적 의미영역의 구분은 범언어적으로 주목하는 언어현상 중 하나이다. 존재론적 해석과 총칭적 해석을 가르는 술어의 종류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와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라는 용어로 분류된다.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 간의 구분은 Calson(1977)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Calson(1977)은 ‘be a man’, ‘be a mammal’ 등과 같은 명사구 술어와 ‘intelligent’, ‘tall’ 등과 같은 형용사를 개체층위 술어로 분류하고 그 외의 동사를 장면층위 술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의 분류체계에서 개체층위 술어는 영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장면층위 술어는 일시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ratzer(1995)는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의 구분에 있어, Calson(1977)의 개념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시공간 변항을 통해 술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장면층위 술어는 시간의 명시적 함수인 시공간 변항을 갖는 반면 개체층위 술어는 시간의 변화가 없고 따라서 시공간 변항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Chierchia(1995)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개체층위 술어는 특정한 시공간의 위치에 묶여 있지 않는 속성으로 특성(properties)을 서술한다고 하였다.

비록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학적 용어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해석적 중의성이 술어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는 점과 시공간적 특성이 술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에 陆烁·潘海华(2009), 周思佳·陈振宇(2013)에 의해 지시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한정명사구는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와 공기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술어 종류에 따른 의미영역의 구분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각 의미영역이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언어적 기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Yao(2010:573-4)에서는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장면층

위 술어에서 승인되는 반면 개체층위 술어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1)에서는 장면층위 술어의 사용으로 (1a, b)는 수용 가능하지만 (2)에서는 개체층위 술어에 의해 비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1) a. A man arrived.
한 남자가 도착했다.
b. yi-ge nanhai zai henkuai de pao.
one Cl boy –ing very quickly DE run
한 소년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

(2) a. *A man is smart.
b. *Yi-ge nanhai hen huopo
one-Cl boy very lively
‘A boy is very lively’.

이를 통해 범언어적으로 비한정명사구는 장면층위 술어와 공기하였을 때 지시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장면층위 술어와 공기하였을 때 지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맨명사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어의 맨명사구는 장면층위 술어와의 공기에서 다음과 같이 비지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비한정명사구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3) 판다는 대나무를 먹는다.
a. 熊猫吃竹子。
b. *一只熊猫吃竹子。

(4) 공룡은 멸종했다.
a. 恐龙灭绝了。
b. *一个恐龙灭绝了。

(3), (4)의 문맥과 같이 장면층위 술어에 의해 나타나는 총칭적 명제에서 맨 명사는 비지시 의미를 실현할 수 있지만 비한정명사구는 불가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명층위술어와 공기하는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적 함축을 통해 지시 의미로 실현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5) 你看照片，一只熊猫吃竹子。这只熊猫似乎在等待长大后回到故乡中国的那一天。
사진을 좀 봐, 판다 한 마리가 대나무를 먹고 있어. 이 판다는 고향 중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

(5)의 문맥 속에서 '一只熊猫'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장면층위 술어에서 지시적 해석이 우세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체층위 술어에서는 어떠한 양상일까.

Lambrecht(1994:167)는 다음과 같은 술어환경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총칭적 해석으로 해석된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6) a. A boy is a boy.
소년은 소년이다.
b. A boy wants to be tall.
소년은 키가 크기를 원한다.

(6a, b)에서처럼 비한정명사구는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와의 공기에서 일반적으로 비지시적 해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관측은 중국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개체층위 술어로 분류되는 성질술어, 판단동사와 공기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하였다(范继淹 1985, Xu 1997, 曹秀玲 2005, 魏红・储泽祥 2007, 陆烁・潘海华 2009, 왕하 2020 등). Xu(1997)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다음의 (7a)와 같이 관찰을 통한 묘사적 해석(描述性, descriptive)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지만, (7b)와 같이 지시체의 성질, 특성 등을 평가하는 판단적 해석

(判断性, assertive)에서는 수용도가 낮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

(7) a. 一个小孩在很快地跑。
b. ? 一个小孩跑得很快。

(7a)에서는 부사어를 통해 지시체를 묘사하고 있지만 (7b)에서는 정태보어를 통해 지시체의 특성을 판단하고 있다. Xu(1997)의 이러한 분석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에서 개체층위 술어에 해당하는 성질술어의 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魏红・储泽祥(2007)은 '姓', '叫', '是' 등 비동작성 동사와 공기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왕하(2020:103)도 술어가 是'나 '等于'와 같은 정태동사일 때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姓', '叫', '是', '等于' 와 같은 술어는 모두 속성, 특성을 판단하는 술어로 개체층위 술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 의미영역에서 장면층위 술어와 공기하고, 비지시적 의미영역에서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한다는 범언어적 현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연언어에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담화맥락 속에서 개체층위 술어에 속하는 성질술어, 판단술어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측은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주류적인 견해는 아니었고, 단순히 현상에 대한 설명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 刘琼竹(2000)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다른 명사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질 술어와의 공기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唐彧(2010)에서도 비록 낮은 빈도이긴 하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성질 술어와 공기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왕하(2020:107)는 刘琼竹(2000), 唐彧(2010)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8) a. 此外还有一只小黑狗，尤其跳荡可爱。一只小白狗，也很驯良。
그 밖에도 검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특히 팔딱팔딱 뛰는 것이 귀엽다. 흰 강아지 한 마리도 매우 순하다.

b. 远远地看见锚山上那个青草栽成的大锚，压在半山，青得非常的好看。……几个山下的人家，十分幽雅，木墙竹窗，繁花露出墙头，墙外有小桥流水。

멀리 보이는 묘산 위에 있는 그 푸른 풀로 심은 큰 닻이 산중턱에 눌려서, 매우 아름답게 푸르렀다. ……산 아래 몇 개의 인가는 매우 아늑하다. 나무 담장에는 대나무 창이 있다. 풍성한 꽃들이 담장 밖으로 드리우고 담장 밖에는 작은 다리로 물이 흐른다.

c. 一出加沙就是以色列的边防检查站。……我们拖着行李进入房间。一个戴眼镜的小伙子挺面善，但一点儿没耽误人家执行任务，把我们翻个遍。

가자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의 국경 검문소가 있다. ……우리는 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 안경을 쓴 젊은이는 매우 착해 보였지만,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샅샅이 뒤졌다.

왕하(2020:107)에 따르면 (8a-c)에서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지시체는 문맥적 추론 관계를 통해 확인가능한 지시체로 간주되어 주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은 문맥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형용사 술어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논지에서는 (8)과 같은 문맥에서 비한정명사구와 형용사 술어의 공기현상을 주변적 현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분석범위가 문장층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은 발화 상황을 포함하는 문맥 속에서 집합의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도성이 추론된다. 따라서 한정성의 정도는 담화 문맥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비한정성을 정도성의 개념으로 파악한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ilsark(1977)는 한정성의 정도를 약(weak)-한정과 강(strong)-한정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비한정명사구에서 약(weak)-한정은 속성적 해석의 술어가 불가한 반면 강(strong)-한정에서는 속성적 해석의 개체층위 술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Dobrovie-Sorin & Beyssade(2012:137)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할 때는 필수적으로 강(strong)-한정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91)]

(9) a. Une femme que je connais est chauve.
a woman that I know is bald
내가 아는 어떤/한 여자는 대머리이다.
b. Un collègue à moi est daltonien.
a colleague of me is color-blind
내 동료 중 한 명은 색맹이다.

Dobrovie-Sorin & Beyssade(2012:137)에 의하면 (9a, b)와 같이 비한정명사구가 수식어에 의해 강(strong)-한정으로 해석되고 있을 때 개체층위 술어와의 공기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에 의한 구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a. Deux filles étaient en train de jouer dans la cour.
Two girls were prog to play in the courtyard
두 소녀가 안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b. Deux filles étaient blondes, toutes les autres avaient des cheveux
two girls were blond all the others had des hair
foncés.
dark
두 소녀는 금발이고, 다른 소녀들은 모두 어두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Dobrovie-Sorin & Beyssade(2012:128)에서는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비한정명사구가 장면층위 술어와 공기할 때 (10a)에서 ‘two girls’은 약(weak)-한정과 ‘two of the girls’의 강(strong)-한정의 중의성을 갖지만[92)], (10b)에서처럼 개체층위

91) Dobrovie-Sorin & Beyssade(2012:137)에서 인용.
92) Milsark(1977)에서는 장면층위 술어에서는 다음 a, b 와 같은 중의적인 의미로 해

술어와 공기할 때는 강(strong)-한정으로만 해석 가능하다고 하였다. Dobrovie-Sorin & Beyssade(2012:128)는 강(strong)-한정을 Pesetsky(1987)를 따라 '담화-연결됨(D(iscourse)-linked)'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10a)와 달리 (10b)에서 지시체의 해석이 중의적이지 않고 강(strong)-한정으로만 해석되는 이유는 'intelligent', 'handsome', 'blond'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에 의해 '담화-연결됨(D(iscourse)-linked)'의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93)]

한정성의 정도에 따라 약(weak)-한정과 강(strong)-한정의 구분은 본고의 문맥적 한정성 유무(有無)와 동일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3장에서 지시적 의미영역의 화용적 층차를 크게 한정성의 유무에 의해 나눈 바 있는데, 한정성이 없는 비한정명사구는 담화 내에 추론적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weak)-한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정성이 있는 비한정명사구는 담화 내에 추론적 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강(strong)-한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듯이 본고에서는 수많은 문맥에 출현하는 지시적 비한정명사구가 개체층위 술어에 속하는 성질술어, 판단동사 등과 공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문맥적 한정성의 유무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지시적 의미영역 내에서 문맥적 한정성이 존재하여 강(strong)-한정에 해당

---

석되지만, a 의 해석과 같은 약(weak)-비한정이 우세하다고 하였다. 반면 개체층위 술어에서는 b 와 같은 강(strong)-비한정으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

a. There were two girls who were playing in the courtyard.
두 소녀가 있었는데, 안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b. Two of the girls were playing in the courtyard.
소녀들 중 두 소녀는 안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93) Dobrovie-Sorin & Beyssade(2012:128)에서는 동일한 표현에서 강세에 의해 강한 비한정과 약(weak)-비한정의 차이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현대영어에서 sm 은 some 의 비강세 표현으로 약한 비한정을 나타내고 변별적으로 강세를 지닌 some 에서는 강(strong)-비한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a. Sm students were reading a poem.
어떤 학생들은 시를 읽고 있었다.

b. Some/*Sm students are intelligent / handsome / blond.
(그들 중) 어떤 학생들은 똑똑하다/잘생겼다/금발이다.

하는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는 성질동사, 판단동사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는 문맥을 찾을 수 있었지만,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약(weak)-한정 문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을 살펴보자.

(11) a. 一个个孩子轮流报告历史，轮流追查，一个孩子是个女工的儿子，他们甚至追查他的历史到他还没有出世的日本进攻东北以前。

아이들은 한사람씩 돌아가며 역사를 보고하고, 조사하였다. 한 아이는 여공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도 전인 일본이 동북을 침략하기 이전의 그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b. 上第一课的时候，几十个孩子一窝蜂冲进课室，陈灿华费劲喊了半天，才安静一些。她刚开口讲课，一个孩子走出课室去了，接着又一个出去了。一个叫苏明琚的孩子最淘气，逗哭了小同学，又打大同学。

1 교시를 하는데, 수십 명 학생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陈灿华가 소리를 지른 다음에야 좀 조용해졌다. 그녀가 막 수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학생이 교실을 나갔고 이어서 또 한 명이 나갔다. 苏明琚라는 아이는 장난이 제일 심했다. 작은 학생을 울리고 또 큰 학생을 때렸다.

c. 教室里有几个学，一个学生很瘦。他好像饿了很长时间。

교실에 몇몇의 학생들이 있었다. 한 학생은 너무 말랐다. 그는 오랫동안 굶은 것 같다.

d. 那一带有两个地方。一个地方很小，连药铺和理发店也没有。

그 일대에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매우 협소해서 약국이나 이발소도 없다.

e. 我认为个人英雄主义是两个东西加起来的：一个东西是个人主义，一个东西是英雄主义。

나는 개인영웅주의는 두 개의 사상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개인주의이고, 하나는 영웅주의이다.

f. 及至假期回家，家里检查他的衣服时，发现少了一件，质问泽东同志，泽东同志照实的说了出来。.....一个诚实的孩子毛泽东同志从小就很忠厚诚实，从小作事就很踏实。

방학 때 집에 돌아와 집에서 그의 옷을 검사하던 중, 한 벌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毛泽东동지에게 물었더니, 毛泽东 동지는 사실대로 말했다..... 한 성실한 아이, 毛泽东 동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충직하고 성실했으며, 어릴 때부터 일을 할 때 매우 착실했다.

(11a-d)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지시체는 제외성을 나타내고 (11e, f)는 조응성을 나타낸다. (11a-f)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모두 담화-연결된 지시체를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강(strong)-한정의 해석을 갖게 된다. 따라서 (11a-f)에서는 모두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고 있지만 문맥적으로 수용가능하다. 본고의 선행데이터에서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는 지시의미는 조응성에서 19개(1.83%), 제외성에서 10개(0.96%)로 총 29개가 검출되었다.[94][95]

이상으로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의 각 범주에 따른 술어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표 4-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 비지시 영역과 술어 공기양상[96]

| | 지시 | | 비지시 |
|---|---|---|---|
| | 약(weak)-한정 | 강(strong)-한정 | |
| | 주제도입성<br>단발성 | 조응성<br>제외성 | |
| 장면층위 술어 | + | + | - |
| 개체층위 술어 | - | + | + |

94) 지시 의미영역에서 개체층위 술어의 비율은 전체 비율과 비교할 때 다소 소략한 편이지만 동사술어가 우세한 자연언어에서의 술어 양상과 지시 의미는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기 어렵다는 일견에 비추어 볼 때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95) 지시 의미영역에서 개체층위 술어의 공기양상은 제외성보다 조응성이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수식어의 유무에 따라 공기 비율이 차등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一+CL+N 보다 一+CL+D+N 에서 개체층위 술어의 공기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 조응성 | | 제외성 | |
|---|---|---|---|
| 一+CL+N | 一+CL+D+N | 一+CL+N | 一+CL+D+N |
| 4 개(21%) | 15 개(79%) | 2 개(20%) | 8 개(80%) |

96) 한정성의 정도성은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에서 원형적인 단계인 수량 의미에서 구분해내기 어렵다. 또한 술어 양상에 따른 지시와 비지시의 의미실현과 달리 수량

### 4.1.2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양태

Wallace(1982:202)는 범주의 모호함에 대해 시제-서법-상의 삼각형은 타동성 혹은 동사 이외의 범주인 인칭(person), 수(number), 한정성(definiteness)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각 범주의 분절적인 구분보다는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고려한 것인데, Wright & Givón(1987), Givón(2012)에서는 지시성을 양태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고, 실현과 비실현을 구분하는 시제를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성과 비지시성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Wright & Givón(1987), Givón(2015:308)에서는 지시성의 모호함은 양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명사구의 지시성을 양태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97] Givón(2001:305)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은 실현과 비실현에서 모두 발현될 수 있지만 비지시적 해석은 비실현에서만 발현된다. 다음은 양태에서 실현되는 지시성을 나타낸 것이다.

(12) a. I saw a doctor yesterday.
나는 어제 한/어떤 의사를 만났다.

---

의미는 어휘 의미가 뚜렷하게 남아 모든 언어 환경을 수렴한다. 본 절의 논의를 통해 4.1.3 에서 각 의미영역과 함께 수량 의미영역이 출현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표 4-4 에서 귀납하였다.

97) Givón(2001:301)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논리철학(logical tradition)에서 인간언어의 양태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인지와 의사소통 기능에 더 적합한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ies)로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정의에서 화용적 측면에서의 양태와 거의 유사한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 logical tradition | communicative equivalent |
|---|---|
| a. necessary truth | presupposition |
| b. factual truth | realis assertion |
| c. possible truth | irrealis assertion |
| d. non-truth | negative assertion |

Givón(2001:301)은 realis assertion 에서 명제(proposition)는 강하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irrealis assertion 에서 명제(proposition)는 약하게 가능성을 갖고 화자는 증거나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b. I'm going to see a doctor tomorrow.
나는 내일 의사/한 의사를 만나러 갈 것이다.
c. I want to see a doctor.
나는 의사/한 의사를 만나고 싶다.

(12a)는 과거시제로 실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a doctor'는 특정한 개체로 해석되고 있다. (12b, c)는 미래시제, 의도에 관한 양태적 의미를 통해 비실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때 'a doctor'는 지시적일 수 있고 비지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Givón(2001:305)은 (12a)는 (13a)로 해석되지만 (12b, c)는 (13a, b)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13) a. I have a specific one in mind.
b. I don't have a specific one in mind

이처럼 실현(realis)에서는 지시적인 해석만이 가능하지만 비실현(irrealis)에서는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중의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지시성과 양태

| | 지시(Ref) | 비지시(Non-Ref) |
|---|---|---|
| 실현 기술(realis-assertion) | + | - |
| 비실현 기술(irrealis-assertion) | + | + |

Givon(2001:303)은 논리철학에서의 사실(fact)과 비사실(non-fact)을 실현(realis)과 비실현(irrealis)으로 나누어 지시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는데, 사실을 전제하는 실현에서 지시체는 언제나 지시적이다. 반면 비사실를 전제하는 비실현에서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모두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현된 것을 사실로 해석하고 비실현된 것을 비사실로 해

석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사고에 기인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Givon(2001)은 사실, 비사실과 같은 논리적 개념을 실현, 비실현과 연관시킴으로써 시상태와 같은 언어형식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현과 비실현에 대한 개념은 시간영역으로 발화시점을 상정하기 때문에 시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Givon(2001:305)에 의하면 시제 표지에 대한 체계가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과거(past)시제와 현재(present)시제는 실현으로 해석되고, 미래(future)시제는 비실현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적 체계에서는 실현은 완정상(perfective), 완료상(perfect), 진행상(progressive)에 의해 실현되고, 비실현은 습관상 같은 반복적인 일에 관한 기술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98] 梅广(2018:500)에서는 중국어에서 실현에서는 완정상과 비완정상으로 나타나고, 비실현은 주로 양태동사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술했듯이 범언어적으로 비한정명사구는 실현에서 지시적으로만 해석되는데, 중국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실현에서 어떠한 술어 표지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추출한 선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시 의미영역 1,037개의 예문 중에서 개체층위 술어에 속하는 성질술어, 판단술어의 29개의 예문과 비실현으로 해석되는 56개의 예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중술

98) Givon(2001:305)에서는 시제(tense)-상(aspect)에서 양태(modality)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 modaity | tense | aspect |
|---|---|---|
| fact | past<br>present | perfective<br>perfect<br>progressive |
| non-fact | future | habitual<br>repetitive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제-상 구분에서 ‘a sandwich’는 모두 특정한 샌드위치를 가리키며 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a. 과거(Past): He ate a sandwich.
b. 과거완료(Past-perfect): He had eaten a sandwich.
c. 현재완료(Present perfect): He has eaten a sandwich.
d. 현재진행(Present progressive): He is eating a sandwich.

어구조[99]가 아닌 단일술어로 이루어진 439개의 예문을 추출하였다. 다음은 실현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439개의 예문에 나타난 술어의 양상이다.

표 4-3: 실현(realis)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술어의 표지양상

| 언어 요소 | | 빈도 | | |
|---|---|---|---|---|
| 상표지 | 완정 | 57(13%) | 32.6% | 439(100%) |
| | 진행 | 49(11.2%) | | |
| | 지속 | 18(4.1%) | | |
| | 완료 | 17(3.9%) | | |
| | 경험 | 2(0.5%) | | |
| 보어 | 결과보어 | 66(15%) | 26.2% | |
| | 방향보어 | 43(9.8%) | | |
| | 상태보어 | 4(0.9%) | | |
| | 가능보어 | 2(0.5%) | | |
| 맨동사 | | 181(41.2%) | 41.2% | |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시적 해석에서 실현의 의미는 크게 맨동사, 상표지, 보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실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술어양상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상표지를 통해 실현으로 분류되고,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완정, 완료, 경험을 나타내는 표지는 과거로 해석되고, 진행과 지속을 나타내는 표지는 현재로 해석되고 있다.

---

99) 중국어에서 연속 동사구(serial verb constructions)는 상표지가 부가될 수도 있고 부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a. 一个孩子举手问。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본다.

b. 一个女人张口讲开了。
한 여자가 입을 벌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c. 一个孩子赶忙跑回家拿来一把伞给陈老师，自己却在雨中淋着。
한 아이가 황급히 집으로 와서 우산 하나를 집어 진선생님께 드렸다. 자신은 오히려 비를 맞고 있었다.

(14) a. 一个黑眼睛的孩子插了嘴，这孩子正站在我的身边。
한 검은 눈의 아이가 참견했다. 이 아이는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b. 一个女人已经死了。
한 여인이 이미 죽었다
c. 一本书上说过万里无云时，塔顶上可望到外省。
어떤 책에서는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탑 꼭대기에서 외성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d. 一个十岁左右的孩子正在玩电子游戏。
어떤 열 살 정도의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e. 今年这个时候，一本书吸引着我。
금년 지금, 어떤 책 한 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14a)에서 '了'는 완정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了$_1$' 로 분류되고, (14b)에서 '了'는 완료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了$_2$'로 분류된다. (14c)에서는 '过'에 의해 경험상을 나타내고 있다. (14d)에서는 '正在'에 의해 진행상을 나타내고, (14e)에서는 '着'에 의해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해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완정상, 완료상, 경험상은 과거로 해석되고, 진행, 지속은 미래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지가 시제의 표현에 관여하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영역은 실현에서 상표지에 의해 과거와 현재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상표지에 의해 실현으로 해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체는 모두 사건의 기정사실 속에 포함되어 지시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보어에 의해 실현으로 분류되고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15) a. 一辆汽车也被破坏。
차량 한 대도 파손되었다.

b. 一个吃奶的孩子吓得哭喊不止。
한 젖먹이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고 있다.
c. 一个女人对某个男人再也忍受不了。
한 여자는 어떤 남자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d. 一辆满载炮弹的汽车猛地燃烧起来。
포탄을 가득 실은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타기 시작했다.

(15a)는 결과보어, (15b)는 정태보어, (15c)는 가능보어, (15d)는 방향보어로 모두 실현으로 분류되고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어에서 보어는 일반적으로 어휘성이 더 강하다고 여겨왔지만, 문법화의 경로에서 차츰 문법성을 얻으며 상표지의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정구(2016)에서는 중국어에서 보어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많은 상표지가 분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공시적으로 동보복합어의 보어 성분으로 쓰이는 것 중에서 독립적인 동사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어휘적 의미가 탈색되어 음성적으로 마모된 형태소들이 그러한 경로로 이동하는 근거라고 하였다. 왕하(2020:60)는 이를 토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보어가 실현문으로 만드는 문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의 관측에서는 보어 중에서 결과보어(15%)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内田 庆市(1993:357)에 의하면 결과보어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개체화된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지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보어도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실현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맨동사(bare verb)를 통해 실현으로 분류되고 지시적으로 해석된다. 표4-3에서 실현을 나타내는 언어유형 중 맨동사(41.2%)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맨동사와의 공기에서 모두 실현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16) a. 一个女人在地上哭，旁边有一条缺身的婴儿手臂，手指圆胖，显得很美。
한 여자가 땅바닥에서 울고 있다. 옆에는 몸이 망가진 아기의 팔이 있

었는데, 손가락이 둥글고 통통해서 아름다워 보였다.

b. 一个巨大的蝌蚪水里游泳。
거대한 올챙이 한 마리가 물에서 헤엄쳤다.

c. 一个男人问“我们为什么不杀了她？”。
한 남자가 “왜 우리는 그녀를 죽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e. 一个好奇的孩子被它们深深吸引。
어떤 호기심 많은 아이가 그들에게 매료되었다.

종합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실현으로 분류하는 술어의 표지 양상은 맨 명사, 보어, 상표지이고, 실현에서는 지시적 해석만을 허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시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술어의 양상이 비지시적 해석에서도 소수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특수한 문형에 의해 실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비지시적 해석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형식은 보어(5개, 3.7%)와 맨동사(9개, 6.7%)로 소량 검출되었다. 그러나 보어와 맨동사는 모두 내포문의 주어에 속한 것으로 주절의 술어가 아니므로 실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7) a. 一个男人加上一个女人是爱情。
남자에 여자를 더하는 것은 사랑이다.

b. 一本书写完，怎么看是读者的事。
책이 다 써지면, 어떻게 읽든 간에 독자의 몫이다.

c. 一个女人生孩子是最大的痛苦。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다.

d. 一本书一经出版就属于社会。
책이 출판되면 사회에 속하게 된다.

(17a, b)에서 술어의 양상은 결과보어, (17c, d)에서는 맨동사인데, 내포절로 분류되어 모두 실현되지 않은 비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포문에서 내포절은 비실현으로 해석되고, 주절의 술어는 개체층위 술어에

해당한다. 본고의 관측에서는 비지시적 해석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상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현상을 왕하(2020:1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a. 一个宗教脱离了文明的潮流。
어떤 종교가 문명의 흐름에서 벗어났다.
b. 一种宗教脱离了文明的走向也是要不得的。
종교가 문명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도 금물이다.

왕하(2020:111)에 의하면 상표지 '了'가 비한정명사구를 지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지만 내포문에서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18a)에서 상표지 '了'에 의해 과거시제를 나타내며 실현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내포문에 속한 (18b)에서 상표지 '了'는 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변화'의 상적 기능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현되지 않은 비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18b)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비실현에서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비실현에서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주류적이다. 刘安春(2003:65)에서는 비지시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비실현으로 해석되는 양태술어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19) a. 一个学生就该好好学习。
(=学生就该好好学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b. 一个战士就应该服从指挥。
(=战士就应该服从指挥。)
전사는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刘安春(2003:65)에 의하면 (19a, b)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양상동사에 따라 비실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한편 魏红・储泽祥(2007)은 실현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는 '能, 可以, 应该, 会, 敢, 要'와 같은 양상동사와 공기할 수 없지만, 비실현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00]

(20) a. 我走进旁边一间舱室, 一个女孩子在铺床。
내가 옆 선실에 들어갔을 때, 한 소녀가 이불을 깔고 있었다.
b. 一个男人应该想办法满足妻子的合理要求。
남자라면 아내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20a)를 실현 비한정주어문으로, (20b)를 비실현 비한정주어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a)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20b)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魏红・储泽祥(2007)의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실현은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비실현은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겠다.

본고의 분석에서도 비실현에서 지시적 해석이 비지시적 해석보다 월등하게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비실현에서 비지시적 해석이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101] 그러나 전술했듯이 언어 보편적 현상에 따르면 비실현에서는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본고의 분석에서

100) 魏红・储泽祥(2007)에서 인용.

101) 비실현에서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비실현을 나타내는 200 개의 자료를 새로 추출하여 출현빈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비실현에서 의미영역의 출현 빈도율이다.

| 의미영역 | 합계(%) |
|---|---|
| 지시 | 31% |
| 비지시 | 44% |
| 수량 | 25% |

비록 수치상으로는 현저한 차이는 아니지만 실현과 비실현의 구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시적 해석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기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비실현에서 비지시적 해석이 우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비실현에서 비지시적 해석은 물론 지시적 해석을 나타내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102]

(21) a. 一个小伙子要买红冰糖作药引子。
한 아이가 홍빙탕을 사서 보조약으로 쓰려고 한다.
b. 一个“赤脚医生”应该怎样正确地对待成绩和荣誉呢？
(그)‘맨발의 의사’가 성적과 명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c. 我们从书面报告中，就整理出来了 390 多个项目。一个项目可能只是一两个高级知识分子的有关问题。
우리는 서면보고에서 390 여 개의 항목을 정리했다. (그중) 한/어떤 항목은 한두 개의 고급 지식인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d. 一个女人如果不喜欢一个男人，那这个男人就左也不是右也不是唉，事情到了这样的地步。
한/어떤 여자가 한/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남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 버린다.

(21)의 문맥은 비실현 양태를 나타내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실현의 양상은 대부분 양태동사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정 문맥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21a)는 동적 양태, (21b)는 의무 양태, (21c)는 인식 양태에 속한다. 또한 (21d)와 같이 가정과 같은 문맥[103]에 의

102)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에서 비실현 양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 양태술어 | | | 가정조건 | 습관 |
|---|---|---|---|---|---|
| | 인식 | 의무 | 동력 | | |
| 지시 | 6(개) | 7(개) | 31(개) | 12(개) | 0(개) |
| 비지시 | 6(개) | 28(개) | 8(개) | 28(개) | 5(개) |

103) (21d)는 가정 문맥에서 미지의 지시체를 상정해낸다는 점에서 비지시 해석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문맥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술에 의해 비실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지시적 해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시적 의미도 비실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과 문맥이 부여하는 특정성의 정도에 따라 지시적 해석에 가깝다는 해석적 측면에 의해 지시의미와도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가정 문맥에서 지시체에 대한 중의성은 4.1.4

해서도 실현된다.

비실현을 나타내는 술어양상은 비지시적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시적 해석과는 달리 비지시적 해석은 습관상을 통해 비실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2) a. 一个文盲要达到初中毕业的程度，大约需要 12 年之久。
문맹이 중졸수준에 도달하려면 대략 12 년이 걸릴 것이다.
b. 一个男人必须对妻子忠心。
남자는 아내에게 필히 충심을 다해야 한다.
c. 一个女人可以用微笑把她的脸蒙了起来。
여자는 미소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다.
d. 一个国家要获得生产较发达的强国地位，就不可避免地要牺牲生产不大发达的弱国。
국가가 생산이 비교적 발달한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생산이 발달하지 않은 약소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e. 一个拥抱新生活的孩子往往会更勤奋。
새로운 생활을 포용하는 아이는 왕왕 더 부지런하다.
f. 一个小孩儿通常很活泼。
어린아이는 보통 매우 활발하다.

(22)의 문맥은 비실현 양태를 나타내며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22a-c)는 각각 인식, 의무, 동력을 나타내는 양태동사에 의해 비실현으로 분류된다. (22d)는 가정적 문맥[104]으로 지시체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22e, f)에서는 습관상으로 비실현에 속하며 문두 비한정 명사구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

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04) 가정적 문맥은 선행연구에서 비지시적 해석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유형론적 근거를 통해 가정적 환경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 4.1.3 의미영역 간의 중의성(ambiguity)

한정명사구처럼 지시체가 유일하게 특정되지 않는 비한정명사구는 종종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Fodor & Sag(1982:355)는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중의적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찰한 바 있다.

(23) A student in the syntax class cheated on the final exam.
통사론 수업에서 (한 학생/학생 한명)이 기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23)에서 비한정명사구인 'A student'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한 명의 학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 Fodor & Sag(1982:355)는 이를 수량적 해석(quantified expression)과 지시적 해석(referring expression)으로 구분하였다.[105] 또한 비한정 명사구의 중의성은 다음과 같이 지시와 비지시의 대립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Givon(2001:439)은 비한정명사구의 중의적 해석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관측하였다.

(24) a. She's looking for a horse; it escaped last Friday
그녀는 (어떤)말 한 마리를 찾고 있다. 그 말은 금요일에 탈출했다.
b. She's looking for a horse; it had better be white.
그녀는 말 한 마리를 찾고 있다. 백마면 좋겠다.

Givon(2001:439)에 따르면 (24a)에서 'a horse'는 보편적 담화(Universe of Discourse)에서의 실체(entity)를 상정하는 것으로 지시적이지만, (24b)에서는 비

105) 이러한 현상은 관사를 지니지 않은 한국어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한국어에서 '한, 어떤'으로 수식된 명사구는 비한정명사구로 인식되는데, 유현경(2008)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에서 관형사 '한'은 '어떤'의 의미를 가진 지시 관형사로 해석될 수 있고, '하나'의 의미인 수관형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a.이윽고 박수 소리 속에 한 사내가 연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b.한 여자는 주화의 흐르는 코피를 막아주었고, 한 여자는 내실쪽으로 달려갔다.

지시적이라고 하였다.

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대한 논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된다. 曹秀玲(2005:85)은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수량적 의미(数值)와 지시적 의미(指称)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관측한 바 있다.

(25) 一个人买了一艘船在商店。[106]
(어떤 사람/사람 한 명)이 상점에서 배 한척을 샀다.

曹秀玲(2005)는 '一个人'는 '사람 한 명'이라는 수량적 의미와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공존한다고 하였다. 왕하(2020:112)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중의적인 현상을 관측한 바 있는데, 다음의 예문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6) 一对父母希望自己的女婿站在别人的女婿面前，更體现出自己晚年的幸福與骄傲，这不是一对父母的过错。
(한/어떤) 부모는 자신의 사위가 다른 사람의 사위 앞에 서서 자신의 만년의 행복과 긍지를 더욱 드러내길 원한다. 이것이 (그) 부모의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무릇) 부모는 자신의 사위가 다른 사람의 사위 앞에 서서 자신의 만년의 행복과 긍지를 더욱 드러내길 원한다. 이것이 부모의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왕하(2020:112)에서는 (26)에서 '一对父母'는 어떤 특정한 부모를 지칭할 수도 있고, 총칭적 의미의 '부모'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26)에서 '一对父母'는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해석에 대한 중의적인 현상은 부정관사의 문

106) 曹秀玲(2005)이 제시한 (25)의 예문은 문법적으로 '在商店，一个人买了一艘船。' 혹은 '一个人买了一艘船。' 으로 수정되어야 적법성을 얻을 수 있지만, 원어민 화자 개인이 상정해 낸 특정한 문맥을 통한 발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25)에 나타난 중의적 해석에 관한 曹秀玲(2005)의 관찰을 참고하였다.

법화 현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Givón(1981:50)은 수사 '하나(one)'의 의미가 부정관사로 문법화되면서 기존의 의미를 탈색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7) **quantification** > **referentiality/denotation** > **genericity/connotation**
양화 지시성/외연 총칭성/내연

(ⅰ) 수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존재(existence)와 지시체(reference)를 암시
(ⅱ) 존재(existence)와 지시체(reference)를 갖고 있다는 것은 총칭성(genericity)과 내연(connotation)을 암시

문법화의 과정은 통시적인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공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의해 예측이 가능하다. Heine(1997:67)는 이를 형태적 층위화와 의미 기능적 층위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문법화 과정에서 형태적 변화를 접어화(cliticization)로 '어휘가 형태적인 자립성을 잃어가면서 인접한 어휘에 결합되어 접어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법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성조(tone)나 강세(stress)와 같은 음성적 약화 역시 접어화(cliticization)의 결과라고 하였다(Hopper & Traugott 1993:145). 유형론적으로 고립어의 특성이 강한 중국어는 영어와 같이 굴절적인 형식의 접어화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부정관사의 기능을 갖는 '一CL(一量)'이 수사 '하나'의 의미보다 성조나 강세가 약화되었다는 점은 접어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7]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一CL(一量)'은

107) 음성적 약화는 의미・통사적 측면에서 '一'의 생략현상과도 관련 있는데, 吕叔湘은 의미적 약화와 음성적 약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를 설명한 바 있다. 吕叔湘(2002:167)에 따르면 부정관사의 실제적인 의미는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 역시 약화되어가는데 이러한 경음화(轻音化)현상에서 수사 '一'의 음이 쉽게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一 CL(一量)'이 동사에 후치하는 상황에서 종종 발견된다. 동사에 후치하는 '一 CL(一量)'이 부정관사로의 문법화 과정을 거칠수록 '一'의 생략이 자유롭지만, 더 심화될수록 '一'의 첨가가 어려운 문맥도 생겨난다. 이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부정관사의 문법화 단계 중 제일 높은 단계

수량적 의미에서는 강세를 지니고 있지만 지시적인 해석에서는 강세가 사라진다. 나아가 비지시적 해석에서는 '一CL(一量)'의 생략이 가능하다.[108] 이러한 현상 역시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미 탈색에 따른 형태 축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각 의미영역이 중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부정관사의 문법화에 따른 공시적인 현상으로 타당한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각 의미영역은 어떠한 언어 환경에서 중의성이 두드러질까. 이는 앞서 지시와 비지시를 구분하는 언어 환경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술어 종류이다.

앞서 4.1.1절에서 지시적 의미는 장면층위 술어에서 우세하지만 부분적으로 개체층위 술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지시적 의미는 장면층위 술어에서 나타날 수 없고 개체층위 술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화의 경로로 비추어볼 때 지시적 의미영역은 비교적 술어의 제약을 덜 받지만 비지시적 의미영역은 술어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은 문법화가 심화될수록 의미 탈색과 같은 변화에 의해 공기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환경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문법화의 일반적인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관사 문법화의 원형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수량적 의미에 대해서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수량 의미영역에서는 지시, 비지시적 의미영역과 달리 술어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문법화의 정도가 낮은 수량(numeral)의 의미는 장

---

인 일반화된 관사의 역할과 유사하다. 중국어에서 수량구조의 수사 생략에 관한 의미, 통사적 연구는 정소영, 이명숙(2010)을 참조할 수 있다.

108) '一 CL(一量)'의 생략 양상은 다음과 같다. '+'는 생략가능, '-'는 생략 불가를 나타낸다., '( )'는 상황적으로 차등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령 (-)는 '생략 불가'의 특질이 우세하지만 부분적으로 생략 가능할 수 있고, (+)는 '생략 가능'의 특질이 우세하지만 부분적으로 생략 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의미영역 | 一CL 생략 |
|---|---|
| 수량(Numeral) | - |
| 지시(Ref) | (-) |
| 비지시(Non-ref) | + |

면층위 술어는 물론 개체층위 술어와의 공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28) a. 搞创作可不容易，苏联有一位作家，一本书写了四十年！
창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소련에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책 한 권을 40 년 동안 썼다.
b. 一根麻绳是粗绳的一分子，一个战士是战斗集体的一分子。
삼베줄 한 가닥은 굵은 줄의 일부분이다. 전사 한 명은 전투 집단의 일부분이다.
c. 一本书是这样，一套丛书的设计也如此。
한권의 책은 이러하듯 한 질의 총서 디자인도 이와 같다.
d. 一个朋友很好，两个朋友就多了一点，三个朋友就未免太多了。
친구 하나는 매우 좋다. 친구 둘은 조금 많고, 친구 세 명은 너무 많은 것 같다.
e. 一个苹果太少了。
사과 하나는 너무 적다.

(28a-e)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수량적 의미가 초점 영역 내에 있으며 수량 의미가 부각되는 문맥이다. (28a)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장면층위 술어와 공기하는 반면 (28b-e)에서는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양태에 관한 구분이다.

앞서 4.1.2절에서는 실현에서 지시적 해석이 우세하고, 비실현에서는 비지시적 해석이 우세하지만 문맥적 함축에 의해 지시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량적 의미에 관해서는 실현과 비실현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수량 의미가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원형적인 지위와 의미를 지닌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제약과 환경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실현과 비실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량적 의미이다.

(29) a. 社员们高兴地说：“这个法子真好，学谁恨谁看得清，香花毒草辨得明，一本书变成了百本书。” (人民日报 1975 年 11 月 01 日)
사원들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 방법은 정말 좋군요.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싫어하는지 분명해지고 꽃과 독초가 분명히 구분되네요. 한 권의 책이 백 권이 되었네요.”

b. 李秉群副排长严肃地对战友们说：“子弹不多了，一个子弹要打倒一个敌人！打完了我们就跳崖！伟大的志愿军战士是宁死不屈的！”
(人民日报 1979 年 03 月 19 日)
李秉群 부소대장이 전우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총알이 얼마 안 남았으니 총알 하나가 적 한 명을 쓰러뜨려야 한다! 다 쏘고 나면 투신한다! 위대한 전사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

(29)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수량 명제에 의해 수량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29a)에서 ‘一本书’는 완정상과 공기하여 실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29b)에서 ‘一个子弹’은 양태동사를 통해 비실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으로 각 의미영역과 범주화에 따른 양태의 실현양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9]

표 4-4: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각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장 내의 언어 환경

| | 술어 | | 양태 | |
|---|---|---|---|---|
| | 장면층위 (stage-level) | 개체층위 (individual-level) | 실현 (realis) | 비실현 (irrealis) |
| 지시(Ref) | + | (+) | + | (+) |
| 비지시(Non-ref) | - | + | - | + |
| 수량(Numeral) | + | + | + | + |

지시 의미영역, 비지시 의미영역, 수량 의미영역은 개별적인 의미·화용적 특징에 의해 고유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표4-4와 같이 교차하는 언어 환경을 통해 중의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109) ‘+’는 우세, ‘-’는 열세, ‘( )’는 차등적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30) a. 从一道青色布帘背后，传出了一只公鸡的打鸣声。一个公鸡打了鸣，然后就是远远近近的几十个公鸡此起彼伏的打鸣。听得出来这些打鸣的公鸡里还有几个当年的没扎毛羽的小公鸡初学打鸣的声音。
(莫言≪檀香刑≫)
청색 커튼 뒤에서 수탉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수탉 한 마리가 우니, 바로 먼 곳의 수탉 수십 마리가 여기저기서 울었다. 우는 수탉 무리 중에 아직 깃털이 다 안 난 어린 수탉이 처음 배워 우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b. 一本书，从著、编、排字、校对、印刷到装订成册，要经过许多道工序。 (人民日报 1967 年 11 月 18 日)
책/책 한 권은 저술, 편집, 배자, 교정, 인쇄, 제본까지 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c. 但我坚决的相信它是成功的。当然这并不是已经满足了每人的欲望，因为这时期太短了，只能建立几个基本观点，许多理论是来不及详细讨论到的。一个共产党员要做到老，学到老，这不过是万里长征的第一步，所以经过这一次训练不会完全满足。 (人民日报 1949 年 08 月 29 日)
그러나 나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는다. 물론 모든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몇 가지 기본적인 관점만 밖에 수립할 수 없었고, 많은 이론들이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공산당원은 늙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이는 만리장성의 첫 걸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으로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30a)에서는 수량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가 동시에 해석될 수 있다. (30a)에서 '一个公鸡'는 '十个公鸡'와 수량적인 대비를 이루며 수량적 의미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선행담화에 등장한 지시체인 '一个公鸡'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면서 지시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시적 의미는 '하나'라는 수량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영역 간의 의미가 늘 중의적일 수는 있지만, 앞서 각 영역이 우세하게 해석되는 언어 환경의 구분으로 중의성이 두드러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수량 의미와 지시적 의미는 실현과 비실현에서 모두 발현될 수 있고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에서 실현 가능하지만 지시적 의미가 우세한 장면층위 술어와 실현에서 비교적 잘 드러난다. (30b)에 '一本书'

는 수량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비지시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0b)에 나타난 비실현 명제는 '책 한 권' 속에 들어가는 공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책'의 제작과정에서의 공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一本书'는 책 '한 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책'이라는 속성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수량적 의미와 비지시적 의미가 공유하는 언어 환경은 개체층위 술어와 비실현의 양태영역에 해당하는데, (30b)는 비실현의 양태 영역과 당위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술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30c)에서 '一个共产党员'은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30c)에서 '一个共产党员'은 명제에 의해 비지시적으로 해석되지만, 선행담화의 '我'와 조응하는 지시체로 인식되어 지시적 해석도 가능해진다.

### 4.1.4 가정적 문맥과 중의성

가정적 문맥 속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종종 비지시적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가정 문맥의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속성적 해석이나 불특정적 해석으로 구분하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讚井 唯允 1993, 魏红・储泽祥 2007, 刘丹青 2003, 왕하 2020 등). 그러나 가정문에서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지시체는 지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Givón(1981:42)에 의하면 가정적 맥락(hypothetical conditionals)에서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지시체는 가상의 세계에서 특정지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임의의 상황에서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비한정명사구는 특정적인 하나의 개체를 임의로 상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Li & Thompson(1981/2013:143)은 지시적인 명사구는 어떤 실체를 상정해내는 것인데 이러한 실체는 물질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 사실적인 것 혹은 가정적인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범언어적으로 부정관사의 문법화 진행이 심화되지 않은 언어와의 비교에서 알아볼 수 있다. 유형론적으로 수사 '하나'에서 부정관사로 문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언어 중에서 비교적 문법화의 정도가 느린 언어에서는 가정적 문맥에서 비한정명사구에 부정관사가 필수적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

자.[110]

(31) a. im tire sham ish-*xad* im searot adumot umishkafayim...
If you-see there man-*one* with hairs red and-glasses...
만약 당신이 거기에서 빨간 머리에 안경을 낀 한 남자를 보게 된다면..
b. *im tire sham ish, az...
If you-see there man, then...
만약 당신이 거기서 한 남자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Heine(1997:71)에 의하면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에서 히브리어는 문법화의 단계가 낮은 편인데, 히브리어에서 부정관사의 기능을 하는 '-xad(one)'는 오직 지시적 해석에서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Givón(1981:42)은 (31a)와 같은 가정적 문맥에서 임의의 지시체인 'man'에 수사 '-xad(하나)'가 부가되어야 하며 동일한 가정문맥인 (31b)와 같이 수사 '-xad(하나)'가 생략될 수 없다고 하였다.[111]

현대중국어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가정적인 맥락에서 임의의 지시체를 상정하고자 할 때 비한정 표지 '一CL(一量)'의 생략이 불가하다. 이는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가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관사의 생략이 불가하다는 범언어적인 언어 현상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다음을 보자.

(32) a. 一个作家，如果格外关注并积极投身于"门外的繁华"，经常出入屏幕电台，变成媒体的"头面人物"，那么就基本上可以肯定，这个作家"完了"！(人民日报海外版 2003 年 07 月 18 日)
만약 한 작가가 문 밖의 번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스

110) Givón(1981:43)에서 인용.

111) Beghelli(1998)의 연구에서 영어와 현대그리스어, 이탈리아어의 가정적 문맥에서 비한정 표지에 의한 비한정명사구의 의미를 구분한 바 있는데, 영어는 비한정 표지가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의 중의성이 가능한 반면 이탈리아어와 현대그리스어에서는 가정적 문맥에서 비한정 표지에 의해 지시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 언어에서 수사'하나'에서 문법화 된 비한정 표지의 차등적 문법화 정도를 잘 설명해준다.

크린을 넘나들며 언론의 '거물'로 변신한다면 이 작가는 '망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b. 因此，一本书若其中有了关于此类奇迹游历者较详的写述，这书便成了少年男女的朋友了。 (沈从文≪松子君≫)
만약 어떤 책에서 이런 기적 여행자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기술이 있다면 이 책은 바로 소년소녀의 친구가 될 것이다.

c. 本质上书是价值载体，从整体而言，众筹并不能改变图书出版的难易程度，但是眼下图书市场越来越细化，一本书既然能够获得众筹支持，至少表明出版它不是盲目出版。 (人民日报海外版 2017 年 08 月 15 日)
본질적으로 책은 가치의 산물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크라우드 펀딩으로는 출판의 수월성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도서시장이 갈수록 세분화되어, 만약 어떤 책 한 권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은 맹목적인 출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2a)에서 '一个作家'는 여러 작가들 중에서 작품 활동 외에 관심을 갖는 어떤 작가를 임의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담화에서 이러한 작가를 '这个作家'와 같은 한정명사구로 조응한다. (32b)의 '一本书'는 여러 책들 중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책을 상정하며 '这书'와 같은 한정명사구로 조응하고 있다. (32c)의 '一本书' 역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책을 상정하는데, 단수 대명사 '它'로 조응하고 있다. 후속 담화에서 비한정명사구를 지칭하는 단수 한정명사구가 없더라도 투영할 수 있는 담화지시체가 존재한다. (32)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지칭되는 지시체는 모두 가정적인 문맥에 의해 임의적으로 가정되는 지시체로 지시적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적 맥락에서 지시적 해석은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를 통한 의미 탈색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라는 의미가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단수를 상정하는 명제나 문맥, 혹은 단수 한정명사구로 조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一CL(一量)'의 생략이 불가하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적 맥락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중국어의 비한정 표지의 심화된 문법화에 따라 덜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즉 비

지시적 해석에 가까운 예시들도 존재한다. 가정성에서 지시성이 약해지는 문맥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조건·가정문이다. 조건·가정문은 임의로 설정된 상황 속에서도 양태동사에 의해 비실현으로 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맥에서는 지시체는 주로 속성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정적 문맥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비해 一CL(一量)의 생략이 자유롭다.

(33) a. 一个作家要想熟悉更多的人物性格、地方风光和地方风俗习惯，只有认真地执行党的指示，长期到群众中落户生根。

(人民日报 2000 年 07 月 15 日)

작가가 더 많은 인물의 성격과 지방 풍광, 지방 풍습에 익숙해지려면 당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오랫동안 대중 속에 정착해야 한다.

b. 一个报务员要把电报准确地收下来，发出去，不出事故，必须严格贯彻执行规章制度。

통신원이 전보를 정확하게 받고, 보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33a)와 (33b)에서 '一个作家'와 '一个报务员'은 각각 '작가'와 '통신원'이라는 조건적 지시체를 가리키는데, 이는 명제를 통해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시체 모두를 상정해낼 수 있으므로 임의의 개체를 상정해내는 가정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 (33)의 문맥은 (32)의 문맥보다 一CL(一量)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측면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중국어는 부정관사의 문법화가 심화된 언어이고, 비지시적 해석에서도 부정관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내에서 의미영역을 구분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부정관사의 문법화 정도가 상이한 언어를 통해 가정적 문맥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었고, 중국어 내의 의미적 층차와 형태적 층차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가정적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성 정도와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더 지시적인 가정성 덜 지시적인 가정성
---------->
一CL 생략 불가 一CL 생략 가능

그림 4-1: 가정 문맥에서 지시체의 지시성과 형태적 구분

## 4.2 문두 비한정명사구 지시 영역의 화용적 층차와 제약[112]

### 4.2.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성과 수용가능성

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대한 제약은 문법적인 영역에서 종종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출현하였을 경우 비문으로 처리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34) a. *一个女人来了。
b. *一个女人站着。

비문법적으로 인식되는 (34a, b)의 문장은 종종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형의 문법성을 얻게 된다.

(35) a. 来了一个女人。
b. 有一个女人站着。

통상적으로 (35a)는 존현문으로 분류되고, (35b)는 '有' 첨가 혹은 유자문(有字句)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35a, b)와 같이 (35a, b)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출현제약을 상쇄하는 적형의 구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112) 4.2 는 김혜진(2023a)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구문은 종종 문법적 제약 층위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魏红・储泽祥(2007:41)은 다음과 같이 문법적 표지와 논항의 증가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적 수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도록 하자.[113)]

(36) a. ＊我走进旁边一间舱室, 一个女孩子铺床。
b. 我走进旁边一间舱室, 一个女孩子在铺床。
나는 옆의 한 선실에 들어갔고, 한 소녀가 침대를 펴고 있었다.
c. 我走进旁边一间舱室,一个女孩子在悠闲地铺床。
나는 옆의 한 선실에 들어갔고, 한 소녀가 여유롭게 침대를 펴고 있었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36a)와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 (36a, b)의 수용가능 한 조건을 비교하고 있다. (36b)에서는 상적표지가 첨가되어 있고, (36c)에서 부사어가 첨가되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魏红・储泽祥이 제시한 (36)의 수용도는 비한정명사구가 아닌 한정명사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36)의 수용도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적 제약이 아닌 문맥 속에서 맨동사 '铺床'의 사용 제약과 관련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왕하(2020:101)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용도를 제시하였다. 다음을 보자.[114)]

(37) a. 回来路过此地, 一个伙计病*(了), 大口大口吐血。
이곳을 다시 지나갈 때, 한 남자 직원이 병이 나서 피를 마구 뱉었다.
b. 有一天, 一个女子突然消失*(了)。
어느 날, 한 여자가 홀연히 사라졌다.

113) 魏红・储泽祥(2007)에서 인용.
114) 왕하(2020:101)에서 인용.

왕하(2020:101)는 (37)에서 ‘了’와 같은 상표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만약 맨동사로 실현될 경우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单宝顺(2016)에서도 (38)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묘사성 의미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보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15)]

(38) 嘿! 一个小孩爬*(上去)了！
　　앗! 어떤 아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36)과 동일하게 (37)과 (38)의 비문법성은 비단 비한정명사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7)과 (38)의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那个孩子’, ‘张三’, ‘他’ 등의 한정명사구로 변경되어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동일한 수용도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36), (37), (38)의 수용도는 중국어에서 동사는 동작의 의미만 돌출되고 결과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어 및 상표지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중국어의 문법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 적합성에 따른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대부분 한정명사구에 의해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통해 일반적인 중국어의 문법성에 관한 것이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 제약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용인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앞서 적형의 문장을 가져 비문법적으로 인식되는 (34a, b)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변형에서 다시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116)]

(39) a. 一个女人来到一家商店。
　　한 여자가 한 상점에 왔다.

115) 单宝顺(2016)에서 인용.
116) 관측을 위해 가공된 문장이다.

b. 一个女人站在我家前面。
한 여자가 우리 집 앞에 서있다.

(39)에서는 동일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이지만 (34)에 비해 수용도가 높다. (39a, b)에서는 (34a, b)에 비해 '到一家商店', '在我家前面'과 같이 결과보어를 통해 문장 내 정보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34)의 문장이 수용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은 (35)와 같이 적합한 문법성을 지닌 구문으로의 형식적 변화 외에 정보량의 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량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35)와 같이 VS 어순으로 변형되는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와의 비교에서도 고찰해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의 (34)와 (35)의 관계를 지닌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魏红・储泽祥(2007:41)이 제시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를 한국어의 관점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다음의 중국어 문장[117]과 한국어 문장[118]을 살펴보자.

(40) a. ＊一个小姑娘站着。
b. ？一个小姑娘站在他面前。
c. 一个小姑娘笑嘻嘻地站在他面前。

(41) a. 한 여자가 서 있다.
b. 한 여자가 그 사람 앞에 서 있다.
c. 한 여자가 히죽거리며 그 사람 앞에 서 있다.

중국어에서 魏红・储泽祥(2007:41)에 의해 비문으로 판단되었던 (40a)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 (41a)는 한국어의 통사적 규칙에 의해 비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단지 한국어에서 (41a)는 (41b, c)에 비해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뿐이다. 만약 (41a)가 (41b, c)와 같이 수정된

117) 魏红, 储泽祥(2007)에서 인용.
118) (13)의 예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다면 (41b)는 (41a)보다, (41c)는 (41b)보다 청자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더 구체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41c)의 발화를 통해 청자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1a)의 수용도보다 (41c)의 수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문법적인 측면이 아닌 화용적인 측면의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적정한 정보량을 보유한 발화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119)]

이러한 관측을 통해 중국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 가능한 환경, 즉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제약은 정보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량이 많을수록 좋을까? 실제로 인간의 인지를 반영한 자연언어에서는 대화격률에 맞는 적정한 정보량이 요구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극소량의 정보도 극대량의 정보도 의사 전달이라는 측면에 있어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周思佳・陈振宇(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정보량과 함께 높은 정보량도 피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량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정한 정보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량은 어떤 요소와 연관이 있을까? 문장 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량은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王灿龙(2003)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술어 혹은 명사구가 구

119) 문장 수용도에 있어 정보량은 비단 비한정명사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가령 한정명사구는 비한정명사구보다 명사구 자체에 내재된 정보량이 높으므로 주어의 위치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인식되지만 정보량의 차이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a 에서 c 로 갈수록 정보량이 늘어나고 단독 발화에서도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어의 한정성 여부보다 적정한 정보량이 발화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a. 오바마가 왔어요.
b. 오바마가 한국에 왔어요.
c. 어제 오바마가 한국에 왔어요.

체화되어야 하는데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王灿龙(2003)에 따르면 간단 명사구와 간단 술어의 결합이 수용도가 가장 낮고, 반대로 복잡 명사구와 복잡 술어의 결합이 수용도가 가장 높다. 그의 해설을 토대로 복잡성의 위계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120]

(42) 명사구와 술어의 공기 양상과 복잡성에 따른 수용성 위계
복잡 명사구+복잡 술어 > 간단 명사구+복잡 술어 > 복잡 명사구+간단 술어 > 간단 명사구+간단 술어

(42)의 위계에서 유추해보면 간단 명사구에 상관없이 복잡 술어면 수용도가 높다. 반면 복잡 명사구일지라도 간단 술어라면 수용도가 낮고 정보량이 없는 간단 명사구와 간단 술어의 결합이 가장 수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수식어보다 술어의 복잡성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单宝顺(2016)에서는 수식어와 술어의 정보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정보량에 대한 직관은 王灿龙(2003)의 해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을 보자.[121]

(43) a. ?一个学生睡着了。
b. 一个学生在课堂上听着听着就睡着了。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듣다가 잠이 들었다.
c. ?一个老师眼中的好学生睡着了。
d. 一个老师眼中的好学生在课堂上睡着了。
한 선생님의 눈에 든 모범생이 수업 중에 잠이 들었다.

---

120) 王灿龙(2003)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 간단 술어 구조 | 복잡 술어 구조 |
|---|---|---|
| 간단 비한정명사구 | - | + |
| 복잡 비한정명사구 | (+) | + |

121) 单宝顺(2016)에서 인용.

(43)에서는 王灿龙(2003)의 분석틀을 따라 (43a)는 간단 명사구+간단 술어, (43b)는 간단 명사구+복잡 술어, (43c)는 복잡 명사구+간단 술어, (43d)는 복잡 명사구+복잡 술어로 볼 수 있다. (42)의 수용성 위계에서는 원어민의 직관적 해석에 의해 단순 술어인 (43a, c)보다 복잡 술어인 (43b, d)의 수용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명사구에 대한 정보량보다 술어의 정보량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孔凡莲(2017)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명사구의 수식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는 코퍼스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55%의 비한정명사구가 수식어를 갖지 않고, 45%의 비한정명사구가 묘사성 수식어를 갖지만 수식어의 길이가 길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수식어보다 복잡하고 긴 술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식어 유무가 통계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은 본고의 관찰과도 동일하다. 본고의 분석에서도 수식어를 지닌 명사구와 수식어가 없는 명사구의 비율(수식어 유: 54% 무: 46%)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술어의 정보량에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각 요인에서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본절에서의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계속해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층위의 독립성을 수용하는 화용적 제약 조건을 고찰하고, 담화 층위에서 발현되는 각 요소들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언어 사용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조건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4.2.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과 문장 수용성

여기서는 문장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성에 관여하는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 4.2.2.1 자동사와 타동사

Sasse(1987:530)는 몇몇 언어에서는 단언판단(thetic judgment)[122]을 위해 주어 도치, 주어강세 등의 형식적 변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SV어순을 지닌 언어에서 단언적 기술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가 동사에 후치하는 VS어순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 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중국어도 SV어순의 언어로 분류되는데, 다음과 같이 VS어순으로 변형되는 존현문과 유자문(有字句)[123]이 존재한다.

| | SV | VS |
|---|---|---|
| (44) | a. *一个女人来了。 | → 来了一个女人。 |
| | b. *一个女人站着。 | → 有一个女人站着。 |

전술했듯이 (44a, b)에서는 VS어순으로 실현되어야 적절하며 이는 전형적인 단언적 기술로 분류된다. 그러나 어떤 언어에 단언적 기술에 대한 고유한 형식이 존재하더라도 늘 고유한 형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Sasse(1987:523)는 이야기의 첫머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이 전형적인 주제 판단 형식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단언적 판단의 고정적인 형식이 문맥 속에서 화자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을 보자.[124]

---

122) 정언판단(categorical judgment)과 단언판단(thetic judgment)은 논리철학에서 명제에 대한 판단형식을 특성에 따라 묘사한 개념이다. 언어학에서는 정언문, 단언문 혹은 정언적 기술, 단언적 기술로 사용된다. Sasse(1987:512)에 따르면 정언판단은 실체(entitiy)와 진술(statement)로 이루어지며, ‘John is intellegent.’가 전형적인 예시이다. 반면 단언판단은 논리적으로 비정형적인 것으로 가정되며 사건(event), 진술(statement), 상황(situation)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언판단의 전형적인 예시는 ‘it is raining.’이다. 논리판단의 유형에 따라 정언판단은 이중판단(double judgment), 단언판단은 단순판단(simple judg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123) 유자문(有字句)은 중국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본고의 有-구문에 해당한다.

124) Sasse(1987:523)에서 인용.

(45) A lion that looked as if it had more teeth than a crocodile came up to the two sleeping figures and licked one of them on the face
악어보다 이빨이 더 많은 것 같은 사자 한 마리가 두 명의 자는 인물에게 다가와 그중 한 명의 얼굴을 핥았다.

(45)는 어떤 이야기의 첫 단락으로 'A lion'은 문장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문두 비한정면사구의 사용으로 (45)의 문장은 단언적 해석을 위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자는 정언적 기술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Sasse(1987)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담화 속에서 단언적 기술에 따른 구문의 선택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언어 사용의 측면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단언적 해석으로 인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정언적 해석의 형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Lambrecht(1994:141)는 정언적 기술의 형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표현할 수 있는데[125], 이는 주제-평언 구조가 무표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언적 기술은 주제-평언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가 주제가 되는데, 이때 주어가 주제로 인식된다고 해서 주어가 항상 한정명사구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한정명사구나 비한정명사구와 같이 명사구의 형식에 의해 정언적 해석과 단언적 해석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 내에서 결정되는 정보적 지위나 주제로 승격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Sasse(1987:523)는 지시체의 주어짐성에 따라 단언적 기술과 정언적 기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26]

125) Lambrecht(1994:141)에서는 a 는 단언적 판단이고, b 는 정언적 판단이지만 동일한 주제-평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평언구조가 더 무표적이라고 하였다.
a. It is raining. 비가 내린다.
b. It is leaking. 그것이 새고 있다.

126) Schmerling(1976:90): Sasse(1987:522-3)에서 재인용

(46) a. TRUman's DIED.
Truman 은 죽었다.
b. JOHNson's died.[127]
Johnson 이 죽었다.

Sasse(1987:522-3)에 따르면 (46)은 모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발화로, 해당 인물의 사망이 처음 보도된 시점에 발화한 것인데, (46a)는 Truman의 건강상태가 언젠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 모든 국민이 Truman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한 상황이다. (46b)에서 청자는 Johnson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Johnson의 죽음은 완전하게 예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46a)의 기술은 Truman에 관한 것이고, (46b)는 Johnson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기술된다고 하였다. (15)에서 주어는 모두 한정명사구로 동일한 주어짐성으로 인식되지만[128] (15a)는 정언적 판단으로, (15b)는 단언적 판단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주어의 정보적 지위가 판단유형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127) Lambrecht(1994)에 의하면 술어초점 구조에서는 술어에 강세가 있지만 문맥에서 주어주제의 활성화를 위한 강세가 동반될 수 있다고 하였다. (15)에서 대문자는 단어 층위의 강세를 나타내는데, 주어와 술어에 강세가 있는 (15a)는 술어-초점이고, 이때 주어의 강세는 주제로 활성화를 시키는 작용을 한다. 주어에 강세가 있는 (15b)는 문장초점이다.

128) 동일한 범주의 명사구 지시체에서도 주어짐성의 정도는 상이해질 수 있다. Loock(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정명사구 내에서도 층차를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a 는 상대적으로 청자에게 구정보(Hearer old)이지만 d 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청자에게 신정보(Hearer new)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a. Barack Obama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b. Bill Clinton is a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빌 클리턴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다.
c. Angela Merkel is the German Chacellor.
안젤라 머켈은 독일의 총리이다.
d. Nancy Pelosi is the Speaker of the House.
낸시 펠로시는 하원 대변인이다.

Lambrecht(1994:171)에서도 주제-평언구조로 실현되는 단언적 기술에서 주어는 지시체의 접근가능성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전형적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한정명사구에 의해서도 표현되는 (47)과 같은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129)]

(47) a. Every time I went over to his house, a major CATASTROPHE happened,
내가 그의 집에 갈 때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났다.
b. I had a problem with my car. The BATTERY went dead,
내 차에 문제가 생겼어.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c. (Sitting at a computer terminal:) Oh shit! The SCREEN'S going dead,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 이런! 화면이 꺼지고 있어.

(47)은 모두 단언적 기술을 나타내는 발화이지만 (47a)에서 주어가 비한정명사구인 반면 (47b, c)에서는 한정명사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단언적 기술과 정언적 기술에 대한 판단은 명사구의 형식에 의해 명확히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언적 기술로 인식되게 하는 언어적 요건은 무엇일까. Lambrecht(1994:170)에 따르면 자연발생적 담화(spontaneous discourse)와 같은 단언적 기술에서는 자동사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동사의 사용이 단언적 판단에 중의성을 배제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30)]

(48) a. ... and then a BOY came in..
그리고 그때, 한 소년이 들어왔다...
b. A BOY was run over by a CAR!
한 소년이 차에 치였어!

---

129) Lambrecht(1994:171)에서 인용.
130) Lambrecht(1994:170)에서 인용.

Lambrecht(1994:168-9)에 따르면 (48a, b)에서 ‘a boy’는 주제가 아니고 사건의 참여자로 작용하며 단언적 기술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때 지시체는 대하여성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자는 서술어에 표현된 정보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 명사구를 정신적으로 식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사용을 통해 비교될 수 있다. 다음을 보자.[131)]

(49) a. JOHN called.
존이 전화했다.
b. JOHN wrote a book.
존은 책을 썼다.

Wu(1998:68)에 따르면 (49a)에서는 자동사에 의해 단언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49b)에서는 동목구조에 의해 정언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는 자동사 술어를 지닌 (49a)에서 ‘JOHN’은 사건 속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고, 타동사 술어를 지닌 (49b)에서 ‘JOHN’은 사건에 관여하는 지시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Sasse(1987:530)에서도 단언판단을 나타내는 어순변형에서 자동사, 접어화된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가 우세하다고 하였다.

전술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단언적으로 해석될 때 VS어순으로 변형된다는 유형론적 해석은 중국어 내에서도 관측된다. Li & Thompson(1981/2013:509)에서는 표준중국어(Mandarin)에서 주어에서 도치된 목적어는 자동사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동사의 사용에서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적형의 문장으로 인식되는 VS어순의 형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도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자동사와 공기할 때보다 타동사와 공기할 때 문장수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132)]

131) Lambrecht(1986:131): Wu(1998:68)에서 재인용.

(50) a. *一位记者来了。
b. *一位记者躺着。
c. *一位记者笑了。
d. 一个记者正在采访奥巴马。
한 기자가 오바마를 인터뷰하고 있다.

(50a-c)에서 '来', '躺', '笑'는 각각 이동동사, 자세동사, 일반 자동사로 모두 자동사에 속한다. 이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할 경우 문장 독립성이 낮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다. 반면 (50d)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采访'이라는 타동사와 공기하였는데, (50a-c)보다 문장 독립성이 높다. 이는 유형론적 측면에서의 언어현상에 대한 관측이 이론적 해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써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동사에 의해 문장의 독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많은 문맥 속에 등장하는 자연언어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담화 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VS어순의 변형 없이 자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1) a. 一个孩子哭，整个宿舍的孩子都跟着哭了起来。
한 아이가 울자, 온 숙소의 아이들이 모두 따라 울기 시작했다.
b. 一滴雨水刚好落到脸上。
빗물 한 방울이 마침 얼굴에 떨어졌다.

(51)에서 '哭'와 '落'는 자동사로 VS어순의 변형 없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쉽게 공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된 문장의 수용도와 달리 담화적 층위에서는 다양한 화용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종합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문장 층위의 독립성은 동사의 종류에 의

132) 관측을 위해 가공된 문장.

해 달라질 수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자동사와 공기할 때 문장 수용도가 낮지만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공기할 때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담화 층위에서 다양한 화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담화 층위 분석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 4.2.2.2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referentiality)

앞서 언급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층위의 독립성은 자동사보다 타동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타동사에서는 어떠한 층차를 가지고 있을까. 唐翠菊(2005)는 타동성 관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접근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용도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52) a. ＊一个孩子很聪明。
b. ＊一位女记者叫刘知微。
c. 一位新来的保安打伤了一位顾客。
어떤 새로 온 경비원이 고객 한 명을 때려 다치게 했다.

唐翠菊(2005)는 (52a)에서 (52c)로 갈수록 동작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타동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唐翠菊(2005)에 따르면 높은 타동성은 시간성을 지니며 전경으로 작용하고, 낮은 타동성은 시간성이 없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비록 그의 논지에서 타동성과 시간성의 인과관계가 모호하지만 타동성이 높을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관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서는 동일한 동목구조일지라도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에 다음과 같은 위계가 존재함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133]

133) 관측을 위해 가공된 문장.

(53) a. ?一个学生跳楼了。
b. ?一个学生成为老师。
c. 一个学生拿起我们做的装饰品。
한 학생이 우리가 만든 장식품을 집어 들었다.

(53a, b)에서는 동사의 목적어 '楼', '老师'는 모두 실체가 없으므로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53c)에서 목적어 '我们做的装饰品'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장의 독립성 측면에서 (53a, b)보다 (53c)의 수용도가 높다. 문맥에서 관측한 타동사의 지시적 목적어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 명사구 형식을 통해 나타났고, 한정성을 요구하는 분포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54) a. 一个放牛的孩子不小心把牛放跑了。
소를 모는 아이가 실수로 소를 놓쳤다.
b. 一个孩子鼻子打破了。
한 아이가 코가 부러졌다.
c. 一个叫曹闽生的孩子从公园的水池里悄悄地捞了一尾小金鱼。
曹闽生이라는 한 아이가 공원 연못에서 조심조심 작은 금붕어 한 마리를 건져 냈다.
d. 一个八九岁的孩子缠着妈妈给他买一只羽毛型状的圆珠笔，摊主要价 1 块钱。
한 여덟아홉 살쯤 된 아이가 엄마에게 깃털 모양의 볼펜을 사달라고 졸랐다. 주인은 1 위안을 달라고 하였다.
e. 一个四岁的快要饿死了的孩子被朝鲜民主妇女同盟工作员领着找见了妈妈。
네 살 정도의 곧 굶어죽을 것 같은 어떤 아이가 조선민주여성동맹 공작원에게 이끌려 엄마를 찾았다
f. 一个印第安族的孩子远远望见了我们。
한 인디언족의 아이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54a)에서는 把구문의 목적어 '牛'와 (54b)에서 도치된 목적어 '鼻子'는 맨명사로 모두 분포에 의해 한정명사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54c, d)에서 목적어 '一尾小金鱼', '一只羽毛型状的圆珠笔'는 비한정명사구로 실현적 해석을 통해 실체로 해석되며 지시성을 갖는다. (54e, f)에서 목적어 '妈妈', '我们'는 모두 한정명사구로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134] 이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자동사, 혹은 비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보다 높다. 이처럼 동사가 수반하는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라 문장 독립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목적어의 지시성은 타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opper & Thompson(1984:707)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품사적 구분이 의미적 측면에서 전형성을 지니는 몇 가지 자질(예: 견고함(concrete), 운동성(kinetic), 가시성(visible), 실질적 행위(effective action))에 의해 구분되는데, 견고함(cocrete)과 가시적임(visible)의 자질을 지닌 고정적인 물체는 명사로 인식되고, 실질적 행위(effective action)의 자질은 동사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적인 의미적 기준은 담화 문맥 속에서 종종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135]

(55) a. We went fox-hunting in the Berkshires.
우리는 버크셔로 여우 사냥을 갔다.
b. Early in the chase the hounds started up an old red fox, and we hunted him all morning.
사냥개들은 한 늙은 붉은 여우를 쫓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침 내내 그것을 사냥 했다.

Hopper & Thompson(1984:708)에 따르면 'fox'는 전형적인 명사로 인식되지만 (55)의 문맥 속에서는 명사어간(noun-stem)과 동사어간(verb-stem)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다. (55a)에서 'fox'는 동사어간(verb-stem)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문맥에 의해 'fox'가 견고하고 가시적인 개체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라

134) 목적어의 지시성 판단에서 묻다, 질문하다, 말하다 등의 说류 동사의 목적어, 알다, 느끼다 등의 지각동사의 목적어와 같이 문장형식을 목적어로 갖는 동사의 목적어는 지시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외했다.

135) Hopper & Thompson(1984:708)에서 인용.

고 하였다. (55b)에서 ‘fox’는 개체적인 지시체로 인식되고 전형적인 명사의 지위를 얻는다고 하였다. Hopper & Thompson(1980:256-8)에서는 비지시적인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는 완료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위(generic activites)로 인식되어 포괄적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3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沈家煊(1995)은 陈平(1988)을 인용하여 동목구조를 ‘활동(活动)’과 ‘사건(事件)’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목적어 명사구의 지시성과 관련되어 있다. 활동(活动)을 나타내는 동목구조 ‘看书’, ‘写字’, ‘看电影’에서는 목적어의 명사구 ‘书’, ‘字’, ‘电影’이 실체가 없으므로 비지시적으로 해석된다. 사건(事件)을 나타내는 동목구조 ‘读≪红楼梦≫’, ‘写几个字’, ‘看那场电影’에서 목적어 명사구인 ‘≪红楼梦≫’, ‘几个字’, ‘那场电影’은 각각 고유명사, 지시사, 수량적 제한 등과 같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沈家煊(1995)에서는 이처럼 목적어 명사구의 지시성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는 동목구조를 유계성의 관점에서 각각 활동(活动)을 무계, 사건(事件)을 유계로 구분하였다.[137]

이러한 해석에서 비지시적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에 포함되어 전체 하나의

---

136) Hopper & Thompson(1984:711)에서 이러한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목적어는 동사어간에 결속되기 때문에 한정어, 굴절 등의 형태적, 의미적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Hopper & Thompson(1984:713)에 따르면 수식어가 길어질수록 실체가 더 분명해져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137) 吴为善(2011:100)에서는 활동성 동목구조와 사건성 동목구조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사건종결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a 는 활동성 동목구조이고, b 는 사건성 동목구조로 해석된다. a 는 활동성으로 해석되는 동목구조이고, 시량사와의 관계는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고 미완결이다. 반면 b 에서는 사건성으로 해석되는 동목구조이고, 시량사는 종결후 시간을 나타내므로 완결된 사건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활동성 동목구조와 사건성 동목구조는 목적어의 지시성과 같은 의미적 관점에서도 구분될 수 있지만 시상적 관점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a. 盛鱼盛半天了，还没有盛完。
생선을 반나절이나 담았는데(생선담기를 반나절이나 했는데), 아직 다 담지 못했다.

b. 鱼盛碗里半天了，早就凉了。
생선은 그릇에 담은 지 한참 되어서, 벌써 다 식었다.

사건을 나타내는 자동사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을 통해서도 비지시적인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독립성은 낮아지고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독립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어의 지시적 해석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수용성을 높인다는 관측은 앞서 자동사의 관측과 마찬가지로 문맥 층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고의 관측에 의하면 문맥 속에서는 지시적 목적어는 물론 비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한 동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타동사와 공기하는 비지시적 목적어는 주로 이합사로 분류되는 동목구조(예: 生病, 得病, 坠地, 上学, 举手, 绘画, 打水, 入学, 抽烟, 考研 등)에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속성적으로 해석되는 맨명사구에서도 비지시적 목적어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

(56) a. 一个中科院副研究员的孩子明年要上小学了。
한 중국과학원 부연구원의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b. 一个十岁左右的孩子正在玩电子游戏。
한 열 살쯤 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c. 一个孩子被提拔为厂长。
한 아이가 공장장으로 발탁되다.

(56a-c)에서 목적어 ‘小学’, ‘电子游戏’, ‘厂长’은 모두 실체가 없는 비지시적 해석으로 속성을 통해 동사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타동사와 공기할 때 문장 층위의 독립성이 높아지는데, 목적어의 지시성에 영향을 받는다. 즉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문장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목적어가 비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수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문맥 층위의 다양한 화용적

요인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담화 층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화용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4.2.2.3. 시공간위치(spatio-temporal location) 요소

전술했듯이 중국어에서 자동사일 경우 VS어순이 SV어순보다 우세한 경향이 있는데, 목적어가 비지시적인 타동사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 | SV | VS |
|---|---|---|
| (57) a. | *一个女人来了。 | → 来了一个女人。 |
| b. | *一个女人站着。 | → 有一个女人站着。 |
| c. | *一个女人在笑。 | → 有一个女人在笑。 |
| d. | *一个女人爬山了。 | → 有一个女人去爬山了。 |

(57a)에서 ‘来’는 이동을 의미하는 존현동사이고, (57b)에서 ‘站’은 자세를 나타내는 존현동사이다. 또한 (57c)에서 ‘笑’는 자동사로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고, (57d)에서 ‘爬山’은 동목구조이지만 목적어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환경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보다 VS어순인 존현문, 유자문으로 변형되었을 때 문장층위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자동사는 물론 비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문맥 층위의 다양한 정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적형의 문장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적 요소는 무엇일까.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한정명사구가 주어의 위치에서 용인 가능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보량으로 부사어, 개사구 등과 같은 복잡한 술어성분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范继淹 1985, 讃井 唯允 1993,

内田 庆市 1993, 王灿龙 2003, 邓思颖 2003, 陆烁・潘海华 2009, 孔凡莲 2017, 왕하 2020 등). 특히 讃井 唯允(1993:373)은 존재확립 효과가 있다면 전제가 없어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장소, 시간의 설정을 통해 존재확립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陆烁・潘海华(2009)에서는 존재연산자(存在算子)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존재론적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존재연산자는 시간과 장소로 보았다. 陆烁・潘海华(2009)는 다음과 같이 시간, 장소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138]

(58) a. 当时我们正在说话, 突然, 一个人跑了进来。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 들어왔다.
b. 昨天在食堂, 一个师傅向我借了一支笔。
어제 식당에서 한 선생님이 나에게 연필을 빌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왕하(2020)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전경으로 나타나는 탄도체인 주어의 위치에 비한정명사구가 분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공간의 의미를 지닌 장소 성분을 들어 설명하였고, 이는 비한정명사구 주어의 확인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라고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57)의 문장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공간위치 요소[139]를 첨가하여 수용도를 관측하였고, 아래의 (58)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58) a. *一个女人来了。 → 一个女人来到一家商店。
b. *一个女人站着。 → 一个女人站在我家前面。

138) 陆烁・潘海华(2009)에서 인용.

139) 본고에서는 술어 종류, 목적어의 특성과 같은 통사・의미적 특성 외에 문맥에서 정보량에 관여하는 시간, 공간의 모든 통사적 구조를 시공간 위치(spatio-temporal location)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공간위치 요소는 보어, 개사구, 보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c. *一个女人在笑。 → 一个女人正在我家前面大笑。
d. *一个女人爬山了。 → 一个女人到非洲去爬山。
e. 一个女人拿起我们做的装饰品。

(58a-c)에서는 자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시공간위치 요소에 의해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58d)에서는 비지시적인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시공간위치 요소에 의해 독립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58e)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하고 있는데, 시공간위치 요소의 첨가 없이 문장 독립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보량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范继淹(1985)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자동사는 복잡한 구조를 요구한다는 기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문장 독립성이 낮은 자동사, 비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시공간위치 요소의 첨가를 통해 문장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공간위치 요소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을 느슨하게 하는 화용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2.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과 문맥 경향성

앞서 언급했듯이, 주어짐성은 명사구의 형식에 따른 한정성을 통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층위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이는 정언적 해석에서는 한정명사구가 사용되고, 단언적 해석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사용될 것이라는 직관적 추론에 반하는 언어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Wu(1998:65)에 의해서도 관측되었다. 다음을 보자.[140]

140) Wu(1998:65)에서 인용.

(59) Q: 怎么了？ 왜 그래?
A: 他打我了! 그가 나를 쳤어!

Wu(1998:65)에 의하면 (59)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문장초점으로 인식되어 단언적 기술로 해석되는데, 이때 주어의 지시체는 한정명사구이지만 새로운 정보 속에 들어가 사건의 일부가 되어 단언적 기술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Wu(1998)는 단언적 해석과 정언적 해석의 구분은 형식적 한정성이 아닌 위치되지 않은 지시체(non-locatable referents)에 대한 구분이라고 하였다. 백은희(2006)에 따르면 위치성은 한정성과 구분될 수 있는데, 예컨대 '我的一本书'는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이지만 확인 가능한 세트 안의 확인할 수 없는 지시대상으로 위치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담화 문맥속의 층차를 추론해볼 수 있다. Wu(1998:75)는 비한정명사구라도 위치성이 존재하면 정언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41]

(60) a. ?One book is expensive.
b. Jan has bought some books, One book is expensive.
Jan 은 몇 권의 책을 샀다. 한 권은 매우 비쌌다.
(61) 一位旅客说 : "坐飞机到过多少机场....."
한 여행객은 비행기를 타고 많은 공항을 다녀봤다고 하였다.

(60)에서 'One book'은 비한정적으로 인식되는데, (60a, b)의 두 문맥에서는 위치성이 다르다. (60a)에서는 위치성이 없지만 (60b)에서는 선행문맥 속에서 추론적 해석이 가능하여 위치성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추론적 해석은 선행어인 'some books'에서 추론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61)에서는 문맥 속에서 형성된 공항, 여행이라는 틀(schema)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한정명사구 '一位旅客'은 위치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60a)와 달리 (60b)와 (61)에서는 개체에 대한 진술로 인식되어 주제-평언(T-C)구조로 볼 수

141) (60)은 Wu(1998:13)에서 인용, (61)은 Wu(1998:75)에서 재인용(范继淹 1985).

있다는 해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언어현상의 관측과 해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닌 화용적 층차를 위치성(locatability)[142]에 따라 구분하였고, 화용적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분하였다. 다음을 보자.

표 4-5: 지시 영역의 화용적 층차 구분

| 위치성 | 문맥적 한정성 | 영역 |
|---|---|---|
| 낮다 | 무(無) | 주제도입성, 단발성 |
| 높다 | 유(有) | 제외성, 조응성 |

전술했듯이, 자동사와 비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서는 VS어순의 문형이 적형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낮아진다. 이를 통해 동사의 종류와 목적어의 지시성 여부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공간위치 요소와 문맥적 위치성이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용인 가능하게 하는 화용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담화맥락 층위의 경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선행데이터 1,037개에서 총 440개의 예시를 추출하였다. 관측범위 내에서 다양한 요인에 따른 명사구 수식어와 술어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식어가 없는 一+CL+N구조와 수식어를 갖는 一+CL+D+N구조를 각각 220개씩 정량적으로 추출하였다. 다음은 수식어의 유무에 따른 네 가지 범주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42) 위치성(locatability)은 2.1 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문맥, 혹은 상황적으로 추론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계있다. 따라서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되는 지시체가 선행담화에서 추론가능한 선행어를 지니면 위치성이 '있다' 혹은 '높다'로 표현할 수 있다.

표 4-6: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의 출현 빈도

| 위치성 | 범주 | 一+CL+N | 一+CL+D+N | 합계 |
|---|---|---|---|---|
| 낮은 위치성 | 주제도입 | 42(38%) | 68(62%) | 110(100%) |
| | 단발 | 59(66%) | 30(34%) | 89(100%) |
| 높은 위치성 | 제외 | 89(61%) | 57(39%) | 146(100%) |
| | 조응 | 30(32%) | 65(68%) | 95(100%) |
| 합계 | | 220(50%) | 220(50%) | 440(100%) |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는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응성으로 화용적 층차를 구분할 수 있다. 위치성과 관련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출현양상을 분석하여 담화 층위의 화용적 경향성을 고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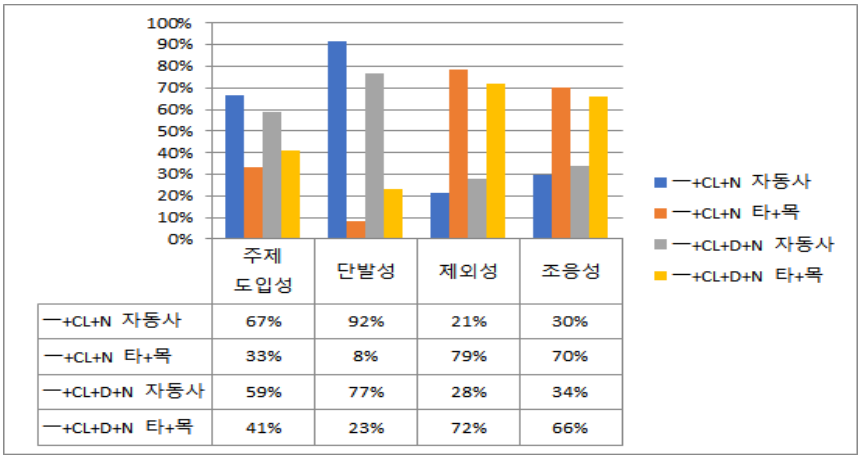
ⅰ 동사에 따른 경향성
ⅱ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경향성
ⅲ 시공간위치 요소에 따른 경향성

#### 4.2.3.1 동사에 따른 경향성

문장 독립성 측면에서 자동사와 공기할 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담화 층위의 문맥 속에서 자동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경향을 통해 각 영역이 지닌 기술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목적어를 지니는 타동사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 빈도

| | 一+CL+N | | | 一+CL+D+N | | |
|---|---|---|---|---|---|---|
| | 자동사 | 타동사 | 합계 | 자동사 | 타동사 | 합계 |
| 주제도입 | 28(67%) | 14(33%) | 42(100%) | 40(59%) | 28(41%) | 68(100%) |
| 단발 | 54(92%) | 5(8%) | 59(100%) | 23(77%) | 7(23%) | 30(100%) |
| 제외 | 19(21%) | 70(79%) | 89(100%) | 16(28%) | 41(72%) | 57(100%) |
| 조응 | 9(30%) | 21(70%) | 30(100%) | 22(34%) | 43(66%) | 65(100%) |
| 합계 | 110(50%) | 110(50%) | 220(100%) | 101(46%) | 119(54%) | 220(100%) |




| | 주제 도입성 | 단발성 | 제외성 | 조응성 |
|---|---|---|---|---|
| 一+CL+N 자동사 | 67% | 92% | 21% | 30% |
| 一+CL+N 타+목 | 33% | 8% | 79% | 70% |
| 一+CL+D+N 자동사 | 59% | 77% | 28% | 34% |
| 一+CL+D+N 타+목 | 41% | 23% | 72% |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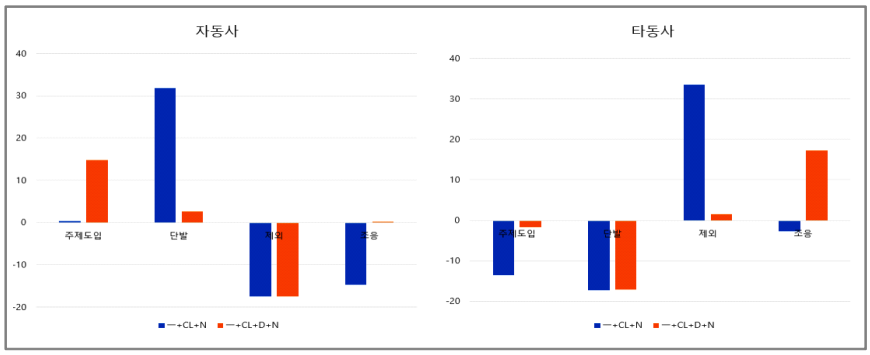
그림 4-2: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의 비율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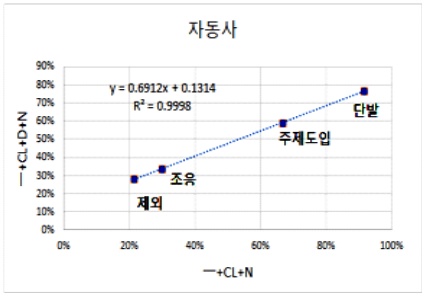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자동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제외성과 조응성은 타동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의 자동사, 타동사의 비율은 서로 상관성이 있을까. 수식어 유무에 따른 주제도입, 단발, 제외, 조응의 네 범주에서 자동사 비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통계값은 약 37.9186이고, 유의확률 값(p-value)은 약 1.007e-08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았다($p < 0.05$). 이는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에서 나타나는 자동사의 비율이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식어 유무에 따라 각 범주의 자동사 빈도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해 범주와 변수의 비독립적인 관계는 특정 범주에서 一+CL+N의 자동사 빈도가 높으면 一+CL+D+N의 자동사 빈도가 높아질 수 있

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수식어 유무에 따른 네 가지 범주의 타동사 비율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통계값은 약 36.2276이고, 유의확률 값(p-value)은 약 3.981e-09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았다($p < 0.05$). 이는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에서 나타나는 타동사의 비율이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의 타동사 빈도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해 범주와 변수의 비독립적인 관계는 특정 범주에서 一+CL+N의 타동사 빈도가 높으면 一+CL+D+N의 타동사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자동사와 타동사의 출현 빈도와 경향성이 수식어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본고의 가설을 명시할 수 있었다.[143]

또한 각 범주별 자동사, 타동사의 상호 보완적(trade-off)인 경향성은 아래의 분산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43) 잔차분석을 통해 수식어 유무와 범주 간의 자동사, 타동사 비율의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잔차는 각 범주 간 혹은 수식어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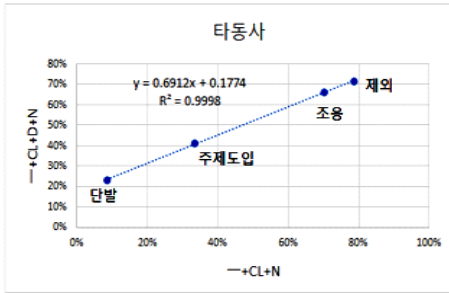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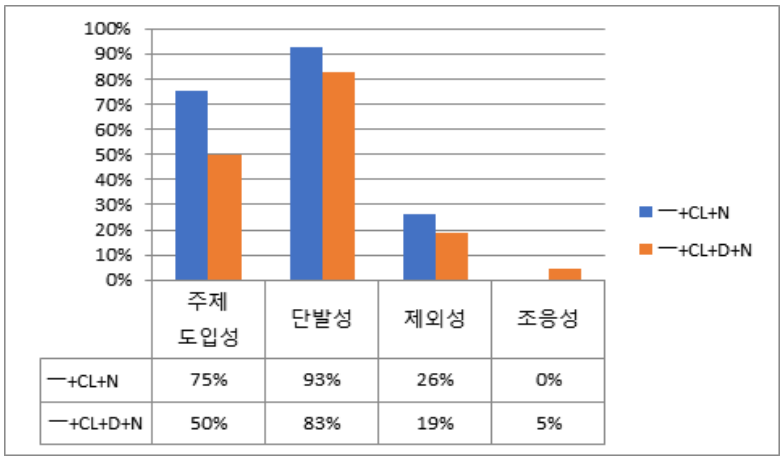




그림 4-3(좌): 각 의미범주에서 자동사의 빈도 경향
그림 4-4(우): 각 의미범주에서 타동사의 빈도 경향

그림4-3을 살펴보면, 자동사와의 공기 비율은 단발 > 주제도입 > 조응 > 제외 순이다. 반면 그림 4-4에서 타동사와의 공기 비율을 살펴보면 제외 > 조응 > 주제도입 > 단발의 순으로 각 범주 간에 자동사와 타동사의 비율이 서로 상호 보완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분산도를 통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상호 보완적 비중에서 제외성과 조응성의 차이에 비해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이 문맥 속에서 지닌 화용적 기능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Sasse(1987)는 단언적 기술을 개체 중심(entity-central)과 사건 중심(event-central)으로 나누었는데, 개체 중심은 지시체가 부각되고, 사건 중심은 지시체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개체 중심적 서술은 주제판단과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다고 하였다. 위치성이 없는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 자동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단언적 기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제도입성보다 단발성의 자동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통해 단발성이 상대적으로 단언적 기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화용적 층차가 동일하지만 각각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언적 기술에 의한 제시적 기능을 나타내는 특정한 자동사의 경향성에서도 파악해볼 수 있다. 단언적 기술은 새로운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제시적 기능을 갖는데, Li & Thompson(1981/2013)은 이를 제시문(presentative sentence)이라고 하였다. Li & Thompson(1981/2013)에 따르면 제시문을 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동사는 이동동사, 자세동사이다. '이동'을 나타내는 술어는 지시체의 공간 이동을 부각키며, 일반적으로 이동동사에 의해 실현된다. Li & Thompson(1981/2013:485)에서는 중국어의 전형적인 이동동사는 来/去류의 자동사라고 하였지만, 倒(쓰러지다), 扔(던지다), 下(내려오다), 推(밀다), 跌(넘어지다), 摔(넘어지다), 流(흐르다), 泼(뿌리다), 爬(기다), 掉(떨어지다), 抹(닦다)와 같은 동작동사(action verb)가 처소구(locative phrase)나 방향구(directional phrase)와 결합하여 위치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세동사는 '위치'를 나타내는데, 지시체가 어떤 행위에 의해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위치하게 됨을 나타낸다. Li & Thompson(1981/2013:384)에서는 站(서다), 睡(자다), 蹲(쭈그려 앉다), 趴(엎드리다), 浮(뜨다), 停(멈추다), 坐(앉다), 躺(눕다), 倚(기대다), 跪(무릎꿇다), 住(거주하다), 漂(떠돌다) 등을 자세동사(verb of posture)라로 설정하였고, 어떤 동작에 의해 어느 공간에 고정된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특정 자동사에 의해 제시적 성격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영역에서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영역에 화용적 층차와 기능을 가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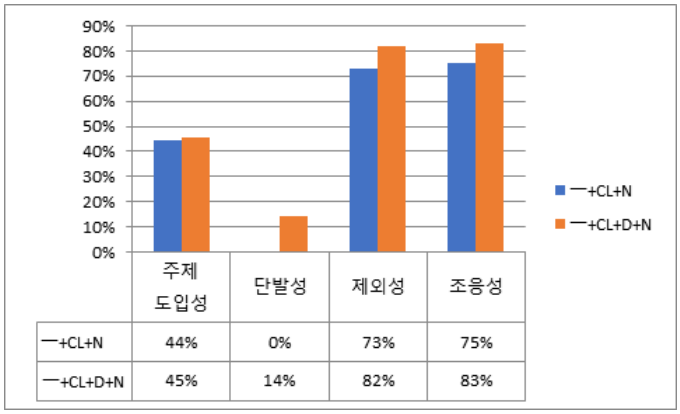

| | 주제 도입성 | 단발성 | 제외성 | 조응성 |
|---|---|---|---|---|
| —+CL+N | 75% | 93% | 26% | 0% |
| —+CL+D+N | 50% | 83% | 19% | 5% |

그림 4-5: 각 의미범주에 따른 제시동사(이동·자세)의 비율 경향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위치성이 없는 주제도입성, 단발성에서 제시적 기능의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비율이 위치성이 있는 조응성과 제외성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위치성을 지닌 주제도입성보다 단발성의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단발성의 화용적 층차와 함께 주제도입성과 구별되는 화용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동사, 자세동사에서의 이러한 경향성은 자동사의 경향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해볼 수 있다.

#### 4.2.3.2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경향성

문장 독립성 측면에서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 목적어가 비지시적인 해석에서는 수용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은 담화 문맥 층위에서 위치성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까.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문맥 층위의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각 범주별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 | 주제 도입성 | 단발성 | 제외성 | 조응성 |
|---|---|---|---|---|
| —+CL+N | 44% | 0% | 73% | 75% |
| —+CL+D+N | 45% | 14% | 82% | 83% |

그림 4-6: 각 의미범주에 따른 지시적 목적어 비율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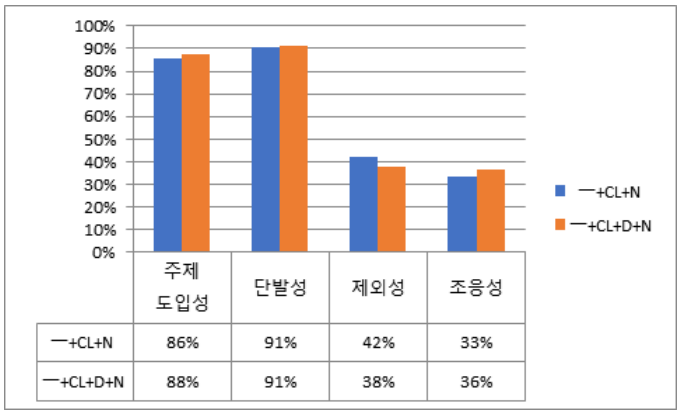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목적어의 지시성 정도에서도 위치성에 따른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는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목적어의 지시적 해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단발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타동성과 관련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이 낮으면 타동성이 낮아져 자동사와 마찬가지로 지시체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인식되고 사건 중심적 기술로 해석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주제도입성은 개체 중심적 기술로 해석되고, 단발성은 사건 중심적 기술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개체 중심적 해석은 주제-평언 해석과 지시체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특히 지시체의 제시적 해석이 아닐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Lambrecht(1994:171)는 만약 'The BOY is chasing the CAT again(그 소년은 그 고양이를 다시 쫓고 있다)'와 같이 직접목적어를 갖는다면 사건-보고문과 주제-평언의 해석 사이에서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시적 목적어와의 공기비율은 위치성이 낮을 때 더 낮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위치성을 지닌 주제도입성보다 단발성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두 범주의 고유한 화

용적 기능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 4.2.3.3 시공간위치 요소에 따른 경향성

앞서 관측했듯이, 시공간위치 요소는 자동사나, 비지시적 해석의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독립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시공간위치 요소는 문맥 속에서 시간, 장소와 관련된 개사구, 부사어, 보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담화 층위에서는 위치성과 술어에 따라 시공간위치 요소가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낼까. 다음은 자동사에서 화용적 층차에 따라 시공간위치 요소의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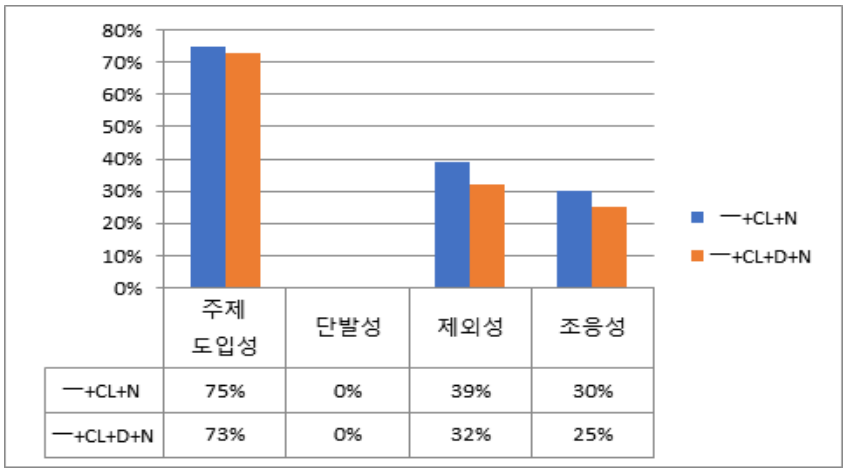

| | 주제 도입성 | 단발성 | 제외성 | 조응성 |
|---|---|---|---|---|
| —+CL+N | 86% | 91% | 42% | 33% |
| —+CL+D+N | 88% | 91% | 38% | 36% |

그림 4-7: 자동사에서 시공간위치 요소 출현 경향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자동사에서 시공간위치 요소의 경향은 화용적 층차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시공간위치 요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위치성이 높은 조응성, 제외성에서는 시공간위치 요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간위치 요소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를 높이는 요소라는 점과 위치성과 같은 문맥적 한정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술했듯이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시공간위치 요소의 설정 없이 수용도가 높은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문맥이 부여하는 화용적 층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자.




| | 주제 도입성 | 단발성 | 제외성 | 조응성 |
|---|---|---|---|---|
| —+CL+N | 75% | 0% | 39% | 30% |
| —+CL+D+N | 73% | 0% | 32% | 25% |

그림 4-8: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에서 시공간위치 요소 출현 경향

위의 표와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서 시공간위치 요소의 경향성은 화용적 층차가 동일한 제외성과 조응성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낮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위치성과 목적어의 지시성은 시공간위치 요소의 제약에 관여하는 요소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앞선 관측에서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자동사의 공기에서 시공간위치 요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낮은 위치성과 자동사와의 공기에서는 시공간 위치의 제약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치성이 낮은 범주일지라도 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 의해 시공간위치 요소의 제약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겠다. 위의 그림4-10의 그래프에서 위치성이 없는 단발성에서 시공간위치 요소 비율이 월등하게 낮다는 점은 비록 문맥적 한정성이 없어도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문장 독립성이 높으며 시공간위치 요소의 제약이 느슨해진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 시공간위치 요소에 대한 양극

화 현상을 발견하였고, 단발성과 달리 주제도입성에서는 여전히 시공간위치 요소가 중요한 화용적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지시체가 담화에 새롭게 도입되어 주제지속성을 갖는 주제도입성에는 일반적으로 담화의 시작부분이나 담화 속 주제 전환 부분에서 지시체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주제도입성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담화지시체를 주제로 승격시키려는 화자의 화용적 목적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시공간위치 요소는 담화주제의 틀을 설정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단발성에서는 지시체가 담화에 새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주제도입성과 동일한 화용적 층차를 지니고 있지만 담화 속에 주제로 설정되지 않고 단발적인 등장에 그친다는 상이한 화용적 기능에 따른 차등적인 양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4.3 소결

본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형성 기제와 지시적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시 의미영역, 비지시 의미영역, 수량 의미영역이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환경과 기제는 다음과 같다. 장면층위 술어에서는 지시적 해석이 우세하다. 개체층위 술어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시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비지시적 해석이 우세하다. 수량적 해석은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실현에서는 지시적 해석만이 우세하고 비실현에서는 비지시적 해석이 우세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시적 해석도 가능하다. 부정관사의 원형적 의미인 수량적 해석은 실현과 비실현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의미영역이 교차하는 언어 환경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 장면층위(stage-level) 술어<br>실현(realis) 양태 | 개체층위(individual-level) 술어<br>비실현(irrealis) 양태 |
|---|---|---|
| 지시(Ref) | ---------- | |
| 비지시(Non-ref) | | ---------- |
| 수량(Numeral) | ---------- | |

그림 4-9: 각 의미영역이 교차하는 언어 환경

부정관사의 문법화 경로에 비추어볼 때 수량적 의미가 제일 원형적인 의미이고 지시적 의미와 비지시적 의미로 의미 탈색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각 의미영역은 고유한 의미·화용적 영역을 갖지만 언어 환경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각 의미 영역 간의 중의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시적인 언어 현상을 통해 부정관사의 문법화라는 측면에서 각 의미영역이 고유한 의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연속적이며 분절적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문장 층위와 담화 층위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을 고찰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자동사와 공기할 때 적형의 문형이 존재하다는 점에서 비문법적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타동사와 공기할 경우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진다. 또한 개사구, 부사어, 보어 등에 의한 시공간위치 요소의 설정은 이러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출현 제약을 상쇄시키는 정보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문장 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 조건과 수용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8: 언어 환경에 따른 지시적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수용도

| 언어환경 | 문두 비한정명사구 수용여부 |
|---|---|
| 이동, 소실의 존현을 의미하는 자동사<br>예: 来, 去, 死 등 | 낮음 |
| 기타 자동사<br>예: 笑, 哭, 坏 등 | 낮음 |
| 비지시성 목적어를 지닌 동목구조<br>예: 跳楼, 爬山, 成为老师 등 | 낮음 |
| 지시성 목적어를 지닌 동목구조<br>예: 拿起我们制作的工艺品, 买了最贵的东西 등 | 높음 |

문장 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독립성은 비교적 간명하게 층차를 구분할 수 있지만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맥에서 제약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은 담화 속에서 문맥적 위치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어, 개사구, 부사어 등에 의한 시공간위치 요소도 비한정명사구의 출현 제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담화지시체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 문맥적 한정성이 낮다. 반면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는 선행어에 의한 주어짐성을 통해 문맥적 한정성이 높다. 문맥적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자동사와 공기비율이 높고, 타동사 목적어의 비지시성이 지시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와 상호 보완적으로 위치성이 높은 조응성과 제외성에서는 타동사의 비율이 높고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치성에 따른 두 영역은 화용적 제약에 있어서도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이동동사, 위치자세동사 등을 포함한 자동사와 공기할 때 시공간위치 요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할 때 시공간위치 요소가 비교적 의무적이지 않다. 반면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는 술어의 환경에 상관없이 시공간위치 요소가 의무적이지 않다는 점을 통해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 높은 위치성에서는 화용적 제약이 느슨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9: 문맥적 위치성과 언어 환경에 따른 시공간위치 요소 공기 양상[144]

| 위치성 | 범주 | 자동사, 타동사(비지시적 목적어) | 타동사(지시적 목적어) |
|---|---|---|---|
| 낮음 | 주제도입성<br>단발성 | + | (-) |
| 높음 | 제외성<br>조응성 | - | - |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위치성이 낮으면 문장 독립성이 낮은 문맥에서 시공간위치 요소가 비교적 의무적이고, 위치성이 높으면 어떤 언어 환경에서도 시공간위치 요소가 수의적이라는 점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은 화용적 층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44) +는 시공간위치 요소가 비교적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는 비교적 수의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 )는 기타 다른 화용적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성을 표현한 것이다. 앞서 위치성이 없는 경우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의 화용적 특성에 의해 시공간위치 요소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 제5장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와 주제성

본장에서는 의미·통사적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평가하고 주제성을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술했듯이, 명사구의 한정과 비한정은 형식에 의해 일차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라도 정도성을 지닌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층차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담화 속에 등장하는 지시체에 대한 정보적 지위를 단순히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 비지시, 수량의 세 가지 의미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담화 속에 나타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분석하고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성을 가늠해볼 것이다.

한편 자연언어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통사적 주제 구조로 발현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화용적 주제성과도 관련이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발현할 수 있는 통사적 주제 구조를 분석하여 화용적 주제성과 통사적 주제성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각 의미영역과 정보적 지위에 따른 주제성 위계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 5.1 주제성과 주어짐성(givenness)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면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는 주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제는 한정적이어야 하는데, 비한정명사구는 주

제의 화용적 의미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Gundel(1988)에서 주제는 정보의 주어짐(given)과 새로움(new)의 구분에서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주제에 대한 정의에서 '주제는 한정명사구에 한해서 주제 확인가능성(topic-identifiability condition)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에서 주제는 한정적(definiteness)이다'[145]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따라 Gundel(1988)은 주제로 해석되는 명사구는 한정명사구의 형식과 관련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음을 보자.

(1) Neko wa kingyo o ijitte
cat TOP goldfish OBJ play-with
The/*a cat is playing with the/a goldfish.

(1)을 살펴보면 일본어에서 명사구 'Neko'에 표지 'wa'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영어의 명사구 형식은 정관사 'the'에 의한 한정명사구임을 알 수 있다. Gundel(1988)은 일본어의 주제는 표지 'wa'에 의해 실현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영어표현은 한정명사구 형식인 'the+N'이라고 하였다. 주제의 한정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주제를 실현하는 통사적 구조에서도 한정명사구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Gundel & Fretheim(2004)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사적 주제 구조에서 제일 좌측에 위치하는 명사는 주제로 인식되는데, 이때 한정명사구만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

(2) a. My sister, she's a High School teacher.
내 여동생, 그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b. That book you borrowed, are you finished reading it yet?
네가 빌린 그 책, 벌써 다 읽었니?

145) Gundel(1988)은 주제 확인가능성은 개체(E)는 성공적으로 주제(T)가 될 때 화자와 청자가 개체에 대해 사전적인 지식이나 친숙성이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만약 어떤 표현이 성공적으로 주제(T)로 지시되면 개체(E)는 청자에게 유일하게 확인되는 형태라고 하였다.

c. My work, I'm going crazy.
내 일, 나는 정말 미쳐버릴 거 같아.
d. The Red Sox, did they play the Yankees?
레드 삭스, 그들은 양키즈와 경기를 했니?

(2)에서는 소유격, 지시사, 정관사에 의한 한정명사구 형식이 문장의 좌측에 이동하여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통사적 구조에서 비한정명사구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146]

(3) a. The window, it's still open.
그 창문, 그것은 여전히 열려 있어.
b. *A window, it's still open.
c. We can't leave yet. A window is still open. It's the one in your bedroom.
우리는 아직 떠날 수 없어. 창문 하나가 여전히 열려 있어. 그건 너의 침실에 있는 창문들 중 하나야.

(3a)에서 한정명사구인 'The window'는 문장의 좌측에서 주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비한정명사구인 'A window'는 통사적으로 (3c)에서처럼 주어의 분포에 위치할 수 있으나 (3b)처럼 주제로 인식되는 통사적 분포에는 위치할 수 없다는 점을 통해 주제는 한정명사구에 의해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Gundel(1988)은 청자가 기억 속에 지시체에 대한 표상을 가져야 주제로 인식된다는 점을 통해 주제는 친숙해야 하는데, 총칭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비한정명사구는 친숙한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Gundel & Fretheim(2004)에서는 이러한 주제의 친숙성은 지시적 주어짐성과 같이 담화의 주어진 시점에서 청자의 지식과 주의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대화참여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은 주제의 '한정성' 또는 '전제'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Prince(1997)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한정성의 층차에 주목하였는데, 비

146) Gundel(1988:214)

한정명사구의 지시체는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지만 특정적 자질에 의해 전위된 주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47]

(4) there won't be any dead up there. There'll just be tombstones setting there. Because the coal is under the graves. An old preacher down there(i), they augered under the grave where his(i) wife was buried.....
거기 위에는 죽은 사람이 없을 거야. 무덤 돌들만 있을 거야. 무덤 밑에 석탄이 있어서 그렇지. 그곳에 한 늙은 목사, 그들은 그의 아내가 묻힌 무덤 밑을 뚫어보았어.

(4)에서 비한정명사구가 문장의 좌측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Gundel & Fretheim(2004)에서는 Prince(1997)가 주장하는 (4)와 같은 반례에 대해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담화적 참조점이 없기 때문에 지시적 주어짐성이 없다고 정의내림으로써 비한정명사구의 주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Gundel & Fretheim(2004)의 해석은 지시적 주어짐성을 대화참여자 간의 상황적 주의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어짐성에 대한 좁은 정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Lambrecht(1994:151)에서는 활성화와 같은 지시 대상의 인지적 상태는 특정한 담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성질이므로 주제화된 명사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성화라는 인지적 특성이 꼭 주제로 인식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148] 이를 통해 친숙성이나 활성화는 한 명사구가 주제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활성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개체일지라도 주제로 인식될 수 없는 현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47) Prince(1997)에서 인용.

148) 다음은 Lambrecht(1994:165)가 제시한 담화지시체의 심적 표상에 따른 주제가능 등급표이다.

(5) Q: 누가 왔니?
A: 철수가 왔어요.

(5)의 문맥에서 '철수'는 한정명사구에 의해 활성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주제가 아닌 초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철수'라는 한정명사구는 담화 층위에서 지시적 주어짐성을 갖지만 관계적으로 신정보에 해당하므로 주제가 아닌 초점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시적 구정보가 지시체의 주제의 은 필요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정명사구도 문맥에 따라 주제가 아닌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대로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에 의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적 추론가능성에 대한 지시적 주어짐성을 통해 주제성이 용인될 수 있다. Ward & Prince(1991)에서는 Prince(1981)를 따라 담화에 고정된(anchored) 명사구가 주제로 적절해지는데, 이는 담화 지위와 한정성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한정명사구는 담화에 의해 설정된 주요한 집합관계(set-relation)를 통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49]

(6) a. Several of these questions I will try to answer - but, let me emphasize, from a personal rather than a general viewpoint.
이 질문들 중 몇 가지는, 나는 답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반적인 관점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려고 한다.

---

[주제수용도 위계(topic acceptability scale)]

| | |
|---|---|
| active | most acceptable |
| accessible | |
| unused | |
| brand-new anchored | |
| brand-new unanchored | least acceptable |

149) Ward & Prince(1991:171)에서 인용.

b. There are a couple of nice points in there. One point I can say something about. The other I'm not sure.
몇 가지 멋진 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관점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c. I've been to two [BLS parties]. One of them I met [X] at.
나는 BLS 파티에 두 번 참석했고, 그들 중 한명, 거기서 [X]를 만났다.

(6a-c)에서 밑줄 친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통사적 주제의 분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해 주제로 인식된다. Ward & Prince(1991)는 적절한 주제화에 관여하는 것은 주제화된 지시체와 담화 속에 등장하는 다른 실체와의 특정한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6a)에서 'Several of these questions'는 고정된 주어짐성을 통해 접근가능하고, (6b, c)에서 'One point', 'One of them'은 선행담화에 설정된 집합과의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대한 관측을 찾아볼 수 있다. Li & Thompson(1981/2013:111)에서는 수사 '一'나 그 밖의 수사의 수식을 받는 비한정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주제로 쓰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주제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50]

(7) a. 一个人就够了。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b. 一条腿断了。
다리 한 짝이 부러졌다.

c. 一个农夫说，"我想出一个办法了"。
한 농부는 "내가 방법을 생각해냈다"라고 말했다.

(7a)에서 '一个人'은 수량적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양 즉 '하나'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7b)에서 '一

150) Li & Thompson(1981:111)

条腿’는 비한정명사구이지만 한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一条腿’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실체의 부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정성을 지닌다고 해석하였다. (7c)에서 ‘一个农夫’는 여러 ‘农夫’ 중 한 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7b)의 ‘一条腿’와 비슷한 의미에서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적 해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Li & Thompson(1981/2013)에서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대한 예외적 현상은 담화 층위에서 추론적 관계에 의한 주어짐성을 상정한 결과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Ward & Prince(1991)의 문맥적 주어짐성에 의한 비한정명사구 주제성의 정의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 宋文辉(2018:189)는 시간, 공간의 틀이 설정되어 있는 언어 환경에서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중국어의 주제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51]

(8) 昨天晌午呀，德胜门外头哇，一个老头儿啊，钓上来了一条十斤重的鱼。
어제 오후에 말이야, 덕성문 외곽에서 말이지, 한 노인이, 10 근이나 되는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렸어.

(8)에서 ‘一个老头儿’은 비한정명사구이지만 배경이 설정된 담화 속에서 주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啊’와 같은 주제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담화 층위에서 주어짐성의 관계가 모호하게 적용되지만 담화주제를 통한 주제성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통해 주제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겠다.[152]

---

151) 俞敏(1957): 宋文辉(2018:189)에서 재인용.

152) (8)은 주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문장에서도 화자의 의도에 의해 주제가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Erteschik-Shir(2007)의 장면주제(stage topic)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장면주제는 특정 시공간 주제에 더 가깝다. Erteschik-Shir(2007:16)에서는 장면주제를 담화의 ‘here-and-now’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8)에서는 비록 새로운 지시체이지만 담화주제로 승격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Lambrecht(1994)의 주제인상(topic promo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Li & Thompson(1981)과 宋文辉(2018)의 주제성에 대한 관점은 비한정명사구가 담화 층위에서 가질 수 있는 주어짐성을 용인함으로써 주제성과 형식적 한정성의 관계를 부정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은 담화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고려한 것이다. Ward & Prince(1991)에서도 담화 문맥 속에서 모든 비한정명사구가 동일한 층위의 정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정의는 형태적, 어휘적, 의미적 요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개체와 담화구조에 나타나는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는 점을 통해 명사구의 형식과 주제는 독립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해석은 형식과 의미의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본고의 기본적인 가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여 주제성에 대한 주어짐성을 담화 층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담화 층위에서 정보적 지위를 파악하고, 화용적 주제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5.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

### 5.2.1 추론가능성과 정보적 지위의 분석틀 정립

한정성은 정도성의 개념으로 지시체가 대화참여자에게 다양한 층위로 인지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논의된 Prince(1981,1992)의 정보적 한정성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낸다. 특히 Prince(1992)에서는 한정성에 관여하는 요소를 대화참여자로 확대하여 담화 상태와 청자 상태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153] 그러나 Prince(1992)에서는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의 영역에 존재하는 지시체는 일반적인 언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53) 본고에서 기본적인 틀로 설정한 Prince(1992)의 분석틀은 제 2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신 담화-구정보의 영역에서 청자-구정보와 청자-신정보의 영역에서 모호한 지시체에 대해서는 추론 가능한 정보, 문맥적 한정성을 갖지는 않지만 이전 담화에서 환기된 정보나 그로 인해 추론 가능한 것을 추론가능성의 영역으로 따로 설정하고 있다.[154)155)]

이에 Birner(2006)에서는 Prince(1992)의 추론가능한 지시체의 층위를 Prince (1992)의 담화지위에 관한 분석틀 내에서 설정하고 추론의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특히 Birner(2006)에서 주목할 점은 담화-구정보에서 추론방식의 층차를 통해 Prince(1992)에서 공석으로 남겨둔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의 영역을 추론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Birner(2006)는 담화에 등장하는 선행어에 의해 수신자에게 추론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생기게 된다고 믿었다. 이를 담화-구정보 지위에서 수신자의 기억창고에 저장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추론의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Birner(2006)가

---

154) 예컨대 동일한 명사구라도 추론관계에 따라 정보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a. He passed by the door of the Bastille and the door was painted purple.
그는 바스티유 감옥의 문 옆을 지나갔는데 문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b. He passed by the Bastille and the door was painted purple.
그는 바스티유 감옥을 지나갔는데 문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위의 문맥에서 ‘the door’는 정보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다. a 에서 ‘the door’는 선행담화에 이미 출현했으므로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b 에서 ‘the door’는 선행담화에서 출현하지 않았지만 ‘Bastille’라는 선행어를 통해 ‘Bastille’에 달린 크고 멋진 문’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Prince(1992)는 b 의 ‘the door’와 같은 담화지시체는 비록 청자의 지식에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청자-구정보로 정의내릴 수 있지만, 담화-신정보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담화지위의 네 가지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추론가능(inferrables)한 영역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155) Prince(1992)는 모든 지시체가 이런 방식으로 추론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선행어와 연관되거나 최소한 화자가 추론관계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I passed by the Bastille and the trunk was painted purple.

위의 예에서 ‘Bastille’와 ‘trunk’의 연결은 사전적 지식이 없는 경우 부적절하게 느껴지는데, 건물과 출입문과 같이 청자들에게 인지적으로 충분히 추론 가능한 실체나 추론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담화-구정보에서 분류한 세 가지 추론이다.

먼저, 일치적 추론(identity inference)이다. 담화지시체는 수신자의 기억창고(addressee's knowledge-store)에 존재하고 등장한 것으로 가정되는 것으로,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에 해당한다. 이는 Prince(1981)의 가정된 친숙성에서는 '환기됨(evoked)'에 해당한다. 다음을 보자.[156]

(9) a. Earlier this year, when Lt. Alicia Rice found out she was being deployed to the Middle East, she started a pretty lengthy "to-do" list.
올해 초 중동으로 파병이 확정되자 알리샤 라이스 중위는 상당한 할 일 목록을 작성했다.

b. I told the guy at the door to watch out, but the idiot wouldn't listen.
나는 문 앞에서 그놈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 바보는 듣지 않았다.

(9a)에서는 선행어 'Lt. Alicia Rice'의 대용어로 대명사 'she'가 사용되어 선행어를 조응하고 있고, (9b)에서는 선행어 'the guy at the door'의 대용어로 명사구 'the idiot'가 서로 조응한다. 이때 선행어와 조응되는 후행어는 공지시적으로 추론가능하다. 따라서 일치적 추론에서는 선행어와 후행어는 재지시적인 추론방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교한 추론(elaborating inference)이다. 일치적 추론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의 기억창고에 존재하며 이미 등장한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일치적 추론과 동일한 담화지위인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추론을 위한 수신자의 노력은 일치적 추론과 차이를 보인다.

(10) a. In one of the drawers there was a bundle of old letters, a dozen or more, tied together with a bit of rotten string.....Across the face of the **top letter** was written in The Old Man's handwriting, "not to be forgotten."
서랍 중 하나에는 썩어버린 끈 한 줄로 묶인 한 묶음의 오래된 편지들

156) Birner(2006)에서 인용.

이 있었고 약간의 썩은 끈으로 함께 묶여 있었다.....맨 위의 편지에는 The Old Man 이 쓴 글씨로 “잊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b. The house was particularly spacious. Set well back from the road, it was almost surrounded by wide lawns on which, each side of the house, grew a huge palm tree. Beyond the right-hand palm could be seen a clothes line.

집은 특히 넓었다. 길에서 떨어져 있고, 거대한 잔디밭에 둘러싸여 있었다. 집의 양쪽에 거대한 야자수가 자란다. 오른쪽 야자수 너머에는 빨랫줄이 보였다.

(10a)에서 선행어 ‘old letters’에 의해 후행어인 ‘the face of the top letter’가 추론될 수 있다. 또한 (10b)에서도 선행어 ‘a huge palm tree’에서 후행어인 ‘the right-hand palm’이 추론된다. 정교한 추론에서도 선행어에서 후행어를 추론할 수 있지만 일치적 추론과 같이 공지시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교한 추론에서는 선행어와 후행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석되지만 분의적이지 않다[157]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가교적 추론(bridging inference)이다. 가교적 추론은 수신자의 기억창고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선행어를 통한 연상적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화 속에 추론가능한 선행어가 존재하므로 담화-구정보로 해석되지만, 발화된 후행어를 통해 선행어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자-신정보에 해당하며 후행적 추론(backward inference)방식이 일치적 추론, 정교한 추론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교적 추론은 선행어와 후행어가 분의적이라는 점에서 정교한 추론과 구분될 수 있다.

157) 비분의적인 관계는 분리불가하고 양도 불가한 긴밀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신체와 팔, 다리, 옷과 옷깃, 소매 등은 비분의적이며 양도 불가하므로 비교적 긴밀하게 추론가능하다. 그러나 캠핑가방과 빵, 맥주 혹은 가족과 엄마, 아빠, 아들, 딸등의 추상적 관계 등은 분의적이며 양도 가능한 관계를 지니며 추론관계가 느슨하다. 이처럼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가 비분의적일 때 추론관계가 긴밀하며, 분의적일 때 추론관계가 느슨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11) Mary took the picnic supplies out of the trunk. **The beer** was warm.
메리는 피크닉 용품을 트렁크에서 꺼냈다. 맥주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11)에서는 선행어 'the picnic supplies'와 추론관계에 있는 후행어 'The beer'의 관계를 통해 가교적 추론방식을 알 수 있다. 'the picnic supplies'가 'The beer'의 선행어이지만 발화된 후행어 'The beer'를 통해 선행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이행적(non-transitive)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하여 담화-구정보에서 나타날 수 있는 Birner(2006)의 세 가지 추론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5-1: Birner(2006)의 세 가지 추론가능 영역 분석

| | 일치적 추론 identity inference | 정교한 추론 elaborating inference | 가교적 추론 bridging inference |
|---|---|---|---|
| 담화 상태 | 담화-구정보 | 담화-구정보 | 담화-구정보 |
| 청자 상태 | 청자-구정보 | 청자-구정보 | 청자-신정보 |
| 인지 영역 | 기억창고에 존재함 | 기억창고에 존재함 | 기억창고에 존재하지 않음 |
| 선행어와의 관계 | 공지시적 관계 | 비분의적 관계 | 분의적 관계 |
| 추론방향 | 선행어 → 후행어 | 선행어 →후행어 | 후행어→선행어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추론의 과정은 담화 상태와 이에 따른 청자의 인지적 노력이며 이는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청자는 담화 속의 정보를 통해 추론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추론어는 선행어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rince(1992)의 추론 가능한 영역을 담화 상태와 청자 상태의 영역 안에서 논의하고, 구분한 Birner(2006)의 분석은 타당하다. 또한 인지적 추론의 점진적 특성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 분절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의 간명한 기준으로 유용하다.[158]

158) Ward & Prince(1991:174)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합과 개체의 관계를 설정하여 비한정명사구의 주제화가 가능한 집합관계 설정한 바 있다.
a. A-MEMBER-OF 관계

따라서 본고에서는 Prince(1992)가 제시한 정보적 지위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담화-구정보 영역에서 추론 방식을 정교화시킨 Birner(2006)의 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완성하고자 한다.

표 5-2: Birner(2006)에서 제시한 Prince(1992)의 수정된 정보적 지위 분석틀

| | 청자-구정보 | 청자-신정보 |
|---|---|---|
| 담화-구정보 | 환기됨(Evoked)<br>1. 일치적 추론(Identity Inference)<br>2. 정교한추론(Elaborating Inference) | 3. 가교적 추론(Bridging Inference)<br>(추론적으로 연결되었지만, 수신자에게 알려지지 않음) |
| 담화-신정보 | 미언급(Unused)<br>(추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수신자에게 알려짐) | 새로움(Brand-new)<br>(추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수신자에게 알려지지 않음) |

종합하면 Prince(1992)는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는 자연언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Birner(2006)에서는 담화-구정보에서 청자의 지위에 따라 '추론'이 가능한 영역을 세 개의 추론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담화-구정보・청자-구정보에서는 일치적 추론, 정교한 추론으로 구분하였고, 담화-구정보・청자-신정보에서는 가교적 추론을 설정하였다. Birner(2006)에서는 Prince(1992)에서 공석으로 남겨두었던 담화-구정보・청자-신정보 영역을 추론의 영역으로 정교화하였다. 담화-구정보에서 추론가능성에 대한 분류는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정교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ince(1992)의 정보 지위 분석틀을 토대로 추론과정을 정교화한 Birner(2006)의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

b. PART-OF 관계
c. A-SUBTYPE-OF 관계
d. EQUAL-TO 관계

Ward & Prince(1991:174)가 제시한 집합관계는 Birner(2006)의 추론관계에서 a 와 c 는 가교적 추론, b 는 정교한 추론, d 는 일치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irner(2006)의 추론방식은 Prince(1992)의 정보적 층위에서 추론방식을 재설정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5.2.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

여기서는 자연언어의 수많은 문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분류한 바 있다.

표 5-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 구분

| | |
|---|---|
| 지시(Ref) | 주제도입성 |
| | 단발성 |
| | 조응성 |
| | 제외성 |
| 비지시(Non-ref) | |
| 수량(Numeral) | |

이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정보적 지위를 평가하고자 한다.

### 5.2.2.1 담화-구정보 영역

담화-구정보에서 지시체는 담화 내 선행어와 공지시되어 직접적으로 추론되거나 혹은 선행어에 의해 연상되어 간접적으로 추론된다. 지시적 해석에서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조응성과 제외성이 담화-구정보의 지위를 갖는다. 담화-구정보 영역에서는 수신자의 상태에 따라 청자-구정보, 청자-신정보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5.2.2.1.1 청자-구정보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는 정보 지위의 위계 중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시적 의미영역에서 조응성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텍스트나 발화상황에서 지시체의 표상이 주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화참여자에게 현저하게 두드러진 정보이거나 비교적 현저하게 두드러진 정보이다.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에서는 일치적 추론과 정교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일치적 추론(identity inference)이다. 일치적 추론은 수신자의 기억창고

에 저장되어 있는 지시체로 선행어를 통해 재시시적으로 조응되어 추론되는 것이다. 일치적 추론의 재지시적 추론방식은 적어도 문맥의 안팎에 의한 두 단계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담화지시체가 문맥적으로 추론가능하다.

(12) a. 相比于最近几部壮观的“英雄片”，≪千里走单骑≫只选择了一个顺手拈来的故事：日本老头高田，为了表达对身患绝症儿子的歉疚之心，单身赶赴中国云南，给儿子拍回一段“千里走单骑”的傩戏。一个语言不通不善言辞的老人就这样开始了一段异国之旅。

(人民日报海外版 2006 年 01 月 12 日)

최근 몇 편의 스펙터클한 ‘영웅영화’에 비해, ≪천리길 외발자전거≫는 편안한 이야기만을 골랐다: 일본 영감 다카다는 불치병에 걸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홀로 중국 윈난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천리길 외발자전거’의 희곡을 촬영해 주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한 노인은 이렇게 외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b. 她感到四面八方一片黑暗，自己失落在彻骨的寒冷中。于是托特的坏日子又重新开始了。她认为现在比那时还更不幸，因为她已经有了痛苦的经验，并且相信痛苦是没完没了的。一个女人为了爱情勉强自己作出这样大的牺牲，只好在花哨的小玩艺中寻求满足。她买了一个哥特式的跪凳，一个月买了十四个法郎的柠檬来洗指甲。 (福楼拜≪包法利夫人≫)

그녀는 사방이 온통 암흑으로 뒤덮여 있고, 자신이 뼈에 사무치는 추위에 떨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자 토트의 나쁜 시절이 다시 시작됐다. 그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한 여자는 사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고, 작고 예쁜 소품들에서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고딕 양식의 스툴을 사고, 한 달에 14 프랑의 레몬을 사서 손톱을 닦았다.

(12a, b)에서는 지시체는 담화 내에서 문맥적으로 추론가능하며 선행어가 텍스트 내에 존재한다. (12a)에서 ‘一个语言不通不善言辞的老人’은 선행어인 ‘高田’을 재지시하고 있다. 선행어와 후행어의 조응적 기능을 통해 하나의 지시체를 가리키는 두 명사구는 청자에게 일치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2b)에서

도 활성화된 지시체인 '她'를 후행어인 비한정명사구 '一个女人'이 재지시함으로써 동일한 담화지시체를 가리키며 일치적 추론을 이끌어낸다.

다음으로는, 담화지시체가 상황적으로 추론가능하며 선행어는 텍스트 외적인, 즉 담화 공간에서 발견된다.

(13) a. 一天晚上，全家人学了≪纪念白求恩≫以后，我妈说："一个外国人到中国来治病，这个人的心眼可真好！ (人民日报 1968 年 12 月 03 日)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纪念白求恩≫을 배운 후, 우리 엄마는 "한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병을 치료하였는데, 이 사람의 마음씨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b. (附图片)一个美国人正在研究毒物的感染程度。新华社发在美国细菌部队。 (人民日报 1965 年 6 月 10 日)
(사진 첨부) 한 미국인이 독극물의 감염 정도를 연구하고 있다.

(13a, b)에서는 텍스트 외적인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지시체가 청자와 화자에게 모두 인식되는 시점에서 공지시적으로 추론되고 있다. (13a)에서는 비록 텍스트 내에서 표현되기는 하지만 해석과 직설화법의 혼용으로 대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화자인 '我妈'는 '白求恩'을 '一个外国人'으로 표현하였지만 대화 참여자인 청자는 두 지시체를 일치시킬 수 있다. (13b)에서는 기사에 실린 사진 속의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비한정명사구 '一个美国人'으로 사진 속의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청자는 비록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된 개체이지만 상황 속에 추론가능한 지시체와 연결시킬 수 있다.

둘째, 정교한 추론(elaborating inference)이다. 정교한 추론도 담화지시체가 청자의 기억창고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치적 추론과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가 조응적인 일치적 추론과 달리 정교한 추론은 집합을 형성하는 선행어를 통해 추론된다는 점이다. 집합은 수량적 추론과 연상적 추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수량적 추론:**

선행어가 수량적 집합으로 추론어는 수량적 집합에서 추론 가능하다.

(14) a. 会从每一个形象中看到你自己的形象。如果你张开耳朵来听，你会在一切声音里听到你自己的声音。真理是需要我们两个人来发现的：一个人来讲说它，一个人来了解它。虽然言语的波浪永远在我们上面喧哗，而我们的深处却永远是沉默的。 (纪伯伦≪沙与沫≫)

만약 네가 귀를 열고 듣는다면, 너는 모든 소리 속에서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우리 두 사람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한다. 비록 말의 파도는 우리 위에서 영원히 떠들썩하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는 영원히 침묵이 있다.

b. 他是属于那种将身子钻到马车下面去救助跌倒了的马匹的人。他的学问只限于两本书，一本书名为≪国王的罪恶≫，另一本书名为≪梵蒂冈的秘密≫。 (福楼拜≪情感教育≫)

그는 마차 밑으로 몸을 던져 넘어진 말을 구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학문은 두 권의 책에 불과하다. 책 한 권은 ≪国王的罪恶≫이고, 다른 한 권은 ≪梵蒂冈的秘密≫이다.

(14a. b)에서는 각각 수량적 집합이 설정되어 있고, 후행어에서 전체적인 수량이 각각의 개체로 지시되고 있다. (14a)에서는 선행 집합인 '两个人'에서 후행어의 '一个人'이 추론되며 각각의 지시체가 다시 전체의 수량적 집합을 이룬다. (14b)에서도 선행 집합인 '两本书'에서 후행어로 해석되는 '一本书'가 추론되며 '另一本书'와 함께 전체 집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집합과 개체의 관계이자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연상적 추론**

선행어가 연상가능 한 집합으로 추론어는 전체-부분의 관계로 추론가능하다.

(15) a. 油腻的小爪子又试探着伸出了，我不忍心看到瓜分松鼠鱼尸体的情景，侧过脸去。巴比特和上官念弟，从主桌那儿站起来，每人捏着一个盛着红葡萄酒的高脚玻璃杯，没拿杯子的胳膊勾在一起。他俩文质彬彬地、扭扭捏捏地，对着我们的宴桌走来。同桌的目光都盯着松鼠桂鱼，可怜的鱼，已经被揭掉了半边尸体，一条青蓝色的鱼刺露了出来。

(莫言≪丰乳肥臀≫

기름진 발톱이 또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다람쥐 쏘가리가 쪼개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얼굴을 돌렸다. 바비트와 상관넨디는 메인 테이블에서 일어나 각각 붉은 포도주가 담긴 높다란 유리잔을 들고, 잔을 들지 않은 팔로 서로 팔짱을 꼈다. 그 둘은 우아하게 비틀거리며 우리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같은 자리의 시선이 다람쥐 쏘가리를 향하고 있었다. 불쌍한 물고기, 이미 뜯겨져 시체가 반쯤 남겨졌다. 청록색의 생선 가시 하나가 도드라져 나왔다.

b. 群众的目光一起扫向那瘦人。瘦人就是磕头虫。他那件烟色绸褂已经破烂不堪，一只袖子基本脱落，露着半个漆黑的肩膀。

(莫言≪丰乳肥臀≫)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 마른 사람을 향해 쏠렸다. 마른 사람은 커터우충이다. 그의 그 연한 비단 저고리는 이미 너덜너덜해졌다. 한쪽 소매는 거의 벗겨지고, 새까만 어깨가 반쯤 드러났다.

c. 甬路旁边，躺着一个浑身窟窿的男人，他流了很多血，成了汪，像小蛇一样四处爬。血腥味，热烘烘的。煤油味儿，呛鼻子。血还从窟窿里往外冒，还有气泡儿。他没死利索，一条腿还在抽动。

(莫言≪丰乳肥臀≫)

용로 옆에는, 온몸에 상처가 난 한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는 피를 많이 흘려 웅덩이가 되었고, 피는 마치 작은 뱀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피비린내는 심하게 나고 등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피는 아직도 상처에서 나오고 기포도 일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한쪽 다리는 아직도 실룩거린다.

(15a)에서 '一条青蓝色的鱼刺'는 선행어인 '松鼠桂鱼', '松鼠鱼尸体'의 일부분으로 선행어와 추론어는 전체와 부분을 이룬다. (15b)에서는 선행어인 '那件烟色绸褂'에서 후행어인 '一只袖子'를 추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c)에서는 선행어인 '他'에서 후행어인 '一条腿'를 추론해낼 수 있다. (15a-c)에서 추론 가

능한 근거는 선행어와 후행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전체적인 틀에서 상정해낼 수 있는 개체와의 관계 중에서 비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부분은 환유의 전형적인 인지 과정이다. 따라서 정교한 추론에서도 환유에 의한 연상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자 환유를 통한 추론이다.

(16) 一会儿，一个电话打到“食荤者汤煲店”。“你好，请找食荤者。”明玉的声音是惯常的低沉。食荤者闻言，眼睛里两朵焰火“砰”地散发出来，映亮了他整张黑里透红的脸，一张脸顿时喜气洋洋，哈哈大笑。(阿耐≪食荤者≫)
잠시 후 ‘스훈저찌개전문점’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스훈저를 찾는데요.” 밍위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묵직하다. 스훈저는 말을 듣고, 눈에서 불꽃 두 송이가 ‘펑’ 하고 뿜어져 나오자, 그의 검붉은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한 얼굴은 일순간 기쁨이 충만해져서 하하 크게 웃었다.

(16)에서 후행어 ‘一张脸’은 ‘食荤者’라는 인물의 부분에서 연상적으로 추론 가능한데, 추론된 지시체는 환유적으로 선행지시체를 지시하고 있다.

#### 5.2.2.1.2 청자-신정보

담화-구정보에서 청자-신정보의 정보적 지위는 연상적인 추론의 영역이다. 담화-구정보・청자-구정보에서 두 가지 추론방식과는 달리 지시체가 청자의 기억창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담화-신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선행어에서 간접적으로 추론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가 일치적 추론과 정교한 추론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에서 가교적 추론에서는 청자의 인지적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담화-구정보에서 청자-신정보에서 나타나는 가교적 추론(Bridging Inference)으로 수량적 추론과 연상적 추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수량적 추론**

수량적 추론은 수량적 집합에서 ‘집합 속 동일한 개체 중 하나’가 추론된다.

따라서 선행어는 수량 집합이며 추론어는 '그것들 중 하나'가 선택된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17) a. 战斗进行得很顺利，当我朝最后一只羊的树上走去时，我遇见了三只狼，它们早已爬到树上，而且快要把那只羊吃完了。我因为患感冒而变得半瞎半聋，并没有先发觉它们，差一点儿踩到狼脸上。而那些狼，看见我这另一只羊站立着从树上走来，就朝我扑过来，龇裂着还沾有鲜血的嘴。我的枪膛是空的，因为在多次射击之后弹药打光了，而我又不能拿到那支在这棵树上预先准备好的枪，因为那几只狼在上面。我那时站在一根侧枝上，这枝条还很嫩，但是在我头上伸手够得着的地方有一根很粗壮的枝。我开始在侧枝上倒退着走，慢慢地离开主干。一只狼也慢慢地追跟着我。但是我用手勾住了上面的那根枝。

전투가 잘 진행돼 마지막 양의 나무로 향하던 중 늑대 세 마리를 만났다. 나는 감기에 걸려 반 쯤 멍해져서 그들을 먼저 알아채지 못하고 하마터면 늑대 얼굴을 밟을 뻔했다. 그런데 그 늑대 들은 내가 다른 양 한 마리가 서 있는 나무에서 다가오자 나를 향해 달려들어 피 묻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 총은 텅 비어 있었다. 여러 번 사격한 후에 탄약이 다 떨어졌고, 나는 또 이 나무에 미리 준비한 총을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늑대들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곁가지 위에 서 있었는데, 이 가지가 아직 매우 연하지만, 내 머리 위에 손을 뻗은 곳에 아주 굵디굵은 가지가 있었다. 나는 곁가지에서 뒷걸음질 치며 천천히 줄기를 떠나기 시작했다. 늑대 한 마리도 천천히 나를 따라온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그 가지를 그었다.

b. 幸而别的人已经赶到，日本人不能再扔石头。一个日本人带着一把斧子，对准为首的人就劈下来，为首的人迅速一拳打中日本人的肚子，斧子落在车上。赶骡子的中国人跑掉，车停住了。 (林语堂≪京华烟云≫)

다행히 다른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일본인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다. 한 일본인이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수장을 향해 겨누었고 수장은 재빠르게 그 일본인의 배를 가격했다. 노새를 몰던 중국인이 도망가 버려서 차가 멈추었다.

(17a)에서 '一只狼'은 선행담화에 나타난 '三只狼', '那些狼'의 수량적 집합에서 선택된 하나의 개체이다. (17b)에서는 선행담화에 나타난 '日本人'은 복수

로 해석되어 수량 집합을 형성하고, 그 중 하나의 개체인 '一个日本人'은 수량 집합의 선행어와 추론적 관계를 맺는다.

**② 연상적 추론**

선행어가 연상적 집합을 형성하며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론어와 연결된다. 다음을 보자.

(18) a. 所以这些食品安全问题，大都是已经存在多时，家长偶然发现才被曝光。一位妈妈得知每月缴纳学费几千元可孩子却经常挨饿以致营养不良后，号啕大哭，悔恨交加。
그래서 이런 식품 안전 문제는 이미 한참 동안 방치돼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학부모가 대부분이었다. 한 엄마는 매달 수업료 수천 원을 내고도 아이가 자주 굶어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울부짖으며 회한에 빠졌다.

b. 管理人员已经把超级市场的各个大门从里面闩上了，主妇们议论纷纷。一个女人大声嚷嚷着，葡萄长霉了，这声音盖过了一个男人的声音。
관리직원들이 수퍼마켓의 각종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자 주부들이 술렁였다. 한 여자는 포도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소리가 한 남자의 소리를 뒤덮었다.

(18a)에서 담화지시체인 '一位妈妈'는 선행어 '家长'의 구성원으로 추론 가능하다. (18b)에서 '一个女人'도 선행어 '主妇们'에서 연상되는 구성원으로 추론 관계를 맺고 있다.

**5.2.2.1.3 추론가능성**

담화-구정보는 담화 내에 이미 추론 가능한 선행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론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담화-구정보에서는 추론방식을 통해 청자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선행어에 따른 추론가능성은 본고에서 제시한 문맥적 한정성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제외성과 조응성은 문맥 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선행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론

가능한 영역 내에 있다.

한편 추론어에 대한 선행어의 설정은 인지적 측면에서 구현되는 인간 보편의 지식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모호하거나 작위적인 구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인식을 통해 추론되는 영역이 언어 구현 방식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용인가능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Ward & Prince(1991)에서는 집합관계에 의한 추론을 설정하였는데 추론은 이행적(transitive)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추론이 비이행적(non-transitive)인 절차를 따르면 주제로 기능할 수 있는 한정명사구도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59] Ward & Prince(1991)는 다음의 예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9) a. We ate in a terrible French restaurant last night. *The cork was green.
우리는 어제 저녁 형편없는 프랑스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코르크는 녹색이었다.

b. We ate in a terrible French restaurant last night. The wine was awful. The cork was green,
우리는 어제 저녁 형편없는 프랑스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와인은 끔찍했는데, 코르크는 녹색이었다.

(19a)에서 ‘The cork’는 ‘a terrible French restaurant’에서 추론과정을 거치려고 하지만 추론 가능한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a)에서 정관사를 사용한 ‘The cork’는 어색하다. 반면 (19b)에서 ‘a terrible French restaurant’에서 ‘The wine’과 ‘The cork’로의 추론 절차는 이행적이라고 볼 수

159) Ward & Prince(1991)에서는 비이행적인 논리관계에서 한정명사구가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통사적 주제 구조가 불가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a. John went into a restaurant and he asked for the menu.
존은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부탁했다.
b. *John went into a restaurant and the menu he asked for.
이를 통해 주제가 기능적 의존성, 가령 한정명사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있다. 따라서 한정명사구의 형식이 가능해 진다. 이로써 언어형식을 통한 발화의 적절성은 추론과정과 같은 인식의 적절성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론 가능한 영역에서는 추론방식에 따라 구문이 선택되기도 한다. Birner(2006)는 영어의 there-존재문은 통사적으로 동사 후치 명사구로 분석되는데, 이때 담화지시체는 청자-신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형식에서는 수신자의 기억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영역인 일치적 추론과 정교한 추론이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예컨대 대화참여자들이 포커게임을 하기 위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청자의 시야에 포커카드가 확인 가능하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는 대화참여자들 간의 카드게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와 함께 담화지시체에 대한 상황적 추론이 가능해지므로 담화지시체와 언어표현이 공지시되는 일치적 추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Birner(2006)는 이러한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there-존재문의 선택은 부자연스럽다고 하였다.[160]

(20) * There's a/the deck of cards to your left; can you hand them to me?

반대로 다음과 같이 지시체가 청자의 지식창고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되는 가교적 추론에서는 there-존재문의 선택이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61]

(21) Mary took the picnic supplies out of the trunk. There was beer in the cooler.
메리는 트렁크에서 피크닉용품을 꺼냈다. 냉동박스에 맥주가 있었다.

이처럼 인식적 과정에 해당하는 추론 가능한 영역에서 언어 표현에 따른 형식의 변별을 통해 추론방식의 층차를 확인해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문두

160) Birner(2006)에서 인용.
161) Birner(2006)에서 인용.

비한정명사구의 추론가능 영역인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구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有’의 첨가 가능 여부에 따라 청자-신정보와 청자-구정보의 구분과 추론의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162)]

먼저, 일치적 추론은 선행어와 후행어가 동일한 담화지시체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지시적인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선행어와 후행어는 양도불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응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대명사나 맨명사에 의해 실현되지만 화자의 화용적 목적에 의해 비한정명사구로 발현될 수 있다. 예컨대 이혼을 결심한 한 여인이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싸고 있는데, 초조한 남편이 집사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본다. 이때 집사는 이혼을 하고 독립하려는 남편의 아내를 ‘성숙한 한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23) 남편: 明净干什么呢？
　　밍징은 뭘 하고 있나요?
　집사: 一个女人在收拾行李。
　　한 여인은 짐을 싸고 있네요.

(23)의 문맥에서 집사의 발화 속에서 비한정명사구의 사용은 수사적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칭 대상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사가 발화한 ‘一个女人’이 ‘明净’을 공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또한 실체로 인식되는 지시체 ‘明净’을 지시하는 ‘一个女人’ 역시 실체를 지닌다는 점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두 표현의 의미영역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치적 추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의미영역 분류에서 조응성에 해당한다. 일치적 추론

162)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有’의 첨가 가능 여부는 다양한 화용적 층차에 따라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6 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변이문 관계인 有-구문과의 비교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에서는 ‘有’의 첨가가 어려운데, 만약 ‘有一个女人在收拾行李。’과 같이 ‘有’를 첨가한다면 ‘一个女人’은 ‘明净’이 아닌 다른 어떤 여인을 지칭하게 되고 결국 일치적 추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정교한 추론은 비록 일치적 추론과 동일한 정보적 지위에서 발현되고 있지만 추론의 방식에서 구분된다. 정교한 추론은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추론방식은 전술했듯이, 선행집합에 의해 수량적 추론과 연상적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

(24) a. 正中间有桌子。一条腿断了。
중앙에 탁자가 있어요. 다리 하나는 부러져있네요.
b. 她有两个孩子。一个孩子是泰国人，一个孩子是美国人。
그녀는 아이 두 명이 있다. 한 아이는 태국인이고, 한 아이는 미국인이다.

(24a)에서는 ‘桌子’에서 ‘一条腿’가 추론될 수 있는데, 이때 ‘桌子’와 ‘一条腿’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비분의적이기 때문에 양도불가하다. (24b)에서는 선행어인 수량집합 ‘两个孩子’에서 ‘一个孩子’, ‘一个孩子’가 각각 추론될 수 있는데, 정교한 추론에서 수량적 추론의 방식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다시 부분에서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분의적이고 양도불가하다. 정교한 추론은 일치적 추론보다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가 비교적 느슨하지만 전체-부분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일치적 추론과 동일한 정보적 지위에서 해석된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적 지위의 일치적 추론과 마찬가지로 ‘有’를 첨가가 어색하다.

마지막으로 가교적 추론은 추론어에 의해 연상적으로 추론된다는 점에서 정교한 추론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지만 수신자의 기억창고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적 지위가 다르다. 가교적 추론은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의 담화지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선행어가 존재하지만 일치적 추론과

정교한 추론에 비해 연상될 수 있는 선행어와의 관계가 느슨하다는 점에서 청자-신정보의 지위를 갖게 된다. 가교적 추론의 추론방식도 정교한 추론과 동일하게 선행어의 집합 종류에 의해 수량적 추론과 연상적 추론으로 세분할 수 있다.

(25) a. 操场上聚集了很多学生。一个学生突然跳舞。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 한 학생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한다.
b. 村口有军队在布阵。一个军人正在召集村民。
마을입구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한 군인은 마을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25a)에서는 선행어인 수량집합 '很多学生'에서 다른 개체들이 배타적으로 제외되고 '一个学生'이 선택된다. (25b)에서는 선행어 '军队'에서 '一个军人'이 추론될 수 있다. 이때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는 집합 속에서 하나의 개체로 선택되거나 연상되기 때문에 분의적(meronymy)이고 따라서 양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수량적 집합에서도 전체 집합에 속하는 개체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개체가 배타적으로 선택된다는 점에서 집합과 개체,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느슨하다. 가교적 추론은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분의적이고 양도 가능한 특징을 통해 추론방식이 구별될 수 있다. 이는 일치적 추론, 정교한 추론과는 달리 가교적 추론에서 '有'의 첨가가 가능하다는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여 추론가능한 지시체는 선행담화에서 추론이 가능한 선행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담화-구정보의 영역에서 설명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추론 가능한 영역은 지시의 조응성과 제외성인데, 추론의 방식에 의해 조응성은 청자-구정보에 해당하고 제외성은 청자-신정보의 지위를 갖는다. 지금까지 논의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추론가능 한 영역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63]

163) 여기서는 추론방식의 의미적 영역을 '有'의 첨가여부와 같은 형식을 통해 구분

표 5-4: 담화-구정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추론방식과 특징

| 추론영역 | 일치적 추론<br>identity inference | 정교한 추론<br>elaborating inference | 가교적 추론<br>bridging inferences |
|---|---|---|---|
| 의미영역 | 조응성 | 조응성 | 제외성 |
| 청자 지위 | 청자-구정보 | 청자-구정보 | 청자-신정보 |
| 선행어와의 관계 | 일치적 관계 | 비분의적 관계 | 분의적 관계 |
| 추론방식 | 재지시적 추론 | 수량적 추론<br>연상적 추론 | 수량적 추론<br>연상적 추론 |
| 양도방식 | 양도 불가 | 양도 불가 | 양도 가능 |
|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 | 선행어와 일치되는 대상 | 전체 집합의 부분이 되는 대상 | 집합 속에서 새롭게 선택되는 대상 |
| '有' 첨가 | 불가 | 불가 | 가능 |

#### 5.2.2.2 담화-신정보 영역

담화-신정보의 영역에서 청자-신정보와 청자-구정보의 지위로 나눌 수 있다.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청자-신정보의 지위에서 나타나고, 비지시적 의미와 수량적 의미는 청자-구정보의 지위로 나타날 수 있다.

##### 5.2.2.2.1 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에서 청자-구정보는 특정한 개체가 청자에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사구가 나타내는 실체의 유형(type)을 청자가 익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구정보에 속한다. 다시 말해 청자의 의식에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청자의 지식이나 넓게는 백과사전적 지식에 근거하여 추론 가능하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정보적 지위이다.

담화-신정보에서 청자-구정보의 지시체는 담화 속에서는 미언급(unused)[164]

---

하고자 하였다. 제 6 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변이문으로 '有'가 첨가된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고찰할 것이다.

164) Prince(1981)의 미언급(unused)의 지위에서는 지시체가 담화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수신자의 의식 속에서 환기될 수 있다. 따라서 미언급(unused)의 지위는 Prince(1992)의 담화지위에서 담화-신정보・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로 분류

된 개체이지만, 한정명사구와 같이 유일하게 지시되어 수신자의 기억이나 인지 속에 존재하는 지시체이다. 따라서 선행담화에 출현하지 않았지만 고유명사와 같이 개체를 지시할 수 있고, 총칭적 해석처럼 하나의 부류로 인식되거나 속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영역은 종류, 부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총칭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량적 의미에서는 '하나'라는 수량의미가 지닌 공통적인 명제에 의해 수신자에게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는 비지시 의미영역과 수량적 의미영역을 담화-신정보・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로 분류할 수 있다.

(26) a. 布鲁诺先生是出于家庭的需要而当"家庭妇女"的。1980 年儿子弗兰切斯科出生，这就提出了夫妻中谁留家里照看孩子的问题。其妻有固定工作，而他自己当时只是从事黑市劳动，报酬又很低，因此别无选择，只能是他留家里。开始时他感到关在家里很别扭，而且在那不勒斯，一个男人从事被认为是女人的工作，马上就会被人瞧不起。

(君特・格拉斯≪铁皮鼓≫)

브루노씨는 가족의 필요에 의해 가정부 노릇을 했다. 1980 년 아들 프란치스코가 태어나자 부부 중 누가 집에 남아 아이를 돌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내는 고정직이고 자신은 암시장 노동으로 보수가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남기로 했다. 처음엔 집에 갇혀 있는 게 어색했다. 게다가 나폴리에서는, 남자가 여자로 여겨지는 일을 하면 금방 무시당한다.

b. 到了家里，一样样地捡了出来，冯家婆连念了两声佛，问道："一匹布卖多少钱，花得不少吧?" (张恨水≪北雁南飞≫)

집에 도착해서 일제히 끄집어내자 풍씨댁은 연신 불상을 읽으며 "천 한 필에 얼마야?, 많이 썼지?"라고 물었다.

(26a)에서 '一个男人'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남성상에 관한 명제를 통해 '一个男人'에 관한 해석은 수신자의 백과사전적 지식에 이

---

되고 있다.

미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6b)에서 '一匹布'는 수량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라는 일반적인 해석을 통해 수신자에게 담화 문맥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 의미영역과 수량 의미영역은 수신자에게 공통된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자-구정보로 해석된다. 만약 선행담화에 동일한 명사지시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와 수량적 의미는 담화-구정보로 해석될 수 없다. 담화-구정보에서 청자-구정보로 해석되는 지시체는 공지시적인 관계로 동일한 실체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의미영역이 동일하지만, 담화-신정보, 청자-구정보의 지위에서는 동일한 명사구가 등장하더라도 의미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지시적 해석이나 수량적 해석에서 선행하는 동일한 명사구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165]은 선행어가 복수 명사구도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7) a. 实际上，做这行的人时时都处在斗争的状态之中，她们时时都处在紧张的状态里，人就容易老，而她们呢，又最怕自己让人看出老来，化妆便往往过了头。一个女人可以靠化妆品美丽，可以靠服装不同凡响，但却很难做到清纯。 (王祥夫≪雨夜≫)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쟁 상태에 있다. 그녀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사람은 쉽게 늙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에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제일 걱정하여 화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 여자는 화장품으로 예쁘고, 옷으로 튀기 쉽지만, 오히려 청순하기는 어렵다.

b. 在喧闹的人声中，牲口市交易员王金聚大声地叫喊着："谁要！谁要！这匹大马一百二十块。"，"一匹马才一百二十块！"(人民日报1988年05月19日)

떠들썩한 사람들 속에서 가축시장 거래원 왕진쥐는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원하느냐! 누가 원하냐! 이 큰 말은 120위안이다." "말 한 마리에 겨우 120위안이야!"

(27a)에서는 '一个女人'은 선행담화와 후행담화에 등장하는 '她们'과 '那些女

165) 실체가 없는 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은 지시적 해석에서 공지시적 관계의 '지칭한다', '지시한다'의 표현과 구분하여 '상정한다', '투영한다'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子’를 투영하고 있지만 의미영역과 복수성이 다르므로 재지시하거나 조응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一个女人’은 일반적인 ‘여자’로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她们’과 ‘那些女子’는 지시적으로 해석되며 복수명사구이다. (27b)에서 ‘一匹马’는 선행담화에 나타나는 ‘这匹大马’와 비록 동일한 명사이지만 의미영역의 층차가 다르다. ‘一匹马’는 명제에 의해 일반적인 ‘하나’의 수량적 개념으로 해석되지만 한정적인 명사구 ‘这匹大马’를 공지시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와 수량적 의미는 수신자에게는 익숙하지만 담화에서는 미언급 된 개체로 인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5.2.2.2.2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에서 지시체는 담화 속에 새롭게 소개된다. 청자-신정보이지만 선행어에 의해 추론 가능한 담화-구정보와 달리 선행어의 부재로 담화-신정보로 분류된다. 따라서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는 실체가 지니는 가장 낮은 정보적 지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한정성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는데, Lambrecht(1994)에서는 확인불가능, Prince(1981)에서는 새로움에 가까운 정보적 지위에 해당한다. 이때 지시체는 담화에 등장하지 않거나 청자의 마음속에 그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는 지시체가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인지적 지위를 말한다. Heim(1982)의 파일카드의 비유에 의하면 청자의 마음속에 새롭게 제시되는 파일카드라고 할 수 있다.

(28) a. 垃圾分类的“种子”生根发芽。在南京一处小区的垃圾分类兑换点，一位妈妈带着刚满一岁的宝宝，咨询怎么用积分兑换生活用品。她笑着对记者说，下一代心里也埋下了垃圾分类的种子，“我的大女儿在学校学到垃圾分类知识，回到家积极参与垃圾分类，主动分类的意识已经在她心里生根发芽” (人民日报 2017 年 12 月 23 日)
쓰레기분리수거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다. 난징의 한 소구역에서 쓰레기분리수거지점에서, 한 엄마가 한 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생활용품 포인트 교환을 문의했다. 그녀는 웃으며 기자에게 다음 세대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며 말하였다. “나의 큰 딸이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우고 집에 돌아와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했던 큰딸의 능동적인 의식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을 틔웠어요.”

b. 拐角处，两个披着短斗篷的夜班巡警，手按着装警棍的皮套，朦朦胧胧中身影显得高大无比。一只盘子打碎了，一个女人尖声嚷叫，接着是娃娃的啼哭声。 (詹姆斯・乔伊斯≪尤利西斯≫)

모퉁이에는 짧은 망토를 두른 두 명의 야간 순경이 경찰봉이 달린 가죽 커버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어슴푸레한 모습이 더없이 커 보였다. 접시 하나가 깨지자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곧이어 인형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28a)는 주제도입성으로 ‘一位妈妈’는 새로운 장면 속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시체로 담화-신정보로 해석되고, 따라서 청자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신정보의 지위를 갖는다. (28b)는 단발성에 해당하는데, ‘一只盘’, ‘一个女人’은 모두 장면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지시체로 선행어를 통한 추론 가능한 영역이 아닌 새롭게 등장하는 지시체라는 점에서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 5.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성과 통사적 주제 구조

앞서 담화맥락 속에 위치하는 정보적 지위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주어짐성을 가늠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정보적 층차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성과 통사적 주제 구조의 발현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5.3.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성

주제에 대한 정의는 그 개념이 가지는 모호성에 의해 크고 작은 관점의 차

이를 보이지만[166], 실제로 주제가 언어로 표현될 때 갖는 특정한 언어 재료나 환경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주제성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제를 구분해주는 형식적 표지인데, 주제인 명사구 뒤에 첨가되는 성분이 앞의 명사구를 주제로 인식하게 하거나, 주제와 평언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주제표지는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제표지를 전담하는 형태적 표지라기보다 다양한 기능 중에 주제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사용이 수의적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어의 주제표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조사 '은/는'에 집중될 정도로 '은/는'이 주제표지로 인식되었지만 실제로 '은/는'의 기능은 더 다양할 수 있다.[167] 또한 타갈로그(Tagalog)의 'ang' 역시 주제표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Carrier-Duncan 1985, Gundel 1988 등), 일반적으로 명사의 관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 전담 표지가 아님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주제표지로 인식되는 형식이 주제를 나타내는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초점으로부터 주제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제표지의 기능을

---

166) 주제에 대한 정의는 크게 주제를 주어와 동일시하는 관점과 주제를 주어에서 분리하려는 관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주제가 전통적으로 주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Kuno 1972, Gundel 1976, Chomsky 1977, Dik 1978, Reinhart 1982: Lambrecht(1994)에서 인용)에서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대하여성(aboutness)관계가 주제의 정의로 규정될 수 있다. Keenan(1976)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주제가 되는데, 주제가 진술의 대상이라는 화용적 의미는 만약 한 언어에서 구정보 표지나 주제표지가 있다면 이는 주어에 부가되는 현상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중국어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관측되는데, Chao(1968:69)는 중국어에서 문법적 의미의 주어와 술어는 행위자와 행위보다는 주제와 진술(comment)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朱德熙(1981)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 반면 Li & Thompson(1976:465)에서는 주어와 주제의 구분을 시도하였는데, 주어는 문장 내 논항과의 의미적, 통사적 관계를 맺는 반면 주제는 문맥 지향적이며 한정성(definite)과 문두성(sentence-initial position)이라는 주요한 자질을 보유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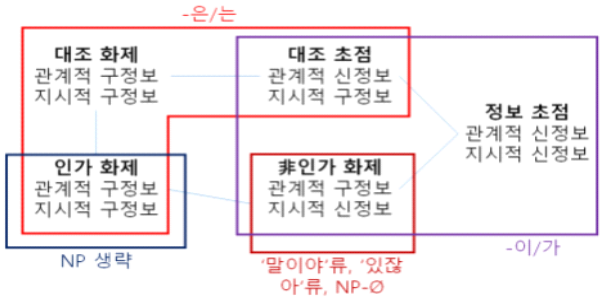
167) 박진호(2015:389)에서는 '은/는'이 '이/가'와 구분되는 기능은 정보초점과 비인가 주제로 보았다. 이는 다음의 의미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제표지가 초점에는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Q: 누가 가니?
A1. 내가 간다.
A2*나는 간다.

(29)의 문맥에서 '나'는 초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은/는'을 사용할 수 없고 '이/가'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29)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A1이 적절하게 인식된다. 이는 '은/는'의 표지는 '이/가'와의 구분에서 초점에 대한 변별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박진호(2015:389)에서는 '이/가'와 달리 '은/는'은 관계적 신정보이자 지시적 신정보인 정보초점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별적 자질을 통해 주제표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은 중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刘丹青(2016)은 다음과 같이 주제표지 '啊'는 초점에 부가될 수 없다고 하였다.

(30) a. A: 小张去了上海。
B: (不，小张没去上海)小王(*啊)，去了上海
b. Q: 什么事儿？/怎么啦？/怎么回事？
A: 我的脖子(*啊) 疼。
c. Q: 你的脖子怎么啦？
A: 我的脖子啊，疼。



(30a)에서 확인초점으로 인식되는 '小王'에 표지 '啊'를 첨가할 수 없고, (30b)에서 문장초점 내에 있는 '我的脖子'에 표지를 첨가할 수 없다. 반면 (30c)에서 '我的脖子'는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때 표지의 첨가가 가능하다. 이처럼 변별적 작용을 통해 표지의 고유한 기능을 구분해낼 수 있다. Li & Thompson(1981/2013:113)은 주제는 문장의 진술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주제 뒤에 휴지 또는 휴지사 등을 부가하여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张伯江・方梅(1996)에서는 중국어의 어기사(语气词), 휴지(停顿)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경계를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제의 관계적 정보구조를 잘 묘사한 것이다. 정보구조에서 주제는 초점과 대응되는 짝으로 인식되어 문장 내에서 주제는 구정보로, 초점은 신정보로 구분된다. 이처럼 주제표지의 부가는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제만이 표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주제표지는 주제성에 대한 형식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 주제표지의 가능여부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刘丹青(2016)에서는 비한정명사구는 주제가 될 수 없지만 총칭적 해석은 주제로 기능하여 주제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68]

(31) 一个人啊，要讲良心。사람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

(31)에서 비한정명사구 '一个人'은 실체가 없는 비지시적 개체로 총칭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刘丹青(2016)은 (31)에서 '一个人'은 주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제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한정명사구의 총칭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총칭 명사구는 화자와 청자에게 확정적인 종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대상이 존재하는 한정적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정과 함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을 총칭적 해석으로 제한한 견해는 徐烈炯・刘丹青(1998:163)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

168) 刘丹青(2016)에서 인용.

가지 다른 점은 수량적 의미영역에 대해서도 주제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徐烈炯・刘丹青(1998/2007:143)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량적 의미영역의 비한정명사구에 주제표지의 부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169]

(32) 他们昨天喝了三瓶白酒。三瓶白酒啊，我们今天喝得了。
그들은 어제 백주 세 병을 마셨다. 백주 세 병 말이지, 우리도 오늘 마실 수 있어.

반면,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영역에 대해서는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일견을 따라 徐烈炯・刘丹青(1998/2007), 刘丹青(2003), 刘丹青(2016)에서는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비한정명사구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주제표지를 첨가할 수 없다는 점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170] 그러나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영역에 주제표지가 수용 가능하다는 경험적인 예시들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宋文辉(2018:189)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한정명사구도 주제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33) a. 一位中年妇女(*啊)匆匆走来。她也是来给 14 号投票的。
b. 昨天中午，投票站外，一位中年妇女啊，匆匆走来。她也是来给 14 号投

169) 徐烈炯, 刘丹青(1998/2007:143)에서는 주제표지가 부가된 ‘三瓶白酒啊’에서 수량구 ‘三瓶’을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他们昨天喝了[三瓶白酒]F。[三瓶]F 白酒啊，我们今天喝得了。
그러나 지시적 주어짐성에서 해석하면 ‘三瓶白酒’ 전체를 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170) 徐烈炯・刘丹青(1998/2007:175)에서는 吴语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주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표준중국어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비한정명사구에 주제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두 예문 모두 문맥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문맥 층위에서 재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 一斤烧酒末，老王也吃脱得个。
b. 一位中年妇女(*啊)匆匆走来。

票的。
어제 정오, 투표소 밖에서, 한 중년 여성이 분주하게 걸어 왔다. 그녀도 14 일에 투표하러 왔다.

c. 昨天啊，院子里，一棵树啊，一根枝子断了。
어제 말이지, 정원에서, 나무 한 그루가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宋文辉(2018)는 刘丹青(2016)에서 제시한 (33a)는 (33b)와 같이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이 가능한 시간, 장소의 틀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주제표지로 분류되던 어기사 '啊'를 첨가할 수 있고, 주제로 인식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33c)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로 인식될 수 있고 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한정명사구가 주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관측은 이정민(199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정민(1992)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실체는 도입 과정을 거쳐야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실체를 나타내는 명사는 의미상 비한정이라고 하였다.[171] 그러나 이러한 비한정명사구라도 한정성에 육박한다면 주제가 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 통사적으로 한정이 아닌 명사구로도 의미상 한정성에 육박할 수 있다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맥락에서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대한 가능성은 본고의 관점과도 동일하다. 나아가 비한정명사구의 시간, 공간에 관한 틀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문맥적 주어짐성에 의해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적 지위를 통한 화용적 주제가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Lambrecht(1994:212)는 어떤 표현이 주제로 기능하기 위해서 담화 세계에서 화용적으로 설정되어

171) 이정민(1992)에서는 '내가 아는 선생님 한분', '우리 옆집에 있는 개 한 마리'등과 같이 닻 내린 표현은 한정명사구가 아니더라도 한정성에 육박하기 때문에 주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동훈(2012)에서도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이지 않더라도 문맥 속에서 특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제 산 연필은 맘에 들어'에서 '어제 산 연필'은 비한정명사구로 분류되지만 문맥 속에서 특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장에서는 고정됨(anchor)을 통한 비한정명사구의 특정성 증가가 명사구 수식어 외에 문맥 속에서 설정되는 추론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찰한 바 있다.

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주제가 한정성이라는 의미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담화문맥 속에서 설정되는 정보적 지위에 따라 문맥적 한정성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에 따라 주제표지의 수용가능성에 층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 다음을 보자.[172)]

(34) a. 남편: 明净干什么呢？ 밍징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집사: 一个女人啊, 在收拾行李。한 여인은요, 지금 짐을 싸고 있네요.
b. 正中间有桌子。一条腿啊, 断了。
중앙에 탁자가 있어요. 다리 하나는, 부러져있네요.
c. 她有两个孩子。一个孩子啊, 是泰国人, 一个孩子啊, 是美国人。
그녀는 아이 두 명이 있다. 한 아이는 태국인이고, 한 아이는 미국인이다.
d. 操场上聚集了很多学生。一个学生啊, 突然跳舞。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한 학생은 갑자기 춤을 췄다.
e. 村口有军队在布阵。一个军人啊, 正在召集村民。
마을입구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한 군인은 마을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34)의 예시는 앞서 제시된 것으로 문맥적 한정성에 의해 담화-구정보의 추론 가능한 영역에 해당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34a)에서 '一个女人'은 일치적 추론이고, (34b, c)에서 '一条腿'와 '一个孩子'는 정교한 추론으로 모두 청자-구정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34d, e)에서 '一个学生'과 '一个军人'은 모두 가교적 추론이다. 추론 가능한 영역인 (34)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주제표지와 휴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의 정보적 지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층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

172) 5 장의 (23), (24), (25)의 예시를 재인용하였다.

(35) a. 志贤连忙把我按在地上。一梭子弹(*啊)，从上方门板穿过，打在对面的墙上。

즈셴이 황급히 나를 바닥으로 눌렀다. 총알 한 발이 위쪽 문짝을 뚫고 건너편 벽에 박혔다.

b. 垃圾分类的“种子”生根发芽。在南京一处小区的垃圾分类兑换点，一位妈妈(啊)带着刚满一岁的宝宝，咨询怎么用积分兑换生活用品。她笑着对记者说，下一代心里也埋下了垃圾分类的种子，“我的大女儿在学校学到垃圾分类知识，回到家积极参与垃圾分类，主动分类的意识已经在她心里生根发芽。” (人民日报 2017 年 12 月 23 日)

쓰레기분리수거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다. 난징의 한 소구역에서 쓰레기분리수거지점에서, 한 엄마가 한 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생활용품 포인트 교환을 문의했다. 그는 다음 세대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며 말하였다.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우고 집에 돌아와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했던 큰딸의 능동적인 의식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을 틔웠다.”

(35a, b)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의 지위에 해당하며 문맥적 한정성이 없다. 따라서 담화지시체인 ‘一梭子弹’, ‘一位妈妈’는 모두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제시적이며 단언적 해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에 해당하는 (35a)에서는 주제를 상정하는 표지나 휴지와 같은 형식의 사용이 불가한 반면 주제도입성에 해당하는 (35b)에서는 수용도가 높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더라도 화용적 기능에 따라 주제성에 대한 직관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주제도입성에서는 지시체가 주제지속성에 의해 담화주제로 인식되는데, 화자는 담화지시체에 대한 주제승격 의도를 형식적 구분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173] 주제승격에 관한 화자의 의도가 담화맥락을 통해 청자에게 수용 가능하다는 점에 의해 주제도입성에서는 주제표지는 화용적

173)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의 화용적 층차는 주제표지의 첨가에 대한 차등과 함께 존재동사 ‘有’의 첨가 여부에서도 드러난다. 주제도입성은 ‘有’의 첨가가 용인되지만 단발성에서는 불가하다.

목적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주제도입성과 단발성 두 범주는 비록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지만 화용적 기능에 의해 주제성의 판단에 있어 차등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주제의 주어짐성의 정의에 의하면 비한정명사구는 성질술어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와 공기하여 정언문으로 표현될 수 없다. 다음을 보자.[174]

(36) *A boy is tall.

Lambrecht(1994:222)에 의하면 (36)이 용인 불가한 이유는 미확인의 주어 지시체의 키를 서술하는 것이 정보적일 수 있는 문맥을 상상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그러한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관련성의 조건을 위반한다고 하였다. Lambrecht(1994)의 이같은 분석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고립된 문장에서 주어를 주제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175]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로 인식되기 힘들 뿐 아니라 주제를 암시하는 영속적 특성의 성질술어와 공기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를 전형적으로 문두에 위치시키는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다음을 보자.

(37) a. 철수는 키가 크다.
b. ?한 소년은 키가 크다.
c. 张三啊, 个子很高。

---

174) Perlmutter(1970): Lambrecht(1994:222)에서 재인용.

175) Lambrecht(1994:133)에서는 문맥 외적 상황이 주어지면 주어가 초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어를 무표적 주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일차적으로 총칭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Nazis tear down antiwar posters.
= Nazis are people who tear down antiwar posters.
나치는 포스터를 찢는 사람이다.
= People who tear down antiwar posters are NAZIS.
포스터를 찢은 사람은 나치이다.

d. ?一个男学生啊, 个子很高。

(37)의 예시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37a, c)와 같은 한정명사구에 비해 (37b, d)의 비한정명사구가 성질술어와의 결합에서 용인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7b, d)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 문맥의 설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38) a.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한 소년(은/*이) 키가 큰데, 농구를 영 못한다. 한 소년은 키가 작은데, 농구를 곧잘 한다.
b. 操场上有很多学生，一个男学生啊，个子很高，可篮球打得不怎么样，一个男学生啊，个子不高，可篮球打得不错。

(38)에서는 문맥의 설정에 의해 비한정명사구가 성질술어와 공기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mbrecht(1994:223)에서는 성질술어와의 공기에서 비한정명사구의 낮은 주제용인도는 사실상 화용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비한정명사구와 술어 종류 사이의 의미적, 통사적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을 보자.

(39) A boy in my class is real tall.
우리 반에 한 소년은 키가 정말 크다.

Lambrecht(1994)는 (39)에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문두에 비한정명사구가 출현하지만 (36)보다 훨씬 용인 가능한 이유는 최신 지시체에 대한 고정된 범주의 설정으로 인해 청자가 추론해낼 집합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소년'이라는 거대한 집합에서 화자의 '학급에 있는 소년들'로 집합의 범위가 축소됨으로 인해 지시될 수 있는 집합이 지시적으로 연결되거나 혹은 고정된 집합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37)에서 '한 소년'과 '一个男学生'의 접근가능성과 담화적 지위가 (38)의 '한 소년', '一个男学

生'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38)의 '한 소년', '一个男学生'은 문맥에 의해 화용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38)의 '한 소년'과 '一个男学生'은 개체층위 술어와도 공기할 수 있고, 주제표지로 분류되는 '은/는', '啊'의 첨가도 가능하게 된다.

종합하여 주제를 구분해내는 의미·형태적 구분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계속해서 통사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구조를 파악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통사적 주제 구조와 문맥 층위의 경향성을 관측하고자 한다.

### 5.3.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통사적 주제 구조

주제는 화용적 개념이지만 통사층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Gundel(1988)은 통사적 주제가 화용적 주제를 지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통사적 주제는 화용적 주제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통사적 주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화용적 주제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undel(1988)은 주제의 통사적 구조를 통사적 완전성에 입각하여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176] 하나는 주제가 전체 문장에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좌분리(left dislocation) 구조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제화(topicalization)' 구조라고 불리는 유형으로 이때 주제는 열린 문장의 빈 논항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좌분리 구조에서는 다시 이중주어문(double-subject' constructions)을 세분화하였다. 이중주어문 역시 주제와 전체 문장이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좌분리 구조의 통사적 완전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주제로 인식되는 명사구와 문장 내에서 공지시되는 명사구가 없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176) Gundel(1988)에서는 주제의 통사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술어의 전후 분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주제가 평언 앞(Topic before comment) | 주제가 평언 뒤(Comment before topic) |
|---|---|
| 통사적-주제(Syntactic-topic constructions)<br>분열구조(Cleft constructions)<br>주제생성(Subject- Creating constructions) | 통사적-주제(Syntactic-topic constructions)<br>분열(Clefting) |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이중주어문은 걸린 주제(hanging topic)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를 종합하여 주제의 통사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ⅰ) 좌분리(left dislocation) 구조
ⅱ) 걸린 주제(hanging topic) 구조
ⅲ) 주제화(topicalization) 구조

전술했듯이, Gundel(1988:223)은 문법적 구조의 주제는 예외 없이 화용적 주제로 인식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언어형식의 선택에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통사적 주제는 주제를 설정하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노력이 반영되어 반드시 화용적 주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통사적 주제 구조에 대한 해석과 가정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에 따른 화용적 주제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통사적 주제 구조를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5.3.2.1 좌분리(left dislocation) 구조

좌분리 구조에서는 주제와 완전한 문장이 인접하고 있는데, 주제는 문장의 좌측에 위치한다. 이때 주제와 문장 내의 어떤 명사구는 공지시적으로 관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명사로 공지시되는데, 일반 명사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Gundel(1988)이 제시한 Fijian과 German의 좌분리 구조의 예시이다.

(40) a. *Na gone tagane e lako mai Hawaii oya*
the child male 3SG come from he
그 소년, 그는 하와이에서 왔다.

b. *Die frau da, sie kommt aus Berlin*
the woman there she comes from
그 여인, 그녀는 베를린에서 왔다.

(40a)에서 주제 '*Na gone (*The boy)'은 '*tagane e (*he)'와 공지시적이며 좌측에 위치한다. (40b)에서도 '*Die frau*(The woman)'는 '*sie* (she)'와 공지시적이며 좌분리 구조의 주제로 볼 수 있다. Ward & Prince(1991)는 좌분리(left dislocation) 구조에서 문두의 명사구는 주제로 인식되며, 따라서 긴 휴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陈平(2004)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중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좌분리 구조를 설명하였다.

(41) a. 那套房子，老王后来还是把它买了下来。
그 집, 왕씨가 나중에 그것을 사들였다.
b. 王小刚，他不简单啊。
왕샤오캉, 그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41a)에서 '那套房子'은 문장 내의 '它'와 공지시 되고, (41b)에서 '王小刚'은 '他'와 공지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那套房子'와 '王小刚'은 각 문장에서 주제로 인식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좌분리 구조는 수량 영역을 제외한 지시 영역과 비지시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지시 영역에서는 단발성을 제외한 조응성, 제외성, 주제도입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각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좌분리 구조의 예시이다.

(42) a. 我们宿营在一块绿洲上，旅伴们都睡了。一个阿拉伯人，他高高的个子，白白的皮肤，从我身旁走过去。他刚安顿好骆驼，正向睡铺走去。
우리는 오아시스에서 숙영했고 여행 동반자들은 모두 잤다. 어떤 키가 크고 하얀 피부인 아랍인이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낙타를 막 정착시키고 침대로 가고 있다. (卡夫卡≪亚洲胡狼与阿拉伯人≫)

b. 在北海公园，儿童们紧紧围住我，要我讲战斗故事。在其他的地方，儿童们热情地把红领巾、飞机模型，把他们最心爱的东西送给我。纪念章挂满了我的胸前。一个六岁的孩子，张毛毛送我一块小手帕，上面歪歪斜斜写着张毛毛几个字，这恐怕是她第一次写出的中国字吧。许多孩子写信、写诗送给我。 (人民日报 1952 年 08 月 09 日)

북해공원에서 아이들이 전투 이야기를 해달라고 나를 에워쌌다.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붉은 스카프, 모형비행기를 열정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게 건넸다. 기념 도장이 내 가슴에 가득 걸려 있다. 여섯 살짜리 아이, 장마오마오가 나에게 손수건을 주었는데, 그 위에 몇 글자가 비뚤비뚤 하 게 쓰여 있는데, 아마도 그녀가 처음으로 쓴 중국 글자인 것 같다. 많은 아이들이 편지와 시를 써서 나에게 보낸다.

c. 周作人在这里把自己打扮成一个到晚年才想退休还乡的革命者，好象他对人民没有犯下滔天罪行，倒有很大功劳，对祖国没有背叛，倒有多么深厚的感情似的。真是不识人间尚有“羞耻”二字。一个汉奸，他到底有什么资格来这样玷辱共产党领导下的新文坛，而且竟敢说他制作毒品“不至于是完全自私的愿望”，真是岂有此理！

(人民日报 1967 年 10 月 19 日)

저우쭤런은 여기에서 자신을 하나로 노년에 은퇴하고 귀향한 혁명가로 분장하였다. 마치 그가 인민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큰 공을 세우고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말이다. 진정으로 인간의 ‘수치’라는 두 글자를 모른다. 한 매국노, 그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산당 지도하의 신문단을 이렇게 모욕하고, 마약을 제조하는 것을 “완전히 개인적인 바람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어찌 이럴 수 있을까!

d. 我痛感到文学批评需要一种赤诚，一种对作家作品和对整个文学事业的真挚的爱，是因为我们的批评界过去太缺少这种东西。其实，文学批评要在读者中获得信任感，首先是要有批评家的赤诚。一个批评家，他应当有自己的心灵，自己的良知，自己的人格。

(人民日报 1985 年 11 月 18 日)

나는 문학 비평에 일종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한다. 작가의 작품과 문학 작품 전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은 과거 우리 비평분야에서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실 문학 비평은 독자에게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먼저 비평가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 무릇 비평가라면, 그는 마땅

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양식, 자신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

(42a)에서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지시체 '一个阿拉伯人'은 지시 의미영역에서 주제도입성에 해당하므로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의 정보적 위치를 갖는다. '一个阿拉伯人'은 인접한 전체 문장에서 대명사로 표현된 주어 '他'와 공지시적 관계를 맺고 있다. (42b)에서 '一个六岁的孩子'는 선행어 집합인 '儿童们'의 분의적인 한 개체로 인식되어 청자-신정보, 담화-구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고 제외성으로 분류된다. 이때 '一个六岁的孩子'는 인접한 전체문장의 주어인 일반명사구 '张毛毛'와 공지시적이다. (42c)에서 '一个汉奸'은 선행담화에 등장하는 지시체인 '周作人'를 재지시하여 지시 의미영역에서 조응성에 해당하며 청자-구정보, 담화-구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一个汉奸'은 인접한 전체 문장의 주어인 대명사 '他'와 공지시적 관계를 맺는다. (42d)에서 '一个批评家'는 비지시적으로 해석되며 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一个批评家'는 인접한 문장의 대명사 주어인 '他'와 통사적 층위에서 공지시적 관계에 있다.

좌분리 구조는 모든 정보적 위치에서 출현하였는데, 동일한 정보적 지위에서 차등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좌분리 구조의 특성과 각 의미영역이 지닌 의미·화용적 특징과도 관련 있다. 좌분리 구조에서는 주제가 인접한 문장의 논항과 공지시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체 문장에서는 빈 논항이 없고, 좌분리 된 주제 역시 서술어의 의미지향을 받고 있어야 한다. 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에서 비지시적 의미는 좌분리 구조로 실현될 수 있었지만, 수량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비지시적 의미와 달리 수량에 초점이 있는 수량적 의미는 후속담화에서 대명사나 다른 수량구로 지칭될 수 없다. 따라서 수량적 의미는 좌분리 구조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의 정보적 지위에서는 주제도입성은 좌분리 구조로 주제로 표현될 수 있지만 단발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화용적으로 좌분리 구조는 주제승격을 위한 화자의 의도를 통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Lambrecht(1994:183)는 좌분리 구조를 주제승격을 위한 구조로 분류

하여 화자가 주제로 설정하려는 지시체에 대한 의도를 통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좌분리 구조의 선택은 담화 속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시체를 주제로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발성은 주제도입성과 비록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지녔지만 문맥 내에서 이러한 화용적 기능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좌분리 구조의 사용이 불필요할 것이다.[177)]

#### 5.3.2.2 걸린 주제(hanging topic) 구조

전술했듯이 걸린 주제는 이중주어문으로도 불리며 Gundel(1988)에 의해 좌분리 구조의 또 다른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좌분리 구조와 달리 걸린 주제에서는 좌측으로 분리된 성분과 문장 내에서 공지시되는 논항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좌측으로 분리된 성분이 문장 내의 서술어의 의미지향을 받지 않아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좌분리 구조와 구분된다. 따라서 Gundel(1988)에 의해 좌분리 구조로 분류된 이중주어문을 '걸린 주제'라는 용어를 통해 독립된 주제 구조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음은 Gundel(1988)에서 제시된 이중주어문으로 좌분리 구조와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3) a. My work, I'm going crazy.
내 일, 나는 미쳐버릴 거 같아.

*b. Lub teb chaws Sam-Neua mas peb cia koj saib xyuas*
country TOP we let you look visit
*cov Hmoob*
grp Hmong
Sam-Neua 지역은, 우리가 당신에게 Hmong 을 다스리게 할 거예요.

---

177) 박철우(2007)에서는 좌분리 성분은 담화주제로 인식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박철우(2019)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한국어에서 좌분리 구문의 문두 성분이 주제로 인식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a. 철수, 걔가 영희한테 사과를 주었어.
b. 사과, 철수가 영희한테 그것을 주었어.

(43a)에서 ‘My work’는 인접한 전체문장 ‘I’m going crazy’에서 공지시 되는 명사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전체 문장에서도 빈 논항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서술어의 의미지향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b)에서는 ‘*Lub teb chaws Sam-Neua* (The Sam-Neua area)’도 ‘Hmong’을 포함하는 전체로 해석되고 있지만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의미지향은 ‘Hmong’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걸린 주제의 이중주어 구조는 언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데, 중국어에서 걸린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 구조로 인식된다. 다음은 중국어의 예시이다.[178]

(44) a. 那场大火，幸亏消防队来的早。
그 큰 불은, 소방대가 일찍 와서 다행이었다.
b. 那些树木树身大。
그 나무들은 줄기가 크다.
c. 象鼻子长。
코끼리는 코가 길다.

걸린 주제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지시적 의미영역, 비지시 의미영역, 수량 의미영역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관측하였고, 따라서 모든 정보적 지위에서 발현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걸린 주제의 예시이다.

(45) a. 现在再讲一个故事为以上所说添上几句。一只狼，它的愚蠢简直不能与渔夫的聪明相比。它在村外看见了一只狗，准备扑上去吃了它，但狗可怜巴巴地向狼讲述着自己瘦弱的身体状况：“您瞅瞅看，眼下这种身体情况怎么会令大人满意。 (拉・封丹≪拉封丹寓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몇 마디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늑대,

178) Chao(1968:102), Chafe(1976), Li & Thompson(1976): 陈平(2004)에서 재인용. 陈平(2004)에 따르면 Chao(1968)는 이러한 이중주어 구조(double-subject constructions)를 중국어의 주요한 구문으로 인식하였고, Li & Thompson(1976)에서도 이를 주제-부각언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Chafe(1976)에서는 이를 중국어의 특수한 주제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의 아둔함은 어부의 총명함과 비교할 수 없다. 마을 밖에서 개를 보고 달려들어 먹으려 했지만 개는 늑대에게 자신의 마른 몸 상태를 불쌍하게 말했다.

b. 有时候老梅不在，我便到毛博士屋里坐坐。博士的屋里没有多少东西。一张小床，旁边放着一大一小两个铁箱。(人民日报 1977 年 03 月 04 日)

가끔 老梅가 없을 때, 나는 모박사 집에 가서 좀 앉는다. 박사님의 방에는 물건이 별로 없다. 작은 침대 하나, 그 옆에는 크고 작은 철제 상자 두 개가 놓여 있다.

c. 刚才在县城里见到的那位千金，是块难以消化的大肉团子，那么眼前的船家姑娘，该是酥嫩可口的奶油点心了。一个漂亮点的女性，脸庞上会自然地散发出一层光彩，小小的船舱里，充满了温暖、舒适、宁静的感觉。

방금 현성에서 본 그 여식은 소화하기 어려운 큰 고기 덩어리였다면, 눈앞의 뱃사공 처녀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크림 과자일 것이다. 한 어여쁜 여성, 그녀의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광채를 발했다. 작은 선실 안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d. 我还见过一位富有的知识分子，他不但没有书房，也没有书桌，我亲见他的公子趴在地板上读书，他的女公子用一块木板在沙发上写字。一个正常的良好的人家，每个孩子应该拥有一个书桌，主人应该拥有一间书房。 (梁实秋≪中国家庭里最缺少的东西≫)

나는 또 부유한 지식인을 한 명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서재도 책상도 없었다. 나는 그의 자제가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고, 소파에서 나무 널빤지에 글을 쓰는 것을 보았다. 한 정상적이고 양호한 가정은, 모든 아이들은 책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인은 서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门旁竖着一块木牌子，上面标着金丝燕的英文名称，和中英文对照的简介。文中特别提出，这些雪白透明的燕窝，是著名的滋补品，一只燕窝，价值人民币三千元。 (莫言≪丰乳肥臀≫)

문 옆에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는데, 위에는 금사연의 영문 명칭과 중·영 두 언어의 소개가 적혀 있었다. 글에는 특히 이 하얀 투명한 제비집들은 유명한 자양정으로, 제비 집 하나는 가격이 인민폐 3 천 위안이라고 하였다.

(45a)에서 ‘一只狼’은 새로 도입되는 지시체로 주제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시영역의 주제도입성에 해당한다. ‘它的愚蠢’은 ‘一只狼’의 부분적인 요소이며 통사·의미적 주어로 서술어의 의미지향이 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一只狼’은 주제로 인식된다. (45b)에서 ‘一张小床’은 ‘东西’에서 가교적으로 추론될 수 있으므로 지시영역의 제외성에 해당한다. ‘一张小床’과 ‘旁边’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해석되고 있고, ‘旁边’은 통사적, 의미적 주어로 서술어의 의미지향이 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一张小床’은 해당 문장에서 주제로 인식된다. (45c)에서 ‘一个漂亮点的女性’은 선행담화에 등장하는 ‘那位千金’을 재지시하는 것으로 지시영역의 조응성에 해당한다. 이때 ‘脸庞’은 ‘一个漂亮点的女性’의 부분적인 요소로 서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一个漂亮点的女性’는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 (45d)에서 ‘一个正常的良好的人家’는 비지시적 의미영역이며 ‘一个正常的良好的人家’의 부분인 ‘每个孩子’는 인접한 문장의 통사·의미적 주어로 서술어의 의미지향이 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一个正常的良好的人家’는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 (45e)에서 ‘一只燕窝’는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价值’는 문장의 서술대상으로 주어이며, ‘一只燕窝’는 해당 문장의 주제가 된다.

걸린 주제에서 주제로 인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인접한 문장 속 서술어의 의미지향이 아니다. 문장 속에는 서술어와 의미관계에 있는 주어가 존재하고, 통사적으로도 주어의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중 주어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의미·화용적 특성에 따라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걸린 주제 구조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정보적 지위에서 발현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 5.3.2.3 주제화(topicalization) 구조

주제화 구조에서 주제는 빈 논항을 갖는 열린 문장 혹은 불완전한 문장에 인접한다. 이때 주제는 불완전한 문장의 빈 논항에 해당한다. 다음은 Gundel(1988)에서 제시한 Hebrew어의 예시이다.

(46) *al sratim ka ele rina mamas meta*
on movies like that really dies
Movies like that, Rina is really crazy about.
그런 영화, 리나는 정말 좋아해요.

(46)에서 주제 '*al sratim* (on movies)'는 '*ka ele rina mamas meta*(Rina is really crazy about)'와 인접한 문장의 문장성분에 속한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다음은 陈平(2004)에 제시된 중국어의 예시이다.

(47) 那套房子老王后来卖了。
그 집은 왕씨는 나중에 팔아버렸어요.

(47)에서 주제화된 '那套房子'는 인접한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중국어에서 이러한 주제화 구조는 '수사(受事) 주어문'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수사(受事)주어문을 제외한 다른 의미역의 주어문은 문장에서 빈 공간 혹은 원래 통사적 자리가 의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수사(受事)주어는 전형적인 어순 공간이 존재하게 때문에 수사(受事)가 주어위치에 올 때 주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일 전형적으로, 무표적으로 인식되는 통사적 주제 구조는 수사(受事) 주어문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주어가 문두에 위치하여 주제와의 분포적 동일성을 지닌 언어에서는 수사(受事) 주어문이 주어가 아닌 주제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주제화 구조의 고유한 영역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화 구조에서는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의 영역이 제외된다.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의 지위에서는 지시 의미영역의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이 있는데 모두 주제화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은 각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제화 구조의 예시이다.

(48) a. 从那以后，我经常找他借一些学习需要的参考书。他总是尽力帮我找。有一次，一本书外借了。书还回来以后，他竟然冒着风雪给我送到家

里！ (人民日报 1980 年 09 月 26 日)

그 후로 나는 늘 그를 찾아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를 빌렸다. 그는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애쓴다. 언젠가, 책 한 권은 외부에서 대출받았다. 책이 오자 그는 눈보라를 맞으며 우리 집까지 가져다주었다.

b. 记得 1989 年到省委党校学习，在党校图书馆竟借到了往日在省图书馆不曾借到的蒋学森的≪红楼梦论稿≫。这时，离学习结束只有五六天了。一本三百多页的书，我两个晚上读完后，真有点恋恋不舍。

1989 년 성위원회당교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빌리지 않았던 장쉐썬의 ≪红楼梦论稿≫를 빌렸던 기억이 난다. 이제 공부가 끝나기까지는 5, 6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 권의 300 여 쪽의 책은 이틀 밤에 다 읽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c. 我们走运时，您没少跟着沾光。现在我们走背字，连我们的孩子也不吃香了是不是？娘，一碗水要端平！ (莫言的≪丰乳肥臀≫)

운이 좋을 때 덕을 많이 보셨네요. 지금 우리가 운이 좋지 않다고, 우리 아이조차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건가요? 어머니, 물 한 그릇은 똑바로 들어야 해요!

d. 以前，在修正主义教育路线的毒害下，我们往往认为写在教科书上的就是真理。一本书今年讲，明年讲，年年如此，一成不变，把许多错误的、形而上学的东西当成真理来教。 (人民日报 1970 年 12 月 01 日)

이전에는 수정주의 교육 노선의 해약 아래, 우리는 흔히 교과서에 쓰인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책 한 권은 올해에 강설되고, 내년에 강설되어, 해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많은 잘못된,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진리로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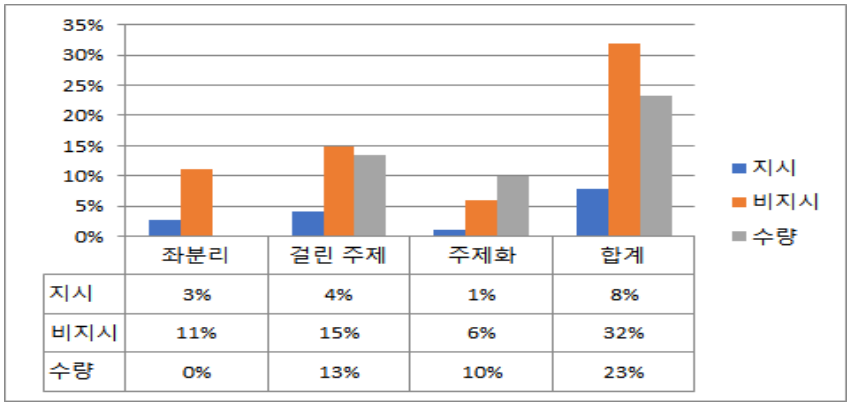
(48a)에서 '一本书'는 '参考书'에서 가교적으로 추론 가능하며 지시영역의 제외성에 해당한다. 一本书'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지만 문두에 분포하고 있어 주제화 구조를 갖는다. (48b)에서 '一本三百多页的书'는 선행담화의 '≪红楼梦论稿≫'와 공지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지시영역에서 조응성에 해당한다. '一本三百多页的书'는 인접한 문장의 논항이지만 문두에 분포하여 주제화 구조를 나타낸다. (48c)에서 '一碗水'는 비지시적 의미영역으로 명령문에서 목적어 논항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문두에 분포하고 있어 주제로 인식되

게 한다. (48d)에서 '一本书'는 수량 의미를 나타내는데 의미, 통사적으로 목적어에 해당하지만 문두에 분포하여 주제화 구조로 표현되고 있다.

#### 5.3.2.4 담화 층위에서의 주제 구조 출현 경향성

여기서는 각 정보적 지위와 이에 따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영역에서 관측되는 통사적 주제 구조의 경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장을 통해 소개된 선행데이터 총 1,238개에서 각 의미영역과 범주별 주제 구조의 출현을 관측하였다.

먼저, 의미영역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의 출현 경향성을 살펴보자. 통사적 주제 구조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세 가지 의미영역에서 모두 관측되었다. 다음은 통사적 주제 구조에 따른 문두 비한정명사구 의미영역의 세부적인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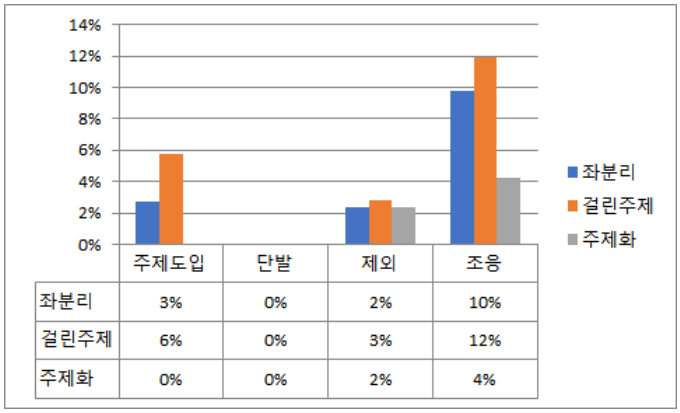

| | 좌분리 | 걸린 주제 | 주제화 | 합계 |
|---|---|---|---|---|
| 지시 | 3% | 4% | 1% | 8% |
| 비지시 | 11% | 15% | 6% | 32% |
| 수량 | 0% | 13% | 10% | 23% |

그림 5-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 출현 경향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의미영역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가 출현하고 있지만 경향성에 있어 층차가 존재한다. 자연언어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는 비지시(32%) > 수량(23%) > 지시(8%)의 비중으로 비지시 의미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관측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지시 의미는 무표적인 주제로 인식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지시 영역과 비지시 영역에서는 모든 통사적 주제 구조가 관측되었지만

수량 영역에는 좌분리 구조의 통사적 주제 구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좌분리 구조는 완전한 문장 내에서 공지시적인 대명사나 명사구를 갖는다는 통사적 규칙에서 수량 의미는 지시나 비지시와 같은 지칭적 문법기능이 결여되어 이러한 통사적 규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시 의미영역에서 세부적인 범주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 출현 경향성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에서는 주제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리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해석에서 다양한 화용적 층차와 정보적 지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화용적 주제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는 통사적 주제 구조에서도 지시적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시적 의미영역의 세부적인 범주에 나타나는 통사적 주제 구조의 경향성이다.




| | 주제도입 | 단발 | 제외 | 조응 |
|---|---|---|---|---|
| 좌분리 | 3% | 0% | 2% | 10% |
| 걸린주제 | 6% | 0% | 3% | 12% |
| 주제화 | 0% | 0% | 2% | 4% |

그림 5-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 의미영역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 출현 경향

지시적 영역의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는 모든 통사적 주제 구조가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맥적 주어짐성에 의해 높은 화용적 주제성을 지닐 수 있다는 관측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통사적 주제 구조의 출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단발성에서는 통사적 주제 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는

데, 이는 담화지시체가 문맥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지만 단순한 1회성 출현으로 인해 주제에 대한 진술적 해석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면 주제도입성에서는 주제화 구조를 제외하고 통사적 주제 구조가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도입성은 단발성과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지만 주제 구조의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지시체일지라도 담화에서 회자되며 지시체에 대한 특정성이 높아지는 주제도입성의 화용적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도입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은 화자가 지시체를 담화주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특별한 화용적 목적을 지닌 선택으로 볼 수 있다. Chafe(1976)는 주어짐성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발화시, 청자 의식 중심의 대하여성(aboutness)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담화 속에 출현하기도 하지만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의도적으로 한 대상을 주제로 만들어 청자에게 주제로 인식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화용적 수용(pragmatic accommodation)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을 보자.[179]

(49) A girl was sitting in the train to Prague.
한 소녀가 프라하행 열차 안에 앉아 있었다.

Van Dijk(1977)은 (49)에서 이야기의 시작부분에 새로 도입되는 비한정명사구 ‘A girl’은 담화주제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담화의 주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문장 내에서도 ‘A girl(한 여자)’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의 화용적 목적과 선택은 청자의 화용적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지위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의 출현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79) van Dijk(1977:54)에서 인용.

표 5-5: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에 따른 통사적 주제 구조 경향[180]

| | 청자-구정보 | | 청자-신정보 | |
|---|---|---|---|---|
| | 담화-구정보 | 담화-신정보 | 담화-구정보 | 담화-신정보 |
| | 지시(조응성) | 비지시/수량 | 지시(제외성) | 지시(주제도입성/단발성) |
| 좌분리 | 10% | 11% | 2% | 3% |
| 걸린 주제 | 12% | 28% | 3% | 6% |
| 주제화 | 4% | 16% | 2% | 0% |
| 합계 | 26% | 55% | 7% | 9% |

위의 표에서 보면 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의 비율이 55%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청자-구정보, 담화-구정보가 26%로 비교적 높다. 청자-신정보의 영역에서는 통사적 주제 구조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청자-신정보의 영역에서는 담화-구정보와 담화-신정보의 영역의 출현비율이 각각 7%와 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주제도입성의 화용적 기능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보적 지위에서 청자의 상태는 주제성에 대한 주요한 변별적 자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정보적 지위에서 통사적 주제의 경향성은 청자의 상태에 의해 층차를 나눌 수 있는데, 청자-구정보의 영역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이는 청자-구정보 영역에서 화용적 주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관측과 동일한 현상이다. 따라서 통사적 주제 구조의 발현이 화용적 주제성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초기의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다.

---

180) 통사적 주제 구조는 기본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낸다. Whaley(1996/2015:130)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어순을 지닌 언어에서 어떤 어순이 무표적인지에 관한 결정은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해서도 구분되지만 언어 사용 측면에서 빈도에 의해서도 구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haley(1996/2015:133)에서는 a 와 같은 문장은 억양곡선이 천천히 떨어져 중립 억양에 해당하지만, b 는 짧고 강한 음조로 시작하여 휴지를 지니기 때문에 유표적 어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 I like beans.

b. Beans, I like.

따라서 b 와 같은 통사적 주제 구조는 유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5.4 소결

본장에서는 화용적 층차와 통사적 주제 구조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적 지위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또한 다양한 통사적 주제 구조 속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실현 양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화용적 주제성과 통사적 주제성의 상관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분석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는 다음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5-6: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과 정보적 지위 분석

| | 청자-구정보 | 청자-신정보 |
|---|---|---|
| 담화-구정보 | **지시(조응성)**<br>1. 일치적 추론(Identity Inference)<br>①문맥적 추론<br>②상황적 추론<br>2. 정교한추론(Elaborating Inference)<br>①수량적 추론<br>②연상적 추론 | **지시(제외성)**<br>3. 가교적 추론(Bridging Inference):<br>(추론적으로 연결되었지만, 수신자에게 알려지지 않음):<br>①수량적 추론<br>②연상적 추론 |
| 담화-신정보 | **비지시/수량**<br>(추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수신자에게 알려짐) | **지시(주제도입성, 단발성)**<br>(추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수신자에게 알려지지 않음) |

각 정보적 지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에 관련된 자질은 통사적 특징 혹은 형식적 특징을 통해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질들은 각 의미영역에서 층차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7: 각 의미영역에서 주제성 자질 판단

| | | 청자-구정보 | 개체층위 술어 | 주제 표지 | 통사적 주제 구조 | | |
|---|---|---|---|---|---|---|---|
| | | | | | 좌분리 | 걸린 주제 | 주제화 |
| 비지시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 | + |
| 지시 | 조응성 | + | + | + | + | + | + |
| | 제외성 | - | + | + | + | + | + |
| | 주제도입성 | - | - | (+) | + | + | + |
| | 단발성 | - | - | - | - | - | - |

위의 표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자질들이 각 의미영역과 범주화에 작용하는 위계는 다음과 같다.

청자-구정보 청자-신정보

비지시/지시(조응성) > 수량/지시(제외성) > 지시(주제도입성) > 지시(단발성)

종합하여 본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주제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대화참여자 간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협의된 닻내리기를 통해 주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재고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주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관점은 형식,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 증명될 수 있음을 고찰하여 이를 공고히 하였다.

# 제6장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선행연구에서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有-구문은 늘 비교되는 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보여준 두 구문의 비교는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존한 문체, 뉘앙스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직관적 분석이 지닌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층위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화용적으로 공유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영역 또한 지니고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 두 구문의 화용적 영역을 분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적 지위에 따른 두 구문의 비교를 통해 담화 속 지위와 대화참여자 간의 심적 표상을 통해 드러나는 담화지시체의 활성화 정도가 구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비한정명사구와 有-구문의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나아가 두 구문이 우세하게 선택되는 초점 구조의 비교를 통해 양자 간에 요구되는 전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성 효과(DEs)가 두 구문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각 구문에서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장에서의 기본적인 논의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두 구문이 각자 어떤 언어 환경에서 비교적 무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두 구문의 특징은 물론 궁극적으로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객관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 6.1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의미·통사적 관계 및 범위 설정

전술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과 자주 비교된다.[181] 이는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을 상쇄시키는 표지로 '有'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朱德熙1982/2007, Shi 1989, 石毓智 2002, 徐烈炯·刘丹青 2003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비한정명사구가 동사 앞에서 주어의 기능을 할 경우 특정한 문법적 환경이 필요한데, 이때 존재동사 '有'가 대표적인 문법적 표지로 인식된다는 논의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연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비교에서 有-구문의 사용 영역의 범위가 넓다는 기존 견해(范继淹 1985, 魏红·储泽祥 2007, 崔鑫茹 2021)와도 관련 있다. 비록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측은 없었지만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을 '有'가 상쇄시키기 때문에 有-구문이 상대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나아가 有-구문의 사용 빈도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보다 높다(魏红·储泽祥 2007, 刘琪 2014)는 단정적인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자연언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맥에서 두 구문이 발현되는 화용적 영역은 그리 간단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간단한 구문의 빈도조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有-구문보다 월등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182]

---

181) Traugott & Trousdale(2013/2018:32)에서 구문은 형식과 의미의 짝으로 문법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문은 문장단위의 형식으로 각 형식에서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실현한다고 가정한다.

182) 우리는 간단한 빈도 조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有-구문보다 월등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BCC 검색에서 검색어는 각각 '一个孩子'와 '有一个孩子'로 문두에 출현하는 성분을 통해 문맥의 환경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을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비교대상이 되는 有-구문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교대상으로서의 有-구문에 동사 '有'를 사용한 모든 구문이 포함된다면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비교 대상으로서의 有-구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方梅(2019)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有-구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话说呢，在这个明朝嘉靖年间，有一个落迫的书生ⅰ。有一天啊，φⅰ溜溜达达，就到了鹤年堂药铺的门口了。掌柜的一看啊，这书生ⅰ挺可怜的，叫进来，留宿一宿吧。
명나라 가정연간에 한 핍박받는 서생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어슬렁어슬렁 걷다 학년당 약국 입구에 도착했다. 주인이 한번 살펴보니, 이 선비가 불쌍하여, (그를) 불러들여 하룻밤 묵으라고 하였다.

(1)에서 '有一个落迫的书生'는 비록 '有'를 보유하고 있지만 '一个落迫的书生'는 동사 '有'의 목적어로만 해석되며, 문장 내 혹은 문맥에서도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方梅(2019)에서 제시된 (1)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다른 의미·통사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有-존재문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의미·통사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놓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비교 대상으로서의 有-구문의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有-구문은 有-존재문에 속하며 광의적으로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의 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有-존재문은 존재문의 한 형태로 존재동사 '有'에 의

| 一个孩子 | | 有一个孩子 | |
|---|---|---|---|
| 문학 | 신문 | 문학 | 신문 |
| 120(개) | 307(개) | 10(개) | 36(개) |

해 ‘존재’를 나타낸다. Huang(1987)은 존재문의 영역에서 有-존재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 (NP1) + YOU + NP2 + (XP)
主语(Subject) + 谓语(Predicate) + 支点(Pivot) + 次级谓词(Secondary predicate)

(2)에서 술어는 존재 동사 ‘有’인데 이때 NP2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NP1과 XP는 수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Huang(1987:63-4)은 有-존재문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6-1: Huang(1987)의 有-존재문 유형 분류

| 유형 | 형식 | 예시 |
|---|---|---|
| 유형1 | [有+NP2] | a. 有鬼! |
| **유형2** | **[有+NP2+XP]** | b. 有一个人很喜欢你。 |
| 유형3 | [NP1+有+NP2] | c. 桌上有一本书。 |
| **유형4** | **[NP1+有+NP2+XP]** | d. 桌上有一本书很有趣。 |
| 유형5 | [NP1+有+NP2+XP] | e. 我有一本书很有趣。 |

표6-1에 제시된 有-존재문은 존재동사 ‘有’를 통해 ‘존재’를 나타낸다. 의미적 측면에서 ‘존재’라는 큰 범주 아래 각 구문은 각각의 상이한 통사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유형1]은 [有+존재명사]의 구조로 존재명사 ‘鬼’는 동사 ‘有’의 목적어로 인식된다. [유형2]에서는 [有(1차 술어)+존재명사+2차 술어]의 구조로 ‘有’에 의해 존재를 함의하지만, 존재명사 ‘一个人’은 2차 술어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유형3]에서는 [주어+有+존재명사]의 구조로 어느 장소에 존재함을 나타내며 존재명사 ‘一本书’는 ‘有’의 목적어로 분석된다. [유형4]에서는 [주어+有(1차 술어)+존재명사+2차 술어]의 구조로 존재명사 ‘一本书’는 ‘有’의 목적어이자 2차 술어인 ‘很有趣’의 주어로 분석될 수 있다. [유형5]에서도 [유형4]와 동일한 형식인 [주어+有(1차 술어)+존재명사+2차 술어]로 분석되지만 ‘有’가 존재를 의미하는 [유형4]와 달리 [유형5]에서는 유생주어에 의해 ‘소유’의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183]

朱德熙(1981/2007:97)는 ‘一位客人来了’에 상응하는 문장 ‘有一位客人来了’는 형식상으로는 주어가 없는 문장(无主语句)일지라도, 의미상으로 ‘一位客人’이 주어가 되며 이를 논리적 주어(逻辑主语)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비교 대상으로서의 有-구문은 비한정명사구가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되어야 하며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야 한다. 이를 위한 의미・통사적 요건으로 2차 술어(XP)가 존재해야 하며 NP1은 유생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문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비교대상이 되는 有-구문에서 제외된다.[184]

(3) a. 大楼外面的活动场地上，有一个 1.3 万平方米的运动场，运动场旁有西游记健身园、飞船、气垫船、荡荡船、秋千、平梯等少儿文艺设施、设备。
건물 밖 행사장에는 1 만 3000 ㎡ 규모의 운동장이 있으며, 운동장 옆에는 서유기헬스장, 우주선, 공기부양 배, 요트, 그네, 사다리 등 어린이 문예시설・장비가 갖춰져 있다.
b. 我有一个好消息要告诉您。
내가 너에게 알려줄 좋은 소식이 있어요.

(3a)에서는 XP가 없고, (4b)에서는 XP가 있지만 NP1이 유생주어로 소유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3a, b)에서 존재명사 ‘一个1. 3万平方米的运动场’과 ‘一个好消息’는 모두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될 수 없다. (3a, b)는 Huang(1987)의 분류에서 각각 [유형3], [유형5]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유형1]과 동일하게 존재동사 ‘有’의 생략이 불가하다는 통사적 제약이 존재한다.

한편 ‘有’ 앞에 NP1가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이 비한정명사구가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되는 문장은 비교대상인 有-구문에 포함된다. 다음을 보자.

183) 박정구(2001)에서는 주어의 유생성이 ‘有’의 ‘존재’ 혹은 ‘소유’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184) 李旭平(2020)에서는 有-구문의 범위를 존재문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4) a. 昨天有一位画家坐车来找我。
어제 한 화가가 차를 타고 나를 찾아 왔다.
b. 那边有一个三十来岁的妇女叫龙培英，是白手乡的人民代表
저기 30 대 여성은 룽페이잉이라고 하며, 자수성가한 인민 대표이다.

(4a, b)는 [유형4]에 해당하며 XP와 NP1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형5]와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유형5]와 달리 (4a, b)의 존재명사 '一位画家'와 '一个三十来岁的妇女'는 의미적 주어로 인식되고 있다. (4a, b)에서 NP1이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무생이며 주어로 분석될 수도 있지만 통사적으로 쉼표 등을 통해 부사어로 분석 가능하다. 따라서 존재명사는 의미적 주어로 해석가능하며 이는 '有'의 생략이라는 통사적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비교 대상이 되는 有-구문은 형식적으로 2차 술어(XP)가 존재해야 하며 의미적으로는 '有'가 '존재'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 존재 명사구(NP2)는 '有'의 목적어이자 2차 술어(XP)의 주어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존재 명사구(NP2)가 '有'의 목적어와 2차 술어(XP)의 주어로 공지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有'의 생략이 수의적일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종합하여 Huang의 분류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의미·통사적으로 동일한 형식은 [유형2]의 [有+NP+XP]이다. 또한 [유형2]의 [NP1+有+NP2+XP도 조건에 부합하므로 근접한 형식으로 비교 대상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의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통사적인 분포에 있어서도 계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有-존재문의 [유형2], [유형2] 두 가지 유형을 有-구문으로 명명하고 본장의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6.2 정보적 지위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5장에서 정보적 지위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구분한

바 있다. 분석틀의 담화-구정보・청자-구정보, 담화-구정보・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청자-신정보의 네 가지 정보적 지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기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변이문을 이루는 정보적 지위를 살펴봄과 동시에 각 구문이 우세하는 정보적 지위를 통해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층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 6.2.1 청자(hearer) 지위에 따른 호환가능성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두 구문의 호환가능성은 청자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5.2.2.1에서는 담화-구정보 영역에서 청자 상태에 따른 추론가능성을 구분한 바 있다. 전술했듯이, 담화-구정보에서 청자-구정보의 담화 지위에서는 일치적 추론과 정교한 추론이 일어나고, 청자-신정보에서는 가교적 추론이 일어난다. 담화-구정보에서 有-구문과의 호환은 가교적 추론이 일어나는 청자-신정보에서만 가능하다. 일치적 추론과 정교환 추론이 일어나는 청자-구정보에서는 有-구문으로 호환이 어렵다(5.2.2.1.3 참고).

한편 담화-신정보 영역에서는 청자-구정보에 해당하는 비지시적 의미와 수량적 의미에서는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하다. Huang(1987)은 有-존재문의 명사구는 비한정적임과 동시에 지시적(특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비지시적 의미와 수량적 의미는 有-구문으로 호환불가능하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한 성찰은 물론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5) a. 一根辫子就是一个灵魂，一个灵魂就是一个身强力壮的男人。
딸은 머리 하나는 영혼 하나이고, 영혼 하나는 건장한 남자 한 명이다.
b. 一个好女儿胜过十个赖儿子呢!
좋은 딸 하나가 열 명의 아들보다 낫다!
c. 一个自认为犯有罪过的人总要想办法宽慰自己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위로

해야 한다.

d. 一个老人能挑起年轻人的担子，为此而献出了生命，还有什么死法比这更光荣的呢？

노인이 젊은이의 짐을 지고 목숨을 바칠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5a-d)에서는 담화지시체는 모두 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고 있다. (5a, b)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수량적 의미로 해석되고, (5c, d)에서는 비지시적 의미를 갖는다. (5)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모두 청자-구정보의 지위를 지니는데, 이때 有-구문으로 호환할 수 없다.

반면, 담화-신정보의 영역에서 청자-신정보의 지위에서는 有-구문으로 호환 가능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 一位陌生人突然身陷天顶市的商业中心，他不能分辨他是否身处一个奥勒冈或乔治亚、俄亥俄或缅因、奥克拉荷马或曼尼托巴的城市。然则，对巴比特来说，每一寸土地都是独特而动人的。像往常一样，他注意到加利福尼亚大厦沿马路一边是低一点的三层建筑，三层楼可就没有他自己的名人大厦那么漂亮啰。

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천정시의 상업 중심지로 빠져들었다. 그는 오리건이나 조지아, 오하이오나 메인, 오클라호마, 매니토바에 있는 도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바비트에게는 매 한 치의 땅도 독특하고 감동적이다. 여느 때처럼, 그는 캘리포니아빌딩이 도로 한 면에 닿은 곳은 조금 낮은 3 층 건물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3 층짜리 빌딩은 자신의 유명 빌딩만큼 아름답지 않다.

(6)의 문맥에서 '一位陌生人'는 담화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시체로 인식되며 담화-신정보, 청자-신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과의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문맥적 영향으로 정보적 지위가 변동될 경우 다음과 같이 有-구문의 호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문맥을 살펴보자.

(7) 每天中午这个决定令他觉得自己可以作为模范了。稍后，他又决定，今天中午太迟了，不能用走的。开动车子，挤入繁忙的交通，比起走过三条半街到俱乐部，还多费了一点时间。他一而驾车，一面带着那般熟稔的钟爱的感情，瞧着各种建筑。一位陌生人突然身陷天顶市的商业中心。

매일 정오에 이 결정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한다. 잠시 후,그는 또 오늘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서 갈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차를 운전하고, 분주한 교통에 비집고 들어가니, 클럽까지 세 거리를 반쯤 걸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다. 그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토록 아끼던 감정을 품고 각종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천정시의 상업 중심지로 빠져들었다.

(7)의 문맥은 (6)의 문맥을 수정한 것이다. (7)의 문맥 속에서 ‘一位陌生人’은 (6)의 ‘一位陌生人’과 달리 앞 문맥의 등장인물과 공지시되어 조응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7)에서 ‘一位陌生人’에 해당하는 지시체는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위치를 갖게 되며 이러한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하게 된다. 청자의 정보적 지위가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有-구문의 화용적 영역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8) 在一阵长久的静默中，只听到兹皮希科大声的呼吸。过了一会儿，他抬起头来，望着站在他旁边的那个身影，害怕起来了，心想：大概不会是个人吧。“你是谁？”他不安地问道。“雅金卡！”一个细弱的女人声音答道。

오랜 침묵 속에서 즈피히코의 큰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서워서 아마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세요?” 그가 불안하게 물었다. “야킨카!”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8)에서 ‘一个细弱的女人声音’은 바로 앞 문맥에서 “‘雅金卡！’”라는 발화에 의해 정교하게 추론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一个细弱的女人声音’은 정교한 추론에 속하며 담화-구정보,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만약 이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有-구문으로 변형한다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문맥의 선후관계를 변동하여 ‘一个细弱的女人’이 청자-신정보의 정보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有一个细弱的女人声音答道。“雅金卡！”’와 같이 有-구문으로 호환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정보적 지위를 통한 두 구문의 호환관계에 대한 분석은 화용적 기능을 통한 분리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方梅(2019)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호환관계를 화용적 기능을 통해 분리하고자 하였다. 方梅(2019)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고유하게 발현되는 문맥을 상정한 바 있는데, 이를 주제지속성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약주제성(弱主题性)을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185)]

(9) 反正严嵩当年住在这儿，是无可置疑的。严嵩住的宅子，究竟有多大呢？您琢磨琢磨吧。现在的菜市口南大街，就是过去的丞相胡同。就算当年的胡同没有现在的大马路这么宽，那咱就按照单向车道的宽窄算。甭管是占地面积，还是使用面积，也都不算小了吧。一个丞相住在半条菜市口大街上，这倒也是无可厚非的事儿。所以咱也没有必要，追究人家不明财产的来历。

어쨌든 옌쑹이 왕년에 이곳에 산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옌쑹이 사는 집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생각해봐라. 지금의 시장의 남쪽 길이 바로 옛날 승상골목이다. 골목길이 지금처럼 넓지 않더라도 일방통행 차선으로 너비를 계산해 보자. 부지 면적이든 사용 면적이든 작다고 할 수 없겠지. 한 승상이 시장 어귀 거리에 사는 것은 크게 비난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선명하지도 않은 재산의 규모를 추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方梅(2019)는 (9)에서 ‘一个丞相’은 선행담화에 등장하는 담화지시체를 공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한정명사구의 담화적 기능은 지시체의 담화주제의 종결을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方梅(2019)의 분석에서는 선행담화의

185) 方梅(2019)에서 인용.

지시체와 공지시되는 ‘一个丞相’이 담화 내에서 주제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有-구문의 호환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담화-구정보, 청자-신정보의 지위에서 가교적 추론에 해당하는 제외성은 주제지속성에 관계없이 有-구문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관측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관측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도입성에서 주제지속성의 화용적 기능을 통해 方梅(2019)에서 제시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약주제성(弱主题性)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9)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적 지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재정립될 수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과 비교해서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에서 우세하게 선택되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 ‘一个丞相’은 선행담화의 지시체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어 청자-구정보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有-구문의 선택이 제약 된다.

종합하여 두 구문의 호환관계는 담화 지위에서 청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음영부분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호환이 불가하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한 영역이다.

| | 청자-구정보 | 청자-신정보 |
|---|---|---|
| 담화-구정보 | | |
| 담화-신정보 | | |

그림 6-1: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한 정보적 지위

### 6.2.2 동일한 정보 지위에서의 화용적 기능에 따른 변별성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호환되기 어렵다는 점은 두 구문의 선택에 있어, 화용적 기능보다 정보적 지위가 더 우선한다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두 구문이 지닌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구문은 일정한 화용적 기능을 공유함과 동시에 각각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적 지위에서도 화용적 기능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

문과 有-구문이 변별적으로 호환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의 지위에 해당하는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화용적 기능에 따라 有-구문과의 호환성에서 차이가 있다.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새로운 담화 지시체가 담화에 처음으로 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주제도입성에서 담화지시체는 후속 담화에 계속 회자됨으로써 담화주제로 기능하게 된다. 반면 단발성에서 담화지시체는 담화에 처음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주제도입성과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제시된 지시체가 단순한 출현에 그치기 때문에 주제로 인식될 수 없고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해석되고 만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적 지위 내의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의 상이한 화용적 기능에서 주제도입성은 담화 속에서 특정성을 부여받게 되지만 단발성은 특정성이 높아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상이한 화용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동일한 정보적 지위 내에 상이한 화용적 기능에 의한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의 구분은 논리판단의 화용적 해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Lambrecht (1994)는 일반판단, 주제판단과 같은 논리・의미적 분석을 화용적 범주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단정적 명제를 표현하는 단언문에서 사건 보고문은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논리구조에서 일반판단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Lambrecht (1994:143-4)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사건 중심적인 단언문으로 보았다.

(10) a. The PHONE'S ringing!
b. Squilla il TELEFONO!
c. Y'a le TELEPHONE qui SONNE!
d. DENWA ga NATTE iru yo!
전화가 울리네요(전화가 왔어요.)

(10)에서는 다양한 언어에서 사건 중심적 단언문을 나타내는 형식이 (10a)에서는 주어강세, (10b)는 주어와 동사의 도치, (10c)는 분열문, (10d)는 표지 부가를 통해 주제-평언 구조와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주어가 동

사에 후치하는 존현문을 제외하고는[186] 술어 앞에 주어가 놓이는 무표적인 어순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발화상황에 따른 운율과 같은 형식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 환경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서의 화용적 기능은 有-구문과의 호환 여부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Wu(1998:77-78)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사건 중심적 해석과 실체 중심적 해석을 '有'의 첨가여부에 따라 구분한 바 있다.

(11) 一封来信解开了谜底。
A letter solved the riddle.

Wu(1998:77-78)는 (11)에 나타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 대한 해석으로 'A letter solved the riddle.(편지 한 장이 수수께끼를 풀었네요)'보다 'The riddle was solved by a letter(수수께끼가 편지 한 장에 의해 풀렸네요)'의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속에서는 담화지시체인 '편지'에 대한 기술이 아닌 사건에 대한 기술로 '편지'는 단지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有'가 첨가된다면 구문적 의미는 더 이상 사건을 묘사하는 기술이 아닌 담화지시체 '편지'에 대한 진술이 된다고 하였다. Wu의 분석에서는 구문적 정의와 논리판단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어민 화자의 직관적인 분석에 의해 (11)의 명제적 의미가 두 구문에 의해 뚜렷한 화용적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등한 문맥 속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사건 중심적 해석과 有-구문의 실체 중심적 해석이라는 상보적인 화용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었다.

Lambrecht(1994)는 단언문을 사건중심의 사건 보고문과 실체중심의 제시문

186) Teng(1975/2014:329)에서는 존현문에서 주어가 존재동사와 같은 자동사에서 주어에 후치하거나 후치하는 것이 의무적이지만 비-존현 자동사(non-existential intransitive)와의 공기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사건 보고문은 사건 중심적 단언문이고 제시문은 실체 중심적 단언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Lambrecht는 제시적 기능을 지닌 실체 중심적 단언문을 사건 중심적 단언문과 구분하고 있지만 화용적인 기능을 확실하게 구분 짓지는 않는다. 다만 담화지시체를 새롭게 제시하여 담화주제로 도입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실체 중심적 단언문을 사건 중심적 단언문과 구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의 정보지위에서 주제도입성은 제시적 기능을 지닌 실체 중심적 단언문의 전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정보적 지위에서 지시체가 사건 속에서 해석되는 단발성은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분류되는 단발성에서는 有-구문과의 호환이 어렵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해석되는 문맥은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첫째, 비한정명사구가 무생이며, 비자주적으로 해석되는 문맥에서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12) a. 一会儿，一幅漂亮的山水画画好了。[187]
잠시 후,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화가 완성되었다.
b. ‘零零零’，一阵急促的电话铃声，惊醒了。
‘따르릉’ 한 차례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188]

(12a, b)에서 ‘一幅漂亮的山水画’, ‘一阵急促的电话铃声’는 모두 무생 주어로 비행위자성을 갖고 있다. 또한 문맥 속에서 비자주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때 (12a, b)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해석되며 有-구문으로 호환되기 어렵다. 또한 (12b)와 같이 무계명사에 가까울수록 개체와 사건에 대한 지시가 모호해지며 이로 인해 행위자성과 자주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예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3a, b)에서 비한정명사구의

187) 范继淹(1985)에서 인용.
188) Wu(1998:78)에서 인용.

지시체인 '白雾', '阳光'은 무계명사에 속하며 비자주적으로 해석되어 有-구문과의 호환이 어렵다.

(13) a. 一团毛茸茸的白雾滚过来，吞没了司马亭，吐出了司马亭。
보송보송한 흰 안개 한 가닥이 밀려와 사마정을 삼키고, 사마정을 토해냈다.
b. 一缕潮漉漉的阳光透过窗棂，斜射在她的肚皮上。
축축한 햇빛 한줄기가 창살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배를 비스듬히 비추었다.

둘째, 문맥 속에서 장면 묘사적 성격이 강할 때, 담화지시체는 사건을 이루는 요소로 해석되며 단언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 장면의 상황을 묘사하거나 동시다발적인 사건의 묘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음을 보자.

(14) 游行过程最动人中的情景之一是：一个男人推着一个轮椅，其中坐着一个孩子，一个女人用婴儿车推着她一岁半的婴儿，在他们的后面还跟着另外四个孩子。
시위 과정 중에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었다: 한 남자가 휠체어를 끌고 있었고,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한 여자가 유모차로 한 살이 넘은 아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들의 뒤에는 다른 네 명의 아이들이 따르고 있었다.

(14)에서는 시위현장의 특정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장면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자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선택을 통해 묘사적 표현을 부각시키며 有-구문과 같은 평면적인 서술방식을 피한다. 이는 Wu(1998:77)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사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189]

189) Wu(1998:77)에서 인용.

(15) 五月三十日傍晚，一辆急救车明着喇叭，飞快地驶进北京积水潭医院，八名严重烧伤的病人，被送进急诊室。
5 월 30 일 저녁, 구급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쏜살같이 북경 적수담병원으로 들어섰다. 8 명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Wu(1998:77)는 (15)를 영화 속 한 장면에 대한 묘사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15)의 발화는 사이렌과 함께 갑작스럽게 등장한 구급차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장면의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인 사건들로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다고 하였다. 이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는 담화 맥락을 통해 요구되는 구문적 의미가 지시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사건 중심적 해석이기 때문에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적합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대구, 대조 등의 고정형식과 같은 문체를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16) 他们说："一片乌云遮住了队长的双眼，一个女人治住了堂堂七尺的男子汉！"
"먹구름 한 조각이 대장의 두 눈을 가리고, 한 여인이 칠 척의 사나이를 다스렸다"라고 하였다.

(16)에서 '一片乌云'과 '一个女人'은 비록 실체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제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는 문맥적 형식에 의해 담화지시체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여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의 정보적 지위에서는 새로운 지시체의 등장으로 인해 제시적 기능이 강하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적 지위에서 화용적 기능에 의해 有-구문과의 호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주제도입성은 주제지속성이라는 화용적 맥락에 의해 담화지시체가 문맥에서 높은 특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제도입성에서는 새로운 담화지시체의 주제승격 요구가 높아지고, 결국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실체 중심적 단언문으로 해석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단발성은 비록 새로운 지시체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제도입성과 동일한 정보적 지위를 갖지만 지시체의 단발적 등장에 의해 지시체에 대한 특정성의 변화 없이 담화 속에 머무른다. 따라서 단발성은 사건 중심적 단언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일한 정보 지위에서 상이한 화용적 기능은 有-구문과의 호환이라는 형식적인 대립 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하게 하기도 한다.

## 6.3 초점 구조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전술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은 담화지시체의 정보적 지위에 따라 구별된다. 청자-구정보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나타나고 有-구문은 실현되지 못한다. 반면 청자-신정보의 지위에서는 특정한 문맥을 제외하고는 두 구문이 호환될 수 있다. 이는 명제적 의미는 같을지라도 구문이 보유한 정보구조에 의해 서로 고유한 화용적 맥락에서 구분되는 변이문(allosentence)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두 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초점 구조를 통해 두 구문의 화용적 영역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 6.3.1. 초점 구조의 유형과 특징

Lambrecht(1994)는 문답형식을 통해 초점 구조를 3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Lambrecht(1994)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맥락의 정보구조가 이러한 3가지의 초점 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모든 발화가 문답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문답형태로 변형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제시한 세 가지의 초점 구조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 구조를 통한 두 구문의 비교는 정보구조의 차이는 물론 두 구문이 보유한 독

립된 화용적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음은 Lambrecht(1994:221-235)가 설정한 세 가지 초점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 6-2: Lambrecht(1994)의 초점 구조

| (A) 서술어 초점 | (B) 논항 초점 | (C) 문장 초점 |
|---|---|---|
| Q: What happened to your car? | Q: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 Q: What happened? |
| A: My car/It broke DOWN. | A: My CAR broke down. | A: My CAR broke down. |
| [My car/It]$_{TOP}$ [broke DOWN]$_{FOC}$ | [My CAR]$_{FOC}$ [broke down] | [My CAR broke down]$_{FOC}$ |

(A)의 서술어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문장 ‘My car broke DOWN.’에서는 화자의 차가 평언에 대한 주제라는 전제를 갖는다. 또한 ‘x가 broke down되었다’는 단언(x=broke down)을 통해 ‘broke down’은 초점이 되고, 동사구(VP)가 초점영역이 된다. (B)의 논항 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문장 ‘My CAR broke down.’에서는 ‘화자의 x가 고장 났다.’라는 전제를 함의하고 있다. 또한 ‘x는 car이다’라는 단언(x=car)을 통해 초점 ‘car’를 나타내고, 초점 영역은 명사구(NP) 내에서 존재하게 된다. (C)의 문장초점 구조로 해석되는 문장 ‘My CAR broke down.’에서는 아무런 전제를 갖지 않는다. 단언은 ‘화자의 차가 고장 났다’이고, 단언이 곧 초점으로 해석되어 ‘화자의 차가 고장 났다’라는 초점을 갖는다. 따라서 문장 전체(S)가 초점의 영역이 된다. (A), (B), (C)의 세 영역에서 전제와 단언을 서로 구분 짓는 정보요소는 초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초점 구조라고 한다. 세 가지 초점 구조에서 서술어초점 구조와 논항초점 구조는 전제를 갖지만 문장초점 구조는 아무런 전제를 갖지 않는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Lambrecht(1994:222)에 따르면 여러 언어들에서 각 초점 구조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언어에 따라 초점표시 메커니즘에 활용하는 언어형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영어는 운율, 일본어는 운율과 표지에 의한 형태, 이탈리아어는 운율, 어순, 통사구성, 프랑스어는 통사구성을 이용한다. 서술어초점 구조에서는 네 언어에서 일단 모두 서술어에 운율적 현저성을 줌으로써 표시된

다. 이에 더하여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에서는 주어인 어휘 명사구가 주제임이 형태, 통사적으로 표시된다. Lambrecht(1994)에서는 서술어초점 구조를 전형적인 주제-평언 구조로 보았는데, 중국어에서도 서술어초점 구조는 운율에 의해 제일 현저하게 드러난다. 다음을 보자.

(17) Q: 明成怎么还没来呢？
明成은 왜 이리 안 오는 거니?
A: 明成‘来了！
明成은 왔어요.

→ [明成] [来了]$_{FOC}$

(17)에서 대답의 초점 구조는 강세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데, 이때 ‘明成’ 과 ‘来了’ 사이에 휴지를 통해서도 주제와 단언을 구분할 수 있다.

논항초점 구조에서도 언어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와 동일하게 운율 형식을 통해 논항초점을 구분한다.

(18) Q: 谁来了？
누가 왔니?
A: ‘明成来了！
明成이 왔어요.

→ [明成]$_{FOC}$ [来了]

(18)에서는 논항 ‘明成’이 초점이 되는 논항초점인데, 이때 강세를 통해 초점을 구분해낸다. 문장초점 구조 역시 다양한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영어와 동일하게 운율적, 통사적 형식이 적용된다. 다음을 보자.

(19) Q: 外边怎么这么吵呢？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밖에 인기척이 있네요)
A: ‘明成来了！
明成이 왔어요.

→ [明成来了]$_{FOC}$

(19)의 대답에서 초점 구조는 전체문장 ‘明成来了’가 초점이 되는 문장 초점이다. 문장 초점은 운율적 형식에서 논항 초점 구조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는 두 초점 구조가 모두 주어가 초점의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지만 각각의 문맥이 상정해내는 상이한 문답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개별적인 초점 구조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어에서는 운율적 형식 외에 통사적으로 분포의 변화를 통해서도 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한정명사구의 한정성등급이 비교적 낮은 일반명사 ‘客人’이 주어일 때 문장초점은 강세에 의해서도 실현되지만 주어가 동사 뒤의 위치로 이동하는 존현문 형식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박정구(2021)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장초점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 강세와 주어 도치를 설명한 바 있다.[190] 다음을 보자.

(20) a. ‘客人来了。 손님이/은 왔어요.[191]
b. 来客人了。(어떤) 손님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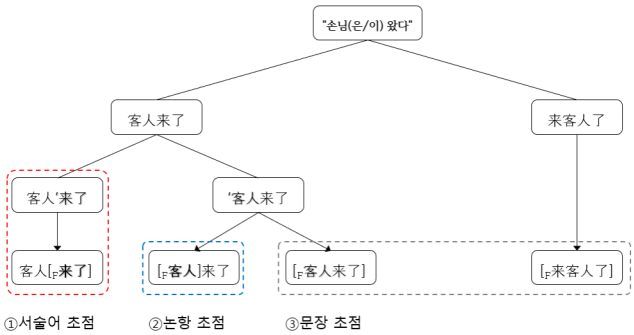
박정구(2021)는 주어가 일반명사일 경우 (20a)와 같이 주어강세로 표현되거

190) 박정구(2022)에서는 화자가 정보구조를 구분하기 위해 어순의 변화, 어휘의 선택, 표지의 사용, 운율의 개입 등의 책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하나의 형식에서 하나의 초점 구조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구(2022)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한정명사구 ‘客人’일 때 하나의 형식에서 구현될 수 있는 초점 구조의 중의성을 다음과 같이 귀납하였다. 다음의 그림에서 초점 구조를 나타내는 주요한 형식은 어순은 물론 강세와 같은 운율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나 (20b)와 같이 주어가 동사 뒤로 위치하는 통사적 변화를 통해 문장초점 구조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강세는 여전히 '客人'에 있다.

이처럼 문장초점 구조에서 중국어의 형식과 통사의 변형이라는 방식은 모든 명사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의미적 자질을 지닌 명사구 내에서도 고유명사와 같이 한정성 정도가 높은 명사구에서는 (20b)의 예시와 같이 주어도치와 같은 통사적 변이는 불가하고 강세와 같은 운율적 형식에 의해 초점 구조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중국어에서 초점 구조는 운율과 같은 형식 또는 통사적 분포를 통해 변별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이는 수의적인 주제표지, 휴지와 같은 형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두에 한정명사구가 아닌 비한정명사구가 출현할 경우 초점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까. 우리는 앞서 특정한 정보적 지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有-구문과 변이문(allosentence)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관측한 바 있다. Lambrecht(1994:120)는 한 문장의 초점 구조는 종종 주어진 구조 안에서가 아닌 그 문장의 대안이 되는 변이문들의 체계 안에서 정확히 해석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앞선 관측과 이론적 가정을 토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실현할 수 있는 초점 구조를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191) 전영철(2013a:32)은 한국어에서 맨명사구는 특정적 해석의 한정명사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a.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어요.
b.아이가 아직 자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전에 울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 아이가 울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아이'는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존재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독립된 구문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 6.3.2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초점 구조

### 6.3.2.1 논항초점 구조

Lambrecht(1994:228)에 의하면 논항초점 구조에서 주어가 초점이 된다. 논항초점 구조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모두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논항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은 모두 수용가능하다. 다음 문맥을 살펴보자.

(21) Q: 谁来了？
A: a. 一位记者来了。
b. 有一位记者来了。

(21)에서 질문 '谁来了？'는 '누군가 왔다'라는 전제를 함의하고 있는데, 이때 '一位记者'는 단언으로 해석되므로 초점이 되고, (21)은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낸다. (21)과 같이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과 함께 실현될 수 있다.

논항 초점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일정한 정보량에 대한 조건이 존재한다. 정보량이 낮은 비한정명사구가 논항 초점에서 초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언으로 해석되는 비한정명사구가 전제 이상의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内田 庆市(1993:373)의 분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2) Q: 谁来了？
A: 一个很漂亮的姑娘来了。

内田 庆市(1993:373)에 의하면 (22)의 대화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A가 문을 열고 Q가 A뒤에 서서 누가 왔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군가 왔다'는 전제에 '一个很漂亮的姑娘'이 단언되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통해 논항초점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内田 庆市(1993:373)는 존재를 특정할 수 있는 한정명사구 형식이 가장 적합할 수 있지만 '사람' 이상의 정보를 함의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사용 역시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국 '누군가(x)가 왔다'는 전제 속에서 '누군가(x)'라는 단언은 명사구의 형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발화자가 아는 인물이든 미지의 인물이든 모두 '사람'이라는 집합에 속하고, '사람'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상의 정보량이 되진 않더라도 초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도 대화의 격률을 어기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언이 전제에 포함된다면 논항초점 구조는 실현되기 어렵다. 内田 庆市(1993)는 문맥상 '동물'과 대조를 이루려는 화자의 의도가 없는 이상 (22)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一个人来了'는 정보적 가치가 '영(零)'에 가깝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본고의 견해도 内田 庆市(1993)와 동일한데, 이를 정보구조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23) Q: 谁来了？
A a. ?一个人来了。
b. ?有一个人来了。

(22)와 동일한 문맥의 (23)에서 초점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4) 전제: X(어떤 사람)가 왔다.
단언: X=어떤 사람
초점: 어떤 사람

(24)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언의 '사람으로서의 누군가(어떤 사람)'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전제에서 어떠한 정보적 가치도 발휘할 수 없

다. 즉 단언이 전제와 동일하거나 일부가 되는 순간 대화격률[192]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논항초점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언이 전제 이상의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논항초점 구조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명제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논항초점 구조를 구현하는 문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명제에 대한 제약은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가 한정명사구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吴中伟(2004:91)는 한정명사구가 주어로 오면 서술어는 어떤 명제를 지니던지 정보적 가치를 가지는 반면 비한정명사구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백은희(2006)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 문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성이 문장의 성립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예컨대 '가장', '제일'의 의미를 함의하는 최상급의 명제는 지시체의 유일성(uniqueness)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한정명사구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Hawkins(1978:158)에서는 명제의 유일성은 한정명사구의 필수적인 의미적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일성을 함의하는 명제에서 한정명사구 주어와 달리 비한정명사구는 화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192) 李櫻(2012/2019:128)에서는 Grice 의 대화 격률(The Cooperative Principle)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 양의 격률(Quantity) 정보는 충분하면서도 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질의 격률(Quality) 정보는 거짓되지 않아야 하며 증거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c. 관련성 격률(Relation) 정보는 대화 목표와 관련되어야 한다.
d. 태도의 격률(Manner) 표현은 분명해야 한다.

李櫻(2012/2019:128)에서는 Grice 의 대화 격률은 심리학적 측면의 구분이지만 언어 사용에 있어 대화참여자간의 인지, 심리적 교류를 통해 화용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25) a. 昨天的考试，张三考得最好。
어제 시험은, 张三이 제일 잘 쳤다.
b. ？昨天的考试，一位同学考得最好。

(25)에서는 시험을 '제일' 잘 본 사람에 대한 기술을 통해 유일성의 명제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25b)와 같이 비한정명사구 '一位同学'는 유일성을 전제하는 명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해석적 측면에서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비한정명사구의 유일성에 관한 의미적 제약은 종종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서 수용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吴中伟(2004)와 백은희(2006)의 견해는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일성을 나타내는 명제라고 할지라도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전제를 상정할 수 있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가 실현되는 명제 사이의 전제와 관련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논항초점 구조에서는 유일성을 전제하는 명제 속에서도 비한정명사구의 수용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논항 초점이 구현되는 문맥이다.

(26) Q: 你们班上谁考得最好？(谁拿了第一名)
너희 반에서 누가 제일 시험을 잘 쳤니?
A: 一个男生(拿了第一名)，他是从美国转来的学生。
한 남학생이요(1 등 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전학온 학생이에요.

(26)의 문맥에서도 '张三', '李四'와 같은 한정명사구가 높은 정보량과 특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청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5)의 문맥과 달리 (26)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6)의 대답에서 후속 담화에 의한 특정성의 증가 역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를 높이는 문맥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후속 담화 없이 단답형 형식의 비한정명사구로 답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26)

의 대답에서는 '누군가 제일 시험을 잘 쳤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발화되는 상황이므로 '一个男生'이라는 비한정명사구가 단언될 수 있고, 초점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항초점 구조에서 초점이 되는 논항은 관계적 주어짐성(givenness)[193]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정명사구일 수도 있고, 비한정명사구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정명사구에 비해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한정명사구는 대화의 격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도를 얻을 수 있지만 논항초점 구조의 발현이라는 정보구조적 측면에서는 수용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논항초점 구조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초점이 될 경우 전제의 접근가능성과 같은 정보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나아가 문맥적 정보가 형성되어 기본적인 초점 구조를 형성하는 전제 외에 더 많은 전제가 형성될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서 논항초점 구조의 예로 제시된 (21)의 맥락에서는 일반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모두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1)에서 '一位记者'라는 단언은 초점으로 해석되는데, 만약 '누군가 왔다'라는 전제 외에 더 많은 예측가능성을 함의할 경우 두 구문의 선호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발화상황을 살펴보자. 다음 발화에서는 누군가 올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청자와 화자는 학회장에 올 예정인 구성원의 집합(교수, 기자, 학생 등등)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상황에서 앞의 (21)의 문맥을 다시 적용한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더 우세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27) Q: 谁来了？
A: a. 一位记者来了。
b. ?有一位记者来了。

193) 전영철(2013b)에서는 관계적 주어짐성은 어떤 언어표현이 한 발화의 정보를 구성할 때 기여하는 정보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맥적 한정성이 주어진 명사구라도 관계적 신정보일 경우 초점으로 인식될 수 있고, 문맥적 한정성이 없어 지시적 주어짐성이 없는 경우라도 관계적 주어짐성에 의해 초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문맥에서도 전제가 많아질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가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항초점 구조에서 有-구문보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더 선호되는 현상은 확인초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다. 확인초점에서는 초점이 되는 명사구가 앞선 발화에 나타난 지시체와 대조적 관계를 이루며 대안집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전제 이상의 정보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인초점이 구현되는 다음의 발화상황을 살펴보자.

(28) A: 外边一辆卡车爆炸了。 밖에 트럭 한 대가 폭발했어.
B: a. 不, 一辆轿车爆炸了。 아니야, 승용차 한 대가 폭발했어.
b. *不, 有一辆轿车爆炸了。

(28)에서 '一辆卡车'와 대조적 관계를 이루는 '一辆轿车'는 'x가 폭발했다'라는 열린 명제에서 x는 '一辆卡车'와 함께 하나의 집합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이로써 일반적인 의문사에 대응하는 초점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집합을 가지게 되므로 더 높은 접근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인초점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有-구문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더 높은 전제를 수용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모두 논항초점 구조를 발현할 수 있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은 형태, 통사적 증거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초점표지와의 공기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29) Q: 那件东西谁买走的？ 그 물건은 누가 사갔어?
A: a. 是一个小孩买走的。한/어떤 아이가 사갔어.
b. *是有一个孩子买走了。

(29)는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내는 문답형태의 발화로 '一个小孩'는 논항초점으로 인식된다. 이때 (29a)와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만 초점표지로 인식되는 '是'의 부가가 가능하다.[194]

또한 일반적인 초점 구조에서 초점을 제외한 요소는 생략이 가능하다. 백은희(2005b)에서는 중국어에서 생략은 어순, 강세와 함께 초점부를 명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초점 구조가 생략에 의해 단답형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에 따라 초점 구조의 실현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보자.

(30) Q: 那件东西谁买走的？그 물건은 누가 사갔어?
A: a. 一个小孩。한/어떤 아이가요.
b. *有一个孩子。

(30)에서는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내는 문답형식의 발화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는 초점을 제외한 술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有-구문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논항초점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에서 모두 발현될 수 있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수용하는 문맥이 더 넓다는 관측을 통해 논항초점을 구현하기 위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더 선호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 6.3.2.2 서술어초점 구조

서술어초점 구조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하다. Lambrecht

194)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서 '是'가 초점에 민감하여 초점표지 혹은 초점을 나타내는 형식 중 하나로 인식된다. 温锁林(2001/2005:164)에서는 '是'는 '连', '就', '只' 등과 같이 초점을 표기하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이옥주(2007)에서는 문장 내에서 발현되는 초점 구조를 통사적 형식과 음성적 형식의 상관성을 통해 고찰하였는데, '是'를 통사적 초점표지로 두었다.

(1994:226)에서 서술어초점 구조는 주제-평언구조라고 하였다.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주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제표현은 한정명사구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우리는 5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정보적 지위를 살펴볼 수 있었고, 높은 한정성을 지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주제성을 고찰한 바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서술어초점 구조에 놓일 수 있는 문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보았다.

(31) Q: 请看一下。明静在做什么?
한번 들여다봐주세요, 밍징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A: 哦! 一个美丽的女人正在收拾行李。
아! 지금 예쁜 아가씨는 짐을 정리하고 있네요.

(31)에서 '一个美丽的女人'은 '明静'과 의미적으로 조응적 관계를 맺고, 주제표현으로 기능하고 있다. 비한정명사구 형식인 '一个美丽的女人'이 고립적으로 주제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인데, Lambrecht(1994:227)에 의하면 주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지시체는 제일 전형적인 주제 표현, 예컨대 강세 없는 대명사나 한정명사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화를 통한 문맥 형성과 지시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을 통해 추론 가능하거나,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접근 가능한 지시체로 해석되며 주제로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31)의 문맥에서 '一个美丽的女人'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지시체로 묘사되고 있지만 선행담화의 '明静'과 공지시되어 평언 '正在收拾行李'에 대한 주제라는 전제를 갖게 된다.[195] 또한 초점에 해당하는 '正在收拾行李'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구정보로 해석되며 무표적인 주제로 분석될 수 있다. 형식적 근거로 '一个美丽的女人' 뒤에 주제표지와 휴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32)의 문맥과 같이 문맥적 주어짐성을 통해 문두 비한

195) 만약 (31)의 문맥에서 대답인 '一个美丽的女人正在收拾行李。'가 유(有)-구문으로 구현된다면 '一个美丽的女人'은 '明静'과 조응적 지칭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대화참여자 외의 새로운 지시체를 지칭하게 된다.

정명사구 구문에서 구현되는 서술어초점 구조는 有-구문으로 실현될 수 없다.

문맥적 주어짐성은 추론가능성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지닌 정보적 지위와 추론가능성에서 서술어초점 구조가 가능해진다. Lambrecht(1994:221)에서는 쉽게 해석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용인가능하고 접근가능한 지시체를 주제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제 표현은 기억, 추론 혹은 그 주제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고 하였다. 정보적 지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에 대한 정도는 접근가능성과 관련 있는데,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비한정명사구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정명사구보다는 덜 쉽게 해석되므로 대화참여자 사이에서 '추론'이라는 심리적 노력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문맥에서는 대화참여자 간의 추론 과정을 통해 주제 지위를 얻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살펴볼 수 있다.

(32) a. 操场上有两个人，一个人啊，个子很高，可篮球打得不怎么样，一个人啊，个子不高，可篮球打得不错。
운동장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키가 아주 큰데 농구를 잘 못해요. 한 사람은 키가 크지 않은데 농구를 잘해요.
b. 他受了重伤，一条腿被截肢了。
그는 부상을 입었는데, 한 쪽 다리가 절단되었다.

(32a)에서 '一个人'은 선행담화에 추론 가능한 집합 '两个人'이 상정되어 있고, 후행발화에서 집합을 구성하는 개체가 각각 추론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자에게 정교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一个人'은 선행어와 공지시되지 않지만 추론을 통해 지시적 구정보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만약 선행담화의 '两个人'이 후행담화에서 다시 '两个人'로 지시될 경우 동일한 형식에 의한 주어짐성으로 인해 주제로 쉽게 인식될 수 있지만, '两个人'에서 '一个人'은 추론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一个人'은 지시적 구정보임과 동시에 관계적으로 구정보로 해석되며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 한편 (32b)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一条腿'는 선행담화

의 '他'에서 추론되고 있는데, 이때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는 비분의적이라는 점에서 정교하게 추론되었고, 지시적, 관계적으로 모두 구정보에 해당하므로 주제로 기능한다. (32)와 같은 추론의 의미적 관계는 형식적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32a)와 (32b)의 문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 의해 서술어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지만 有-구문은 불가하다.

(31)과 (32)의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청자-구정보의 정보적 지위에 속한다. 앞서 5장의 정보적 지위에서 논의했듯이, 담화-구정보의 영역에서는 청자의 지위에 따라 추론이 가능하다. 추론가능성은 일정한 정도성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에 추론관계의 긴밀도에 따른 층차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두 구문에서 구현되는 서술어 초점의 층차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선행어와 추론어의 관계가 동일하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31), (32)의 문맥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하게 선호된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추론관계가 느슨한 문맥에서는 有-구문에서도 서술어 초점 구조가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3) a. 操场上有很多学生。一个学生个子很高。他篮球打得很好，跑步也很好。所有人都看着他。
운동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한 한생은 키가 컸다. 그는 농구를 잘하고 달리기도 잘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b. 参加说明会的家长很多。一位父亲举手发言。他非常兴奋地接着说下去。
설명회에 참석한 가장은 매우 많았다. 한 아버지가 손을 들고 발언했다. 그는 매우 흥분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33a)에서는 선행어 '很多学生'에서 '一个学生'을 추론할 수 있다. 선행되는 연상어는 수량집합으로 집합의 무수한 개체들 중에서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되는 지시체 하나가 선택된다. (33b)에서 '一位父亲'은 선행어 '家长'에서 연상적으로 추론되며 '家长'의 집합 속 하나의 지시체가 선택되고 있다. (33)의 비한정명사구로 발현되는 지시체는 모두 선행집합에서 분의적으로 추출 가능하며

모두 느슨한 추론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때 (33)의 문맥에서 서술어초점 구조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물론 有-구문을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31), (32), (33)의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모두 담화-구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31), (32)는 청자-구정보에 해당하고, (33)은 청자-신정보에 해당한다. 이처럼 두 구문은 변별적인 상황에서 차등적으로 서술어초점 구조를 구현하는데, 청자-구정보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우세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청자-구정보에서 담화-신정보의 지위에 있는 비지시와 수량 의미의 비한정명사구가 무표적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때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196]

서술어초점 구조에서 두 구문의 변별적 사용에 대한 관측은 두 구문이 지닌 정보구조의 상이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존연구에서 두 구문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주요 논의가 문체, 뉘앙스 등의 표현방식에 의존하던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内田 庆市(1993:376)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과의 비교에서 有-구문과 달리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발화자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197]

(34) a. 一位老师在教小学生写字。他写了‘一’字，问小学生认识不认识.....
b. 有一位老师在教小学生写字。他写了‘一’字，问小学生认识不认识.....
한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一’자를 쓰고 학생들에게 아는지 물어보았다....

196) 刘丹青(2016)은 ‘一个年轻人啊，应当有志气。’와 같이 비지시적 해석에서는 비한정명사구가 주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徐烈炯・刘丹青(1998:166)은 一 CLN(一量名)은 전량(全量)을 강조하기보다 총칭적 해석으로 한정성에 가깝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한정명사구 ‘一个年轻人’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한정성이 높고 정보적 지위에서도 청자-구정보 영역에 속한다. 이때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하다.

197) 内田 庆市(1993:376)에서 인용.

(35) a. 在火车上，一个男孩子正在认真地拉小钢琴。他拉得非常好，大家都想知道他是谁家得孩子。

b. 在火车上，有一个男孩子正在认真地拉小钢琴。他拉得非常好，大家都想知道他是谁家得孩子。

기차에서, 한 남자아이가 열성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는 정말 잘 쳤다. 모두들 그가 누구 집 아이인지 궁금해 했다.

(34), (35)의 문맥에서 담화지시체 '一位老师', '一个男孩'는 모두 초기발화에서 새롭게 등장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화용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内田 庆市(1993:376)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으로 표현되는 (34a), (35a)에서 화자는 그 사건의 목격자 신분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청자를 사건현장에 데리고 오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有-구문으로 표현되는 (34b), (35b)에서는 청자에게 현장 목격성은 사라지고 지나간 사건에 대한 묘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内田 庆市(1993)의 이러한 해석을 지시체의 심적 표상으로 설명한다면 사건현장에서 담화지시체를 함께 목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된 지시체가 상황적으로 추론 가능한 실체로 인식되고, 따라서 비한정명사구는 무표적 주제표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魏红・储泽祥(2007)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内田 庆市(1993)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화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청자를 현장에 데려온다는 현장 목격성이라는 문맥적 해석을 보다 정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을 보자.[198]

(36) a. 一位小朋友和爸爸一起在北京玉渊潭公园樱花观赏园欣赏樱花。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베이징 옥연담공원 벚꽃관상원에서 벚꽃을 감상한다.

b. 4 月 15 日，一位外国游客在云南西双版纳傣族自治州景洪市街头过傣族泼水节。

198) 魏红, 储泽祥(2007)에서 인용.

4 월 15 일, 한 외국 관광객이 윈난성 시솽반나 타이족 자치주 장훙시 길거리에서 타이족의 물뿌리기 축제를 지나치고 있다.

c. 10 月 30 日, 一位网络工程师在思科中国用户大会上利用无线上网卡查阅资料。

10 월 30 일, 한 인터넷 엔지니어가 쓰커 중국사용자포럼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36a-c)는 신문기사에 실린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모두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선호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맥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사용되며 명사지시체 '一位+N'은 '这位+N'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이를 한정의 비한정화(有定'无定化')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맥에서는 지시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사건이 부각되는데, 이를 전경화라고 분석하였다. 전경과 배경은 인지적 측면의 해석으로 전경화는 초점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로 나타나는 지시체는 배경이 되어 주제화되고 행위, 사건은 전경이 되어 초점화된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발화자의 관점에서 사진 속에 명시된 담화지시체는 텍스트 외적으로 추론 가능한 심정표상으로 인해 높은 주어짐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34a), (35a)의 분석과 동일하게 비한정명사구가 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담화지시체의 높은 접근가능성과 주어가 무표적 주제로 인식되는 서술어초점 구조에서는 有-구문보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하다.

#### 6.3.2.3 문장초점 구조

전술했듯이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전체 문장이 초점이 된다. 문장초점 구조는 비교적 有-구문에서 우세하다. 다음은 문장초점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전형적인 문맥이다.

(37) Q: 外边怎么这么吵？

A: a. *一位记者来了。

b. 有一位记者来了。

(38) Q: 外面怎么这么吵？
A: a. *一辆轿车爆炸了。
b. 有一辆轿车爆炸了。

(37), (38)의 문답형식은 문장초점 구조가 실현되는 문맥으로, 이때 有-구문으로만 실현되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37), (38)에서 부자연스럽게 인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一位记者来了。', '一辆轿车爆炸了。'가 논항초점 구조를 구현하는 문맥에서는 有-구문보다 우세할 수 있다는 앞선 논의를 통해 각 구문의 차등적 정보구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항초점 구조에서 '어떤 사람'이 전제이자 초점일 때 실현될 수 없었던 발화가 아무런 전제를 갖지 않는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데, 이때 有-구문에서 실현 가능하다. 다음 문맥을 살펴보자.

(39) a. 我刚要找你，有一个人来了。
내가 방금 널 찾으려고 했어. 어떤 사람이 왔었어.
b. *我刚要找你，一个人来了，

(39)의 발화에서는 전제가 없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39a)와 같이 有-구문을 통해 실현 가능해진다.

이처럼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有-구문이 우세하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전체 문장이 신정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존현문과 동일하게 정의 내려지거나,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되기도 한다. 内田庆市(1993)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새로운 지시체와 함께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므로 존현문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张伯江(2009)에서도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有-구문, 존현문과 비교하여 새로운 지시체의 도입이라는 동일한 화용적 기능을 통해 동등한 정보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형식의 차이는 의미, 화용의 차이를 함의한다는 기본적인 가설 아래 존현문 역시 문두 비한정

명사구 구문과 변별되는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추론해볼 수 있다. 본고의 관측에 의하면 존현문은 논항초점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有-구문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40) Q: 谁来了？
A: a. 一位记者来了。
b. 有一位记者来了。
c. *来了一位记者

(41) Q: 外边怎么这么吵？
A: a. *一位记者来了。
b. 有一位记者来了。
c. 来了一位记者。

(40)은 논항초점 구조를 나타내는 문맥인데,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으로는 실현 가능하지만, (40c)와 같이 존현문은 불가하다. 반면 (41)은 문장초점 구조를 나타내는데, 有-구문과 존현문은 가능하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불가하다.

문장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有-구문과 존현문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구별되는 고유한 화용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시발문(始发句)이나 초기발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42) a. 有一个(人/记者)来了，谁也不认识他，明成却说知道他是谁。
b. 来了一个(人/记者)，谁也不认识他，明成却说知道他是谁。
c. *一个(人/记者)来了，谁也不认识他，明成却说知道他是谁。
어떤 (사람/기자)가 왔다. 아무도 그를 모르다고 하였는데, 밍청은 오히려 그를 안다고 하였다.

(42)의 문맥은 제시적 기능을 지닌 시발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맥적 환경

에서 有-구문과 존현문는 실현 가능하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제약을 받는다. (42a, b)에서는 有-구문과 존현문은 명사구가 상위어 '人'으로 표현되어도 초기발화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어 담화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문장초점 구조에서 有-구문이 우세하다는 우리의 관측은 단언문으로 분류되어 문장초점 구조로 실현된다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일반적인 가설과 상반된다. Sasse(1987)에서는 단언판단(thetic judgement)의 의미적 유형을 분류한 바 있는데, 문장초점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질문 'what happened?'에 대한 대답이 단언판단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초점은 단언문에 속하지만 모든 단언문이 문장초점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단언문은 문장초점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문장초점 구조를 단언문의 한 형태나 종류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모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문장초점으로 구현되거나 문장초점이 우세하다는 관점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문장초점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관측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문장 독립성이 높아지는 위계(4.2절 참고)에 따라 문장초점 구조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문장초점 구조를 위한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가능여부이다.

(43) Q: 外边怎么这么吵？
A: *a. 一个孩子来了。
*b. 一个孩子在笑。
*c. 一个孩子在打闹。
d. 一个孩子正在整理来自世界各地的救援物资。

(43a)에서 술어는 출현을 나타내는 자동사이고, (43b)는 일반적인 자동사이

다. 또한 (43c)는 동목구조이지만 목적어는 비지시적 의미를 지닌다. (43d)도 동목구조이지만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지닌다. 이때 (43d)와 같이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를 술어로 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문장 독립성이 가장 높고, 문장초점을 구현해내는 문맥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또한 전술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문장 수용성이 술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공간위치 요소의 첨가를 통해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문장초점 구조에서도 동일한 제약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44) Q: 外边怎么这么吵？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무슨 일이야?)
A: 一个孩子掉进了河里。한/어떤 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44)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술어는 자동사이지만 보어를 통해 시공간위치 요소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형태로 문장초점 구조를 발현하는 데 무리가 없다.

종합하여 문장초점 구조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문장 독립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 실현 가능하지만 有-구문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따라서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有-구문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 6.4 한정성 효과(DEs)를 통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 비교

어떤 구문에서 명사구의 한정성(definiteness)에 따라 그 구문의 문법적 용인 가능성이 결정되는 현상은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s: DEs)로 설명될 수 있다.[199] 예컨대 there-존재문은 대표적인 한정성 효과를 갖는 구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there-존재문이 존재를 단언하기 때문에 개념적 주어가 비한정명

사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there-존재문과 상응하는 구문으로 중국어에서는 有-존재문이 종종 논의되는데, Huang(1987)에서는 有-존재문의 구문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사구의 한정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45) a. You yiben shu zai zhuo-shang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b. *You neiben shu zai zhuo-shang
'There is that book on the table'
c. *You Lisi/ta/meige ren/daduoshu-de ren zai wuzi-li
*There is/are Lisi/him/everybody/most people in the room'

Huang(1987)은 有-존재문에서 '有'의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는 반드시 비한정명사구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45a)는 성립 가능하지만 '有'의 뒤에 한정명사구가 오는 (45b, c)는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i(1996)는 有-존재문의 한정성 효과에 대해 개체로서 NP의 존재를 단언할 수 있는 구문만이 한정성 효과와 관련되고, 이때 NP는 비한정명사구라고 하였다. Li(1996)는 有-존재문에서 성분들 간의 의미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6) [you indefinite-NP [IP/CP XP]] = definiteness effect

(46)을 보면 존재동사 '有'와 명사구 NP는 하나로 묶여 다른 성분과 분리되어 있다. Li(1996)에서 '有'는 실체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有'와 비한정명사구는 분리될 수 없고, NP와 XP는 각각 하나의 유닛(Unit)으로 기능한다고

199) 한정성 효과는 어떤 형식에서 비한정 성분이 한정성을 얻게 됨을 기능적으로 묘사한 용어이다. 한정 성분이 아닌 비한정 성분이 자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정성 제약'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어떤 형식에 의해 비한정 성분이 한정성을 지닐 수 있다면 한정성 효과가 '있다' 혹은 '높다' 등의 술어를 통해 묘사할 수 있다.

하였다. 결국 그의 해석에 따르면 [有+NP]의 관계 속에서 비한정적인 NP는 존재가 전제되며 한정성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张新华(2007)에서는 '有'가 약(弱)한정 표지로서 비한정 성분 앞에 놓여 비한정성에 일정한 한정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구문이 부여하는 명사구의 의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분포적 관계에 의해 설명되기도 한다. Shi(1989)는 有-존재문과 한정성 효과의 관계를 분포에 나타나는 한정성 효과의 위계로 설명한 바 있다. Shi(1989:244)는 한정성 효과의 영향을 받는 분포의 위계를 설정하였는데, 주제보다는 주어가, 주어보다는 목적어가 한정성 효과(DEs)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목적어로 갈수록 비한정명사구가 되는 경향이 있고, 제약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반면 통사적 분포와 한정성 효과의 관계에 대한 위계에서 목적어에서 주어의 분포를 통해 주제로 갈수록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경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Shi(1989:248)는 만약 비한정 행위자 NP(indefinite agent NP)가 주어 위치에 오게 되면 '有(dummy verb)'가 행위자 NP 앞에 위치하여 동사후치 분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분포적인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목적어의 분포에서 한정성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한정명사구는 有-존재문의 NP로 작용하는 것이 의미・통사적으로 타당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有-구문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관점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한정성 효과에 대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즉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 사용되는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이 높을수록 구문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한정성 효과는 낮거나 한정성 효과에 민감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비한정명사구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가 높아지며 성립 가능하다는 기존의 견해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范继淹(1985)은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이라도 수식어의 부가성향에 따라 한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은 일반적으로 명사구의 수식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한정성이 높아진 비한정명사구는 有-구문으로 변환이

어렵다고 하였다.

(47) a. 南京某大学一位学生说，几年来.....
남경 모대학의 한 학생이 말하길, 몇 년새....
b. 我的一个同事在这里.....
나의 한 동료가 여기서....

范继淹(1985)에서는 (47)에서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은 수량구가 수식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층구조(内层结构)라고 하였고, 내층구조(内层结构)는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한정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수량구가 수식어 외부에 위치하는 구조를 외층구조(外层结构)라고 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외층구조에서는 한정성이 낮아져 有-구문으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范继淹(1985)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비록 비한정명사구가 외층구조를 갖고 있지만 有-구문의 호환이 부자연스럽다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8) 一会儿，一幅漂亮的山水画画好了，远处有山，近处有花。
잠시 후,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화가 완성되었다. 멀리 산이 있고, 가까이에는 꽃이 있다.

(48)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一幅漂亮的山水画'는 范继淹(1985)의 분석에서 외층구조로 분류되지만 (48)의 문맥은 有-구문으로 변환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范继淹(1985)이 제시한 비한정명사구의 내층구조와 외층구조의 분류에 따른 有-구문과의 호환가능성 여부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有-구문이 발현되는 수많은 문맥을 귀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비한정명사구가 나타낼 수 있는 한정성의 정도에 관한 예측과 한정성 효과에 따른 구문 선택의 경향성은 우리의 주된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王灿龙(2003)은 명사구의 식별가능성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용인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식별가능성은 한정성의 정도성의 개념으로 화용

적 개념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는 명사구의 범주와 함께 수식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정보량이 늘어나 지시체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높아지고, 식별가능성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200]

(49) a. 这时，一个人来了。
b. 这时，一个警察来了。
c. 这时，一个女警察来了。
d. 这时，一个身材高挑的女警察来了。
e. 这时，一个年轻漂亮，身材高挑的女警察来了。

王灿龙(2003)는 (49a)에서 (49e)로 내려갈수록 명사구의 긴 수식어에 의해 지시체의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有'의 첨가 없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曹秀玲(2005)은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 정도를 수식어와 관련지어 단순한 비한정명사구는 주어로 사용될 때 앞에 '有'를 첨가해야 하지만 다른 수식어가 있는 비한정명사구는 주어가 되기에 비교적 자유로워서 '有'가 없어도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연산자가 없는 핵영역(nuclear scope)에서 '有'를 첨가해서 존재연산자를 제공해 비한정명사구를 제약하거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비한정명사구에 지칭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제약을 상쇄시키는 표지로 '有'가 사용된다는 직관과 수식어를 통한 수용도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은 한정성 효과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과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정성 효과가 두 구문에 미치는 정도를 관측하여 두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명사구의 수식어에 따른 식별가능성과의 관계를 통해 수식어가 한정성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성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간

200) 王灿龙(2003)에서 인용.

명한 방법은 수식어에 대한 측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사구의 수식어에 따른 한정성의 정도성을 토대로 두 구문에서 선호하는 수식어의 양상을 살펴보고 두 구문에 미치는 한정성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두 구문에 나타난 수식어의 글자 수와 문장성분 수를 비교하여 각 구문에서 선호되는 수식어 길이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설정은 다음과 같다. 대등한 범위 내에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량과 동일한 명사구를 채택하였다. 우선 동일한 분석량을 설정하기 위해 BCC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200개와 有-구문 200개 총 400개의 예문을 추출하였다. 또한 상하위어와 같은 범주간의 제약과 유생성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명사구 중 유생명사 '孩子', 무생명사 '汽车'를 각각 선정하였다. 200개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추출에 대해서는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능한 정보적 지위에 나타나는 범주를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적 지위에서는 청자-구정보의 영역은 모두 제외되었다. 화용적 영역에서는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능한 조응성, 단발성, 비지시성, 수량성이 제외되었다.

먼저, 글자 수에 따른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펴보자. 글자 수는 범위에 따라 단(短), 중(中), 장(長)의 세 가지 층위로 나누었고, 단(短)은 1~5자, 중(中)은 6~10자, 장(長)은 11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수식어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단(短) 1~5 자

a. 一个(可/爱/的)孩子试图抱起展台上的大西瓜。

b. 一辆(华/贵/的)汽车 停到了餐馆的对面。

중(中) 6~10 자

c. 一个(名/叫/温/三/郎/的/十/二/岁/的)孩子被俘后受尽酷刑。

d. 一辆(拖/着/一/壶/壶/茶/油/的)汽车停在湖南省卫生厅宿舍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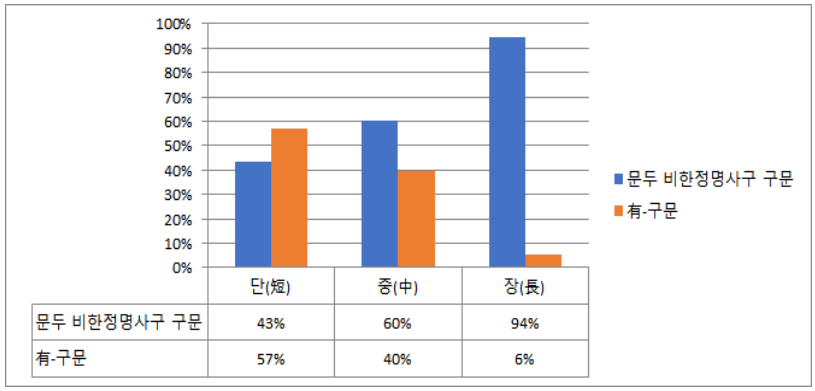
장(長) 11 자 이상

e. 一个(北/京/师/范/大/学/附/属/女/子/中/学/的)孩子拉着空军阿姨的手说：

f. 一辆(出/租/汽/车/的/司/机/坐/上/卡/塞/姆/总/理/的)汽车拖开被歹徒打死的司 机的尸体，他用最高的速度把卡塞姆总理载到医院。

수식어의 글자 수에 대한 원어민 화자의 직관적인 판단에서는 수식어의 길이가 장(長)의 영역으로 갈수록 有-구문과의 호환이 부자연스럽고 이와 상대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관적인 관측은 다음과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측을 통해 실제 자연언어에서 비한정명사구 수식어의 글자 수에 의해 선택되는 구문의 경향성을 관측하여 원어민 화자의 직관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수식어의 글자 수에 대한 양자 간의 경향성은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 단(短) | 중(中) | 장(長) |
|---|---|---|---|
|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 43% | 60% | 94% |
| 有-구문 | 57% | 40% | 6% |

그림 6-2: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수식어 글자 수 경향성 비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수식어의 길이가 장(長)(11자 이상)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有-구문은 수식어의 길이가 단(短)(1-5자)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에서는 글자 수가 길어질수록 有-구문보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두 구문의 선택에 글자 수의 길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정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은 약 89.69이고, 유의확률(p-value)은 2.52e-20로 0.05보다 작으므로($p< 0.05$) 글자 수에 따른 두 구문의 사용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사용은 글자 수와 상관성이 있으며 글자 수는 두 구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에 나타나는 수식어의 성분 수의 출현양상을 살펴보자. 수식어의 성분 수는 문장성분의 개수에 따라 $NP_1$, $NP_2$, $NP_3$, $NP_N$으로 구분하였다. 수식어의 성분 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관형어의 6개의 기본적인 문장성분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예시는 다음과 같다.

$NP_1$ : (성분 1 개) 주로 명사성 성분으로 직접 관형어가 됨

a. 一个/十七岁/的孩子在马埃斯特腊山区战斗中牺牲了

b. 一辆/人民军/的汽车歪到路边上了

$NP_2$ : (성분 2 개) 동보구조, 동목구조, 개사구 등

c. 一个/长得/胖呼呼的/孩子 就吵嚷着进来，要妈给她做挂面吃。

d. 一个 /失去了/妈妈的/孩子还吮着被炸死的妈妈的乳头

e. 一个/崔家/九岁的/孩子，被美国兵的吉普车压死了

f. 一个/来自/北方福莫萨省/的孩子 对记者说，“中国的自行车真棒”，他很喜欢骑自行 车。

$NP_3$ : (성분 3 개) 주어+술어+목적어, 부사어+술어+목적어 등

g. 一个/家/在/上海/的孩子顾国良患了哮喘病，需要易地到温暖的南方治疗。

h. 一个/刚/学会/走路/的孩子 跟随父母正等待着南下打工的列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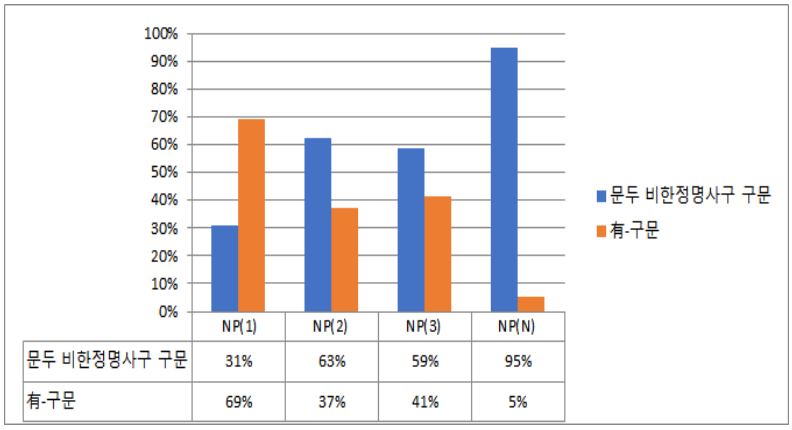
$NP_N$ : (성분 4 개 이상) 주로 이중 술어문이나 이중 수식어의 형식

j. 一个/不到/三尺/高/穿/黄背心/的孩子，撒开两只小腿追在车旁，跌倒了

就爬起来，又从小路追上来。

k. 一辆/停在/路边的/内装/50 公斤/烈性炸药/的汽车被引爆，

실제 자연언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有-구문에 사용되는 수식어의 성분 수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낸다.




| | NP(1) | NP(2) | NP(3) | NP(N) |
|---|---|---|---|---|
|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 31% | 63% | 59% | 95% |
| 有-구문 | 69% | 37% | 41% | 5% |

그림 6-3: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수식어 문장성분 수 경향성 비교

위의 표를 살펴보면 성분 수가 적은 $NP_1$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보다 有-구문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성분 수가 많은 $NP_N$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월등하게 우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분 수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NP_3$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有-구문의 사용빈도에 대한 뚜렷한 경향이 없다. 그러나 성분 수의 갯수가 극단적인 두 구간에서는 두 구문의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두 구문의 격차는 성분 수가 많은 $NP_N$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 성분 수가 많아질수록 有-구문보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선택하려는 화자의 강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두 구문의 선택에 성분 수의 길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정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은 약 58.63이고, 유의확률(p-value)은 6.62e-13로 0.05보다 작으므로($p< 0.05$) 성분 수에 따른 두

구문의 사용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에 따르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사용은 성분 수와 상관성이 있으며 성분 수는 두 구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

한편, 호환 가능한 두 구문이 화자에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성은 문법적인 특징이 아닌 언어 사용 측면에서의 화용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반하는 용례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극소수이긴 하지만 성분 수가 $NP_N$에 해당하는 수식어를 지닌 비한정명사구가 有-구문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50) 有一个 6 岁就跟我学画的孩子叫金今，今年 8 岁，在一首≪无题≫的诗里，她写道.....
여섯 살 때 내게 그림을 배운 金今이라는 한 아이가 올해 여덟 살이 되었다. ≪无题≫라는 시에서 그녀는.....라고 썼다.

有-구문에서 성분 수가 $NP_N$인 것은 정량 데이터에서 (50)의 예시처럼 단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50)의 예시를 살펴보면 비록 5개의 문장성분으로 성분의 수가 많은 편이지만, 수식어의 글자 수는 7개로 중(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식어의 글자 수 길이가 중(中)인 영역에서는 有-구문과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사용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구문 선택에 있어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50)에서는 비록 성분 수가 많지만 그리 길지 않은 글자 수에 의해 有-구문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51) a. 这个故事里套着一个故事，显得造局很新颖。一个受过“四人帮”毒害做了坏事亟想改过而又不敢承认的孩子，听到了他所偷到的小刀的原主、藏族儿童阿灼，因为掩护红军而被敌人杀害的故事，终于感动得承认了错误。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어 플롯이 매우 참신해

보인다. “4 인방”의 음해를 받아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고치려 해도 감히 인정하지 못하던 한 아이는 그가 훔친 칼의 원주인이자 티베트족 어린이인 아작, 홍군을 엄호했기 때문에 적군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b. 当天下午当地时间 3 时左右，一辆停放在耶路撒冷市市中心马哈内・耶胡达自由市场附近的汽车突然爆炸，两人当场被炸死。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 시경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 마하네 예후다 자유시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폭발해 2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51a)에서는 수식어의 글자 수가 21개로 장(長)에 속하고, 문장성분도 $NP_N$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51b)에서는 비록 문장성분이 $NP_2$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수식어의 글자 수가 23개로 장(長)에 속하며 매우 길다. 이러한 문맥에서는 有-구문보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사용이 선호된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자가 구문을 선택함에 있어 수식어의 길이와 성분 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수식어의 글자 수와 성분 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비교적 높은 수식어 길이와 성분 수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낮은 수식어 길이와 성분 수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 반면 有-구문은 비교적 낮은 수식어 길이와 성분 수를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보다 더 높은 한정성의 비한정명사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한정성 정도가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有-구문은 제약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有’가 약(弱)한정성을 강(强)한정성으로 끌어올리는 표지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고 본고의 청자-구정보와 같은 높은 한정성에서 有-구문과 호환이 불가하다는 관측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하여 한정성 효과를 통해 두 구문의 화용적 영역을 설정하자면 有-구문은 긴 수식어의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한정

성 효과에 민감하고,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 비해 한정성 효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반면 긴 글자 수와 성분 수에서 有-구문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글자 수와 성분 수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한정성 효과에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 6.5 소결

본장에서는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교대상으로서의 有-구문은 유(有)-존재문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의미상의 주어로 기능하는 형식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관점은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 구문의 초점 구조, 구문에서 발현되는 한정성 효과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영역과 나아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독립된 구문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적 지위를 통한 비교에서 수신자의 상태에 따라 두 구문의 호환 가능성 달라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청자-구정보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하였고, 有-구문의 호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은 有-구문과 비교하여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한 영역을 음영 표시한 것이다.

| 청자-구정보 | 청자-신정보 |
|---|---|

청자-신정보의 영역에서는 두 구문이 비교적 자유롭게 호환될 수 있었는데, 화용적 기능에 따른 차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자-신정보의 영역에서 담화-신정보의 단발성은 동일한 정보적 지위의 주제도입성과 달

리 有-구문으로 호환되기 어려웠다. 이는 화용적 기능에 의한 차이로 단발성은 단순 출현에 의한 사건 중심적 해석으로 인식되어 有-구문의 기능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점 구조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은 호환될 수 있지만 각자 우세한 초점 구조를 갖는다. 다음은 두 구문에서 초점 구조가 구현되는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6-3: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의 초점 구조 비교

| | 서술어초점 구조 | 논항초점 구조 | 문장초점 구조 |
|---|---|---|---|
|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 + | + | - |
| 유(有)구문 | - | - | + |

+우세 - 열세

논항초점 구조와 서술어초점 구조에서 두 구문이 호환 가능하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더 우세한 반면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有-구문이 우세하다. 초점 구조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전제가 많을수록 비교적 용인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정성 효과(DEs)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낮은 한정성 효과를 갖고, 有-구문은 높은 한정성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관측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정성 효과(DEs)

有-구문 >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관측을 위해 두 구문에 나타난 수식어의 길이와 성분 수를 비교하였다. 수식어의 길이가 실제로 원어민 화자가 구문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문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수식어에 따라 구문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통해 각 구문이 보유한 화용적 특징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有-구문에서는 긴 수식

어 경향이 낮게 나타나고 이와 상호 보완적으로 짧은 수식어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에서는 긴 수식어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짧은 수식어의 사용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有-구문이 상호적으로 우세한 화용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높은 한정성<br>(낮은 비한정성)<br>.<br>.<br>.<br>.<br>.<br>낮은 한정성<br>(높은 비한정성) | -청자-구정보<br>-높은 전제<br>-낮은 한정성 효과<br>.<br>.<br>.<br>-청자-신정보<br>-낮은 전제<br>-높은 한정성 효과 |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 우세<br>.<br>.<br>.<br>.<br>.<br>.<br>有-구문 우세 |

# 제7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출현하는 다양한 문맥의 분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비한정성에 대한 정의, 정보적 한정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중국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정보적 지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제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한정 표지의 문법화를 통해 현대중국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영역을 지시, 비지시, 수량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세 의미영역의 빈도는 '지시 > 비지시 > 수량'이다. 먼저 지시 의미영역이다. 지시 의미영역은 문맥적 한정성의 유무에 의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문맥적 한정성이 없는 유형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이다.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담화에 새로 등장하는 지시체로 비한정명사구의 새로운 지시체의 등장이라는 전형적인 화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화용적 기능에 의해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주제도입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지시체는 주제지속성을 지니며 담화에서 담화주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반면 단발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의한 지시체는 단순한 출현에 의해 단발적인 지시체로 인식된다.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유형은 조응성과 제외성이다. 조응성과 제외성은 추론의 방식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조응성은 담화 속에서 선행어와 추론어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체가 공지시적 관계를 갖는다. 제외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어에서 연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시체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비지시

의미영역이다. 비지시 의미영역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속성적 해석에 의해 총칭적인 지시체로 인식된다. 또한 비한정 표지의 심화된 문법화에 의해 一CL(一量)의 표지가 생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량 의미영역이다. 수량 의미영역에서는 一CL(一量)의 원형적 의미인 수량 의미가 뚜렷하게 발현되므로 一CL(一量)이 생략될 수 없다. 또한 계열적으로 다른 수량이 사용되어도 문맥에서 수용 가능하다. 이상으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세 가지 의미영역은 부정관사의 문법화에 의해 점진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공시적으로 의미·화용적 기능과 특징을 통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서 각 의미영역이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분석하여 각 의미영역의 점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언어 환경은 크게 술어 종류와 양태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술어 종류이다. 지시 의미는 장면층위 술어의 사용에서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문맥적 한정성이 있는 유형의 경우 개체층위 술어를 허용하였다. 반면 비지시 의미는 개체층위 술어에 의해 나타났다. 문법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량 의미는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에서 모두 발현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양태에 의한 구분이다. 지시 의미는 실현과 비실현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었다. 다만 비실현의 빈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비지시 의미는 비실현의 양태를 통해서만 발현되었다. 문법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량 의미는 실현과 비실현에서 모두 무리 없이 발현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의미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교차되는 영역에서 각 의미영역의 중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의적 해석을 통해 비록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공시적으로 각각의 의미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는 점진적인 문법화 과정에서 분화(divergence)되어진 의미영역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한편 언어 제약에 가장 민감한 지시 의미영역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살펴보고,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성과 화용적 층차를 평가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존현동사나 일반 자동사와 공기할 때 종종 비문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존현문, 有-구문과 같은 적형의 문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용된 문장

의 수용도는 자동사, 비지시적 목적어를 동반한 타동사와의 공기에서 낮아진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반면 지시적 해석의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할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문장 독립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한편,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문장 층위의 수용도는 시공간위치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장 내 수용도가 낮은 존현동사, 일반 자동사, 비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일지라도 시공간위치 요소의 도움을 통해 문장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약 조건이 비교적 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 층위와 달리 담화 층위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가능성이 문맥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맥적 한정성 유무에 따라 위치성이 구분될 수 있는데, 위치성은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치성이 낮은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존현동사, 자동사, 비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할 때 시공간위치 요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반면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할 때 시공간위치 요소가 의무적이지 않다는 점을 통해 목적어의 지시성이 문장 수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응성에서는 술어의 환경에 상관없이 시공간위치 요소가 의무적이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맥 층위에서 위치성은 시공간위치 요소와 함께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화용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의 정도와 주제 용인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문맥 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하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영역은 문맥적 해석에 의해 다양한 정보적 지위를 갖는다. 또한 비지시적 의미영역과 수량 의미영역도 담화 층위에서 정보적 지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지시적 의미영역에서 주제도입성과 단발성은 청자-신정보, 담화-신정보의 지위를 갖고 제외성은 청자-신정보, 담화-구정보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조응성은 청자-구정보, 담화-구정보의 지위를 갖고, 비지시성과 수량성은 청자-구정보, 담화-신정보의 지위를 갖는다. 청자-구정보의 지위에서 조응성은 높은 주어짐성에 의해 화용

적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 비지시성, 수량성 역시 일반적 지식에 의한 높은 한정성에 의해 청자-구정보의 위치에서 화용적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 비록 청자-신정보이지만 담화-구정보에 위치하는 제외성은 문맥의 추론적 주어짐성을 통해 주제로 인식되거나 기능할 수 있다. 정보적 지위에 의한 화용적 주제성은 주제표지의 부가, 휴지의 사용 등 형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연언어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에 의해 주제로 기능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사적 주제 구조는 청자-구정보의 위치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요컨대, 청자-구정보에서 담화-신정보의 비지시, 수량 의미영역에서 통사적 주제 구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자-구정보, 담화-구정보의 조응성이었다. 이처럼 정보적 지위에 따른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주제가 통사적 주제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는 점을 통해 화용적 주제성과 통사적 주제성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문적 관점에서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有-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담화에 나타나는 정보적 지위를 통해 담화 지시체의 층위를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두 구문의 호환 관계를 관측하였다.

청자-신정보의 영역에서는 두 구문이 비교적 자유롭게 호환될 수 있었지만, 청자-구정보의 영역에서는 호환될 수 없었다. 청자-구정보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을 통해 명제가 실현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보구조적 측면에서 각 구문에 실현되는 초점 구조를 통해 두 구문의 변이문(allosentence) 관계를 예측하였다. 두 구문에 나타나는 초점 구조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전제가 많을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논항초점 구조에서는 전제가 많아질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우세하다. 반면 전제가 없는 문장초점 구조에서는 有-구문이 우세하다. 서술어초점 구조에서는 주어짐성에 의해 무표적 주제로 해석될 수 있는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이 우세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로써 두 구문은 명제적 의미가 동일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초점 구조를 통해 문맥에서 화자에 의해 변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한정성 효과(DEs)가 두 구문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여 담화 지시체의 한정성 정도에 따른 화자의 선택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수식어의 성분 수와 글자 수의 관측을 통해 두 구문의 경향성을 살피고 한정성 효과를 관측하였다. 수식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有-구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와 상호보완적으로 수식어의 길이가 길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수식어의 길이가 길수록 有-구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낮았지만,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짧은 수식어에서도 비교적 높은 선택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성 효과에 느슨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은 有-구문보다 높은 한정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정보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담화 속에서 발현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특성을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남겨두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자연언어의 추출을 위해 코퍼스를 활용하였다. 담화 층위의 분석을 위해 문맥적 의미관계가 선명한 데이터를 추출하다 보니 선행데이터가 약 1,000개 정도이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이지만, 세부적인 범주의 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언어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었던 각 범주 간의 다양한 층차는 더욱 확장된 데이터를 통해 정교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표준중국어(Mandarin)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 내 방언들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나 지역적 개별성을 고찰한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보편성은 물론 지역적 변이를 통한 개별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점이자 방법론인 언어 사용과 화용론의 주요기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가정을 통한 언어 선택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인간 언어라는 큰 범주로 확대될 수 있고 나아가 언어가 인간의

인지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만나게 된다. 계속해서 인지언어학적 측면의 해석과 언어 선택에 대한 실험인지학의 방법론을 통해 더욱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參考文獻】


김영화(2015),『명사구 총론』, 한국문화사.

김혜진(2020),「현대중국어 ‘V 个 N’ 구문의 생성기제와 화용적 기능: 부정관사 ‘一个 (一 CL)’의 문법화를 토대로」,『중어중문학』79, 115-145.

김혜진(2023a),「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 연구: 一 CLN(一量名)을 중심으로」,『한중언어문화연구』(68), 33-74.

김혜진(2023b),「문두비한정명사구 구문과 유(有)-구문의 정보구조 비교연구」,『중어중문학』92, 157-186.

박다래(2012),「‘一個’의 양상 기능: ‘是+(一)個 NP’와 ‘一個 NP+양상 요소’ 구문을 중심으로」,『中國語文論叢』54, 55-86.

박다래(2014),「“一+(양사)+ NP” 주어의 한정성 고찰: 현저성과 확인가능성을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65, 129-65.

박정구(2001),「[유 (有)-NP-VP] 구문 연구」,『중국문학』35, 361-375.

박정구(2012),「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분류사의 발전 및 그와 한국어의 관련성」,『國語學』63, 391-412.

박정구(2016),「중국어 상 체계의 언어유형적 특성 고찰: 완정상으로의 문법화 경로에 놓인 변이를 중심으로」,『중국학보』77, 87-111.

박정구(2021),「한중 언어현상으로 본 정보구조의 몇 가지 논점」, 제 15 회 한국유형론학회 학술대회.

박정구(2022),「정보구조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부사 중의문의 특성: ‘就’, ‘才’, ‘都’, ‘也’가 쓰인 구문을 중심으로」,『중국학보』101, 55-85.

박진호(2015),「보조사의 역사적 연구」,『國語學』73, 375-435.

박철우(2007),「국어 분리 구성의 형식과 기능」,『언어학』(49), 211-233.

박철우(2019),「구문과 정보: 국어 문법에서의 정보구조의 위상 검토」,『國語學』89(89), 337-383.

백은희(2005a), 「“把”의 비한정 빈어 출현 현상에 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21, 31-51.

백은희(2005b), 「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17, 551-572.

백은희(2006), 「중국어의 비한정 주어 출현 현상에 대한 연구」, 『中國文學』 47, 197-209.

염재일(2007), 「두 특정성 표지 ‘어떤’과 ‘한’에 대한 고찰」, 『언어와 정보』 11(2), 23-47.

왕하(2020), 「현대중국어 비한정주어문의 단상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현경(2008),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國語學』 53, 65-86.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현대의미론의 이해』, 태학사.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옥주(2007), 「표준중국어 초점 실현에 관한 연구: 음향적 초점 표지와 초점 표지 是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23, 253-276.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國語學』 22, 397-424.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國語學』 64, 217-271.

전영철(2013a),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영철(2013b),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國語學』 68, 99-133.

정소영・이명숙(2010), 「“一+量词+NP”结構中“一”字省略及省略前後的句子差異考察」, 『중국어문학논집』 62, 157~172.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曹秀玲(2005), 「‘一(量)名’主语句的语义和语用分析」, 『汉语学报』 2, 81-87.

陈平(1987), 「释汉语中与名词性成分相关的四组概念」, 『中国语文』 2, 89-105.

陈平(2004), 「汉语双项名词句与主题一陈述结构」, 『中国语文』 6, 493-507.

崔鑫茹(2021), 「汉语 “一量名”无定 NP 主语句研究」, 『广州广播电视大学学报』,

68-72.

邓思颖(2003),「数量词主语的指称与情态」,『语法研究与探索』12, 292-305.

范继淹(1985),「无定 NP 主语句」,『中国语文』5, 321-328.

方梅(2019), 「从话语功能看所谓 “无定 NP 主语句”」, 『世界汉语教学』 33.2, 189-200.

冯春田・梁苑・杨淑敏(1995),『王力语言学词典』, 山东教育出版社.

付义琴(2013),「论汉语 “无定主语句” 的句式义」,『云南师范大学学报: 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11(5), 41-46.

孔凡莲(2017), 「从信息结构理论角度看汉语无定主语句的允准问题」, 『中国言语研究』73, 45-69.

雷桂林(2008),「不定名词主语文の场面描写机能」,『中国语学』137-156.

李劲荣(2016),「“无定居末” 与 “无定居首”——汉语中两种表存在的句式」,『世界汉语教学』30(2), 183-196.

李旭平(2020),「汉语 “有” 字句和存在命题」,『当代语言学』22(2), 182-198.

李櫻(2012), 『语用研究与华语教学』[박찬욱 역(2019), 『중국어 화용론의 이해』, 학고방].

刘安春(2003),「‘一个’ 的用法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博士学位论文.

刘丹青(2002),「汉语类指成分的语义属性和句法属性」,『中国语文』(5), 411-422.

刘丹青(2003),『语序类型学与介词理论』, 商务印书馆.

刘丹青(2016),「汉语中的非主题主语」,『中国语文』(3), 259-275.

刘琪(2014), 「句法与语篇: 汉语叙事中实体首现的规律与无定构式的成因分析」, 华中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刘琼竹(1999), 「数量名主语句的语义语用考察」, 『湘潭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3), 55-59.

刘琼竹(2000),「数量名主语句的句法分析」,『汉语学习』(5), 36-40.

陆烁・潘海华(2009),「汉语无定主语的语义允准分析」,『中国语文』6, 528-57.

吕叔湘(2002),「個字的应用範围, 附论单位词前一字的脱落」,『吕叔湘全集 第二卷』, 辽宁教育出版社, 139-168.

梅广(2018), 『上古汉语语法纲要』, 上海教育出版社[박정구・백은희・조은정 역(2020), 고대중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内田 庆市(1993),「汉语的‘无定名词主语句’—另外一种‘存现句’」,『日本近、现代汉语研究论文选』351-361.

宋文辉(2018),『主语和主题』, 学林出版社.

杉村博文(2002),「論現代漢語“把” 字句“把” 的賓語帯量詞“个”」,『世界漢語教学(世界漢語教学学会)(北京)』, 18-27.

单宝顺(2016),「从信息量原则看无定主题的入句限制」,『浙江理工大学学报: 社会科学版』36.3, 266-272.

沈家煊(1995),「“有界” 与 “无界”」,『中国语文』(5), 367-380.

石毓智(2002),「论汉语的结构意义和词汇标记之关系—有定和无定范畴对汉语句法结构的影响」,『当代语言学』4, 25-37.

唐翠菊(2005),「从及物性角度看汉语无定主语句」,『语言教学与研究』3, 9-16.

唐彧(2010),「“数 (量) 名” 无定主语句的使用特点分析」,『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4-206.

王灿龙(2003),「制约无定主语句使用的若干因素」,『语法研究和探索』 12, 224-239.

王红旗(2014),「汉语主语, 宾语的有定与无定」,『语言学论丛』(2), 73-95.

王羽熙(2017),「类指 “一量名” 结构的人际视角考察」,『汉语学报』(2), 82-88.

温锁林(2001), 『现代汉语语用平面研究』, 北京图书馆出版社[박정구 역(2005),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魏红・储泽祥(2007), 「‘有定居后’与现实性的无定 NP 主语句」, 『世界汉语教学』3, 38-51.

吴为善(2011),『认知语言学与汉语研究』, 复旦大学出版社.

吴中伟(2004),『现代汉语句子的主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熊仲儒(2008),「汉语中无定主语的允准条件」,『安徽师范大学学报: 人文社会科学版』36(5), 541-548.

徐烈炯・刘丹青(2007),『主题的结构与功能』, 上海教育出版社.

讃井　唯允(1993),「语用上的具体化与一般化」,『日本近・现代汉语研究论文选』363-388.

张伯江(1997),「汉语名词怎样表现无指成分」,『中国语文编辑部. 庆祝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建所』45, 192-199.

张伯江(2009),『从施受关系到句式语义』, 商务印书馆.

张伯江・方梅(1996),『汉语功能语法研究』, 江西教育出版社.

张新华(2007),「与无定名词主语句相关的理论问题」,『北京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44(6), 103-111.

周思佳・陈振宇(2013),「"一量名" 不定指名词主语句允准条件计量研究」,『语言科学』12(4), 371-382.

周士宏・申莉(2016),「汉语中的 "无定 NP 主语句" 及相关的 "有" 字呈现句」,『励耘语言学刊』(3), 105-120.

朱德熙(1981/2007),『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Abbott, B. (2005),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in Horn, L. and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22-149.

Aikhenvald, A. Y. (2000), C*lassifiers: A typology of noun categorization de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Allan, K. (1977), Classifiers, *Language* 53, 285-311.

Ariel, M. (1988), Referring and Accessibility, *Journal of Linguistics* 24(1), 65-87.

Beghelli, F. (1998), Mood and the Interpretation of Indefinites, *The Linguistic Review* 15, 277-300.

Birner, B. J. (2006), Inferential Relation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Drawing the boundaries of meaning: Neo-Gricean studies in pragmatics and semantics in honor of Laurence R. Horn*, 31-51.

Carlson, G. N.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arrier-Duncan, J. (1985), Linking of Thematic Roles in Derivational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1-34.

Chafe, W. 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and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s*, Academic Press, New York, 25-55.

Chafe, W. L. (1987), Cognitive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in Tomlin, Russell S. (ed.),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1-51.

Chao, Y. R.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en, P. (2003), Indefinite Determiner Introducing Definite Referent: Special Use of 'Yi 'One' + Classifier' in Chinese, *Lingua* 113, 1169-1184.

Chen, P. (2004), Identifiability and Definiteness in Chinese, *Linguistics* 42, 1129-1184.

Chen, P. (2014), Referentiality and Definiteness in Chine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hinese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404-413.

Cheng, L. L. S., & Sybesma, R. (1999), Bare and Not-so-bare Nouns and the Structure of NP, *Linguistic Inquiry* 30(4), 509-542.

Cheng, L. L. S., & Sybesma, R. (2005), Classifiers in Four Varieties of Chinese, *Handbook of Comparative Syntax*, 259-292.

Chierchia, G. (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nd Inherent Generics, in G. N. Carlson & F.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6-223.

Dobrovie-Sorin, C., & Beyssade, C. (2012), *Redefining Indefinite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Donnellan, K. S.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75(3), 281-304.

Downing, P. A. (1984), *Japanese Numeral Classifiers: a syntactic, semantic, and*

*functional profil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baugh, M. S. (1986), Taking stock: The development of Chinese Noun Classifiers Historically and in Young Children, *Noun classes and categorization*, 399-436.

Erteschik-Shir, N. (1997), *The Dynamics of Focus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dor, J. D., & Sag, I. A. (1982), Referential and Quantificational Indefini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355-398.

Givón, T. (1981), On the Development of the Numeral 'One' as an Indefinite marker, *Folia Linguistica historica* 15, 35-54.

Givón, T. (1995), *Functionalism and Grammar*,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ume II, John Benjamins.

Givón, T. (2012), Toward a Diachronic Typology of Relative Clauses, *Relative clauses in languages of the Americas: A typological overview*, 3-27.

Givón, T. (2015), *The Diachrony of Gramma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Gundel, J. K.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17(1), 209-239.

Gundel, J. K., Hedberg, N., & Zacharski, R.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274-307.

Gundel, J. K., & Fretheim, T. (2004). Topic and Focus, in Horn, Laurence R. & Ward, Gergory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175−196.

Hawkins, J. A. (1991), On (In)definite articles: implicatures and (un) grammaticality prediction1, *Journal of linguistics* 27(2), 405-442.

Hawkins, J. A. (1978/2015),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Routledge.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Heine, B. (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Hopper, P. J. (1986), Some Discourse Functions of Classifiers in Malay, *Noun classes and categorization* 7, 309-325.

Hopper, P. J., & Thompson, S. 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251-299.

Hopper, P. J., & Thompson, S. A. (1984), The Discourse Basis for Lexical Categories in Universal Grammar, *Language* 60(4), 703-752.

Hopper, P. J., and E. C.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C. T. J. (1987), Existential Sentences in Chinese and (in)definiteness, *The representation of (in) definiteness*, 226-253.

Keenan, E. L.(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 Li & S. A. Thompson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303-333.

Kratzer, A. (1995), Individual-Level and Stage-Level Predicates, in G. N. Carlson & F.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University Press, 125-175.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 C. N., & Thompson, S. A.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Li, C. (ed.)*, 457-489.

Li, C. N., & Thompson, S. A.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 of California Press[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역(2013),『표준중국어문법』, 한울].

Li, W. (2000), The Pragmatic Function of Numeral-classifier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32(8), 1113-1133.

Li, Y. H. A. (1996), Definite and Indefinite Existential Constructions,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26(1/2), 175-191.

Li, Y. H. A. (1998), Argument Determiner Phrases and Number Phrases, *Linguistic Inquiry* 29(4), 693-702.

Loock, R. (2013), Extending further and Refining Prince's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A case study of non-restrictive, relevance-oriented structures, *Pragmatics*, Quarterly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Pragmatics Association (IPrA), 23(1), 69-91.

Lyons, J. (1977), *Semantics 1*, Cambridge University Press[강범모 역(2011), 『의미론 1: 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한국문화사].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강범모 역(2013), 『의미론 2: 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한국문화사].

Milsark, G. (2003), Toward an Explanation of Certain Peculiarities of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English, *Semantics*. Critical concepts in linguis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Critical concepts in linguistics), 40-65.

Prince, E. F.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Cole, Peter (ed.), *Radical Pragmatics*, Academic Press, 223-255.

Prince, E. F. (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in Mann, W. and S. Thompson (ed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Linguistic Analyses of a Fund-raising Text*, John Benjamins, 295-325.

Prince, E. F. (1997), On the Function of Left-Dislocation in English Discourse, in Kamio, Akio (ed.), *Directions in Functional Linguistics*, John Benjamins, 117-144.

Sasse, H. J. (198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511-580.

Shi, D. (1989), Topic Chain as a Syntactic Category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7(2), 223-262.

Stockwell, R. P., Schacter, P., & Partee, B. H. (1973),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s of English*, Holt, Rinehart and Winston.

Strawson, P. F. (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 Values, *Theoria* 30(2), 96-118. (Reprinted in Steinberg, D. and L. Jakobovits (eds.)

Sun, C. f. (1988), The discourse Function of Numeral Classifier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6(2), 298-322.

Tang, S. W. (1998), Parameterization of Featur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ng, S. H. (1975), *A Semantic Study of Transitivity Relations i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Linguistics 8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Teng, S. H. (1995), [김혜경・박용진 역(2014),『현대중국어 문법연구: 기능문법과 격문법의 관점으로』, 한국문화사].

Traugott, E. C., & Trousdale, G.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University Press.[박원기・강병규 역(2018),『구문화와 구문변화』, 학고방].

Tsai, W. T. D. (2001), On Subject Specificity and Theory of Syntax-semantics Interfac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0(2), 129-168.

Tsao, F. F. (1977), *A Functional Study of Topic in Chinese: The first step toward discourse analy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Van Dijk, T. A. (1977), Sentence Topic and Discourse Topic, *Papers in Slavic philology* 1, 49-61.

Wallace, S. (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1, 201-23.

Wang, W. S., & Sun, C. (2015), *The Oxford handbook of Chinese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Ward, G. L., & Prince, E. F. (1991), On the Topicalization of Indefinite NPs,

*Journal of Pragmatics* 16(2), 167-177.

Whaley, L. J. (1996),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김기혁 역 (2015), 언어유형론, 소통].

Wright, S. E., & Givón, T. (1987), The Pragmatics of Indefinite Reference: Quantified Text-based Studies, *Studies in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Found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1(1), 1-33.

Wu, G. (1998),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Peking University Press.

Xu, Liejiong (1997), Limitations on Subjecthood of Numerically Quantified Noun Phrases: A pragmatic approach. The Referential Properties of Chinese Noun Phrases. Pari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25-44.

Yao, S. (2010), Stage/individual-level Predicates, Topics and Indefinite Subjects, in *Proceedings of the 24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573-582.

Zubin, D. A., & Shimojo, M. (1993), How "General" are General Classifi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 and Tsu in Japanese, *in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 490-502.

# 【中文摘要】

## 前置无定名词短语的信息结构研究

国立首尔大学 中文系
金諿真

本研究是关于汉语前置无定名词短语的信息结构的研究。本研究的目的是通过分析前置无定名词短语在不同语境中的出现情况，探讨其信息特征。本研究的最终目的在于阐明有定性(definiteness)概念和语言标志不一致的问题。具体的分析内容和研究结果总结如下：

首先，本文从语言类型学的角度，通过无定冠词(indefinite article)的语法化，区分了现代汉语前置无定名词短语的语义领域。根据其语义-语用功能和特点，可以将其划分为有指意义域、无指意义域和数量意义域。前置无定名词短语的这三个意义域在无定冠词的语法化方面呈现渐进趋势。然而，通过明确的语义-语用功能和特点，可以确认这三个意义域在表达上是明显分化的。

其次，本文分析了现代汉语前置无定名词短语中可以区分各意义域的语言环境。在语言环境交叉的区域，可以发现各意义域的歧义(ambiguity)。通过多义性解释，可以明确有指、无指和数量三个意义域在语义-语用上是明显区分的，但在渐进的语法化过程中，这些意义域仍然呈现分化。此外，通过对最具有语用限制的有指义域进行分析，研究了前置无定名词短语实现的条件，并以此为基础探讨其信息约束。

第三，本文通过考察前置无定名词短语的信息地位和主题性，衡量了其不同有定程度的差异。根据设定的分析框架，有指义域的前置无定名词短语在语境解

释下具有多样的信息地位。同时，无指意义域和数量意义域也可以在话语层面设定信息地位。此外，通过考察语用主题性和句法主题结构，可以评估前置无定名词短语的主题性。

最后，本文从句法的角度，通过与具有相同陈述意义的有-构式的对比，研究了前置无定名词短语构式的独特语用特征。主要从三个角度进行了分析：首先，通过信息地位在话语中的表现，区分了话语指示体的层次，并观察了两个结构的协调关系。其次，从信息结构的角度，通过各结构实现的焦点结构，预测了两个构式的变体句(allosentence)关系。最后，通过观察有定效应对两个构式产生的影响，观察了话语指示体的有定程度对话者选择的趋势。

本研究的目的是通过分析前置无定名词短语在不同语境中的出现情况，定义前置无定名词短语的信息特征。通过对无定性(indefiniteness)的定义和信息有定性的考察，可以观察到现代汉语前置无定名词短语在不同信息地位上的多样性。这也说明了前置无定名词短语具有有定程度的特点。通过以上的讨论和分析，可以明确现代汉语前置无定名词短语在有定性和主题性语用功能上均能够充分发挥其特点。

关键词 ： 前置无定名词短语，无定，有定，有指，无指，无定冠词，语法化，主题，焦点结构，前置无定名词短语构式，有-构式，存现构式

学　号 ： 2014-30936